

Reading the Bible with Literacy

문해력으로 인한 성경 읽는 이야기

김재욱 지음

‘아’ 다르고 ‘어’ 다른 성경 이야기

변질된 현대 역본과 순수한 본문에서 번역한 성경의 간극,
킹제임스 흠정역과 개역성경의 차이, 바르게 번역한 성경으로 본 중요한 교리,
그리고 표준역 이슈까지... 그리스도인의 문해력을 길러 줄 글모음



도서출판 '그리스도예수안에'는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을 출간하는 성경 전문 출판사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인도를 힘입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복음과 진리가 훼손되지 않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보존되고 전파되는 일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The King James Bible publishing company, 'In Christ Jesus,' makes all efforts through the grace of God and the leading of the Holy Ghost to preserve and spread the only gospel and truth of the Lord Jesus Christ as revealed in the New Testament without any defect.



문해력으로 읽는 성경

지은이 / 김재욱

Copyright ©

2024년 6월 1일 발행

발행처 / 그리스도예수안에

발행인 / 정동수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방산로 83


웹사이트: www.KeepBible.com

전자우편: webmaster@KeepBible.com

비매품(www.KeepBible.com에서 무료 다운로드)

이 책의 내용 일부를 인용하는 것 이상으로 무단으로 인쇄해 판매하거나 온라인에 업로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일러두기

- 붉은색 고딕체 성경 발췌문은 모두 그리스도예수안애가 발간한 킹제임스 흠정역(마제스티 에디션)과 영어 킹제임스 성경(KJB 1611)입니다.
- 파란색 고딕체 성경 본문은 한글 개역성경과 기타 모든 성경의 발췌문이며 역본 표기를 했습니다.
- ‘개역’이라고만 표기한 것은 개역개정이며 2012년 이전 판일 경우에만 ‘개역한글’ 등으로 표기했습니다. 따로 역본 표기가 없는 영어 현대 역본 단어들은 신국제역(NIV)입니다.
-  **바로가기** 표시가 있는 부분은 터치나 클릭하시면 해당 링크로 바로 연결됩니다.

Contents

| | |
|-------|----|
| 추천사 | 6 |
| 발간사 | 12 |
| 머리말 | 14 |
| 저자 소개 | 18 |

제1장 ● 성경의 이해 ➡

| | |
|---------------------------------|----|
| 성경 문해력 테스트 | 20 |
| 교훈이 아닌 ‘교리(doctrine)’를 가르치신 예수님 | 29 |
| ‘고야’와 ‘과부’는 왜 성경에 세트로 나올까? | 37 |
| 이방인들의 신(神)도 신인가? (렘 2:11) | 42 |
| 성경 66권과 이사야서 66장 | 47 |
| 잠언에서 자식을 ‘채찍’으로 때리라 했다? | 52 |
| 하나님이 조물주(造物主)인가? | 58 |
| 언제나 옳으신 하나님 편에 서라! | 61 |

제2장 ● 성경과 단어 ➡

| | |
|---|-----|
|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합 3:2)… 과연 적절한 번역일까? | 70 |
| 콩팥인가, 몸인가? (사 11:5) | 76 |
| 도피성(逃避城)과 도피 도시(逃避 都市) | 79 |
| ‘폴무’와 ‘용광로’ | 86 |
| ‘보좌’와 ‘왕좌’의 차이 | 93 |
| ‘경배하다’를 ‘절하다’로 바꾸는 성경 | 99 |
| 다윗이 골리앗에게 던진 것은 ‘물매’나 ‘물맷돌’이 아니다 | 108 |
| ‘열두 영’과 ‘열두 군단’, ‘군대 귀신’과 ‘군단 마귀’ | 113 |
| 악귀, 사신, 산 영, 생령… 왜 성경에 이런 단어가?? | 118 |
| 모기에는 긴장하고 vs.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마 23:24) | 127 |

| | |
|-------------------------------------|-----|
| “그게 그 나라였어?” 성경 속 나라 이름, 개역과 흠정역 비교 | 133 |
| 오 리, 십 리, 큐빗, 갈대, 스타디온… | |
| 성경 속 ‘길이’를 재는 단위를 미터로 환산하면? | 140 |
| 생육하다 vs. 다산하다 | 148 |
| 이미지로 보는 ‘개역성경 vs. 흠정역’ 단어 비교 | 155 |

제3장 ● 성경과 번역 ➡

| | |
|--|-----|
| 성도는 그 나라에서 왕인가, 백성인가?... 성경 번역의 X맨들 | 166 |
| New, Standard, Revised... 성경 번역본 명칭에 담긴 의미 | 177 |
| ‘아’ 다르고 ‘어’ 다른 성경 번역 | 184 |
| 고지식한 번역 vs. 유연한 번역 | 188 |
| 감람나무, 감람 열매, 감람산... ‘올리브’는 왜 ‘감람’이 되었나? | 193 |
| 초막절과 장막절... 성경 번역 단어의 빈도 수 문제에 관하여 | 202 |
| 같은 성경인데 정반대의 번역이 나오는 이유 (고후 7:12) | 212 |
| 영화 자막과 성경 번역문의 뉘앙스 | 219 |
| 세상을 바꾼 왕의 번역자들 | 226 |
| 성경의 ‘워딩(wording)’과 언어 전쟁 | 235 |
| NIV 성경, 사탄경, 게이 섹스 안내서를 한 회사에서 출간하는 이유 | 242 |

제4장 ● 킹제임스 흠정역 변호 ➡

| | |
|-----------------------------------|-----|
| 성경의 이해를 돕는 킹제임스 흠정역의 친절한 표현들 | 248 |
|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 신자는 원어 성경을 무시할까? | 255 |
| 각종 시위에 사용되는 가이 포크스의 가면에 관한 미화된 오해 | 265 |
| 시편을 킹제임스 흠정역으로 읽으면 좋은 점 | 272 |
| ‘개역성경’ 아니고 ‘개역성경’입니다만. | 276 |

[부록] 표준역 이슈 ➡

| | |
|---------------------------|-----|
| 새로운 한국어판 킹제임스 성경의 딜레마 | 282 |
| 하나님께 2인칭 ‘당신’을 사용할 수 있는가? | 295 |

성경 이슈를 자세히, 은혜롭게 다룬 책

지난 400년 동안 기독교계에서는 올바른 성경 해석과 적용이 꾸준히 시도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19세기말과 20세기 초에는 성경의 총체적 축자 영감에 대해 자유주의자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부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에는 성령님의 '조명'에 관한 무지와 오해가 신정통주의라는 신학을 만들고 은사주의를 탄생시켰습니다. 이것은 계시와 조명을 혼동한 것입니다.

1970년대에 와서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KJV)에 대한 도전으로 NIV, NKJV 등이 나오자 보수적 교회들은 주춤했습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 보수적 교회들은 성경의 '섭리적 보존'이라는 오래된 교리를 다시 강조하기 시작했으나 어떤 경우에는 이런 것이 극단으로 치달으며 KJV가 영감으로 기록되었다는 '이중 영감설' 같은 잘못된 주장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성경관이 잘못되니 엄청난 오류들이 기독교계에 혼란을 가져왔고 가짜가 진짜를 위협하고 진짜가 가짜로 둔갑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생길 때 그리스도인이라면 헌법 중의 최고 헌법이요, 최종 권위인 말씀에서 권위와 답변을 찾아야 합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우리의 고정 관념, 편견, 선입견이 하나님의 말씀에 스캔되어 교정되기를 원합니다.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무지, 미확인, 태만, 허수아비 치기 등에 빠져서 성경이 이런 문제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는지를 보지 못

하며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성경의 점진적인 계시, 역사적-문법적 해석, 상식적이며 정상적인 해석, 문화와 지리적 배경의 이해 등을 무시하고 자신의 신학 틀에 성경을 맞추는 주입식 해석(eisogesis)을 하곤 합니다. 주해(exegesis), 강해를 하지 않고 성령님, 기록자와 수신자의 의도와 상황을 배제하기도 하며 수사법이나 성경 자체의 해석도 무시합니다. 신대원에서 비평학을 조금 배웠다고 사본학에 진화론적 사고를 적용하기도 합니다.

추천서를 쓰는 본인도 “모든 역본은 완전하지 않으며 따라서 영어 KJV에도 오류가 적지 않다.”고 배웠습니다. 학교 졸업 후에 면밀히 하나씩 정밀 조사하면서, 흔히 알려진 KJV의 오류들이 실제로 전혀 오류가 아님을 발견하고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자료들과 변증이 영문으로는 10년 이상 공부해야 할 만큼의 분량으로 이미 충분히 나와 있고 상당 부분이 KeepBible.com에 한글로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KJV를 공격하고 폄하하는 분들의 대다수는 이런 자료들을 살펴보지도 않고 자신의 무지와 태만, 교만만 자랑하고 있습니다. 참 딱하고 안타깝습니다. 누구든지 어떤 사람의 주장을 논박하려면 그 사람의 주장을 면밀히 조사하고 확인해야 하는데, 저명한 신학자들도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종종 보곤 합니다.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또한 이의를 제기할 때도 교양과 품격을 유지해야 하는데, 혈기와 감정, 육신적인 언어, 폭언 등을 일삼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김재욱 형제님은 이 책에서 KJV 이슈들을 자세히 은혜롭게, 정확하게 밝히고 있어서 기꺼이 이 책을 추천합니다.

- 이황로(ThM, Dmin, DD)

미국 West Coast Baptist College 신학 교수

성경 문해력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주제들로 가득한 책

요즘 문해력이라는 말이 세상 사람들의 화두입니다. EBS에서는 ‘문해력 유치원’이라는 프로그램까지 만들어서 방송할 정도로 문해력에 대한 관심도가 많습니다. 문해력 유치원 방송에서는 문해력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문해력이란 단순히 글이나 문자를 이해하는 능력을 넘어서 이를 통해 개인적이거나 사회적인 과제를 해결하는 능력이다.”

문해력이란 읽는 글의 단어들과 단어들로 구성된 문장들의 의미까지 아는 능력을 말합니다. ‘성경 문해력’이라는 말을 들어 보셨습니까? 성경의 문장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 형제/자매님은 어느 정도의 성경 문해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목회를 하다 보면 ‘성경 문해력’이 떨어져서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목사의 설교를 알아듣기 힘들다고 지속적으로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교회 안에 문해력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시간 면에서 보자면 너희가 가르치는 자들이 되어야만 하는데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들의 첫째 기초 원리들을 다시 너희에게 가르쳐 줄 필요가 있으므로 너희가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젓을 필요로 하는 자들이 되었도다. 이는 젓을 사용하는 자마다 갓난아이이므로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들에게 속하니 그들은 자기 감각들을 사용하여 단련받게 함으로써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히 5:12~14)

구원 받은 뒤 시간 면에서 보자면 성숙한 어른이 되어 뛰어날 정도는 아니라도 어느 정도 수준의 문해력은 있어야 하는데도 아이들처럼 단단한 말씀의 문장도 이해하지 못한다면 무언가 잘못이 있음을 인지하고 고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형제님/자매님의 '성경 문해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성경을 읽지도 않고 연구하지도 않는 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의 예수님이 보내 주신 편지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 사랑의 편지를 거들떠보지도 않는다면 사랑하는 분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이 아닌가요? 진정한 사랑의 관계란 나에게 보내 준 그 사랑의 편지를 읽고 또 읽고 모르면 연구하고 물어보고 해서라도 나에게 대한 그분의 뜻을 알려고 노력하는 관계일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문해력 수준이 뛰어나다고 할지라도 원본 편지의 번역이 잘 못되어 있다면 이해가 잘못될 수 있습니다. 성경 번역이 그렇습니다. 잘못 번역된 역본 - 대개 잘못 기록된 사본들에서 나옴 - 을 가지고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많습니다. 저도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을 읽기 전에는 개역성경으로 마태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개역성경이 왕국(kingdom)을 천국이나 나라로 번역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번역을 가지고 하늘의 왕국이나 하나님 왕국의 개념을 이해하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올바른 번역된 흠정역 성경을 가지고 성경 문해력을 발휘하여 마태복음을 읽을 때 그것의 의미를 제대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김재욱 형제님의 글은 통쾌할 정도로 성경 문해력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목차만 봐도 성경 문해력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주제들이 가득합니다. 이 책은 문해력 유치원 수준을 넘어 성도들이 단어나 문장의 깊은 뜻을 이해하여 단단한 음식을 소화시킬 수 있는 단계까지 가는 길을 보여 줄 것입니다.

- 강동성서침례교회 최육열 목사

신앙의 열심에도 비성경적인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김재욱 작가와의 처음 만남의 시간은 사반세기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줄저 <성경으로 세상보기> 표지 디자인을 부탁하면서였다. 그 후 그의 빼어난 글 솜씨를 알고 나서 필자가 편집인을 맡고 있는 월간 <건강과 생명>에 기고를 부탁하게 되었다.

매월 연재되는 그의 칼럼을 통해 많은 독자들이 성경적 가치관을 더욱 확실히 가지게 되었다는 피드백을 들으며 하나님께서 김 작가의 글쓰기 달란트를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매월 체험하고 있다.

주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또 나름대로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신앙의 열정을 가진 이들도 적지 않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성경 말씀 자체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또 잘못 번역된 성경으로 인해서 비성경적인 믿음을 갖고 잘못된 실행을 하게 되는 이들이 꽤 많은 것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김 작가는 이 책의 머리말에서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을 보게 된 뒤로는 몰랐던 많은 것들을 알게 되었고, 성경을 바꾼 것만으로도 중요한 사실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라며 자신이 왜 이 책을 펴내게 되었는지 그 중요한 이유를 잘 서술하고 있다.

그렇다. 우리나라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개역성경 및 개역개정성경을 통해 구원을 받았고 나쁜 신앙생활을 잘 해올 수 있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과 비교를 해보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 없는 구절들과 표현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이 시대의 중요한 화두인 문해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확하게 기록된 글을 읽어야 한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라면 더더욱 하나님께서 일점일획도 틀림없이 완전하게 보존해 주신 말씀을 통해 문해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수 있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더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책이 이 땅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훌륭한 길잡이가 되길 진심으로 기원한다.

- 의학박사 차 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및 응급의학과 전문의
인천국제침례교회 목사

성경기록에 대한 우리의 이해력을 확실히 넓혀 줄 책

구약 시대에 유다 백성 중 일부가 바빌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뒤 서기관 에스라는 모세의 율법책을 백성들에게 낭독하였고 여러 명의 레위 사람들은 백성에게 율법을 이해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렇게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책의 말씀들을 명료하게 낭독하고 의미를 알려 주어 백성이 그 낭독한 것을 이해하게 하니라. (느 8:8)

예수님도 부활 뒤에 의심하는 제자들의 이해력을 넓혀 주셔서 그들이 성경기록들을 이해하게 하셨습니다.

[그분께서] 그때에 그들의 이해력을 넓혀 주사 그들이 성경기록들을 이해하게 하시며 (눅24:45)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매일 성경을 읽어도, 매주 설교를 여러 편 듣고 경건 서적을 읽어도 문해력을 가지고 이해하지 않으면 그것은 죽은 말씀이

됩니다. 문해력이란 글을 이해하는 능력을 말하는데 기존 성경들은 기본 문법도 맞지 않고 오역된 곳들이 심히 많아 이것들로 성경 문해력을 키우는 것은 심히 어렵습니다.

이 책에 명료하게 기록된 김재욱 형제님의 글들은 성경기록에 대한 우리의 이해력을 확실히 넓혀 줄 것입니다.

이로써 에티오피아 내시처럼, “누가 나를 지도해 주지 않으면 어찌 내가 이해할 수 있느냐?” 하고 말하는 분들이 이 책을 읽은 뒤 성경을 잘 이해하고 바르게 성화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 정동수 목사
인하대학교 기계공학과 교수
사랑침례교회 목사

성경 해석의 황금률

어떤 성경 구절의 평범한 의미가 상식 수준의 의미일 때는 더 이상 다른 의미를 찾으려 하지 말라. 다시 말해 그 구절의 앞뒤 문맥이나 관련 구절이나 근본 진리 등이 분명하게 다른 의미를 주지 않는다면 그 구절의 모든 단어를 평범하게 문자적 의미로 받아들여야 한다.

하나님께서서는 자신의 말씀을 계시하시면서 독자가 혼동에 빠지는 것을 원치 아니하셨으며 자신의 자녀들이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하신다.

- 작자 미상

바른 성경이 가르쳐 준 것들

오랜만에 그리스도예수안애를 통해 책을 출간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을 보게 된 뒤로는 몰랐던 많은 것들을 알게 되었고, 성경을 바꾼 것만으로도 중요한 사실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크리스천에게 참으로 귀한 교리와 성경 이슈 등을 작은 달란트로 풀어내기 시작한 것이 계기가 되어 꾸준히 써 온 글이 많이 모였는데, 이번에 킹제임스 흠정역과 개역성경의 차이, 변개된 현대 역본과 순수한 본문에서 각각 번역한 성경의 차이, 킹제임스 성경의 우수성, 그리고 바르게 번역한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는 중요한 교리와 논리들을 주제별로 담았습니다. 부록으로 최근 이슈가 된 표준역에 관한 생각도 간단히 다뤘습니다.

성경은 다 같은 것이 아닙니다. 한 단어, 아니 토씨 하나만 달라져도 그 의미가 바뀌는 책입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도 작은 뉘앙스의 차이로 오해가 생기기도 하도, 천 냥 빚을 갚기도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창조하고 사람의 영을 살리기도 죽이기도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두루뭉술하게 기록되었다는 것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주장입니다. 그야말로 아 다르고 어 다른 것이 언어이고 문자이며, 작은 차이로 엄청난 나비 효과를 불러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구 하나로 이단이 생겨날 수 있고, 그릇된 은사주의 교파가 탄생합니다. 평생 천국을 오해할 수도 있고 자기 구원도 오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데도 성경을 띄엄띄엄 본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최근 한국에서는 각 분야의 문해력(Literacy)에 대한 관심이 큼니다. 문해력이란 바로 글을 읽고 쓰거나 정보를 해독하는 능력을 말하는 것인데요. 각종 스마트 기기의 영향으로 글을 읽는 것을 점점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어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성경에도 당연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해할 때도 반드시 요구되는 것이 문해력이므로 바르게 읽고 해석하며 제대로 이해하자는 뜻을 강조하기 위해 책 제목에 담았습니다. 성경은 저처럼 대단한 학식이나 영어, 원어 등을 전문적으로 몰라도 주의깊게 보면 얼마든지 잘 이해할 수 있다는 의미인데, 그러려면 반드시 제대로, 바르게, 온전하게 번역한 좋은 성경이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사실 Literacy라는 단어는 문맹인가 아닌가를 구분하는 말이라고 하는데, 한국에서는 디지털 리터러시, 미디어 리터러시 등의 용어가 두루 통용되고 있어서 제목에 사용했습니다. 성경을 보는 통찰력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본서의 내용은 제가 바르게 번역한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을 통해 배운 것들입니다. 『생각하는 그리스도인』(2016) 이후로 쓴 여러 카테고리의 글 중에서 성경 문제에 대해 다룬 글을 모았습니다. 한 번에 쓴 것이 아니고 생각날 때마다 블로그에 쓴 글이라 강조해야 할 중요한 포인트들이 반복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단행본을 위해 이런 중복을 조정했지만 글 안에서 꼭 필요한 논리일 경우에는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강조점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

랍니다.

이번 책은 인쇄를 하지 않고 PDF로만 제작되어 무료 배포하는데, 많은 분들의 손에 가 닿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종이책을 선호하시는 분들께는 양해를 바라며, 환경에 기여한다는 생각으로 이 책의 파일을 널리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파일로만 제작되는 장점을 살려 올컬러로, 이해를 돕는 이미지도 많이 삽입했습니다. 10~11인치 정도의 태블릿에서 보기 좋은 정도로 시원하게,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편집했습니다. 다만 펼쳐서 읽는 책처럼 두 면이 함께 보이지는 않으므로 주의를 더 기울여서 읽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모자란 글에도 정성껏 추천사를 써주신 이황로 목사님, 최육열 목사님, 차한 박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책에 대한 격려로 생각하고 추천에 부끄럽지 않은 글을 쓰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바른 성경과 바른 믿음을 향한 같은 마음으로 이 책이 나올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정동수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그간 성경 번역과 많은 사역을 통해 귀한 것들을 가르치고 전달해 주신 노고에 감사드리며, 목사님의 남은 사역들에도 하나님께서 건강과 여건을 허락하시기 바라는 마음입니다. 정확하고 전문적인 교정으로 수고해 주신 김지훈 형제님, 늘 예리한 지적으로 도움 주시는 캐나다의 최병찬 형제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부디 사람을 생각하지 마시고 내용을 보시기 바라며, 무작정 수공이 아니라 과연 그러한지 이치와 논리를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이 책이 독자 여러분의 성경 문해력을 한 뼘 올려 주는 계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 2024년 5월 김재욱 드림

“Reading the Bible with Literacy”

— J. W. Kim —

저자 소개

김재욱



프리랜스 작가 겸 일러스트레이터, 디자이너인 저자는 글쓰기, 그림, 도서 기획 등을 함께하며 복음 변증, 종말론, 성경 교리, 창조과학과 진화론 반박, 연애와 결혼, 미디어 분석 등을 주제로 40여 종의 책을 출간했다. 저서 중 3종은 기독교 출판문화상(2009, 2010, 2011)을 수상했고, 1종은 문서선교인이 뽑은 좋은 책(2013)으로 선정됐다. 기독교의 갖가지 개념을 쉽게 안내해 온 저자의 이번 책은 그간 성경 문제에 대해 흥미역을 바탕으로 써 온 글을 모은 것이다.

주요 저서

- 합리적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구원열차 구원방주/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상 그리스도예수안에)
 - 연애는 다큐다(국제제자훈련원) • 사랑은 다큐다(헤르몬) • 독자를 설득하는 쉬운 글쓰기(필로)
 - 예수님의 천국 초대장/ 교회를 관통한 결정적 장면/ [개정증보판] 요한계시록 바로 알기(이상 하운)
 - 영화 속 진화론 바로잡기(라온누리)
 - 1318 창조과학 A to Z/ 1318 신앙질문 A to Z/ 1318 고민상담 A to Z/ 나는 아빠입니다
1318 신앙 멘토 스쿨/ 1318 성품 스쿨/ 1318 매너 스쿨/ 어린이를 위한 창조과학 이야기 1·2
한컷만화 기독교 진리 130/ 진화론에는 진화가 없다/ 내가 왜 믿어야 하죠?(이상 생명의말씀사)
- ▶ **블로그** www.blog.naver.com/woogy68 (🔴 **바로가기**) ▶ **이메일** woogy68@naver.com



Reading the Bible with Literacy

제1장

성경의 이해

성경 문해력 테스트
교훈이 아닌 '교리(doctrine)'를 가르치신 예수님
'고아'와 '과부'는 왜 성경에 세트로 나올까?
이방인들의 신(神)도 신인가? (렘 2:11)
성경 66권과 이사야서 66장
잡언에서 자식을 '채찍'으로 때리라 했다?
하나님이 조물주(造物主)인가?
언제나 옳으신 하나님 편에 서라!

성경 문해력 테스트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다양한 정보를 해독하기 위한 문해력이 많이 요구된다. 어려운 말이 필요 없고, 그냥 잘 알아듣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물건의 설명서를 보고 조립하며 건전지를 갈아 끼우거나 지하철의 안내판을 보면서 출구를 찾아 나가는 등의 일도 다 이에 해당한다.

성경에도 문해력은 꼭 필요하다. 원어는 몰라도 국어는 알아야 한다. 문해력(literacy)은 유창성(flucency)이라는 개념과도 상통한다. 유창성은 어떤 문장이나 설명을 물 흐르듯 막힘없이 이해하고 말하는 것이므로 문해력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보기 편한 정보가 많은데 문해력이 낮아지는 것은 먹기 편한 초가공식품이 많아지면서 건강이 나빠지는 것과 같은 원리다. 설탕 한 스푼, 쌀 한 줌, 소금 한 꼬집(?)을 먹어도 거친 것을 먹어야 한다. 정제하고 도정하고 가공한 것일 수록 건강에 해롭다. 글과 말도 스스로 메모하며 책과 문장 자체를 소화해야 하는데, 요점 정리와 한줄요약, 검색 결과, 동영상 설명 등에서 필요한 것만 취하다 보니 긴 호흡의 글이나 사전 지식과 배경지식이 필요한 것들은 풍부하게 이해하지 못하게 된다.

이렇다 보니 성경을 읽을 때도 참 힘이 든다. 성경은 검색하고 메모한다고 될

일도 아닌 부분이 많고, 찾아볼수록 더 헷갈리는 다양한 해석도 많으며, 엉터리 분석과 사변적 의견, 모순으로 보이는 난제와 논쟁적 주제도 많아서 더욱 오리무중에 빠지기 쉽다. 그래서 성경책만 읽다 보면 이해 안 가는 곳이 부지기수다.

물론 그 많은 지식들은 사실 꼭 알아야 하는 것이 아닌 것도 많다. 하지만 읽은 부분이 내 부족한 문해력을 통과하면서 엉뚱한 내용이 될 정도면 곤란하다. 이걸 너무 안타까운 일이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온전하게 주셨는데 내 두뇌만 거치면 판소리가 되니 말이다. 그래서 마귀는 사람의 뇌를 망치고, 번역가를 망치며, 언어 자체를 붕괴시킨다. 그리고 계속 의미를 바꾸고 더하고 빼며 휘방한다. 우리에게 바른 문해력이 꼭 필요한 이유다.

이제 당신의 성경 문해력을 체크해 보자.

[잠언 27:14]

아침에 일찍 일어나 큰 소리로 자기 친구를 축복하면 그가 그것을 저주로 여기리라.

● 이 구절의 의미를 다음 중에서 고르시오.

- ① 아침에는 친구를 축복하지 말아야 한다.
- ② 무례한 사람은 저주받아도 싸다.
- ③ 아침에 친구를 축복할 때는 작은 소리로 하라.
- ④ 좋은 일도 때와 장소를 잘 살피서 행해야 한다.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지금 장난하냐고 물을 것이다. 당연히 ④번이지, 누가 ①②③번을 고르겠느냐고 할지 모른다. 하지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구조의 성경 구절을 두고 정답이 아닌 것에서 교훈을 찾거나 해석의 의미를 찾는 경우가 있다.

이번에는 좀 더 민감한 문제를 풀어 보자.

[개역개정 로마서 9:3]

나(바울)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바로라

● 다음 중 이 구절에 담긴 바울의 가르침을 가장 잘 나타낸 것을 고르시오.

- ①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면 내 민족이 구원을 받는다.
- ② 나는 나의 지옥행으로 내 민족의 구원을 거래(딜)하고 싶다.
- ③ 구원받은 사람도 지옥에 갈 수 있다.
- ④ 나는 지옥에 갈 수 없는 존재지만 나의 지옥행과 맞바꾸고 싶을 만큼 내 민족의 구원을 간절하게 바라는 마음이다.

이 문항 역시 보통의 크리스천이라면 당연히 ④번을 정답으로 고를 것이다. 그런데 ④번도 받고, 다른 보기에서 또 다른 사실도 취하는 경우가 있다. 바울이 이런 말을 한 것이 구원받은 사람도 지옥에 갈 수 있다는 성경적 근거라는 것이다.

절대 그렇지 않다. 구원받은 사람은 지옥에 갈 수 없다. 사도 바울은 단지 자신의 애간장이 타는 마음을 불가능한 일로 극대화하여 표현한 것일 뿐이다. 게다가 위 문항의 개역성경 구절은 단정적인 표현으로 번역돼 한국인들은 더 많은 오해를 하고 있다.

육체에 따른 내 형제들, 내 친족들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 받기를 바랄 수도 있으리니 (롬 9:3, 흠정역)

For I could wish that myself were accursed from Christ for my brethren, my kinsmen according to the flesh: (KJB)

킹제임스 흠정역으로 보면, 저주받는 것을 바랄 수도 있다고 되어 있다. I could wish는 '~하면 좋을 텐데' 정도의 바람을 말한다. 끊어진다는 표현조차 없다. 그것은 현대 역본에 나오는 cut off라는 표현이 같은 계열인 개역성경에 적용된 것인데, 이런 표현을 보면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져 지옥에 가는 것을 떠올릴 수밖에 없다. 로마서 9장의 전체적인 의미와 추가 설명을 보면, 나아가 바울의 신학을 살피면 ①②③번과 같은 궤변은 설 자리가 없다.

[사도행전 2:1~3]

오순절 날이 총만히 찻을 때에 그들이 다 한마음이 되어 한 곳에 있었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력한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 있던 온 집안을 가득 채우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나타나 그것이 그들 각 사람 위에 앉으며

● 다음 중 마가의 다락방에 나타난 현상에 대해 바르게 묘사한 것을 고르시오.

- ① 바람이 불었고 불이 임했다.
- ② 바람 소리가 들린 뒤 불이 임했다.
- ③ 바람이 임한 뒤 불의 모양이 임했다.
- ④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고, 불의 혀처럼 갈라진 모양이 임했다.

성령의 불, 성령의 바람, 불 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을 말하는 이들이 많지만 마가의 다락방에 바람이나 불은 없었다. 강력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고, 불의 혀와 같은 모양이 임했을 뿐이다. 바람과 불이 아니라 ‘소리’와 ‘모양’이다.

정답은 ④번이다. 하지만 모두가 바람과 불을 말하니까 이 구절을 보면서 평생 바람과 불을 떠올린다. 아마 자기 눈을 의심하면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바람과 불이지, 말이 돼?? 이러면서 말이다.

[야고보서 3:1]

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많은 자들은 선생이 되지 말라. 선생인 우리가 더 큰 정죄를 받을 줄 너희가 모르니라.

● 이 구절의 의미를 가장 잘 드러낸 것을 다음에서 고르시오.

- ① 웬만하면 선생이 되지 말라.
- ② 선생이 되면 정죄받는다.
- ③ 많은 사람이 선생이 될 필요는 없다.
- ④ 선생이란 엄중한 자리이니 선생이 되려는 자는 신중해야 한다.

이런 구절은 좀 더 복잡하다. ④번이 정답이긴 하지만 ③번도 어느 정도 진실이고, ①번도 아주 틀린 것은 아니다. 이 구절은 반어법에 해당한다. 어떤 내용을 강조하고 경각심을 주기 위해 부정적 메시지를 부풀려서 하는 말이다. “너 그렇게 깨작거릴 거면 밥 먹지 마” 엄마가 이렇다고 해서 진짜 숟가락을 내려 놓으면 등짝 한 대 맞을 걸 두 대 맞게 되는 법이다.

성경 구절에서 정답이 여러 개인 경우는 많다. 해석 면에서도 그렇지만 문장 자체가 그런 경우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실을 말할 때 조심할 것은, 진실이 조금만 섞여 있어도 그것이 전혀 거짓은 아니니까 괜찮다는 식의 생각이다. 편의점과 피시방을 들렀는데 편의점에 갔다 왔다고 하거나 술과 콜라를 마시고 콜라 마셨다고 해도 꼭 틀린 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은 자기 거짓말을 합리화하기가 쉽다. 광고에서도 이런 수법은 자주 쓰인다.

“자일리톨 껌을 씹으면 충치가 예방된다.”

“이 약으로 당뇨가 완전히 개선된 사람도 있다.”

이 말들을 거짓이라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자일리톨의 실질적인 효과를 껌을 통해 얻으려면 이론적으로 매일 수백 통씩 지속적으로 씹어야 된다고 한다. 자일리톨 껌을 수백 통씩 씹는 사람도 없고, 그럴 수도 없다. 어떤 사람은 저 약을 먹는 동안 병이 나왔을 수 있지만 꼭 그 약 때문에 나온 것인지 알 수 없고, 광고를 보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지 않을 텐데도 이 약을 먹으면 누구나 나올 것 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그러므로 저런 광고 문구는 일부분의 진실이면서 교묘한 거짓말이라 할 수 있다. 마치 진화론처럼, “직접 증거가 없다고 해서 생물의 진화가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하는 식의 궤변에 가깝다. 이처럼 성경 구절에 담긴 정답 이외에 다른 보기에 담긴 일부분의 사실, 그 작은 가능성을 일반화해서 확대하고 그것을 진실이나 정설, 나아가 진리로 확정해선 안 된다. 이단 종파에서는 이런 속임수를 잘 쓴다. 성경을 가지고 말장난을 하는 것이다. 실제로 이런 교묘한 이론이 사도 바울이 경계한 ‘말장난’이라 할 수 있다.

오 디모데야, 속되고 헛된 말장난과 거짓되게 과학이라 불리는 것의 반론들을 피하며 네게 맡겨진 것을 지키라. 그것을 내세우던 어떤 자들이 믿음에 관하여는 잘못을 범하였느니라. (딤후 6:20~21 상반)

그러나 속되고 헛된 말장난들을 피하라. 그것들은 커져서 더욱더 하나님의 성품에 위배되는 것에 이르리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잘못을 범하였으니 곧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말하여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뒤엎고 있느니라. (딤후 2:16, 18)

이처럼 잘못 이해한 교리는 말장난이 되고 결국 교리를 바꿔 믿음을 뒤엎게 된다.

그런가 하면 단순 이해를 넘어 주변 지식이 필요한 문해력도 있다.

[시편 54:5]

그분께서 내 원수들에게 그들의 악을 보복하시리니 주의 진리로 그들을 끊어 버리소서.

(참고, 개역개정)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 이 구절의 기록자는 하나님께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인지 다음 중에서 고르시오.

- ① 하나님은 내 원수에게 악으로 보복해 주시는 분입니다.
- ② 내 원수들을 지옥으로 보내소서.
- ③ 원수 때문에 괴로운 제 사정을 알아주소서.
- ④ 원수로부터 나를 지키시고 주의 진리에 합당하지 않은 자들을 심판해 주소서.

①번은 전체를 파악하지 못한 오판이고, 나머지 3개는 다 맞는다고 할 수 있지만 성숙한 신앙인이라면 ④번의 의미를 떠올릴 것이다. 그런데 이 자체로 교훈을 삼거나 이 기도를 따라 해서는 안 된다. 어떤 이들은 다윗의 ‘토설하는 기도’를 가르치기도 하지만 구약은 우리의 배움을 위한 기록이지, 신약 성도의 구체적 지침이 아니다.

내가 그들을 완전한 미움으로 미워하며 그들을 내 원수로 여기나이다. (시편 139:22)

이런 구절도 함부로 본받을 수 없다.

그들이, 너는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고 말하였음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고 악의를 품고 너희를 다루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마 5:43~44)

이 말씀처럼 우리는 원수도 사랑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내가 구약 성도인지 신약 성도인지도 모른다면 성경 전체가 우리의 행동 지침이라고 잘못 인식하게 된다. 성경의 수신자와 시대를 알지 못하면 이 구절 저 구절 가져다가 교리를 만드는 이단들에게도 속을 가능성이 높다.

성경은 단순한 교훈서가 아니라 철저하고 계획적이며 빈틈없는 기록이다. 모순처럼 보이는 부분을 제대로 구분해 이해하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 있다.


성경은 앞뒤 문맥을 함께 읽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사도 바울이 독신과 비혼을 가르쳤다고 주장하거나 불신자와의 결혼을 문제 삼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다. 물론 그런 내용도 일부 담겨 있지만 바울 본인의 처지와 당시의 시대상, 주님 재림의 시기에 대한 기록자의 관점을 함께 이해해야 한다. 궁극적인 본뜻이 그렇지 않은데 부분적 언급을 전체로 확정하면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사람이 어리석은 짓을 행하는 어리석은 자를 만나느니 차라리 새끼들을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니라. (잠 17:12)

잔뜩 성이 난 암곰을 만나면 죽는다. 그러므로 이 말씀도 당연히 어리석은 자를 만나면 죽고 싶을 만큼 답답하니 사람을 잘 사귀라는 뜻이며, 미련하게 행하지 말라는 뜻이다.

다투며 성내는 여자와 함께 거하는 것보다 광야에 거하는 것이 나으니라. (잠 21:19)

이 말씀 역시 부부 사이가 나쁘면 가출과 별거가 가능하다거나 이혼을 권장하는 내용이 아니다. 아무리 공감이가도 실천하면 안 되는 말씀이다. 강조하기 위한 비유에 대해서는 늘 새겨듣는 버릇을 들여야 한다.

평균적 문해력이 점점 떨어지고 양극단화하는 세상이다. 제대로 읽지 않아서 생기는 손해는 각자에게, 우리 모두에게 돌아간다. 제품에 사용 설명서가 있듯이 성경은 우리 삶과 신앙에 필요한 모든 것의 사용 설명서다. 이것을 대충 봐도 되겠거니 한다면 우리 인생이 고장 나도 고칠 방법을 알지 못하며 하나님의 AS도 받을 수 없게 된다. 신앙적 성숙함에 더해 말에 대한 이해력과 최소한의 주변 지식을 챙겨 스마트하고 현명한 신앙인이 되도록 이제 말씀 한 줄을 읽어도 신중하게 대하고 주의를 기울여 보자. 

교훈이 아닌 ‘교리(doctrine)’를 가르치신 예수님

교리는 딱딱한 것?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한다. 우리나라의 종교적 심성과 무속적 사고, 미신적 사상들을 머릿속에서 한번 시원하게 분리수거할 수 없을까... 하는 것.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라 문화적, 역사적, 언어적으로 기독교와 먼 것도 이 유지만, 19-20세기에 이르러서야 제대로 기독교가 전파된 탓에 그전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던 이방 종교의 헛된 생각과 사고방식에 기독교의 진리가 전이 되면서 크게 변질이 되었다고 본다.

종교란 본래 사람이 만들어 숭배하고 탐구하며 철학적으로 고고한 삶의 길을 찾아 나가는 것으로 인식하기 마련인데, 이런 것은 기독교와 거리가 멀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사람이 만든 것도 아니며, 그냥 인간의 바탕과 뿌리를 찾는 과정이다. 그런데 그 과정이 매우 과학적이고 체계적이다. 정답이 없이 각자가 찾아가는 해탈과 도달의 과정이 아니라 절대자가 빈틈없이 짜 놓은 어떤 계획을 알려 준 대로 발견하고 깨달으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의 기독교는 어떤가. 기독교를 통해 복을 받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그 복이란 인생의 복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육신의 문제를 초월하는 마음의 평안과 영혼의 복이고 천국의 복이거늘, 성경과 진리를 대하는

우리의 생각은 때때로 무척 종교적이며 두루뭇술하다. 마치 끝없는 탐구와 추구를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고 영혼까지 끌어모아 무언가 좁은 문 앞에 다다른 것처럼 생각하는 것 같다.

물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으며, 『천로역정』의 크리스천처럼 영적으로 전쟁을 치르는 부분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종교적인 탐구가 아니라 이미 이긴 전쟁에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방해하는 마귀와 싸우는 것이며, 자신과 싸우는 것이다. 백일 정성이면 있던 죄도 용서받고, 지성이면 감천이라 죄 문제를 해결 안 해도 하늘님이 죄를 면해 주는 그런 식이 아니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제안은 쉽고 가벼우며 자연스럽다. 인간의 입장에서는 어려운 일일 수 있지만, 믿음으로 천국을 소유하는 일은 그 과정만 알면 된다. 이후로 성화를 이루는 일이나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고 유혹을 극복하는 삶 등은 구원을 이루는 일과는 다른 부분이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을 파악하고 순종하는 과정이다. 이것을 오해하면 먼길을 돌아갈 수도 있고, 성화와 구원의 순서를 반대로 하느라 괜한 고생을 할 수도 있다. 성도들을 이끄는 교회나 다른 성도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개인도 이런 일에 오히려 방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교리’ 하면 대개 딱딱하고 이론적인 것을 떠올리면서 필수적이지 않은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 그저 기독교도 하나의 종교이니 교훈을 따라 착하고 거룩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지, 조목조목 따져서 파악하고 배우는 일은 부수적인 것이라고, 오히려 금기시하는 일이 적지 않다. 중세 때처럼 성도가 교리에 너무 밝으면 지도자가 별로 안 좋아하기도 한다.

그러나 일반적 교훈과 체계적인 교리가 둘 다 중요한 것이지만 순서가 중요하다. 교리는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이고, 예수님도 가르치신 것이기 때문이다. 교훈은 다른 종교에서도 얻을 수 있다. 사서삼경이나 명심보감, 도덕경 같은

책에도 좋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다른 종교의 경전에서도 얻을 만한 교훈이 얼마든지 있다.

그러나 교리는 그 어떤 종교에도 없다. 그들 나름의 교리가 있겠지만 진리 위에 세워지지 않은 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어떤 교리를 가르치셨다고 하면 무슨 소리인가 할 수도 있다. 개역 성경에는 ‘교리’라는 단어가 아예 없기 때문이다. 또한 교리는 조직 신학 등 후대에 신학을 정립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킹제임스 흠정역은 신구약에 57회나 등장한다.

교리는 영어로 독트린(doctrine, 닥트린)이다. 우리가 잘 아는 독트린은 ‘민족 자결주의’를 논한 미국 윌슨 대통령의 ‘윌슨 독트린’일 것이다. 어떤 이가 주창한 생각이 나 주의, 원칙, 정책 또는 어떤 종교의 본질적 가르침의 체계가 독트린이다. 한국에서 교리와 독트린을 함께 사용하지는 않지만 교리와 독트린은 같은 것이다.



우드루 윌슨 제28대 미국 대통령

교훈은 누구나 줄 수 있는 것

마가복음에는 공생애 초기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시면서 부정한 영을 쫓아내시는 장면이 있다.

그들이 그분의 교리에 깜짝 놀라니 이는 그분께서 권위를 가진 자로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서기관들같이 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들이 다 놀라 자기들 끼리 물어 이르되, 이것이 무슨 일이나? 이것이 무슨 새로운 교리냐? 그가 권위를 가지고 부정한 영들에게도 명령하니 그들이 그에게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막 1:22, 27)

제자들과 사람들이 놀란 이유는 교리에 권위가 있고 탁월했기 때문이다. 그 권위로 부정한 영들까지 내어 쫓으셨다. 개역성경은 ‘교리’가 아니라 ‘교훈’이라고 번역했다.

못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이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막 1:22, 27, 개역)

킹제임스 영어 성경은 doctrine(독트린, 교리)이라고 번역했지만 영어 현대 역본은 티칭(teaching, 교훈, 가르침)으로 바꿨다. ‘교훈’이란 가훈·급훈처럼 일반적이고 구체적이지 않은 좋은 얘기 정도를 가리킬 때 쓰는 말이다. 이는 현대 역본 번역자들의 생각이 잘 드러난 번역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기독교가 여러 종교들 중 하나라고 보는 그들은 ‘독트린’을 ‘티칭’으로 바꿔 예수님의 사역을 폄하하고, 성경의 묘사를 무디게 만드는 것이다.

마태복음 22장에서 사두개인들의 질문에 조목조목 답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논리정연했고, 성경 기록에 매우 충실했기 때문에 모인 무리가 다들 놀란다.

우리가 이것을 듣고 그분의 교리에 깜짝 놀라더라. (마 22:33)

그냥 놀란 게 아니고 깜짝 놀란다. 여기 쓰인 애스터니쉬(astonish)는 그냥 서프라이즈보다 강한 표현으로 화들짝 놀라는 것, ‘어메이징’과 비슷한 뉘앙스다.

우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마 22:33, 개역)

여기서는 개역성경이 같은 영단어를 ‘가르치심(teaching)’이라고 번역했다. 가르치신 것은 맞지만 무엇을 가르치셨는지가 나타나지 않는 문장이다. 이 역시 ‘교훈’처럼 두루뭉술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들을 마치시매 사람들이 그분의 교리에 깜짝 놀라니 (마 7:28)

이 부분에서도 현대 역본은 teaching으로 번역했다. 이처럼 ‘교리’는 현대 역본처럼 개역성경에서 거의 ‘가르침’과 ‘교훈’으로 등장한다.

그러나 너는 건전한 교리에 합당한 것들을 말하여 (딤후 2:1)

사도 바울의 목회 서신인 디모서에 ‘교리’가 등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이 부분은 NIV(신국제역)와 NASB(신미국표준역) 같은 현대 역본에도 독트린으로 나오지만 개역성경은 ‘교훈’으로 번역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딤후 2:1, 개역)

다음 구절에는 ‘교리’가 두 번 등장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리에 관한 기초 원리들을 떠나서 완전함으로 나아가 죽은 행위들로부터의 회개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침례들에 관한 교리와 안수와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의 기초를 다시 놓지 말지니라. (히 6:1~2)

여기서 개역성경과 현대 역본은 ‘도(道, teachings)’와 ‘교훈(instruction)’으로 번역했다. 갑자기 “도를 아십니까”(?)가 떠오른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로 나아갈지니라 (히 6:1~2, 개역)

계시록 2장 14절에는 ‘발람의 교리’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도 ‘발람의 교훈(teaching)’으로 되어 있다. 교훈은 대개 좋은 것을 말할 때 쓰는 말인데, 발람에게 얻을 교훈이 무엇이겠는가.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몇 가지 있나니 이는 거기에 발람의 교리를 붙잡는 자들이 네게 있기 때문이다... (계 2:14 상반)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계 2:14 상반, 개역)

디모데후서 4장 1절의 ‘마귀들의 교리’도 ‘귀신의 가르침’으로 번역했다. 귀신에게 얻을 교훈이 있을 수 없어서 이런 때는 교훈이 아니라 가르침으로 했는지 모르겠다.

한편 성령께서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에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딤후 4:1)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딤후 4:1, 개역)

그러나 마귀들도 교리는 있다. 이단의 교리도 어떤 것은 오리지널보다 더 그럴듯하게 보여서 사람들이 잘 넘어간다. 마귀는 기독교의 기존 교리를 해체하고, 더하고 빼고 뒤섞어 엉망으로 만들지만, 그런 기능을 하는 특별한 체계를 지닌 교리다.

교리는 하나님의 신비

이렇게 몇 가지만 살펴보아도 문맥상으로도 성경의 정황상 모든 면에서 ‘교훈’보다는 ‘교리’가 훨씬 정확한 단어임을 알 수 있다.

교훈과 가르침은 성인군자나 철학자도 줄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교리는 다르다. 기독교 교리는 체계적이고 과학적이다. 하지만 어렵지 않다.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면 놀랍도록 흥미롭고 쉬운 것이 교리다. 신학의 영역에서 다루는 각종 교리학이 아니라 기본적인 성경적 지식을 강해하는 정도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대다수의 강단에서 그저 주제식 교훈이 선포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성도도 바른 교리를 사모하고, 목회자나 신학자는 올바른 교리를 위해 늘 씩씩하며 가르쳐야 하는 것이다.

독트린에는 반드시 그에 필요한 실천 조항들이 있고 체계가 있다. 성경 기록은 서로가 서로를 해석하며 아무리 오래된 기록도 역사 속에서 반드시 성취된다. 기록될 당시에는 몰랐던 내용도 점진적으로 계시가 열리면서 확장되고 이루어져 비로소 이해가 된다. 그래서 변화의 시대에 성경 교리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직접 등장해 가르치신 교리가 사람들에게 남다른 놀라움을 준 것이다.

어떤 교리를 가장 잘 아는 것은 그것을 만든 존재이며, 그 교리의 핵심 주인공이다. 교리의 가장 탁월한 권위자는 그 주창자, 교리의 주인인 법이다.

기독교에도 많은 교훈이 있지만 거기서 그치지 않는다. 기독교 교리는 반드시 필요한 하나님의 경륜이자 로드맵에 관한 필수적인 내용이다. 그것은 신비(mystery)다. 무속적 주술적 신비주의가 아니라 말 그대로 신적인 선명한 비밀이다. 이것은 보편적 교훈에 들어 있는 게 아니라 진리 안으로 들어온 자들만이 깨달을 수 있는 교리 안에 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늘의 왕국의 신비들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마 13:11)

오히려 우리는 신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 곧 감추어진 지혜를 말하는데 이 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해 세상이 생기기 전에 정하신 것이니라. (고전 2:7)

교리적 신비의 특징은 말 그대로 비밀이라는 점이다. 믿지 않으려는 자들, 마음이 강박한 자들, 목이 굳은 자들,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이들에게는 보이지 않는다. 성도가 마음을 열고 바른 성경과 바른 교리로 나아가면 유익이 있다. 구원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구원의 비밀을 교리적으로 더 많이 알면 신앙에 생생한 감동이 있으며, 다른 이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리 주님이 가르치신 것은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시자이자 주인 되시는 ‘교리’임을 기억해야겠다. 우리가 올바른 교리를 알아 갈수록 기독교를 여타 종교의 틀에서 뭉뚱그려 생각하는 습성도 점차 버려질 것이다. 📖

‘고아’와 ‘과부’는 왜 성경에 세트르 나올까?

성경 문제의 심각성을 알기 전에는 한 번도 의문을 가져보지 않은 문제였다. 고아와 과부는 사회적 약자이며 도움이 필요한 대상이니 당연히 같이 나오는 것으로 알았고, 워낙 여러 번 등장하니 그냥 그런 줄 알았던 것 같다.

성경에는 일하지 않은 자는 먹지도 말라는(살후 3:10) 말씀도 나오지만 이들 약자를 위해서는 수확물 중에서 떨어진 이삭을 다 거두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레 19:9; 23:22). 일하지 않은 자도 먹을 수 있는 사회 복지의 표본이다. 신체적으로나 여건에서 뒤처지는 이들을 배려하는 방향으로 사회 제도를 보완하지 않으면 극단적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승자 독식의 괴물이 될 위험이 있다.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출 22:22, 개역)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욘 22:9, 개역)

그런데 고아와 과부는 왜 자주 세트르 등장할까?

고아와 과부가 같이 사는 것일까?

그러면 그 고아는 과부와 어떤 관계일까?

이런 생각을 해 본 적이 있는가? 개역성경에는 최신 개역개정 기준으로 약 32군데에 고아와 과부가 함께 등장한다. 단순히 구제가 필요한 존재들이라면 왜 이들만 등장할까? 장애인이나 병자 등이 다 나와야 하지 않을까? 물론 ‘고아와 과부’라 하면 중년 여성과 어린아이를 떠올리니까 엄마와 어린 자녀가 떠오른다*. 그런데 엄마가 있으면 고아가 아니다. 이 고아는 어디서 왔나?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 146:9, 개역)

물론 여기 나그네, 고아, 과부 등은 도움이 필요한 대상들을 나열한 것이 아니라 미망인인 엄마와 어린 자녀들을 뜻한다. 그러므로 고아라는 표현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 고아 : 양친이 부재한 미성년자

이것이 고아의 뜻이다. 영어로는 오편(orphan)이다. 검색해 보니 <오편 : 천사의 비밀>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보육 시설 천사의 집에 머물던 아이의 이야기라고 한다. 이처럼 오편은 양친이 모두 없는



* ‘고아’는 세상의 변화에 따라 약자 배려 감수성이 부족한 단어이므로 일상에서 함부로 구사하면 곤란하다. 고아원이 보육원으로, 다시 아동 보육 시설 등으로 바뀌듯이 고아는 ‘부모 없는 아이’로 순화해 사용해야 당사자들을 존중하는 것이다. 그러나 성경에까지 이런 단어들을 적용하면 시대에 맞지 않고, 성경의 권위가 사라지며, 뉘앙스가 달라져 버린다. 또한 하나의 단어가 여러 단어로 해체되어 통일성을 잃게 된다. 그러므로 성경 안에서의 옛 단어 사용은 비하의 의도가 없는 것으로 서로 양해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할 것이다.

아이를 뜻한다. 과부는 위도우(widow)라고 하는데, 이 또한 <블랙 위도우>라는 유명한 영화가 있다. 그런데 좀 이상한 구절도 있다.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오며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들 같으니 (애 5:3, 개역)

아버지가 없고 어머니가 과부면 고아가 아니다. 왜 한국어 개역성경에는 이런 이상한 구절들이 있는 것일까?

이것은 물론 번역이 잘못돼서 그렇다. 한국어 개역성경이 실수했다기보다는 영어 번역본을 잘못 택해서 그렇다. 킹제임스 성경을 제외한 현대 역본들은 이런 구절들에 나오는 아이를 ‘orphan’으로 바꿔 놓았기 때문에 이것을 따라가다 보니 오역이 된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번역했어야 할까? 최초의 영어 신구약 번역본인 킹제임스 성경을 그대로 두면 된다.

너희는 과부나 아버지 없는 아이를 괴롭히지 말지니라. (출 22:22, 흠정역)

Ye shall not afflict any widow, or fatherless child. (KJB)

고아가 아니라 ‘아버지 없는 아이’다. 그래야 과부가 된 엄마와 함께 사는 아이, 양친 없는 고아가 아니라 한부모 가정 아이가 되는 것이다. 고아와 과부가 이렇게 묶이는 이유는 아버지들이 전쟁에 나가 목숨을 잃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그의 자식들은 아버지 없는 자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시 109:9)

사악한 자들에게 이런 저주가 내리기를 바라는 다윗의 시편이다. 사악한 자가 죽게 해 달라는 표현을 돌려서 한 것이다. 그가 죽으면 자식은 아버지 없는 자가 되고 아내는 남편 없는 과부가 된다. 이것을 개역성경으로 보면 이상한 문장이 된다.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시 109:9, 개역)

남자가 죽어 자녀가 고아가 되려면 아내도 같이 죽어야 하는데 아내는 과부가 된다고 한다. 이 구절은 NIV와 NASB도 제대로 번역했다.

May his children be fatherless and his wife a widow. (시 109:9, NIV, NASB)

그런데 왜 개역성경은 ‘고아’라고 번역했을까? NRSV(신개역표준역, New Revised Standard Version)를 보니 ‘고아’가 나온다.

May his children be orphans, and his wife a widow. (시 109:9, NRSV)

개역성경이 바로 KRV(한글개역판)이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번역이 많다. 물론 현대 역본들은 대동소이하다. 어법상 ‘고아와 과부’는 모자나 모녀 가정일 수 없으며 같이 살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아버지 없는 아이와 과부’로 번역하고 또 이해해야 한다.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오며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들 같으니 (애 5:3, 개역)

개역성경이 ‘아버지 없는 고아’라고 번역한 이 구절은 원래 양친이 없는 자들과 아버지만 없는 자들을 함께 언급한 것이다.

우리는 고아들이요, 아버지 없는 자들이며 우리 어머니들은 과부들 같으니이다.
(애 5:3)

다음 구절도 고아가 아니라 아버지와 남편을 잃어 가정이 없는 자들을, 그들을 노리는 자들에게서 하나님께서 아버지처럼 지키신다는 것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이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시 68:5, 개역)

아버지 없는 자들의 아버지이시며 과부들의 재판장이신 분은 자신의 거룩한 거처에 계신 하나님이시로다. (시 68:5)

무슨 일만 하면 사고를 치는 사람에게 우리는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마!”라고 한다. 성경도 그냥 두면 될 것들을 굳이 바꾸고, 자르고, 추가한 자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변개된 것을 알면서도 방치하고 하찮게 여기면 작은 개념들부터 무너져 건전한 교리는 점점 좁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함도 손상받게 된다.

‘고아’와 ‘과부’가 세트로 나오는 이유는 그들이 한 가족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 자녀들은 고아라고 부르면 안 된다. 그동안 이것을 무심히 지나쳤다면, 이제부터 성경에 ‘고아’가 나올 때마다 ‘아버지 없는 자’로 바꿔서 읽으면 좋을 것이다. 물론 더욱 좋은 것은 바르게 번역된 성경으로 바꾸는 것이다. 📖



엘리아를 만난 사르밧 과부. 그녀의 아들은 당연히 고아가 아니라 아버지 없는 아이였다.

이방인들의 신(神)도 신인가? (렘 2:11)

성경을 대조해서 읽다 보면 참으로 깨알같고 일관된 법칙을 발견하게 된다. 그것은 NIV 같은 현대 역본이 아주 끈질기게 자신들의 불신앙과 하나님에 대한 모독을 어떤 때는 대담하게, 어떤 때는 교묘하게 심어 놓았다는 사실이다. 그 내용들 중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예수님의 신성 같은 것들이다.

정말 파도 파도 끝이 없는데, 진짜 심각한 문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성경이 그 성경들과 같은 계열이라 현대 역본의 문제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것이다. 과연 이것이 단순히 취향이나 선호도의 문제일까? 단언컨대 이것은 성도의 삶에 가장 중요한 문제다.

세상에 완벽한 것, 아니 완벽해야 하는 것이 있다. 바로 성경 말씀이다. 그래서 원문처럼 완벽하진 않아도 온전하고 세심한 번역이 필요하고, 잘못된 부분은 고쳐 나가야 한다. 또한 조금이라도 건전한 의도로 바르게 번역된 것을 보아야 한다. 성도의 중요한 의무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하는 자들을 가려내고 그분의 영광을 제자리에 놓는 것이다. 논쟁이나 선택의 여지가 없는 일이다.

개역성경으로 예레미야 2장 11절을 보자.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렘 2:11, 개역)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들의 신들’과 ‘신 아닌 것’은 무엇일까? 무엇과 무엇을 바꾸지 않았다는 것일까? 신이 아닌 것과 바꾸지 않은 그들의 원래 신들은 진짜 신이라는 말처럼 들린다. 그들은 신 아닌 것들과 바꾸지 않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져와 바꿨다는 말씀이다.

세상에 진짜 신이 있는가? 하나님 외에 신이 있는가? 전혀 없다. “하나님은 신들의 신이시니”라는 표현은 다른 신들도 진짜 있어서 그들 중 하나님이 가장 뛰어나신 분이라고 하는 뜻이 아니다. 사람들이 믿는 온갖 거짓 잡신들이 있지만 그들과는 차원이 다른 참된 하나님을 말할 때 쓰는 말이다. 또한 사람들이 숭배하거나 신이라고 생각하는 천사와 마귀와 부정한 영과, 성인이라고 불리는 죽은 위인들 등등 모든 종류의 영적 존재를 통틀어서 가장 위에 계시는 분이라는 의미다.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출 20:3)

이 가장 중요한 계명에도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고 명하셨다. 다른 신들은 존재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갖는 것, **인간 스스로 만들어 두는 것**이라는 뜻이다. 이어지는 말씀이 그것을 설명한다.

너는 너를 위해 어떤 새긴 형상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모습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출 20:4~5 상반)

다 인간이 만든 것들이다. 그러면 기존 성경을 옹호하려는 사람들은, 예레미야 2장 11절도 그런 뜻이라고 반론을 펼 것이다. 이방인들의 신이 진짜 신이라

서가 아니라, 그들의 기준에서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다른 길로 바꾸지 않았다는 뜻 아니겠냐고 할 것이다.

물론 그렇게 읽어야 한다. 하지만 그렇게 치면 번역 오류를 말할 필요조차 없어진다. 좀 이상해 보이지만 원래는 그 뜻이 아니라 하고 다 넘어가는 방식이라면 말이다.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대언자를 통해 하신 말씀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주 미세한 부분에도 오류가 없는 분이다. 그래서 마치 이방 민족의 신들을 인정하는 듯한 뉘앙스로 남겨 둘 수는 없는 것이다.

이 구절을 바른 번역으로 보면 이렇다.

어떤 민족이 자기 신들을 바꾸었느냐? 물론 그것들은 결코 신이 아니니라. 그러나 내 백성은 자기들의 영광을 유익을 주지 못하는 것과 바꾸었도다. (렘 2:11)
Hath a nation changed their gods, which are yet no gods? but my people have changed their glory for that which doth not profit. (KJB)

킹제임스 영어 성경에는 ‘no gods’라는 표현이 분명히 있고 대부분의 현대 역본 영어 성경들도 웬일로(!) 이런 의미를 유지하고 있다.

이례적으로 이 부분은 한국어에서 천주교와 함께 번역한 공동번역과 개역성경만이 이렇게 번역하고 있다. 영어로는 god이라고 소문자로만 써도 하나님인 God과 구분되지만 우리말은 더욱 조심해야 하는데 말이다.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개역)
어떤 민족이 섬겨오던 신을 바꾸어 신도 아닌 것을 섬기는 일이 있더냐? (공동번역)

그나마 다행스럽게 다른 한국어 성경들은 뜻을 제대로 전달하고 있다.

어느 나라가 자기들의 신을 바꾼 일이 있느냐? 그들의 신은 진짜 신이 아닌데도 자기들의 신을 바꾼 나라는 하나도 없었다. (현대인의성경, 쉬운성경)

비록 신이라 할 수 없는 그런 신을 섬겨도, 한 번 섬긴 신을 다른 신으로 바꾸는 민족은 그리 흔하지 않다. (새번역성경)

심지어 가톨릭성경조차 제대로 되어 있어서 더욱 이상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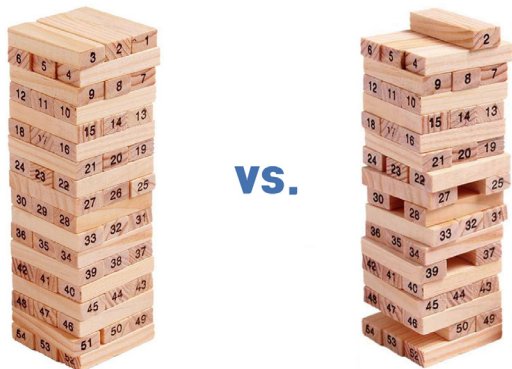
도대체 어떤 민족이 제 신들을 바꾼 적이 있더냐? 비록 그것들이 신이 아닐지라도 말이다. (가톨릭성경)

이처럼 가짜 신을 섬기는 이방인들도 영적인 순결을 지키건만 너희들은 도대체 뭐냐고 나무라시는 내용인데, 개역성경은 중요한 부분을 빼놓았다.

성경에 오류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라는 의미뿐 아니라, 논리상의 오류도 없음을 함께 의미한다. 말하자면 불신자들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믿음의 영역이니 동의할 수 없다고 한다 해도, 성경 내용에 대한 비방은 논리적으로 다 반박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탄탄하다는 것이다. 성경에는 모순처럼 보이는 난제들이 있지만 원문 그대로 보면 모두 해답이 있다. 그래서 번역이 중요하다.

기독교는 바로 이런 완전한 성경 때문에 오랜 세월 명맥을 유지해 왔다. 성경이 무너지면 기독교도 무너진다. 근현대에 와서 벌어지는 교회의 쇠락은 모두 성경 변개의 문제에서 비롯된다.

젠가(jenga)라는 게임은 보통 54개의 나무토막을 쌓아 올린 다음 두 명 이상의 사람이 돌아가면서 하나씩 빼내는 게임이다. 그러다가 전체가 무너지게



완전하게 조립된 젠가와 몇 토막을 뺀 상태의 젠가. 얼핏 보면 비슷하지만 아주 다른 것이다.

만든 사람, 즉 마지막 토막을 빼는 사람이 지는 것이다. 그런데 몇 개가 빠져도 전체는 아직 서 있다. 멀리서 보면 멀쩡한 것이나 비슷하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가까이 가서 세밀하게 보아도 모든 조각이 다 있어야 한다. 이 말씀들로 천지와 인간 모두가 심판을 받고,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을 약속받는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절대 흔들리면 안 되는 것이다.

말씀에서는 빠진 것이 있으면 안 된다. 빼거나 더하거나 바꾸면 안 된다. 마귀는 언제나 손을 뻗어 한 부분 한 부분 빼내거나 더한다. 때로는 대담하게 삭제하고, 때로는 교묘하게 틀어 놓는다. 그렇기 때문에 좀 틀린 번역을 옹호하며 “말이 그렇지, 뜻이 그런가”라고 하지는 말아야 한다. 주님의 경고는 단어(word)를 바꾸는 일에 대한 경고이며, 외형도 의미도 다 그대로여야 한다는 것이다.

안타깝지만 성경이 바뀌기를 기다리기는 너무 어렵고 거의 불가능하다. 킹제임스 흠정역 같은 좋은 번역본이 있으면 찾아 읽고, 최소한 참고용으로라도 곁에 두고 대조라도 해 보기를 권한다. 📖

성경 66권과 이사야서 66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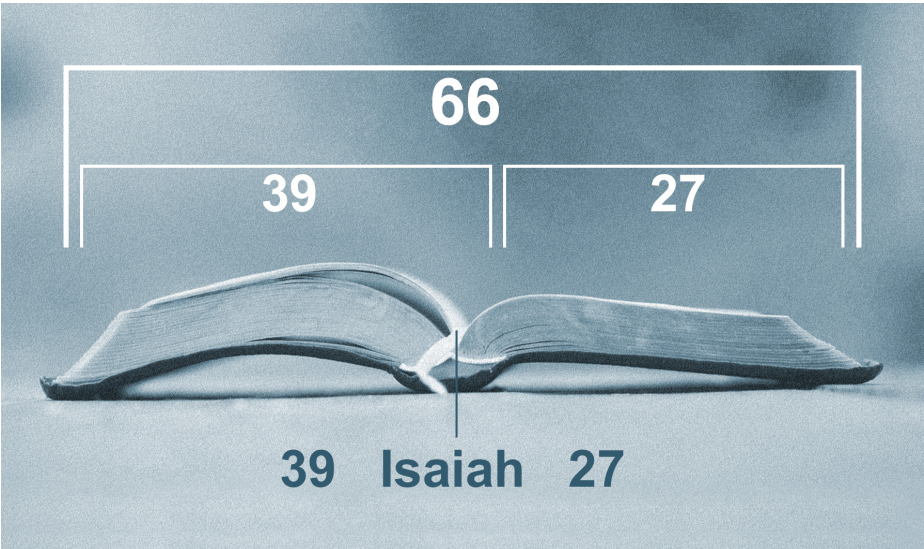
성경에 오류가 없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이들은 그 기록들이 모두 인간이 썼거나, 소실된 것을 다시 인간이 복원했다는 사실 등을 들어 완전할 수 없다고 말한다. 또한 정경(正經)이 확립된 것도 인간의 결정인데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한다. 물론 그런 의심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성령님의 인도로 성경을 믿기 시작하면, 온갖 증거를 다 들이대는 세상의 뉴스와 역사와 과학 등 그 어떤 것보다 놀랍도록 신기한 것이 성경이다.

하나님은 성경의 보존을 약속하셨다. 그것도 영원히 변하지 않게 지키신다고 하셨다.

오 주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정착되었으며 (시 119:89)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지속되나니 복음에 의해 너희에게 선포된 말씀이 곧 이 말씀이니라. (벘전 1:25)

구약 성경의 율법서인 모세 오경은 BC 400년, 예언서는 BC 300~200년, 성문서는 BC 160~105년쯤에 표준 정경(政經, Canon)으로 33권이 채택됐다. 최종적으로는 AD 90년 유대인 랍비 모임인 얌니아 공회에서 총 39권을 확정



했다.

신약 성경은 교회 안에 이단들이나 다른 사상이 출현하고, 많은 필사본이 생겨나면서 정경화 작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또한 로마의 핍박 때문에 위기를 느낀 성도들은 교회 공동체가 공인한 성경을 모아 보존하고자 했다. 신약 성경은 AD 363년 라오디게아 회의를 거쳐 397년 카르타고 공회에서 27권을 정경으로 최종 인정했다.

사람이 도구가 되어 성경을 기록했듯이 정경도 사람이 결정한 것은 사실이다. 왕래가 더딘 시대, 회의 한 번 하기도 어려운 시대에 참된 성경이 드러나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더욱 많이 선택받는 책, 사람을 변화시키는 책,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성도들이 인정한 책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데 400년 가까운 세월이 걸린 것이다.

그러면 이 66권을 하나님이 보장하신다는 근거는 없을까? 물론 그런 것은 없다. 하지만 이사야서를 보면 신기한 구석이 있다. 이것은 교리가 아니므로 목숨 걸고 따질 것도 없고, 믿거나 말거나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

성경 66권은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이다. 그래서 구구단 3단을 외우듯이 삼구이십칠($3 \times 9 = 27$)... 이렇게 외운다.

알다시피 성경전서를 반으로 펼치면 중간쯤에 이사야서가 있다. 그런데 이 사야서는 공교롭게도 66장으로 되어 있고, 전반부가 39개의 장, 후반부가 27개의 장이다. 40장부터 내용이 확연히 변해서 이사야가 다 기록한 게 아니라 는 주장까지 나올 정도다.*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는 무서운 심판과 경고가 매우 많이 등장한다. 하지만 40장부터 66장까지는 구원과 위로, 메시아 등 희망적인 내용이 많고, 예수님의 희생을 예언한 유명한 53장이 들어 있으며, 56장에는 이방인들의 구원까지 담겨 있다.

성경에서 신약이 열리는 **40번째 책은 마태복음**이며 마가복음, 누가복음까지 3개의 복음서는 같은 관점으로 기록된 공관 복음이다. 참으로 희한한 것은 이사야서가 39장에서 히스기야 왕 이야기로 끝나면 갑자기 40장 초반부터 이런 내용이 등장한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기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우리 하나님을 위해 사막에 큰길을 곧게 만들라. 모든 골짜기가 돋우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며 구부러진 곳이 곧게 되고 험한 곳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주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함께 그것을 보리라. 주의 입이 그것을 말씀하셨느니라. (사 40:3~5)

마치 복음서의 시작 부분을 읽는 듯한 느낌 아닌가. 마태와 누가는 각각 요셉과 마리아의 계보를 소개하고 탄생 과정을 소개하면서 침례자 요한이 등장하지만, 마가복음은 바로 이사야를 인용하면서 요한의 외침을 전한다.

* 물론 성경 원본에는 장과 절이 없고, 장과 절이 구분되기 시작한 것은 중세이며, 인쇄에 반영한 것은 1551년 스테파누스의 그리스어 신약부터이므로 너무 큰 의미 부여는 금물이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기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분의 행로들을 곧게 하라, 하고 기록된 바와 같이 요한이 광야에서 침례를 주고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선포하며 온 유대 땅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에게 나가 자기 죄들을 자백하며 요르단 강 속에서 다 그에게 침례를 받았는데 (막 1:3~5)

이쯤 되면 약간의 기대감을 가지고 이사야서 1장을 보게 된다. 이사야 66장이 성경 66권과 비슷하다면 **창세기의 단서**가 있지 않을까. 이사야 1장 1절에는 이 대언에 대한 간단한 소개가 등장하고, 2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온다.

오 하늘들이여, 들으라. 오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들을 먹이고 키웠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사 1:2)

창세기의 첫 시작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인 것처럼 이사야서의 시작부터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늘과 땅을 언급하고 있다. 처음에 만드신 창조 세계가 불순종해 하나님의 계획에서 멀어지고 있음을 탄식하시는 것이다.

그러면 **66번째 책 요한계시록**을 연상시키는 이사야 66장은 어떻게 끝날까? 여기도 예사롭지 않은 말씀이 있다. 계시록은 하나님의 시간표 끝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등장한다. 그런데 이사야서 맨 끝에도 이와 비슷한 내용이 나온다.

내가 만들 새 하늘들과 새 땅이 내 앞에 남아 있을 것같이 너희 씨와 너희 이름도 남아 있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사 66:22)

성도들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지만 불신자들은 흰 왕좌의 심판, 즉 둘째 사망에 처하게 되어 최종 종착지인 불 호수로 향하게 된다. 이사야서의 마지막 절이다.

그 사람들이 나가서 내게 범법한 사람들의 사체들을 보리니 이는 그들의 벌레가 죽지 아니하고 그들의 불이 꺼지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들이 모든 육체에 게 혐웃거리가 되리라. (사 66:24)

예수님이 마가복음 9장에서 세 번이나 강조하신 바로 그 말씀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가 바로 이 부분이다. 이렇게 모든 육체의 심판이 성경에 등장하는 역사의 끝이다.

성경은 숭배해선 안 되는 책이며 오직 거기에 담긴 내용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바이블 코드’처럼 성경 자체를 신비하게 생각해 어떤 주술적인 것이라도 담긴 것으로 오해해서도 안 된다.

이사야서의 위치나 장수 등도 우연의 일치라 해도 좋다. 자꾸 무언가 꿰맞추는 것도 좋은 생각이 아니다. 다만 이런 것을 살펴보는 이유는 안 믿어져서 확 인하려는 것이 아니라 믿어져서 더 믿으려는 시도이며, 그 자체로 흥미롭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 초자연적인 모든 일을 운행하시지만 인간에게 필요한 것, 인간에게 직접 주고자 하시는 것은 인간을 사용하신다. 성경도 인간을 통해 주셨는데, 그래서 인간의 수인 66권인지도 모르겠다. 성경을 사람에게 맡기신 이유는 믿음을 보이기 위함이 아닐까 싶다. 하나님이 직접 하시거나 천사를 통해서 하신다면 믿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사야서의 우연이 정말 하나님의 확증인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대언자를 통해 자신의 말씀이 영원히 변함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이다. 이를 믿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서리라, 하라. (사 40:8) 

잠언에서 자식을 ‘채찍’으로 때리라 했다?

자녀를 바르게 가르치는 과정에서 매를 드는 문제는 매우 신중하고 중요한 일이다.

회초리와 꾸짖음은 지혜를 주나 제멋대로 버려둔 자식은 자기 어머니에게 수치를 가져오느니라. (잠 29:15)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듯이, 자식을 징계하고 바르게 훈계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런데 그 기준에 대해서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다음 구절을 역본별로 비교해 보자.

[잠 13:24]

초달을 차마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심히 징계하느니라 (개역)

He who spares the rod hates his son, but he who loves him is careful to discipline him. (NIV)

회초리를 아끼는 자는 자기 아들을 미워하되 그를 사랑하는 자는 어릴 때에 그를

징계하느니라. (흠정역)

He that spareth his rod hateth his son: but he that loveth him chasteneth him betimes. (KJB)

‘초달’은 물리력으로 억제해 훈육함을 말한다. 회초리(막대)라는 뜻의 rod라는 단어는 누락시키고 의미에 맞춰 번역했다. 그러나 흠정역에서는 회초리를 그대로 번역했다. 아무것으로나 초달을 해선 안 되는 것이다.

또한 킹제임스 성경에는 NIV에 없는 betimes라는 단어가 있다. 이는 곧 원문에는 있다는 뜻이다. betimes는 ‘늦기 전에’, ‘일찍’이라는 뜻이므로 ‘어렸을 때’ 회초리로 가르쳐야 한다는 뜻이다. 이미 늦었는데 다 큰 자식을 회초리로 가르치면 최소한 잠언의 가르침은 잘못 적용하는 것이다.

다음 말씀은 점입가경이다.

[잠 23:13]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치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개역)

아이를 바로잡는 것을 미루지 말라. 네가 그를 회초리로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흠정역)

아이를 ‘채찍’으로 때려도 안 죽는다고 되어 있다. 여기서도 똑같이 킹제임스 성경이나 NIV나 rod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어째서 개역성경만 ‘채찍’인가? 크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채찍으로 아이를 잘못 때리면 죽을 수도 있다. 여기 뿐이 아니다.

[잠 22:15]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개역)

아이의 마음에는 어리석음이 매여 있으나 바로잡는 회초리가 그것을 몰아내어 그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리라. (흠정역)

채찍을 정말 사람에게 휘둘러도 되는가? 아마 지금 그런다면 현행법에 의해 구속될 것이다. 게다가 어린 자식에게? 종에게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다. 로마 병정이 예수님에게 휘두른 것이 채찍 아닌가. 다른 구절에 이미 답이 있다.

[잠 26:3]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자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개역)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자갈이며 어리석은 자의 등에는 회초리니라. (흠정역)

여기서는 제대로 번역을 했다. 그렇다. 이처럼 채찍은 짐승에게 휘두르는 것이다. 채찍은 whip, scourge라는 단어가 엄연히 있는데, 개역성경은 왜 현대역본 영어 성경도 rod로 번역한 것을 굳이 채찍으로 바꿨는지 모르겠다.

또한 채찍은 대개 죽음에 이를 정도의 극심한 고통을 암시한다.

군대들의 주가 오렙 반석에서 미디안을 살육한 것처럼 채찍을 휘둘러 그를 칠 것이며... (사 10:26 상반)

욥의 생각이긴 하지만 채찍의 위력을 알 수 있는 구절도 있다.

채찍이 갑자기 사람을 죽인다 해도 그분께서는 죄 없는 자들의 시련을 비웃으시리라. (욥 9:23)

예수님도 빌라도와 로마 병사들에게 채찍으로 맞으셨다. 사도 바울도 채찍질을 당하고 로마 시민권자를 재판도 안 하고 잡아다 때린다고 항의했다.

그런데 예수님도 채찍질을 하신 적이 있다.

[요 2:15]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엮으시고 (개역)

아이에게는 아니지만 예수님도 채찍을 휘두르신 게 아닌가?

물론 노끈(cords)으로 만든 것이긴 하지만 주님은 채찍으로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을 엄히 꾸짖으셨다. 사람을 때렸다는 말씀은 없고, 양이나 소 등을 쫓으셨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은 표현이 다르다.

가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들과 소들과 함께 그들을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돈을 쏟으시며 탁자들을 뒤엎으시고 (흠정역)

그냥 노끈이 아니라 가는 노끈(small cords)으로 만드셨다고 했다. 때려서 고통을 주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내쫓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울화통 터지는 것은, NIV 같은 버전은 small을 뺐다. 실수가 아니라 깨알같이 섬세한 왜곡이다. 그래서 현대 역본들을 따라 개역성경에서도 ‘가는’이라는 표현이 빠진 것이다. small... 그야말로 작은 서술일 수 있지만 예수님의 행적과 그분의 성품을 알 수 있는 단어를 빼는 성경을 보면 안 된다. ‘노끈’인지 ‘가는 노끈’인지 뭇이 중하냐고 묻는 사람들은 계속 성경적으로(?) 아이에게 채찍을 휘두를 것인가?

우리가 잘 아는 ‘삼겹 줄’, ‘세 겹 줄’ 이 바로 ‘코드’이다. ‘전기 코드’라고 할 때의 끈 정도를 말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그를 쳐서 이기면 두 사람이 그 사람과 맞서리니 세 겹 줄은 빨리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전 4:12)

말을 위한 채찍(whip). 사람에게는 위험하다.

채찍은 영어로 whip이다. 이거야말로 짐승을 길들일 때나 카우보이가 말을 다룰 때 쓰는 것으로 사람에게는 무기의 일종이다. 밧줄을 꼬거나 가죽 등으로 만든다.

잠언 23장 13절에 이어지는 이 구절도 참으로 알궂다.

[잠 23:14]

네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스올에서 구원하리라 (개역)

‘채찍’으로 자녀의 ‘영혼’을 ‘스올’에서 건진다?

너는 그를 회초리로 때려 그의 혼을 지옥에서 구출할지니라. (흠정역)

누가 성경에 있다고 해서 채찍으로 자녀를 때리겠느냐고 할지 모른다. 실제로 크리스천 가정에서 그런 일이 있다고 생각하긴 어렵다. 또한 이 말씀을, ‘당근과 채찍’이라는 표현이 있듯이 체벌과 징계를 상징적으로 이르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래저래 성경은 점점 비유와 상징으로 뜻과 교훈만 참고하는 책으로 전락하는 것이다.

성경의 단어를 바꾸는 것은 강의 상류에서 물줄기를 바꾸는 일과 같다. 중요하지 않은 단어일수록 하류에서 영향을 미치겠지만, 상류에서 영향을 미치면 그 물줄기는 엉뚱한 곳으로 닿게 된다. 그런 잘못된 영향이 수백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미치면 신앙 자체가 다른 색깔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단어는 말씀(word)이다. 그 말씀이 예수님이고, 하나님이다. 오늘도 참된 말씀은 제 위치를 벗어난 단어들과 전쟁을 벌이고 있다. 📖

하나님이 조물주(造物主)인가?

창조자 vs. 조물주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5절에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분의 거룩한 형상을 욕되게 하는 자들에 대해 언급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자(Creator)보다 창조물을 더 경배하며 섬겼느니라. 그러나 그분은 영원히 찬송받으실 분이시니라. 아멘. (롬 1:25)

여기 '창조자'라는 단어가 등장한다. 이는 물론 여호와 하나님을 뜻하는 말이다. 하나님이라 하지 않고 창조자라고 한 것은, 만들어진 존재와 만든 존재가 뒤바뀌는 신성모독적 상황을 대비시킨 것이다.

영어로 creator가 아닌 Creator라고 이니셜을 대문자로 쓰는 것은 단순한 제조자가 아니라 신적 창조자를 의미하는 것인데, 구약에 2회 등장하고 소문자 creator로 1회 등장한다. 신약에는 Creator로 로마서 1장 25절과 베드로 전서 4장 19절에 각각 등장한다.

그런데 개역성경은 로마서의 '창조자'를 '조물주'로 번역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

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롬 1:25, 개역)

물론 ‘조물주’가 아주 틀린 번역은 아니다. 조물주란 모든 것을 만든 신이라는 뜻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물주라는 말은 좀 더 중립적인 용어다. 세간에 떠도는 유행어 중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이 있듯이 불신자들도 조물주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그것은 물론 알 수 없는 만물의 제조자를 가리키는 것이다.

성도들은 온 세상을 만든 하나님을 지칭할 때 조물주라고 표현하지 않는다. 물론 ‘창조자’ 역시 중립적인 용어일 수 있다. 하지만 이 말은 창조주 하나님을 떠올리기 때문에 타 종교에서는 잘 쓰지 않는다.

조물주는 인터넷만 검색해 봐도 제일 먼저 원불교 용어 사전의 설명이 등장한다. 원불교에서는 조물주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일체생령이 다 각각 자기가 자기의 조물주라고도 한다니, 이런 사상이야말로 바울이 경고한 것처럼 창조물을 창조자와 뒤바꾸는 개념이 아닐까.

창조(創造)와 조물(造物)은 다른 말이다. ‘창조’는 무언가 새롭게, 또 창의적으로 무에서 유를 만들어 내는 개념인 반면에, ‘조물’은 글자 그대로 무언가 만든다는 뜻만이 들어 있다. 또한 조물주라는 말은 알 수 없는 만물의 제조자를 ‘주(主)’로 칭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타 종교의 잡신을 ‘주’로 인정할 수 있는 위험한 표현이다.

단어의 소속

과거 개역한글판의 ‘조물주’라는 단어에 문제의식이 있었는지, 개역개정으로 바뀔 때는 창조주로 수정되기도 했다.

그런데 로마서 1장 25절은 그대로이고 베드로전서 4장 19절만 바뀌었다. 왜 한 곳만 바뀌었는지 이유는 알 수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이다 (벧전 4:19, 개역)

크리에이터(Creator)라는 단어에 ‘주(主)’의 개념은 없지만 한 곳이나마 조물주가 창조주로 바뀐 것은 다행이다.

단어는 매우 민감한 속성들을 지니고 있다. 한 나라의 독립투사가 폭탄을 던지면 지배국 입장에서 ‘범죄’지만, 독립투사의 본국에는 ‘의거’가 되고, 제삼국의 눈에는 ‘테러’가 될 수 있다. 어느 관점, 어느 위치에서 보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각 단어에 저마다 사용자가 주장하는 정당성이 있지만 자기 위치에 맞는 단어를 선택해야 하는 것이다.

이처럼 단어에는 소속이 있다. 성경의 모든 단어는 하나님께 소속된 시각으로, 그분의 나라에 속한 서기관들의 마음으로 신중하게 번역해야 한다. 한 단어를 택할 때 타 종교나 불신자들의 언어가 아닌지 세심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성경은 문학 작품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 선포이므로 단어의 기계적 중립성에 너무 연연할 필요가 없다. 정확한 기독교적 세계관에 입각해 주관적으로 번역해야 오히려 더 나은 번역을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조물주’라는 단어는 오역이 아닐지 몰라도 적절한 표현은 아니다. 로마서 1장 25절은 하나님을 가리키지만, 우리의 하나님은 단순한 조물주가 아니시기 때문이다. 📖

언제나 옳으신 하나님 편에 서라!

공정성과 객관성의 문제

법원이나 언론은 늘 객관성과 중립성 시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사람의 생각은 한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고, 자기 이득을 위해 계편을 드는 가재일 수밖에 없다. 경찰, 검찰, 법원, 언론사 등이 기우는 정점에는 권력이 있고, 다시 그 핵심에는 돈이 있다. 돈이 왕이며 맘몬이 최고신이다.

예컨대 언론사의 논조는 광고 수주와 깊은 관련이 있는데, 대기업 S사 광고 없이 유지될 메이저 언론사는 없으니 비판적 기사의 수위가 낮아지고 그것은 솜방망이 처벌로 이어진다. 하지만 법원은 늘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쓰고 판결했다고 주장한다. 이런 이유로 성경에서 하나님은 재판을 공정하게 하라고 자주 말씀하셨다. 인간의 갈대 같은 마음을 아시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객관성에도 종류가 있고 대상이 있다. ‘자로 잰 듯한 중립’이라는 말이 있는데, 언론이라면 감정을 빼고 양쪽의 의견을 글자 수까지 동등하게 보도할 정도로 객관성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범죄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는데 양쪽 말을 똑같이 다룰 수 없는 것처럼 그런 중립은 공평일지는 몰라도 공정은 아니다.

사안의 경중이나 정의에 대한 기준이 빠진 중립을 비꼬는 ‘기계적 중립’이라

는 말이 있다. 한쪽이 일방적으로 도발을 한 것인데 언론이 양쪽 주장을 동일한 양으로 실어 주거나, 국민 여론은 반대가 훨씬 많은 일인데 찬반의 기사량이 똑같거나, 공익에 어긋나는 주장도 합리적인 주장과 똑같이 취급하는 등의 일이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성경을 해석하며 판단할 때도 이런 갈등에 부닥칠 때가 있다. 기독교는 세상에서 객관적인 종교일 수 없다. 기독교의 진리는 가장 공정하므로 아무도 변명할 수 없지만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불공정이며 횡포로 보일 것이다. 그러면 어디까지 그들의 비판을 수용해야 할까….

예수님을 예수님이라 부르지 못하는 성경

이런 일이 기독교 안에서 하나님과 성경을 두고도 일어난다. 어떤 신학자들은 성경과 교리 등을 아주 객관적으로 다루면서 그것이 분별력이라고 한다. 구원관에 대해서나 논쟁적 교리에 대해 대립한다면 둘 다 같은 무게로 다루고 소개하면서 답을 내리지 않기도 한다. 심지어 타 종교와 기독교를 말할 때도 중립적 자세를 유지하는 경우가 있다.

인간이 정말로 객관적이 되려면 그 대상과 이해관계가 없어야 한다. 예를 들어 지구 반대편 작은 나라의 휘발유탄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자료들을 가지고 무미건조하게 다룰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시며 창조주가 되신다. 성도라면 기독교를 타 종교나 철학과 동등하게만 바라볼 수 없다.

누군가 권력이나 대기업과 소송 중인데 판사가 내 편이 아니면 낭패일 것이다. 성경도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 사람이 해석하거나 번역하거나 설교하면 제대로 된 것일 수 없다. 특히 성경은 무조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봐야 한다. 예를 들어 예수님을 ‘예수’라고 쓰는 성경이 거의 전부인데, 물론 그것이 문법적으로나 어법상 맞는 것이지만 과연 잘하는 일인지는 생각해 볼 일이다.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 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 주니라 (마 27:26, 개역)

바라바도 바라바, 예수님도 예수다. 문법이란 세상의 약속이지만 하나님 위에 있는 게 아니다. 우리가 예수님만은 예수라 쓰지 못하겠다 하면 그만이다.

그때에 그가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님은 채찍질한 뒤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주니라. (마 27:26, 흠정역)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어려운 일인가?

요즘 스포츠는 각 구단이 유튜브를 통해 자체 중계를 하는 것이 유행이다. 이런 중계는 보통의 중계나 해설과 전혀 다르다. ‘대놓고 편파 중계’를 내세워 선수들 사기를 높이고 팬들에게 즐거움을 준다. 자기 팀 편파 중계 중에 자기 팀 선수만 응원하고 상대 팀의 패배를 기원한다 해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고 오히려 좋아한다.

틀릴 수 있는 것, 항상 옳을 수 없는 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열렬히 지지하는데, 우리는 틀릴 수 없고 항상 옳으신 하나님

에 대해서는 얼마나 지지하고 옹호하며 지키려고 애썼는가?

고유 명사에 ‘님’을 붙이면 안 되는 어법을 그렇게 잘 따지려면 모든 면에서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한국어 어법상 회중기도 중에 타인에게 존칭을 붙여선 안 된다. 대화하는 대상인 하나님보다 더 낮은 존재를 언급할 때는 내게 아무리 높아도 존칭을 쓰면 안 되기 때문이다. 이 부분은 기독교용어연구회에서 오래전부터 지적하고



시정을 교육해 왔지만 지켜지지 않는다. 몰라서도 그렇지만 알아도 면전에서 답임 목사를 김 목사, 이 목사 이렇게 지칭하는 대표기도자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 사람에게 하는 기도인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인가? 물론 사람도 듣기 때문이고, 어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오해할 수 있으므로 무조건 존칭을 빼기도 어렵다. 어법은 알아도 존중의 의미이며 관행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그렇게 사람 눈치 보면서 어법을 파괴하면서까지 존중을 잘하는 사람들이 성경은 왜 굳이 어법대로 예수님을 ‘예수’라고 표기하는가 하는 것이다.

또한 문법을 말하려면 오역투성이인 성경 번역부터 제대로 할 일이다. 성경 책은 애지중지하면서도 안에 있는 표현이 하나님을 깎아내리고 폄하하는데도 무감하다면 말씀을 아끼고 존중하는 것이 아니다.

이 성경들은 누구 편인가?

다른 그림 찾기 하듯이 다음 두 구절의 차이점을 보자.

이 일들 뒤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많은 사람들의 큰 음성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존귀와 권능이 주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계 19:1, 흠정역)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계 19:1, 개역)

이처럼 개역성경은 대본으로 삼은 현대 역본들처럼 이 한 구절에서도 ‘존귀’와 ‘주’를 뺐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는 할레나 무할레가 아무 효력이 없고 새로운 창조물만 있느니라. (갈 6:15, 흠정역)

할레나 무할레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갈 6:15, 개역)

여기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이라는 단서가 빠졌다. 당연한 말이니까 빼도 된다면 성경은 모호해진다. 모호한 책으로 심판하면 공정성이 떨어진다. 부패한 법조인들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혐의를 요리조리 빠져나갈 때도 이런 애매한 조항을 역이용하는 것 아닌가.

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감추어져 온 이 신비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하려 하심이라. (엡 3:9, 흠정역)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엡 3:9, 개역)

여기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가 빠졌다. 이렇게 자꾸 빠니까 예수님이 세상의 창조 이전부터 계셨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인지하는 사람들이 줄어들다. 이것은 예수님의 신성이 하나님과 동등하지 않다는 현대 역본 번역자들의 신학이 드러난 것이다.

현대 역본은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탄생한다.

원문(히브리어/그리스어) 성경은 영어로 번역하기 위한 신구약 본문으로 각각 정리되는데, 99%가 수용한 건전한 본문과 천주교가 사용하는 변경된 1%의 소수 본문이 있다. 이 소수 본문이 현대에 오면서 다양한 성경 제품으로 만들어진 것. 아쉽게도 한국에서는 소수 본문에서 번역한 현대 역본이 개역성경이 되었다.

최근 가장 시장 점유율이 높은 신국제역(NIV)의 편집장 에드윈 팔머는 일찍

이 이렇게 말했다.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언급한 구절은 몇 되지도 않는다.”

이런 생각들은 어떻게 성경에 반영되는가?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가 없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이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뚤어진 언쟁이 생기나니 너는 그러한 자들로부터 떠나라. 그러나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큰 이득이니 (딤후전 6:5~6, 흠정역)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딤후전 6:5~6, 개역)

여기서는 “너는 그러한 자들로부터 떠나라”가 빠지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빠졌다. 바울은 제자 디모데에게 다투는 자들에 대한 소개뿐 아니라 행동할 것도 말했다. 또한 단순한 경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것에 관한 이야기인데 대폭 축약했다.

너희가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으니 순수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벧전 1:22, 흠정역)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벧전 1:22, 개역)

이 부분은 ‘성령을 통해’가 빠졌다. 목적과 방향과 방법이 모호해지게 만들었다. 정치인들이 모호하게 말해서 법적 책임을 미연에 방지할 때 쓰는 방법이 ‘주어 없이’, 또는 정확한 서술이 없이 말하는 것이다. 성경은 정확해야 내가 어

편 방법으로 어떻게 행하고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 알 수 있다.

즉 홀로 지혜로우신 우리 구원자 하나님께 영광과 존엄과 통치와 권능이 이제와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유 1:25, 흠정역)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유 1:25, 개역)

여기서는 ‘지혜로우신’이 빠지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추가되었다. 묘한 것은 ‘하나이신’이 추가됐다는 사실이다. 흠정역은 구원자(Saviour)인 삼위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현대 역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through, 통하여) 홀로 하나이신 구원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했다. 말하자면 영광받을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예수는 영광을 돌리는 이유가 된다. 삼위일체를 은근히 부정하는 내용이다. 이런 것이 객관적인 눈으로 편집했다는 인본주의 성경이다.


만일 우리가 코란과 불경을 번역하거나 편집해야 한다면 어떨까. 알라의 거룩함이나 석가모니의 신성 따위가 나오면 수정하고 조금이나마 약화시키는 단어를 선택할 것이다. 아무리 그래도 함부로 단어를 막 빼고 바꾸고 할 수 있을까? 차라리 그 일을 말지 않는 게 나을 것이다.

그런데 어찌 된 것이 이 현대 역본 편집자들은 감히 하나님의 말씀에서 엄청난 단어들을 빼고 버젓이 판매한다. 무슬림이나 불교도들도 크리스천이 번역한 자기네 경전을 선호하지 않을 텐데, 기독교인들은 그런 것을 따지지 않고 진화론자, 공산주의자, 세속주의자들이 번역한 현대 역본의 위험성에 무감각하다.

사람은 객관적일 수 없다. 어느 쪽으로든 기울게 되어 있다. 그럴 바엔 하나님 쪽으로 기울는 것이 낫다. 실패할 수 없는 공평한 길이다. 사무엘상 2장 30

절에서 하나님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들을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들을 경홀히 여기리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도 그럴 텐데 당연한 이치 아닌가….

가치 중립적인 태도로 말씀을 재단하고 비평할 수 있다고 믿는 자들, 그런 객관적이고 공정한 눈으로 많은 사본을 비교 연구해 더 나은 성경을 만들 수 있다고 말하는 자들을 멀리하자.

타 종교와 기계적 균형을 맞추는 자들, 마치 남 얘기하듯 성경과 교리와 신학을 나열해 놓고 정답은 없다고 말하는 자들로부터 떠나야 한다. 우리가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존중해야 하지만 가장 먼저 하나님 자체인 말씀에 대한 태도를 분명히 해야 한다. 아무리 편파적이어도 지나치지 않은 하나님 편에서라! 



Reading the Bible with Literacy

제2장

성경과 단어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합 3:2)... 과연 적절한 번역일까?

공팔인가, 몸인가? (사 11:5)

도피성(逃避城)과 도피 도시(逃避 都市)

‘풀무’와 ‘용광로’

‘보좌’와 ‘왕좌’의 차이

‘경배하다’를 ‘절하다’로 바꾸는 성경

다윗이 골리앗에게 던진 것은 ‘물매나’ ‘물맷돌’이 아니다

‘열두 영’과 ‘열두 군단’, ‘군대 귀신’과 ‘군단 마귀’

악귀, 사신, 산 영, 생명... 왜 성경에 이런 단어가??

모기에는 긴장하고 vs.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마 23:24)

“그게 그 나라였어?” 성경 속 나라 이름, 개역과 흠정역 비교

오리, 십 리, 큐빗, 갈대, 스타디온... 성경 속 ‘길이’를 재는 단위를 미터로 환산하면?

생육하다 vs. 다산하다

이미지로 보는 ‘개역성경 vs. 흠정역’ 단어 비교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합 3:2)… 과연 적절한 번역일까?

몇 년 내로 부흥한다?

우리가 사용하는 한국어 개역성경에는 눈에 익은 말씀들이 많다. 그중 하나가 부흥을 말할 때 쓰는 하박국 3장 2절의 일부분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합 3:2 중, 개역)

여기서 눈에 띄는 것은 ‘수년 내에’와 ‘부흥’이라는 표현이다. 교회의 부흥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아주 희망적으로 느낄 만한 내용이다. 부흥이란 것이 평생 걸려도 안될 수 있는데 두 자릿수 이하라는 구체적인 수치가 나오니 말이다. 그래서 이 구절은 예전부터 자주 인용되고 활용되었다.

물론 이 구절은 명백한 오역도 아니고, 교리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내용은 아니지만 살펴보는 이유가 있다. 우선 국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영어 성경인 NIV를 보자. 참고로 NIV는 의도된 오역이 가장 많은 영어 현대 역본으로 예수님의 신성을 비롯해 핵심적인 것들을 상당량 희석한 성경이다.

O LORD. Renew them in our day (합 3:2 중, NIV)

‘수년 내에’라는 표현은 없다. ‘부흥’이라는 표현도 없다. “우리의 날, 우리의 때에 새롭게 하옵소서” 정도로 옮길 수 있다. 일단 해, 년, 수년 이런 말 자체가 없다. 킹제임스 영어 성경에는 years가 나온다.

O LORD, revive thy work in the midst of the years. (합 3:2 중, KJB)

개역성경은 이 킹제임스 성경과 좀 더 비슷하다. 하지만 여기 years는 ‘해들’이라는 기간 또는 세월을 말하는 것이라 굳이 ‘수년’이라고 번역하기는 애매한 표현이다. 게다가 midst는 ‘한가운데’, ‘한중간에’라는 뜻이니 수년 ‘내에’라고 기간을 한정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라는 일들을 마지막 부분이 아니라 중간에, 너무 늦지 않게 해결해 주실 것을 바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킹제임스 영어 성경을 그대로 옮긴 흠정역 성경은 이렇다.

오 주여, 그 해들의 한중간에 주의 일을 되살리시옵소서. (합 3:2 중, 흠정역)

시간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열망에 초점을 맞춘 내용이다.

하박국 3장은 대언자 하박국의 기도다. 전체적으로 봐도 어떤 특정한 일을 수년 내에 이루어 달라고 할 만한 정황이 아니다. 이 내용은 하박국 1장 5절에 나오는 ‘내가 너희의 날들에 한 가지 일을 행하리니’라는 말씀을 기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개역성경 번역은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이다. ‘수년 내에’가 아니다.



질문의 대언자로 알려진 하박국의 이름은 ‘손을 모은다’ 혹은 ‘껴안는다’라는 뜻인데, 그가 활동한 시대적 배경은 자기 민족인 유다 왕국이 그들을 포로

로 끌고 갈 바빌론에 멸망당하기 직전이라 하박국서는 대부분 바빌론 갈대아 사람에게 유다가 포위당하는 내용이다. 그러므로 그의 기도는 현재의 위기에서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이 초점이라 할 수 있다.

다른 한국어 성경들도 바른성경 외에는 대부분 ‘수년 내에’가 아닌 ‘우리 시대에’로 옮겼다. 또한 ‘부흥’이 등장하는 성경은 한곳도 없다.

주께서 수년 내에 주님의 일을 소생시켜 주소서. (바른성경)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을 우리 시대에 다시 행하시고 (현대인의성경)

우리 시대에도 그 일을 보여 주십시오. (공동번역)

여호와여, 우리 시대에 주의 놀라운 일을 다시 행하여 주십시오. (쉬운성경)

주님의 일을 우리 시대에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새번역성경)

주의 일을 우리 시대에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표준새번역)

한국 교회에서 사용하는 ‘부흥’의 개념

한국 교회는 ‘교인 수가 늘어나는 일’과 ‘부흥’을 동일시하기 때문에 이 하박국의 구절을 즐겨 인용해 왔다. 번역이 조금 다를 수 있고, 또 그렇게 번역한 나름의 이유도 있겠지만, 교회나 교계 단체들이 이 표현을 마치 현재 상태에서 ‘수년 내의 부흥’으로 해석하는 것은 너무 아전인수라는 것이다.

리바이별과 부흥은 같은 말이라지만 확연히 다른 느낌이다. 리바이별은 다시 돌이킨다는 뜻이지만 한국 교회에서 부흥은 다시 부(復)에 흥할 흥(興)인데, ‘부’보다는 ‘흥’에 방점이 찍혀 있다. 전에 흥한 적이 없어도, 새로 개척한 교회에서도 부흥을 말하기 때문이다. 그냥 ‘흥할 흥’이다. 이것이 양적 성장에 더 기울어진 원인 중 하나다.

2023년에 빌리 그래함 50주년 기념 전도 대회가 열렸는데, 포스터의 한 부분을 보면 성경 구절에 역본 표기가 되어 있다. 보통은 하지 않는 특이한 사례다.

회개! 회복! 부흥!

Repent! Recover! Revive!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하박국 3:2 / 개역한글

“O LORD, revive thy work in the midst of the years, in the midst of the years make known”

Habakkuk 3:2 / KJV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하박국 3:2 / 개역한글)

“O LORD, revive thy work in the midst of the years, in the midst of the years make known” (Habakkuk 3:2 / KJV^{*})

‘개역한글’이라고 하면 대개 2012년까지 사용한 개역성경을 말한다. 대한성서공회는 이때 저작권이 만료되기 전에 일부를 개정해 ‘개역개정’으로 새 판권을 만들었다. 그런데 위 구절은 개정된 부분이 없이 똑같다. ‘부흥케’만 ‘부흥하게’로 바뀌었다. 그런데 왜 굳이 개역한글을 넣고, 역본 표기를 하고, 영어로는 잘 쓰지 않던 킹제임스 영어 성경(KJV)을 병기한 것일까.

*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KJB 또는 KJV로 표기하는데, V는 Version(버전)을 뜻하는 말이지만,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하나님 말씀의 최종 권위로 믿는 이들은 이 역본이 하나의 버전이 아니라 바이블(Bible)이라는 뜻을 담아 KJB라고 표기한다.

우선 NIV를 쓰려고 해도 ‘부흥’이라고 번역할 단어가 없다. renew는 좀 약하다. 그러나 킹제임스 성경에는 revive, 즉 부흥, 리바이벌을 뜻하는 단어가 있다. 또한 NIV에 없는 years가 있어서 몇 년, 몇 해, 수년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래서 NIV보다 훨씬 두 구절이 비슷해 보인다.

개역개정과 똑같은데 굳이 개역한글을 쓰고 표기한 이유는, 주로 쓰던 현대 역본이 아닌 가장 오래된 킹제임스 역본을 병기하는 명분으로 사용한 게 아닌가 싶다.

이 모두가 개역성경을 인용해 캐치프레이즈를 만들고 가르쳐 온 이력 때문에 그것을 지키려다가 생긴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면 그냥 한글만 표기해도 되었을 텐데, 왜 굳이 영어를 함께 썼을까... 미국에서 프랭클린 그래함을 초청해서 그런 것 같다.

50년 전인 1973년으로 돌아가자는 말은 가능하다. 하지만 1973년의 빌리 그래함(그레이엄) 집회를 부흥이라고 하면 전무후무한 사건이었으니 ‘되돌아감’의 의미가 아니라 역시 ‘흥할 흥’만 해당된다. 1907년 평양 대부흥이 있었으니 그때의 정신으로 돌아가자는 주장도 할 수 있지만, 그러면 1907년이야말로 이전에 더 큰일이 없었으니 대부흥이라고 부를 수 없다. 오직 한국에서만 부흥을 다시 돌아간다는 의미보다 폭발적 성장이라는 의미로 쓰고 있는 것은 아닐까?

또한 여기서 벌어지는 모순이 있다. 그렇게 여러 역본을 오가면서 저런 캐치프레이즈의 정당성을 만들어 내는 사람들이 한국어 성경은 왜 그토록 개역성경 하나만을 고집하면서 다른 성경을 쓰는 사람들을 색안경 끼고 보면서 이단 운운하며 정죄하느냐는 것이다.

참으로 이상하다. 완벽한 한국어 성경이란 있을 수 없으니 조금이라도 더 좋은 것을 쓰자는 것인데 말이다. 한국 교회가 성경을 통일한다는 것은 독과점 상태에서 실로 엄청난 수익이 발생하는 일이므로 그런 목적의 견제밖에는 이유를 추측하기가 어렵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지만 어쩔 수 없이 다양한 신학과 의도를 지닌 여러 역본들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자기가 하려는 말을 옹호해 주는 번역본을 그때그때 제시하면서 자기주장의 당위성을 확보하려는 시도는 자제해야 한다. 이런 식이라면 원하는 어떤 논리도 쉽게 펼칠 수 있게 된다.

성경은 사심 없이 있는 그대로 옮겨야 한다. 자의적 해석, 감정을 담은 단어 선택, 목적을 반영한 번역은 반드시 문제를 일으킨다. 성경을 우리 시대의 말씀으로 이해하려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과도해지면 많은 이단 종파들처럼 성경을 이용해서 목적을 이루려는 시도가 될 수 있으므로 일차적으로는 기록 당시의 배경과 정황을 이해하면서 담담하게 옮겨야 한다.

그러다 보면 뜻이 딱 떨어지지 않고 답답할 때도 있지만 왜곡의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더 정확히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 결국은 성경 번역과 해석과 적용은 ‘말씀을 내게 맞출 것인가’, ‘나를 말씀에 맞출 것인가’의 싸움이다.

킹제임스 영어 성경은 가장 오래된 최초의 친구약 영어 성경전서지만 그 우수성은 아직도 따라갈 번역본이 없다. 그러므로 가장 좋은 옛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 다시 새로워지는 것이다. 진짜 부흥은 바른 성경을 선택할 때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그 일이 우리의 날들, 우리 해들의 한중간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다. 📖

콩팥인가, 몸인가? (사 11:5)

어떤 분이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을 웨스터사전을 참고해 읽고 있는데, 이사야서 11장 5절 말씀 중 특정 단어가 현대 역본과 뜻이 달라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왜 흠정역은 ‘콩팥’이고, 다른 성경들은 ‘몸’으로 번역했는가 하는 것이다.

[사 11:5]

의를 자기 허리띠로 삼고 신실함을 자기 콩팥 주위의 띠로 삼으리라. (흠정역)

And righteousness shall be the girdle of his loins, and faithfulness the girdle of his reins. (KJB)

정의가 그의 허리를 두르는 띠가 되고 신의가 그의 몸을 두르는 띠가 되리라. (가톨릭성경)

Righteousness shall be the belt of his waist, and faithfulness the belt of his loins. (ESV)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개역)

Righteousness will be his belt and faithfulness the sash around his waist. (NIV)

킹제임스 성경에 loins와 reins가 나오고 허리, 콩팥 등의 단어가 나오는데 다른 역본에는 ‘콩팥’을 ‘몸’으로 번역해 혼동이 온다는 질문이다.

먼저 loins는 ‘허리’라는 뜻이다. 그런데 다른 한국어 성경들이 ‘몸’으로 번역한 킹제임스 성경의 reins는 허리와 콩팥이라는 뜻이다. 흔히 쓰는 현대어로 콩팥(신장)은 kidney인데, 성경의 콩팥은 『에스라 성경사전』에 이렇게 소개된다.

콩팥 : 여러 희생 제사에서 희생 예물의 콩팥과 그 주위의 기름은 제단에서 불태웠다(레 3:4; 4:9; 7:4). 콩팥은 종종 사람을 뜻하며 이때는 언제나 상징적으로 사람의 마음(시 16:7; 렘 12:2), 내적 존재(욥 17:3; 잠 23:16)를 뜻한다. 하나님이 사람의 ‘콩팥과 심장’(reins and hearts)을 조사하신다는 말은 그분께서 사람의 속생각과 동기를 아신다는 뜻이다(시 7:9; 26:2; 렘 11:20; 계 2:23). 이런 경우, (흠정역에서) 콩팥은 ‘속 중심’으로, 심장은 ‘마음’으로 번역되었다.

이처럼 콩팥(reins)에는 깊은 뜻이 있는 것인데, 현대 역본들은 허리를 두르는 띠가 등장하니 콩팥과 허리라는 두 개의 뜻 중에 ‘허리’를 선택해 loins 또는 waist로 바꾼 것으로 보이고, 한국어 성경들은 단순히 ‘몸’으로 옮긴 것 같다. 실제로 콩팥 주위를 두른다는 말이 어색한 건 사실이다. 하지만 단어를 바꾸면 번역자의 잘못된 해석이 들어가게 되고, 심오한 뜻이나 중의적 의미는 희석될 수 있다.

주께서 내 **콩팥**을 소유하셨으며 내 어머니 태에서 나를 덮으셨나이다. (시 139:13, 흠정역)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시 139:13, 개역)

이처럼 하나님이 사람의 깊은 속 중심과 존재 자체를 소유하셨다는 말씀이

그저 육신적 장기들을 소유하셨다는 일차적 의미로 바뀐다.

그 죄 헌물의 기름과 콩팥들과 간 위의 꺼풀은 제단 위에서 태우니 이 일이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었다. (레 9:10)


죄 헌물도 증대한 부분을 태우도록 하셨듯이 우리의 깊은 속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다.

reins는 지금의 영어 사전에도 콩팥이라는 의미와 함께, ‘감정과 애정이 있는 곳’으로도 소개되는데, 콩팥의 위치를 보면 알 수 있다. 콩팥은 갈비뼈 아래쪽으로 윗배 정도에 있는데, 이 부분은 허리에 해당한다. 그래서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온다는 말씀이 있는 것이다. 바로 속마음이 있는 곳을 뜻한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기록이 말한 것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요 7:38)

우리나라 사람들은 마음이 가슴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이유로 유대인들은 마음이 배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또한 사람의 자손도 누구의 ‘허리’에서 나왔다는 표현이 성경에 종종 등장하는데, 역시 속 중심과 존재 자체를 뜻하는 것과 비슷한 표현이라고 생각된다.

이미 요셉이 이집트에 있었으므로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모든 혼이 일흔 혼이다. (출 1:5)

‘콩팥’인가 ‘몸’인가의 문제가 교리의 중대성 면에서 아주 심각한 것은 아니겠지만, 하나님의 참된 뜻을 알려면 단어를 임의로 바꾸는 것보다 그대로 두는 것이 항상 옳다는 것을 알려 주는 사례라고 하겠다. 킹제임스 성경을 선택하면 최소한 이런 실수는 범하지 않을 것이다. 

도피성(逃避城)과 도피 도시(逃避 都市)

성곽이 아니라 ‘도시’

개역성경에는 도피성(逃避城, city of refuge)이라는 단어가 있다. 나는 어릴 때 이 단어를 듣고, 실수로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가는 성(castle)이 있는 줄 알았다. 지금도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한자로도 도피성의 ‘성’은 그냥 성(城)이고, 도시를 뜻하는 성읍(城邑, city)도 한자가 성(城)이다. 요즘 ‘롯데캐슬’이니 하는 브랜드가 많은데, 그 castle도 성(城)이다.

한 촌사람 하루는 성내 와서 구경을 하는데
이 골목 저 골목 다니면서 별별 것 보았네
맛 좋은 냉면이 여기 있소 값싸고 달콤한 냉면이오
냉면 국물 더 주시오 아이구나 맛 좋다

학창 시절에 우리나라 노래인 줄 알았던 <냉면>의 1절이다. 그때 송실합창단의 <비브라 콤파니(vive la compagnie)>라는 노래를 자주 듣고도 <냉면>이 그 곡의 변안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다. 이 노래는 ‘친구여, 축배를’이라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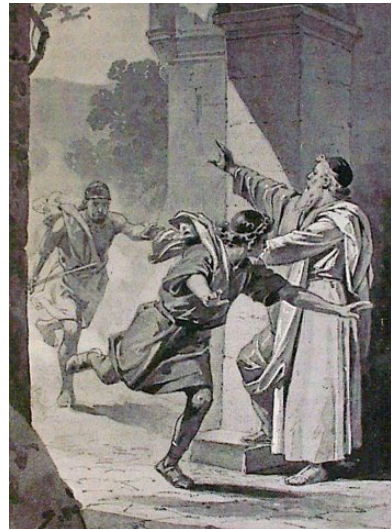
번역되는데, 너무나 토속적인 주제와 가사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아무튼 <냉면>의 가사에는 성내(城內), 즉 성의 안쪽이라는 말이 등장한다. 어릴 때 이 노래의 가사를 떠올리면, 어떤 사람이 성벽 안쪽에 있는 공간에 들어와 무언가 구경하는 것이 연상되었다. 그 연상되는 크기는 매우 한정돼 있었다. 그래서 ‘시온성’이라고 할 때도 영주나 왕이 머무는 성을 떠올렸다.

저 멀리 보이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아버지 집이라 하니 더더욱 그곳은 공주가 갇혀 있는 마법의 성 같은 곳으로 그려졌고, 그 성에 아무리 많은 사람이 들어가도 아주 소수일 것처럼 느껴졌다. 그런데 도피성이나 시온성의 ‘성’은 산성(山城)이나 고성(古城) 같은 게 아니라 도시(city, 都市)이다. 도시는 작을 수도 있지만 엄청나게 클 수도 있고, 아무리 작아도 도시라고 했을 때 다가오는 느낌은 성과 확연히 다른 것이다. 물론 고대의 도시는 성벽이 있고 성이 있는 그런 도시가 맞는다. 단어의 정확성을 말하는 것이다.



도피 도시로 피하는 모습

도피 도시(도피성)는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도망해 보호받을 수 있는 지역이었다.

너희가 레위 사람들에게 줄 도시들 가운데는 사람을 죽인 자를 위해 너희가 지정할 여섯 개 도피 도시가 있어야 하리니 이것은 그가 거기서 도피하게 하려 함이

라. 또 너희는 그 도시들에다 마흔두 개 도시를 더할지니라. (민 35:6)

너희를 위해 도시들을 너희의 도피 도시로 지정하여 알지 못하고 사람을 죽이는 자가 거기로 도피하게 할지니라. (민 35:11)

그 도시들이 너희를 위해 복수하는 자로부터 피하게 하는 도피 도시가 될지니 이것은 사람을 죽인 자가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을 때까지 죽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민 35:12)


이런 도시들은 이스라엘 전역에 6개가 있었는데, 요르단 강을 기점으로 동서 각각 3개씩이다. 이 도시들은 48개의 레위인 거주 지역이었는데, 한 지역당 크기는 각기 달라 그 주변을 둘러싼 들판은 그들이 농사를 짓거나 가축을 기를 수 있도록 동서남북으로 2천 큐빗(규빗)*, 즉 사방 약 1km 정도 되는 땅이었다.

도피 도시의 계산법

그런데 민수기 35장 4절과 5절이 약간의 혼동을 준다. 거주 지역은 각기 다르고 그 주변 들판만을 뜻하는 것인가? 수치가 잘못 기록된 것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물론 그럴 리 없다.



이스라엘에 지정되었던 6개의 도피 도시(도피성) 지도. 가데스, 골란, 라못, 세겜, 베셀, 헤브론

* 140페이지 참조 

너희가 레위 사람들에게 줄 도시들의 주변 지역은 도시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돌아가며 천 큐빗 떨어진 곳까지가 되리라. (민 35:4)

또 너희는 도시를 한가운데 두고 도시 밖에서부터 동쪽으로 이천 큐빗, 남쪽으로 이천 큐빗, 서쪽으로 이천 큐빗, 북쪽으로 이천 큐빗을 측량할지니 이것이 그들을 위해 도시들의 주변 지역이 될 것이니라. (민 3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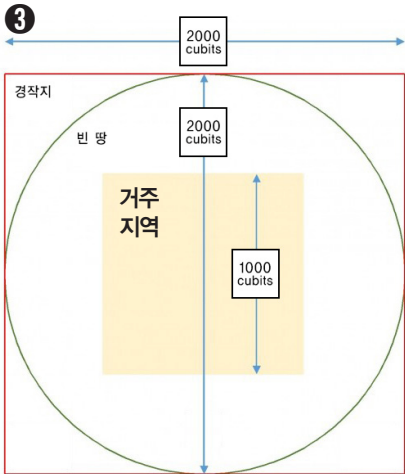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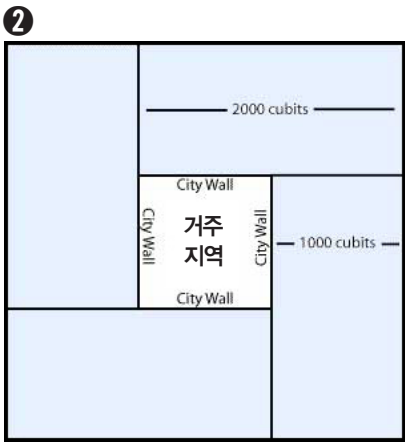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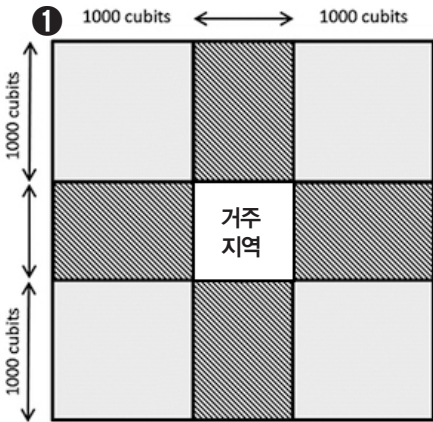
4절의 1천 큐빗은 무엇이고, 5절의 2천 큐빗은 무엇인가?

우선 4절은 주변 지역, 들과 초장을 가리킨다. 그리고 5절은 전체 지역을 가리킨다. ‘도시를 한가운데 두고’라는 것은 전체 지역의 중심부를 기준으로 설정하라는 것 같다. 그러므로 5절에서 지시하는 크기에서 4절에서 말하는 주변 지역을 빼면 사방 1천 큐빗의 공간이 나오는데, 이 부분이 거주 지역으로 보인다. 다음은 레위인의 도시를 계산하는 방법들이다(다음 면 그림 참조).

- ❶ 거주 공간의 네 귀퉁이 모서리를 기점으로 가로세로 1천 큐빗의 사각형이 배치되어 각 방향에 2천 큐빗 이상의 면적이 나오는 방법.
- ❷ 성벽에서부터 반대편 성벽 방향으로 2천 큐빗씩 계산한 방법.
- ❸ 도시 밖에서부터 안쪽으로 직경을 잴 방법. 유대인 랍비들이 계산한 것.

어느 것을 고르든지 사방 1~1.5km 정도의 땅이니 작은 시골 마을 정도가 레위인들의 거주 지역이었을 것이다.

도시의 면적도 중요하지만 인구도 도시의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조건이다. 레위인은 1개월 넘는 남자가 23,000명이라고 했다(민 26:62). 여자까지 2배수라고 보면 46,000명이 된다. 48개 지역에 균등하게 분포되었다면 한 지역당 960명 정도가 된다. 그러므로 약 1천 명이 사는 동네 48개 중에서 6개가 도피 도시로 지정된 것이다.



그리 큰 도시는 아니지만, ‘도시’를 왕족과 식솔들이 사는 ‘성(城)’으로 이해했을 경우보다 훨씬 큰 개념이므로 ‘도피성’이라는 단어는 특히 현대인들에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이다. 도피 도시뿐 아니라 시온성이나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도 그저 한 성이라고 하면 들어가기 무척 어렵겠다는 생각부터 든다. 성벽 안에 마을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 또한 한자로 城壁이며 도시(city) 개념은 아니다.

하나님의 도시는 무척 크다. 마지막에 성도들이 갈 곳인 새 예루살렘은 사방 약 2,240km의 정육면체 또는 피라미드 형태이므로 엄청나게 큰 공간이다. 그리고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도시 바깥 지역도 얼마든지 활용 공간이 될 것이다.

이제는 그들이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의 본향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그들을 위해 한 도시를 예비하셨기 때문이라. (히 11:16, 흠정역)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히 11:16, 개역)

어떤가? ‘성’보다는 ‘도시’라는 말에서 스케일이 느껴지지 않나. 서울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큰 도시이며 드물게 큰 강이 가로지르는 대형 도시다. 하물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도시는 얼마나 더 크겠는가!

‘성’이나 ‘성읍’이 오역이라는 말이 아니다. 영어가 city이고, 사람들에게 ‘성’에 대한 다른 이미지가 있으니 ‘도시’가 더욱 적절한 번역이라는 뜻이다.

단어를 바꾸고 삭제한 현대 역본

한편 NIV는 민수기 35장의 시티(city)를 더 작은 개념의 타운(town)으로 바꿨다. ‘도시’를 ‘도시’로 일관되게 번역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땅의 도시와 하늘의 도시 등 알려 주시고자 하는 의미를 제대로 전달해야 하기 때문인데, 레위인 거주 지역은 town이고, 도피 도시는 city라고 다르게 번역해 버리니 성경이 점점 모호해진다.

나를 친절하게 바꿔 준 것 같지만 자꾸 뜻이 달라지는 이런 현대 역본을 따라가는 개역성경도 레위인 거주 지역은 ‘성읍’으로, 도피 도시는 ‘도피성’으로 번역해 ‘성읍’을 검색하면 ‘도피성’은 누락된다. 흠정역은 ‘도시’를 검색했을 때 레위인의 도시와 도피 도시가 함께 나와서 알기가 쉽다. 48개 중에 6개에 추가로 용도를 부여한 것이 도피 도시니까 완벽하게 같은 지역인데 말이다.

그런가 하면 NIV는, 계시록 21장에서는 city로 그대로 두면서도 크다(great)라는 표현을 빼 버렸다. 개역성경도 같은 번역이다.

영 안에서 나를 크고 높은 산으로 데려가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저 큰 도시 곧 거룩한 예루살렘을 내게 보여 주었는데 (계 21:10, 흠정역)

And he carried me away in the spirit to a great and high mountain, and shewed me that great city, the holy Jerusalem, descending out of heaven from God, (KJB)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계 21:10, 개역)

And he carried me away in the Spirit to a mountain great and high, and showed me the Holy City, Jerusalem, coming down out of heaven from God. (NIV)

‘시온성’도 마찬가지로 ‘도시’이다.

시온 산은 아름답게 위치하여 온 땅의 기쁨이 되나니 곧 북쪽의 옆면들에 있는 위대한 왕의 도시로다. (시 48:2, 흠정역)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함이어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 산이 그러하도다 (시 48:2, 개역)

성경의 모든 단어가 즉시 우리에게 인지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억지로 그렇게 만들 필요도 없다. 배우고 이해하면서 성경을 읽는 것이 맞는다. 하지만 성경의 품위와 문법을 어지럽히지 않는 단어라면 최대한 적확(的確)한 표현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도시(city)라는 어렵지 않은 단어를 놓고 굳이 ‘성’과 ‘성읍’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정확한 성경, 세심한 번역을 보면 눈이 열리고 성경에 대한 안목이 자라날 것이다. 나는 틀림이 없고 빠진 곳이 없는 킹제임스 성경을 따라 하나님의 크고 거룩한 도시를 바라본다. 📖

‘풀무’와 ‘용광로’

풀무불에 사람이 들어갈 수 있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는 주일 학교 때부터 배우는 유명한 성경 속 일화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진짜로 믿지만 또 많은 이들은 설마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 의심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이 사건에서 한국인들에게 익숙한 단어는 ‘풀무불’이다. 처음 이 말을 접하면 “풀무불이 뭐지?” 하고 생각한다. 대장간에서 불을 피우는 화로라는 뜻을 알고 나면, 좀 이해가 안 가도 뭔가 위험한 불구덩이에 들어갔나 보다 한다. 그 옛날 바빌론에는 뭔가 다른 형태의 풀무불이 있었나 보다 생각하거나 아예 생각 자체를 안 한다.

풀무불은 대장장이가 철을 제련하는 불로 화로(화덕)처럼 생긴 구조물에 피우는 것이다. 그런데 그런 화로는 사람 셋, 아니 주의 천사까지 넷은커녕 한 사람도 들어갈 수 없는 작은 아궁이 수준이다. 대개는 어차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세 친구의 믿음이니까 그러려니 하지만, 그런 두루뭉술함이 성경을 더 신화로 만들고 불신자들의 조롱을 부를 수 있다.

그러면 바빌론의 풀무불은 무언가 스케일이 달랐을까?

그렇지 않다. 아니, 거기까지 생각하기 전에 번역 자체에 문제가 있다.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열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지라 하니라 (단 3:20, 개역)

풀무불로 번역된 단어는 furnace인데, **용광로를 뜻한다.** 용광로는 포스코(옛 포항제철) 같은 제철소에서 사용하는 쇳물이 끓는 거대한 도가니다. 과거에는 이런 곳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빠지는 사고도 있었다고 하는데, 흔적도 없이 녹아 버리기 때문에 추락지점의 쇳물을 떠서 장례를 치렀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물론 다니엘과 친구들이 포로로 잡혀가 살던 고대 바빌론의 용광로가 현대의 제철소 용광로보다는 작았겠지만, 사람 셋이 들어갈 수 있으려면 풀무불이라는 번역은 맞지 않는다.

자기 군대에서 가장 강력한 자들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한 뒤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 한 가운데로 그들을 던져 넣게 하니 (단 3:20, 흠정역)

국내에 성경이 번역되던 당시에는



대장간 모습



제철소의 용광로. 가까이 제대로 찍힌 사진이 없을 정도로 엄청난 열을 내뿜는다.



최소한 이런 삽화들에 나오는 크기는 되었을 바빌론의 용광로

대형 용광로가 없었을 것 같은데, 마땅히 번역할 말이 없어서 고심한 흔적이 느껴지기도 한다. 왜냐하면 이 단어를 스케일 크게 표현할 길이 막막해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결단코 대장간의 화로는 될 수 없다.

왕의 명령이 긴급하고 용광로가 심히 뜨거웠으므로 그런 까닭에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자들을 죽였고 이 세 사람 곧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 한가운데로 떨어졌더라. (단 3:22~23)

세 사람을 붙잡은 자들이 죽었다고 했다. 이만저만한 화로가 아닌 용광로였다는 것, 그리고 얼마나 크고 뜨거웠는지 알 수 있다. 용광로(熔鑛爐)는 글자 그대로 ‘광물(鑛)을 녹이는(熔) 화로(爐)’이다.

‘풀무’는 바람을 불어넣는 기구

‘풀무’(bellows)는 대장간의 불에 바람을 불어넣는 송풍기다. 풀무불이라는 단어는 합성어로 ‘풀무질하여 피운 불’이다. furnace는 불 자체가 아니라 구조물을 뜻한다. 풀무는 개역한글에서 제대로 번역된 곳도 있다.

풀무를 맹렬히 불면 그 불에 납이 살라져서 단련하는 자의 일이 헛되게 되느니라 이와 같이 악한 자가 제거되지 아니하니 (렘 6:29, 개역한글)

풀무를 분다는 것은 풀무로 바람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그런데 2013년 이후인 개역개정에서 오히려 개악됐다.

풀무불을 맹렬히 불면 그 불에 납이 살라져서 단련하는 자의 일이 헛되게 되느니라 이와 같이 악한 자가 제거되지 아니하니 (렘 6:29, 개역개정)

맹렬히 불 수 있는 것은 ‘풀무’ 자체지, ‘풀무불’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편 킹



한국식 풀무. 상자를 가로지르는 막을 밀어 화덕으로 공기를 주입한다.

제임스 흠정역은 풀무라는 도구 자체가 불탔다고 번역했다. 영어 현대 역본은 이 부분을 풀무가 불을 일으켜 납이 태워졌다는 뜻으로 원문을 변형했고, 개역성경도 그것을 대본으로 삼았다.

풀무들이 불에 탔고(The bellows are burned) 납이 불에 타 버렸으므로 주물 공이 헛되이 녹이나니 이는 사악한 자들이 뿌리 뽑히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렘 6:29, 흠정역)

희한한 것은, 개역성경이 ‘풀무’ 자체를 어떤 장소와 구조물로 번역하기도 했다는 사실이다.

그들은 주께서 이집트 곧 쇠 용광로 한가운데서 데리고 나오신 주의 백성이며 주의 상속재산이니이다. (왕상 8:51, 흠정역)

그들은 주께서 철 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됨이니이다 (왕상 8:51, 개역)

‘철 풀무’는 ‘쇠로 만든 송풍기’라는 뜻이 되니 어법에 맞지 않는다. 계시록에도 ‘큰 풀무’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큰 화덕’으로 개역개정 때 바뀌었다.



왼쪽은 손잡이를 돌려 바람을 일으키는 이스라엘의 풀무. 출처인 세계기독교박물관에서도 풀무의 번역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한다. 오른쪽은 주름이 있는 중간 부분을 눌러 바람을 불어넣는 고대의 풀무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분 뒤에 내가 보니 별 하나가 하늘로부터 땅으로 떨어졌는데 그에게 바닥없는 구덩이의 열쇠가 주어졌더라. 그가 바닥없는 구덩이를 여니 그 구덩이에서 **큰 용광로**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므로 해와 대기가 그 구덩이의 연기로 인해 어두워졌고 (계 9:1~2, **흡정역**)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계 9:2, **개역한글**)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계 9:2, **개역개정**)

용광로는 때로 지옥과 고난의 상징

개역성경에서 거대한 화로인 furnace는 일관성을 잃고 번역이 왔다 갔다 한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들어간 곳은 풀무불로 번역했으면서, 다른 부분에서는 같은 단어인데도 다른 번역이 등장한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평야의 온 땅 쪽을 쳐다보고 바라보니, 보라, 그 지역의 연기가 **용광로** 연기처럼 치솟았더라. (창 19:28, **흡정역**)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웅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창 19:28, 개역)

여기서는 풀무불이 말이 안 되니까 ‘웅기 가마’라고 했다. 개역한글은 ‘웅기점’이라고 했다. 도자기를 만드는 곳의 굴뚝같은 데서 피어나는 불의 연기를 표현한 것 같다. 용광로는 때로 지옥을 의미한다. 다니엘의 친구들이 던져진 곳이나 탈출 전의 이집트, 불타는 소돔과 고모라가 그랬듯이 불이 가득한 심판의 장소다.



풀무는 송풍기다. <삼시세끼> 예능에서 배우 유해진이 되살려 화제가 된 수동식 송풍기는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풍로, 송풍기, 풀무 등의 이름으로 방송에 나온 것과 같은 골동품과 현대식 제품이 거래되고 있다.



사람의 아들이 자기 천사들을 보낼 터인데 그들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모든 것들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그의 왕국에서 모아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지리니 거기서 통곡하며 이를 깊이 있으리라. (마 13:41~42, 흠정역)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풀무 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마 13:41~42, 개역)

용광로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건져 내기 전에는 살아 나올 수 없는 무서운 장소다. 대장장이가 손을 뻗으면 건져 낼 수 있는 작은 화로나 도자기를 만드

는 옹기 가마에서 피어오르는 불꽃 정도가 아니라는 말이다.

의미만 통하면 됐지 단어 하나에 집착할 필요가 있느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이 번역된 지 백여 년이 넘었는데도 국어사전에 없는 말을 고집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얻어지는 영적 유익이나 실익도 없다. 성경에서 배운 단어를 학교 시험에 답으로 쓰면 오답이 되는 상황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기독교에서 외치는 진리는 앵무새처럼 ‘풀무불에 들어간 다니엘의 세 친구’의 옛이야기로 굳어 갈 수 있다.

단어 하나를 고치고 안 고치고의 문제도 있겠지만 변화를 두려워하고 그간의 무심함을 이어가며 쉽고 편한 길로만 가려는 태도가 아닌지 관계자들에게 묻고 싶다. 굶어 부스럼 만들지 않고, 수익에만 치중하려는 것은 아닌지….

풀무불은 이제 듣기만 해도 성도들에게는 은혜가 되는 말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종교적 은혜나 감상이 아닐 것이다.

하나가 왜곡되면 연쇄적으로 뒤틀릴 수밖에 없는 것이 성경 번역이다. 특별한 추가 설명이 없는 한 하나님은 한 단어가 어느 위치에서든지 동일한 무게와 용법으로 이해되기를 원하신다. 그래야만 성경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게 되고, 그래야만 정확한 고지가 가능하여 인간에게 책임을 물으실 수 있다. 하지만 인간이 그 의미를 왜곡시킨 다음부터는 모든 책임과 손해를 인간이 져야 한다. 그래서 크나큰 나비 효과를 부를 수 있는 성경 번역은 생각보다 훨씬 엄중한 일임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

‘보좌’와 ‘왕좌’의 차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자리가 나온다. 이것을 ‘왕좌’라고 번역한 성경이 있고, ‘보좌’라고 번역한 성경이 있다. 이 단어는 영어로 throne이며, ‘스톤’ 혹은 ‘쓰론’이라고 발음할 수 있다. 이는 물론 임금이나 왕의 자리, 혹은 왕위 자체를 뜻한다.

한국에서 성경의 대명사로 통하는 대한성서공회 개역성경이 이것을 ‘보좌’라고 주로 번역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익숙한데, 찬송가 가사에도 많이 등장한다. 킹제임스 흠정역은 ‘왕좌’로 번역했으며, ‘보좌’는 한 곳에도 등장하지 않는다. 2012년 이전의 개역한글에는 ‘왕좌’라는 단어가 딱 한 번 등장하는데, 개역개정으로 바뀐 뒤로는 14회 정도 등장한다. 13개의 ‘보좌’가 ‘왕좌’로 개정된 것이다. 참고로 개역개정은 나머지 82회가 ‘보좌’로 나온다. 다 합쳐도 104회 정도다. 킹제임스 흠정역은 ‘왕좌’로 번역한 단어가 163회가량 등장한다. 킹제임스 영어 성경은 throne이 165회, 현대 역본의 대표격인 신국제역(NIV)은 172회 정도다. 이런 차이는 다음 예들을 보면 이유가 나타난다.

‘보좌’나 ‘왕좌’ 모두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인데 이렇게 다르게 번역됐다.

또 그가 수정 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

로부터 나와서 (계 22:1, 개역)

또 그가 하나님과 어린양의 왕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정결한 강을 내게 보여 주니라. (계 22:1, 흠정역)

And he shewed me a pure river of water of life, clear as crystal, proceeding out of the throne of God and of the Lamb. (KJB)

보좌(寶座)는 ‘보배로운 자리’, 즉 귀한 의자라는 뜻으로 이해된다. 사실 한 자라서 사극 같은 데 나올 것 같지만 성경 이외에는 별로 들어 보지 못한 단어다. 사극에서도 임금의 의자는 용상, 옥좌, 어좌 같은 말이 쓰이는데, 보좌는 기독교에서 많이 사용해서 안 쓰는 것 같기도 하다.

그런데 ‘보좌’를 옥스퍼드 사전은 이렇게 정의한다.

- ① 옥좌(玉座).
- ② [불교] 부처가 앉는 자리.
- ③ [가톨릭/개신교] 하느님이 앉는 자리.

네이버 국어사전에서 찾으면 이렇게 나온다.

- ① 임금이 앉는 자리. 또는 임금의 지위.
- ② 하나님이 앉는 의자.
- ③ 부처가 앉는 자리.



특이하게도 ‘부처가 앉는 자리’가 나오는데, 이것은 금강보좌(金剛寶座)와 관련이 있어 보인다. 석가모니가 보리수 아래에서 득도할 때 깔고 앉은 길상초, 즉 길하고 상서로운 풀방석을 올려놓은 것이 대좌(좌대)인데, 이것이 부처가 신격화한 뒤 ‘금강보좌’로 불리게 되었다고 한다. 베이징 진각사에는 ‘금강보좌탑’이라는 불교 유적도 있다. 우리의 일상 언어에는 불교에서 온 것들

이 많은데, 이런 것을 다 가려내기는 사실상 쉽지 않으므로 ‘보좌’라는 단어가 설령 불교 용어에서 왔다고 해도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성경에 나오는 보좌는 왕좌가 되는 것이 훨씬 성경적이다.



부처가 깔고 앉은 풀방석이 올려진 부분이 대좌이며, 금강보좌이다. (출처 : 불광미디어)

기독교와 성경에서 ‘왕’이 의미하는 것은 무척 중요한 개념이다. 우선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며, 다윗의 ‘왕권’으로 오시는 메시아다.

그가 크게 되고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왕좌를 그에게 주시리니 (눅 1:32)

개역성경은 이 부분을 ‘다윗의 왕위’라고 옮겼다.
한편 주님은 모든 왕의 왕이 되신다.

그분께서는 자신의 옷과 넓적다리에 왕들의 왕, 주들의 주라고 기록된 한 이름을 가지고 계시느니라. (계 19:16)

주님이 성육신하셔서 건설하시려던 것은 ‘천국’이 아니라 땅에 서는 ‘하늘의 왕국’이었다. 왕이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가면서 선포하여 이르되, 하늘의 왕국(kingdom of heaven)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라. (마 10:7)

천년 왕국과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성도들과 환난성도들이 왕좌에 앉아 왕이신 주님과 함께 다스리게 된다.

또 내가 왕좌들을 보았는데 사람들이 그것들 위에 앉아 있고 그들에게 심판이 맡겨졌더라. 또 내가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목이 베인 자들의 혼들을 보았는데 그들은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자기 이마 위에나 손안에 짐승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더라.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 년 동안 통치하였으나 (계 20:4)

첫째 부활에 참여할 몫을 가진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다. 둘째 사망이 그런 자들을 다스릴 권능을 갖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 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라. (계 20:6)

거기에는 밤이 없어서 등잔불이나 햇빛이 그들에게 필요 없으리니 이는 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빛을 주시기 때문이라. 그들이 영원무궁토록 통치하리라. (계 22:5)

개역성경은 통치하는 것을 ‘왕 노릇’이라고 번역했지만, 단순히 시늬이나 노릇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을 ‘보좌’로 번역하면 왕좌인지 단지 보배로운 자리인지 알 수가 없게 된다.

‘왕좌’라는 단어에는 가치를 규정하는 의미는 없다. 그러나 ‘보좌’는 보배롭다는 의미가 들어 있어서 사용에 유의해야 한다. 마귀 루시퍼는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다가 추락했는데, 그에게도 왕좌가 있다.

네가 네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가 하늘로 올라가 내가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내 왕좌를 높이리라. 내가 또한 북쪽의 옆면들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이 있는 높은 곳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과 같이 되리라, 하였도다. (사 14:13)

마귀는 자기 왕좌를 하나님이 계신 곳보다 높이하고자 했다. 그는 세상의 왕이라서 예수님께 세상 왕국을 모두 주겠다고 시험했다(마 4:8~9). 또 사탄에게는 그의 왕국이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눅 11:18). 악한 자라서 그렇지

자기 나름대로 왕은 왕이고, 자신만의 왕좌가 있다는 것이다. 적그리스도 짐승은 잠시 왕의 권능을 받기도 하고, 여덟 번째 왕으로 표현되기도 하는데(계 17:11~12), 이는 땅의 나라들 중 한 곳의 왕을 뜻한다. 그런데 현대 역본과 개역성경은 짐승에게도 보좌나 왕좌 같은 단어를 사용했다.

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계 16:10, 개역한글)

짐승의 보좌라면 적그리스도의 보배로운 자리라는 것인가? 다행히 이것은 개역개정(2013) 때 왕좌로 바뀌었다.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계 16:10, 개역개정)

킹제임스 흠정역은 이 부분을 보좌나 왕좌가 아닌 ‘자리’로 번역했다.

다섯째 천사가 자기 병을 짐승의 자리에 쏟아부으며 그의 왕국이 어둠으로 가득 하고 그들이 아픔으로 인해 자기 혀를 깨물며 (계 16:10, 흠정역)

킹제임스 영어 성경이 단순히 seat, 즉 의자나 자리로 번역한 것을 그대로 따랐기 때문이다.

And the fifth angel poured out his vial upon the seat of the beast; and his kingdom was full of darkness; and they gnawed their tongues for pain, (계 16:10, KJB)


개역한글 성경은 위의 이사야서 14장에 나오는 ‘루시퍼의 왕좌’를 ‘보좌’로 번역했다가 개역개정에서 ‘자리’로 바꿨다. 그렇다면 짐승에게도 ‘자리’라고 하

는 것이 낫지 않았을까.

이렇게 오락가락 자주 바뀌는 이유는 처음부터 보배롭다는 가치가 규정된 ‘보좌’라는 단어를 선택했기 때문이다. 어떤 단어를 만났을 때 정확한 신학적 이해가 있어야 바른 번역을 할 수 있다. 성경이니까 무조건 거룩하고 좋은 말을 사용하는 것이 잘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이 ‘보좌’와 ‘왕좌’의 차이이다.

신학을 알되 하나님을 존중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기계적으로나 무턱대고 번역하지 않는 적절한 단어 선택이 가능하다. 성경을 경전의 한 종류로 이해하고 비평하려는 신학, 객관성을 유지하려는 자유주의 신학으로는 바른 번역을 할 수 없다. 성경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 기록되었듯이 반드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 의해 보존되고 번역되어야만 한다.

최근 글을 쓰는 AI 챗GPT같은 것이 급속도로 발전해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고 있다지만, 그런 프로그램은 새로운 것을 창출하지 못하고 기존 것들을 딥러닝해 뽑아내고 취합해 정리만 한다. 그리고 AI가 쓴 것의 특징은 오히려 실수나 오타와 비문이 없이 완벽한 것이라고 한다. 기계적 완성도만 높인다는 의미다. 하지만 아무리 기술이 발달해도 성경은 사람이 다뤄야 한다. 모든 인공 지능 칩을 동원해도 감히 따라 할 수 없는 것이 성령의 감동이며 영감이다. 정확성을 기한다는 현대 역본들이 불신자를 동원해 오히려 하나님을 거스르는 방향으로 가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편에서 주관적으로 번역해야 바르게 할 수 있다.

보좌와 왕좌의 차이 같은 것부터 훨씬 심각한 문제까지, 수많은 간극이 오래전부터 그리스도인들이 선택한 권위역 킹제임스 성경과 비평적 시선으로 접근한 현대 역본 사이에 존재한다. 성경을 바꾼다고 사람의 본질이 바뀌거나 신실함이 증가되지는 않겠지만 성경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 그리고 최소한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지 않는, 즉 명령되게 부르는 실수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경배하다’를 ‘절하다’로 바꾸는 성경

bow, kneel, prostrate인가, worship인가?

‘절하다’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흔히 설날에 하는 세배나 차례상, 제사상 앞에서 하는 큰절을 떠올린다. 예전에는 어른을 만나면 하는 인사가 절이었다. 당연히 절은 존경과 존중의 표시로서 최대한으로 몸을 굽히고 낮추는 인사다.

성경에도 절을 하는 내용이 여러 번 등장한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백성 곧 헷의 자손들을 향해 몸을 굽히고(bowed)… 아브라함이 그 땅 백성 앞에서 몸을 굽혀 절하고(bowed down) (창 23:7, 12)

저녁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다다랐는데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는 그들을 맞이하기 위해 일어나 얼굴을 땅바닥에 대고 절하며(bowed himself with his face) (창 19:1)

백성들이 너를 섬기고 민족들이 네게 절하리니(bow down) 네가 네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네 어머니의 아들들이 네게 절할 것이니라. 너를 저주하는 자는 다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창 27:29)

절을 한다는 것은 바로 bow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이다. 이 구절들처럼 몸을 굽히거나 얼굴이 땅에 닿도록 엎드리거나 하는 인사로 우리나라에서 하는 큰절 같은 것일 수도 있지만 존중의 마음으로 90도 인사하는 것도 포함하는 행동이라 할 수 있다.

그러면 누구에게 절을 했는가? 아브라함이 헷의 자손들에게, 아브라함이 천사들에게, 그리고 땅에 가득할 민족들이 아브라함에게다. 한마디로 사람이 사람 또는 천사에게 하는 인사로서의 절이다. 사도 요한이 주의 천사에게 경배했을 때, 천사는 이런 행동을 금하기도 했다(계 22:9).

나병 환자의 경배

그러면 예수님께도 존경의 표시로 절을 해야 할까? 이 부분에서 어떤 구절들은 성경마다 차이를 보인다.

보라, 한 나병 환자가 와서 그분께 경배하며(worshipped) 이르되, 주여(Lord),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정결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므로 (마 8:2, 흠정역, KJB)

한 문둥병자가 나아와 절하고(knelt) 가로되 주여(Lord) 원하시면 저를 깨끗케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마 8:2, 개역성경, NIV)

킹제임스 흠정역은 한센병(나병) 환자가 경배했다고 번역했고, 영어 현대 역본을 따른 개역성경은 절을 했다고 번역했다. knelt는 kneel의 과거형으로 무릎을 꿇었다, 즉 경의를 표했다는 뜻이다. 기사 작위를 받을 때나 프리포즈할 때처럼 한쪽 무릎을 꿇고 앉는 것도 이 단어에 해당한다.

하지만 예수님을 향해 ‘주여’라고 불렀다는 것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한다는 뜻이다. lord가 아닌 대문자 Lord로 되어 있다. 그러면 경배했다는 표현

이 맞지, 굳이 절했다, 무릎을 꿇었다고 번역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사람의 비평을 통해 더 나은 번역을 할 수도 있다고 주장하는 현대 역본가들은 병을 고치기 위해 온 환자들이니 아마도 그랬을 거라고 합리적으로(?) 생각했던 모양이다.

느부갓네살의 경배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에게 경배하는 부분은 어떨까?

…느부갓네살 왕이 얼굴을 땅에 댄 채 엎드려 다니엘에게 경배하고(worshipped) 명령하여 그들이 그에게 봉헌물과 향기로운 냄새를 드리게 한 뒤 (단 2:46, **흠정역**)

이에 느부갓네살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prostrate)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드리게 하니라 (단 2:46, **개역**)

왕이 신하에게 경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해서 prostrate(엎드려 절하다)를 쓴 것이 분명하다. 이는 가슴이나 배를 땅에 붙일 정도로 엎드리는 자세다.

느부갓네살이 이교도라서 그랬는지 몰라도 이슬람교에서 엎드리는 자세나 가톨릭 사제가 서품을 받을 때 하는 동작과 비슷하다. 아무튼 자세가 아니라 그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중요하다.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여겨 경배를 했다고 보아야 한다. 그가 다니엘에게 봉헌물과 향품 등을 바치게 했다는 사실이 그것을 뒷받침한다.

이어지는 47절에서는 “네가 이 은밀한 일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을 보니 진실로 너

희 하나님은 신들의 신이시요 왕들의 주시며 은밀한 일들을 드러내시는 분이시니라.”
라고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경배가 맞는 번역이다.

가다라 지방 광인의 경배

다음은 가다라 지방의 광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다.

그러나 그가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 그분께 경배하고(worshipped) (막 5:6, 흠정역)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fell on his knee) (막 5:6, 개역)

이것은 광인의 속에 있는 부정한 영들, 즉 군단 마귀의 행동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현대 역본은 이 부분도 절한다고(무릎을 꿇었다고) 번역했다. 부정한 영이 경배한다는 것이 앞뒤가 안 맞는다고 생각했을 수 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알고 있었다.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이르되, 자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나님을 두고 간청하건대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막 5:7)

마귀들도 예수님의 존재를 믿고 두려워한다.

네가 한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으니 그것은 잘하는 일이니라. 마귀들도 믿고 떠스니라. (약 2:19)

물론 마귀들은 예수님을 인식할 뿐 굴복하거나 인격적 교제를 하지 않기 때

문에 믿는다는 것이 우리처럼 믿고 구원받는 믿음은 아니다. 계시는 줄을 믿는 것, 존재를 확실히 인지한다는 뜻이다. 어쨌든 마귀들은 타락한 천사로서 아무리 불순종하고 있어도 하나님의 아들 앞에 경배하고 간청할 수밖에 없으므로 경배했다는 표현을 바꿀 이유가 없다.

‘엎드려 절하세’ 유감

아무리 현대 역본이라도 예수님이 메시아로 탄생하신 것에 이의를 제기할 성경은 없다. 그래서 아기 예수께 동방의 지혜자들(동방 박사)은 경배를 한다.

이르되, 유대인들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쪽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마 2:2)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 자기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어린아이를 보고는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자기들의 보물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그에게 선물로 드린 뒤 (마 2:11)

여기서는 모두 worship을 쓴다. 그래서 <참 반가운 신도여>라는 122장 찬송가는 그 후렴에 문제가 있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났네

이 가사는 ‘엎드려 경배하세’로 바뀌어야 한다. 하지만 이 노래 가사조차 let us adore him이라는, 성경에 거의 쓰이지 않는 말이며 ‘그분을 흠모(숭배)하세’

정도의 표현이다.

아무튼 성경은 아기 예수께 경배를 드린다. 메시아이자 유대인의 왕이로서 갓난아기인데도 불구하고 경배를 하는 것인데, 공생애의 예수님께서는 상대를 가려서 경배라는 표현을 ‘절하다’, ‘무릎을 꿇다’로 바꾸는 것이 잘하는 일인가?

“우상에 경배하지 말라”는 합당한가?

개역성경은 우상에게는 오히려 ‘경배’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그러나 우상에게는 경배가 아니라 절을 하고 섬긴다고 표현해야 한다. 우상은 어떤 상황에도 경배의 대상이 아니고, 그냥 돌조각이나 목상 등이기 때문에 아예 성경 용어상 맞지 않는 말이다.

너희는 너희를 위해 우상들이나 새긴 형상을 만들지 말고 너희를 위해 서 있는 형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돌로 된 형상을 세우고 그것에 절하지(bow down) 말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레 26:1, 흠정역)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bow down)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레 26:1, 개역)

그런데 이것은 한국의 개역성경만 이렇다. 다 찾아보진 않았지만 NIV(신국제역)과 NASB(신미국표준역), 심지어 MSG(메시지성경) 같은 현대 역본도 ‘절하지 말라’는 의미의 bow down을 사용한다.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데, “우상에게 경배하지 말라”라는 표현은 모순된 것이다. 우상을 신으로 떠받드는 것이니 그 행위 자체는 경배가 아니냐고 물을 수 있지만, 경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적용할 수 있는 말이며 우상들은 감

히 경배라는 말을 갖다 붙일 수도 없는 존재들이다. 우리도 우상을 말할 때 그런 격식을 갖추지 않는다.

“돌부처에게 예배드리지 마세요.”

“해와 달에게 찬양을 올리지 마세요.”

이런 말은 어색한 것이다. 돌부처에 절하지 말고, 해와 달을 숭배하지 말라고 말할 수 있을 뿐이다. 특히 크리스천이라면 예배와 찬양 등에 담긴 의미를 알기에 더욱더 그렇다. 그런데 경배를 받으시는 대상이며, 가장 높고 유일하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하찮은 미물에게 ‘경배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이유는 전혀 없다. 작은 차이 같지만 하나님께는 큰 불경스러움일 수 있다. 성경은 이런 구분이 매우 민감한 책이라서 놀랍고 그 가치가 있는 것인데, 무심한 번역을 해선 안 된다.

우상에게 경배한다는 식의 발상은 마귀 입장의 언어다.

그분께 이르되, 네가 만일 엎드려 내게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하매 (마 4:9)

마귀는 자신에게 ‘경배하라고’ 요구한다. 이것은 경배로 번역하는 것이 맞는다. 현대 역본도 ‘경배’로 번역을 했다.

바른 성경이 영을 살어나게 한다

추가로 다음 구절도 개역성경만이 경배를 잘못 번역한 사례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

의 하나님을 섬기고(worship)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행 24:14, 개역)

그러나 내가 이것을 각하게 고백하오니 곧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그 길을 따라 내 조상들의 하나님께 그렇게 경배하며(worship)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에 기록된 모든 것을 믿나이다. (행 24:14, 흠정역)

한편 현대 역본은 멀쩡한 경배도 아예 빼버렸다.

이는 영으로 하나님께 경배하며(worship) 그리스도 예수님을 기뻐하며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자들이기 때문이다. (빌 3:3, 흠정역)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serve)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빌 3:3, 개역)

worship을 serve로 바꾼 결과, 개역성경도 경배가 봉사로 바뀌었다.

단어를 ‘바꿨다’고 말하는 기준은, 성경 번역을 위한 최초의 신구약 원어 ‘대본’을 수정해 하나의 다른 버전인 ‘소수 본문’을 만들었다는 의미다. 지금은 과거에 1%만이 사용하던 바로 그 천주교 사본인 소수 본문(수정 본문)이 대부분의 영어 성경이 되었고, 킹제임스 성경만이 공인 본문(다수 본문)에서 번역한 400년 전 그대로 남아 있다.


이쯤에서 NIV 편집장 에드윈 팔머의 항변을 다시 보자.

NIV는 오늘날 정통 개신교계에 팽배해 있는 크나큰 오류, 즉 거듭남이 믿음에 의한 것이고, 거듭나려면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해야 한다는 오류를 지적한다.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언급한 구절은 몇 되지도 않는다.

이런 생각을 지니고 있으니 예수님께 ‘경배’ 하는 것이 못마땅할 수밖에… 그들은 어떤 일련의 의도하에서 예수님의 신성을 희석시키려 한 것이 틀림없다. 어떤 성경을 읽어야 영이 살아나는지 답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현대 역본이 단순한 실수나 누락 정도라면 그렇게까지 반대할 이유가 없다. 이 성경들의 오역은 건물로 치면 주요 지점들이라 전체를 붕괴시킬 정도의 파급력이 있는데, 그에 비해 잘 눈에 띄지 않는 경우가 많다.

바른 성경을 지향하는 사람들은 묻는다. 마귀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면 가장 먼저 무슨 짓을 하겠느냐고… 당연히 가장 중요하고 효율적인 일을 할 텐데, 그것은 성경에 손을 대는 것이다. 그런 성경들이 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다. 부분적으로 바뀌어 있다. 당장은 느끼지 못해도 서서히 내 영혼육을 망가뜨린다.

자신의 영적 건강을 위해서도 바른 성경을 봐야 하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을 지녀야 할 것이다. 예수님께 경배해야 할 때에 절을 하고, 우상에게 절하는 것을 경배로 표현하는 성경을 하나님이 원하실 리 없다.

운동장 모래판에서 단지 압정 하나를 잃어버려도 거기서 아이들을 놀게 할 부모는 없을 것이다.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에서 수만 군대를 바꾸고, 베드로 전후서 만큼의 양이 빠진 것이 현대 역본인데, 그 위험성을 아무리 경고해도 귀를 막는 사람들이 많다. 이것저것 따지기보다는 열심히 잘 믿기만 하면 그만일까? ‘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다윗이 골리앗에게 던진 것은 '물매'나 '물맷돌'이 아니다

물매, 물맷돌은 다른 의미의 말

다윗이 무언가 다른 걸 던졌다는 뜻은 아니다. 정확히 말하면, “다윗이 골리앗에게 던진 무기는 ‘물맷돌’ 혹은 ‘물매 돌’이라고 부르지 않는다”라는 의미다.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삼상 17:48~49, 개역)

화살이라도 그것을 물리치지 못하겠고 물맷돌도 그것에게는 겨 같이 되는구나 (욘 41:28, 개역)

웃시야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매 돌을 준비하고 (대하 26:14, 개역)

개역성경은 이렇게 물매, 물맷돌, 물매 돌 등 세 가지 형태로 번역하고 있다. 일단 ‘물매’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물건이 아니다. 영어로는 슬로프(slope, 또

는 pitch)라는 단어가 나온다. 슬로프는 ‘경사’, 즉 기울어짐을 말하는 것으로 ‘스키 슬로프’라는 말이 있듯이 무언가 흘러내리는 정도를 말한다.

물매(slope) : 비스듬히 기울어짐. 또는 기울어진 정도. 기울기. 비탈지기. 경사.

-농업용어사전(농촌진흥청)

이처럼 물매는 물이 흐르는 기울기를 말하고, 지붕 공사를 할 때도 30도 이하의 각도로 된 것은 평지붕, 그 이상 기울어진 것은 물매 지붕이라고 한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다윗의 무기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사실이다.

‘물맷돌’은 수력을 이용한 맷돌 중 하나인데, 『고려사』 문헌에 단 한 번 등장한다고 한다.

물맷돌 : 물이 높은 데서 떨어지거나 도랑으로 빨리 흐르면서 수레바퀴 모양의 틀을 돌리면 틀 가운데 박힌 굴대가 따라 돌면서 맷돌 위쪽을 회전시킨다. 그리고 맷돌 위에 걸린 깔때기 모양의 통에서 곡식이 위쪽의 아가리로 조금씩 흘러 들어가 가루가 되고 걸썩질이 벗겨져 나온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이렇게 일단 물매와 물맷돌 모두 다윗의 무기와 무관함을 확인할 수 있다. 나는 이것을 킹제임스 흠정역 400주년 기념판(2011)의 옵서버로 참여했을 때 알았는데, 그때 평생 알고 있던 단어가 아예 없는 말이라는 사실에 작은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난다.

정확한 단어는 무릿매(slingstone)

바른 단어는 무릿매이다. 이 단어들은 혼동하는 사람이 많아서, 여럿이 한 사람을 때리는 ‘뭇매’를 ‘물매’와 ‘무릿매’로 사용한 용례도 남아 있다. 아무튼

‘무릿매’는 끈으로 잡거나 묶은 돌을 빙빙 돌리는 원심력을 이용해 던지는 도구로 열매를 딸 때나 짐승 등을 향한 공격 무기로 사용한다. 무릿매는 돌을 뺀 이 도구 자체를 말한다.

무릿매 : 작은 돌을 끈에 맨 후 끈의 양 끝을 잡고 휘두르다가 한쪽 끝을 놓아 돌을 멀리 던지는 팔매.

-국립국어원



그림에서 보듯이 돌을 감싼 무릿매를 돌리다가 한쪽 끈을 손에서 놓으면서 돌만 날리는 방식이다.

다윗은 맹수로부터 자기 양을 지키는 정도로 유능한 목자였다(삼상

17:34~35). 목자들이 양을 지키는 때는 시편 23편에 나오는 긴 막대기, 우산 손잡이처럼 끝이 둥글게 흰 막대기로 벼랑으로 떨어지는 양의 목을 낚아채기도 하고, 무릿매로 양 떼를 향해 다가오는 짐승들을 쫓아내기도 했을 것이다. 그에게는 어떤 무기보다 손에 익은 것이 무릿매였고, 그만큼 정확히 타격할 자신도 있었던 것이 틀림없다.



무릿매와 돌

그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나오며 다윗을 맞으러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맞으러 군대 쪽으로 재빨리 달려가면서 손을 자루에 넣어 거기서 돌을 꺼낸 뒤 무릿매로 그것을 던져 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그 돌이 그의 이마에 박혀 그가 얼굴을 땅에 대고 쓰러지니라. (삼상 17:48~49, 흥정역)

한편 개역성경에는 그냥 돌을 던지는 것도 물매로 번역한 곳이 있다.

그들은 활을 가지며 좌우 손을 놀려 물매도 던지며(sling stones) 화살도 쏘는 자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대상 12:2, 개역성경)

물론 현대 역본을 따랐기 때문인데, 이렇게 번역하다 보니 ‘돌’이라는 말도 빠지게 됐다.

그들은 활로 무장하고 오른손과 왼손을 다 써서 돌을 던지며(hurling stones) 활로 화살을 쏠 수 있는 자들로서 곧 베냐민에 속한 사울의 형제들이더라. (대상 12:2, 흠정역)

각 나라 사용자의 바른 현지어를 써야

물론 ‘뭘 그리 따지나, 뜻만 통하면 되지.’라고 할 수도 있다. 그것도 크게 틀린 말은 아니다. 어차피 관용적으로 오래 써 온 말이니 그게 국어사전에 없다고 해서 큰일 나는 것도 아니고, 의미의 경중으로 보면 무릿매가 대단히 중요한 단어라고 주장하고 싶지도 않다.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 승리했다는 사실이 무기가 무엇인지보다 훨씬 중요한 일이다.

하지만 누가 이 단어를 사전에서 찾았을 때 왜 없느냐 하거나, 또는 알 수 없는 단어가 성경에 등장하느냐고 할 수도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어 하나하나가 소중한데 고칠 수 있는 것도 굳이 안 고치고 놔둘 필요는 없지 않은가.

통일성의 문제도 있다. 물매, 물맷돌, 물매 돌, 물매꾼... 이러다 보니 공통된 글자가 ‘물’밖에 없어서 어떻게 성경을 검색해도 용례가 다 안 나온다. 무릿매를 던졌다, 무릿매 + 돌, 무릿매꾼... 이런 방식으로 번역해야 ‘무릿매’라는 특정 단어가 포함된 구절을 모두 찾을 수 있게 된다.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것은 모든 이들이 읽고 이해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 언어는 물론 구약은 유대인의 히브리어, 신약은 로마 시대 당시의 언어인 그리스

어였지만, 이후로는 온 세상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영어라 할 수 있는데, 언어가 흩어진 이후로 각기 다른 말을 사용하는 이방인들에게는 각 나라말로 옮겨져 전달되는 것이 합당한 방식일 것이다. 그러므로 성경의 기본 정신과 하나님의 의도는 가장 정확한 수신자들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라 하겠다.

만일 개역성경의 오역이 이런 무릿매 같은 말 몇 가지뿐이라면 그깟 도구의 명칭 하나쯤 관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너무 많은 단어를 잘못 사용하고, 드러나도 안 고치기 때문에 거론하는 것이다. 그러나 꿈쩍도 않는다. 이 싸움이야말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 기적이 아니면 이룰 수 없는 일이다. 📖

‘열두 영’과 ‘열두 군단’, ‘군대 귀신’과 ‘군단 마귀’

1. ‘영’과 ‘군단’

예수님이 로마 병정들에게 잡혀가실 때 베드로는 혈기를 참지 못하고 칼을 휘둘러 말고라는 병사의 귀를 잘랐다. 이 장면은 워낙 유명해서 예수님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에도 종종 등장한다.

말고의 귀를 예수님이 도로 고쳐 주신 것은 누가만 기록했다. 그가 의사였던 점을 생각나게 하는 지점이다. 아무튼 그 사고가 있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다. 성경을 좀 읽는 사람이라면 익숙한 구절들이 있는데, 아마 이 말씀도 많이 귀에 익은 내용일 것이다.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한 장면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열두 열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마 26:53, 개역한글)

나도 어릴 때부터 그렇게 알았는데, 이 구절을 보면 당연히 영적 존재인 열두

천사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오해하게 된다. 하지만 열두 영의 ‘영’은 ‘군단’이다.

너는 내가 지금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 그분께서 당장 열두 군단(legions)이 넘는 천사들을 내게 주시도록 할 수 없는 줄로 생각하느냐? (마 26:53, 흥정역)

열두 천사의 영(spirit)이 아니라 군단 수준의 하늘 군대를 보내실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legion(리전)은 ‘리전 오브...’로 시작하는 게임들이 떼 지어 전쟁을 벌이는 종류들인 것처럼 ‘군단’을 의미한다. 미드, 게임, 소설 등에 ‘레기온’이라고도 종종 등장한다.

군단이라고 하면 중대, 대대, 연대, 사단보다 더 큰 개념이다.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이 바로 알아들을 수 있는 로마 부



미드 <리전>과 소설 『레기온』은 같은 영단어 legion이다.

대의 군단을 말씀하신 것인데, 보병과 말 타는 기병을 합쳐 5천~6천 정도의 병사들이 당시의 군단 규모다. 열둘과는 비교할 수 없이 많은 수다. 개역개정 2012년 이후 이것을 군단으로 바로잡았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열두 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마 26:53, 개역)

그러면 왜 예전의 개역한글은 ‘군단’을 ‘영’으로 번역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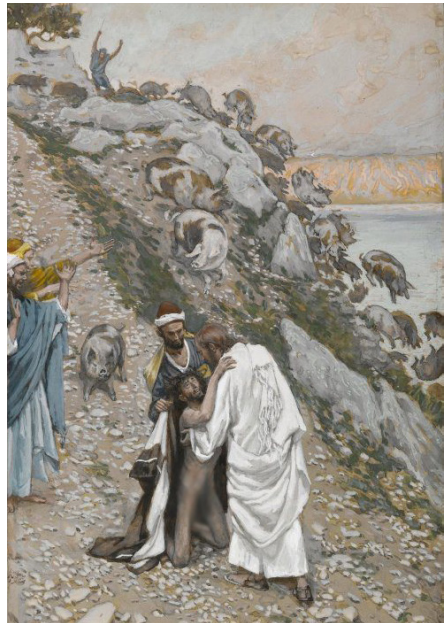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求)하여
 지금(只今) 열 두 영(靈) 더 되는
 천사(天使)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마 26:53)

처음엔 이것을 ‘병영(兵營)’이라고 할 때의 ‘영(營)’으로 본 것인가 했는데, 그것도 아니고 명백한 오역이었다.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한자 개역한글판으로 보면 진짜 ‘영(靈, 영묘할 영)’으로 나온다.

뭐지?? 아마도 번역 후 한자를 넣는 과정에서 당연하게 영(靈)으로 생각한 것 아닐까... 그것밖에는 가능성이 없다. 이 부분은 교리적으로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성경의 정확성을 생각하면 아쉬운 부분이 아닐 수 없다.

2. ‘군대 귀신’과 ‘군단 마귀’

그런데 군단이 나오는 곳이 더 있다. 바로 마귀의 군단이다. 가다라의 마귀 들린 자에게 들어가 있던 마귀들로 흔히 ‘군대 귀신’이라고 부르는 악한 영들이다. 그들은 예수님께 간청해 돼지 떼로 들어가는데, 돼지들은 호수로 내달아 죽게 된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어 이르시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하시매 그가 이르되, **군단** 이니이다, 하니 이는 많은 마귀들이 그에게 들어갔기 때문이더라. (눅 8:30, 흠정역)

여기 군단도 리전(legion)인데 킹제임스 영어 성경은 대문자 Legion으로 되어 있다. 일반적 군단이 아니라 마귀들의 부대임을 특정한 것이다.

그런데 개역성경은 같은 ‘리전’을 여기서는 군대로 번역했다.

예수께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시니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눅 8:30, 개역)

군대는 더 포괄적인 말이다. 천사들은 하늘의 군대라고 불렸다. 마귀의 천사들도 일부가 무리 지어 있으면 군단이지 군대는 아니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이다 (시 148:2, 개역)

그분의 모든 천사들아, 너희는 그분을 찬양하라. 그분의 모든 군대들아, 너희는 그분을 찬양할지이다. (시 148:2, 흠정역)

주의 모든 천사는 군대들(hosts = army)이다. **문제는 통일성이다.** 군단과 군대의 구분은 킹제임스 성경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영어 현대 역본들도 다르게 구분이 돼 있다. 오직 개역성경만 그저 ‘알아서’ 제멋대로 번역했다. 단어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느낌을 따라가는 번역이다. 사실 ‘열두 군단’ 같은 단어도 다른 성경들이 사용하고 나서 바꾼 것이다.

“군단이면 어떻고 군대면 어떤가. 열둘이면 어떻고 더 많으면 어떤가. 뜻만 통하면 됐지.”라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비교적 사소한 단어들만 문제인 것이 아니라는 데 심각성이 있다. 귀중한 교리와 신학까지 좌우할 수 있는 단어들도 중구난방이다.

성경을 여러 번 읽어도 뜻을 잘 알 수 없는 이유는 말 자체가 어려워서가 아니다. 쉬운 말 성경을 봐도 별반 달라지지 않는다. 성경은 사전이나 주석서 이


전에 성경이 스스로 그 단어를 드러내는 책이다. 성경에 등장하는 용례들을 통해 뜻을 저절로 알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일관성이다. 다른 곳에서 본 단어가 또 나올 때 저절로 깨닫게 하려면 같은 단어는 같게 옮겨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은 인터넷과 참고 자료가 많지만 오래전 사람들이나 한국의 초기 성도들은 참고할 것이 없었다. 이런 상태에서 깊이 파다 보니 체계적이고 이론적으로 보이는 영어리 이단들이 등장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개역성경의 귀한 역할도 인정해야겠지만 이런 폐해는 심각하다. 초창기에는 몰라서 그랬다지만 21세기까지 방치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개역성경은 티도 안 나는 부분만 짚끔짚끔 고치지 말고 대수술을 단행해야 한다. 하지만 이미 시장의 압도적인 1위인 개역성경은 앞으로도 크게 고쳐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방법은 하나, 성도들이 제대로 된 성경을 보는 것이다. 물론 이것도 순진한 기대일 테지만, 성경을 읽다가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다른 역본들을 교차 검색해 보는 것만으로도 의미의 이해가 훨씬 쉬워질 것이다.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에는 언제나 다음 말씀이 그 답이 될 것이다.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었다.

(요 1:1) 

악귀, 사신, 산 영, 생명... 왜 성경에 이런 단어가??

드라마 <악귀>

<악귀>(2023)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귀신을 보는 퇴마사이자 민속학자가 사람을 죽음으로 유도하는 악귀와 싸우는 내용이다. 유명한 김은희 작가의 극본이라 그런지 시청률이 10%로 꽤 높게 나온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퇴마 장르에 흥미가 없어서 계속 보기가 힘들었다. 이 작가는 장르물의 대가라고 불리는데, 그간의 작품을 보면 특히 영적인 것과 혼의 문제에 관심이 많은 것 같다.



무속 주제의 드라마 <악귀>

한두 편 보다가 재미가 없어서 포기했는데, 내게 이 드라마가 재미가 없는 이유는 몰입이 안 되기 때문이었다. 귀신이란 ‘죽은 사람의 넋’이다. 그러나 사람은 죽어서 이 땅을 떠돌거나 하는 일이 전혀 없음을 믿기에 귀신이 나타나 산 사람들의 삶에 관여하는 것이나 고문헌이나 민속적 소품에 의미를 두고 벌어지는 사건들이 너무 작위적으로 보인다. 여러 요소들을 취재하고 끌어모아 이

야기를 만드는 것이 드라마 각본이라지만 이것저것 가져다 엮으면서 당위를 부여하려는 흔적이 너무 많아 보였다.

등장인물들은 이름이 특이하다. 웬지 중성적이고 고풍스러운, 한자도 우리 말도 아닌 이름들이다. 형사들은 문춘, 홍새, 주인공 엄마는 경문 이런 식이다. 그중에서도 악귀가 종종 깃드는 주인공 여성(김태리)의 이름은 구산영이다. ‘산영’이라는 이름은 현실에서 들어 본 적이 없는데, 아마도 ‘산 영’이라는 의미를 둔 것이 아닌가 싶다. 살아 있는 영(생명)이라는 뜻일 것이다.

투자금에 비해 크게 실패한 같은 작가의 <지리산>이라는 드라마에도 산 영의 개념이 나오는데, 사람이 살아 있거나 혼수상태로 있는데도 그의 영혼이 산을 헤매며 조난자들에게 나타나는 식이다. 이때 ‘생명’이라는 말을 사람들이 많이 사용했는데, 다 개역성경을 통해 알게 된 단어였을 것이다.

사람들은 굳이 성경을 말하지 않아도 인간의 구조에 대해 대략 알고 있는 것 같다. 육신이 죽는다고 영혼이 같이 소멸될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이런 드라마에 잘 나타나 있다. 영·혼·육에 대해 그렇게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실제로는 혼과 영의 개념이 두루뭉술하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이는 한국어 성경의 문제가 크다.

영·혼·육은 따로따로

사람에게는 영이 있고 혼이 있다. 이를 동시에 부르는 한자어 ‘영혼(靈魂)’은 성경에 없다. 이를 굳이 영어로 바꾸면 스피릿소울(spiritsoul)인데, 그런 말은 없지 않은가. 스피릿은 스피릿이고 소울은 소울(솔)이다. 결코 동의어나 대체어가 아니다. 성경에서 구분하는 혼이란 사람 자신이며, 마음이고 정신이며 목숨이다. 스스로와 외부 세계를 판단하고 생각하며 느끼는 것이 혼이다.

사람이 열심과 열정과 내적인 모든 것을 바칠 때 ‘혼을 다해’ 임한다고 표현한다. 전도는 영어로 소울 위닝(soul winning), 즉 **혼을 구하는 일**이며 영을

구하는 게 아니다. 몸은 죽어도 혼은 영영 죽지 않는다.

몸은 죽어도 혼은 죽일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혼과 몸을 둘 다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 (마 10:28)

영은 좀 더 깊은 곳에 존재한다. 그것은 하나님을 느끼는 부분이며 내 것이 라기보다는 주인이신 하나님의 것이다. 모든 인간 존재의 뿌리이자 씨앗이며 심지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혼은 육적으로 행동할지 영적으로 사교할지 판단한다.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육적인 사람은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을 가까이한다. 혼이 그 선택과 판단을 하는 것이다.

영은 하나님의 것이며 그분으로부터 나온 것이므로 모든 영은 죽어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전 12:7). 그 혼이 천국에 갔든지 지옥에 갔든지 상관없이 영은 하나님께로 회수되는 것이다. 지옥에서 고통당하거나 천국에서 즐거운 것은 우리의 혼이다. 한국어에서 흔히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영보다는 혼이라는 말이다.

드라마에서 영과 혼을 다루고, 죽은 자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악귀가 등장한다. 이런 존재들은 상상에 의한 허구지만 아무런 고증이나 근거나 현상이 없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고인의 목소리로 고인이 생전에 한 일을 알고 재현하는 등 빙의를 보여 주는 무속인도 있고, 과학으로 설명되지 않는 현상들도 얼마든지 벌어진다.

그것이 죽은 자의 영혼이 귀환한 것이라고 쉽게 믿어 버리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 검증된 것도 아니고, 그 빙의된 이른바 ‘귀신’들이 자기 생애를 다 기억하는 것도 아니며, 신내림받은 무당 등의 영매가 모시는 ‘그분’이 타인의 과거사와 미래에 있을 일을 다 알지도 못한다.

물론 소위 귀신들이 일으키는 희한한 일들과 심령 현상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것이 특정인의 혼령이라는 단서는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 진짜 그 사람

이라면 명백한 증거와 증언이 있을 만도 한데 그저 흉내만 내는 수준이다. 이들은 다 마귀들로 악하고 부정한 영들이다. 큰 힘이 존재하지만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선에서만 역사할 수 있으며 결국 지옥 불에 영원히 고통당할 자들이다. 이들의 정체를 하루빨리 알아야 그들의 존재 이유와 목적을 알 수 있다.



드라마 <악귀>에서 그림자에만 산발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악귀.

종합적으로 보면, 이는 사람보다 좀 더 능력이 있는 누군가의 장난이라고 볼 수 있다. 전지전능, 무소부재(편재)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므로 그런 자살한 능력들은 마귀의 놀개들, 즉 부정한 영들의 짓이라고 볼 수 있다. 부정한 영은 악한 영이며 그야말로 '악귀'다. 다만 성경이 말씀하는 악한 영은 사람의 죽은 녀(귀신)이 아니고 마귀(그룹, cherub) 루시퍼를 따라 타락한 3분의 1의 천사들이다. 이들을 악한 영, 부정한 영이라고 하는 이유는 몸이 없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인간 여성을 범해 태어난 것이 네피림 같은 거인족인데, 이는 다른 주제이므로 넘어간다.

아무튼 그들은 악령인데, 이를 악귀라고 하면 적어도 한국인에게는 이 땅에 살았던 사람으로 한정된다. 그 존재들은 원래 사악하게 살다가 죽은 자들로 계속 악한 짓을 한다는 개념이며, 위 드라마에 나오는 악귀들은 다른 산자들의 모습으로 나타나거나 그들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원래의 모습은 알 수가 없다. 그림자가 산발한 모습 등으로 보여서 겨우 알아볼 수 있거나 그들을 볼 수 있는 퇴마사의 눈에만 보이고, 또 특정인에게 거울을 통해서만 보인다는 설정이다.

어쨌든 한국인의 생각에 악귀들은 사람이었던 자들이다. 왜냐하면 귀신의 사전적 정의나 한국인의 통념이 모두 귀신을 죽은 자의 혼령으로 이해하기 때

문이다. 문제는 개역성경이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사람이 죽으면 이 땅으로 돌아올 수 없다고 말씀한다. 지옥이든 낙원이든 가 버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땅에서 차지할 무엇도 없고, 돌아와서 관여할 수가 없다(전 9:5). 그런데도 한국인이 쓰는 성경에는 아직도 귀신이 활개를 친다.

초기 번역자들이 부정한 영을 다 사람으로 생각한 것은 이해할 수도 있다지만 지금까지 그대로 두는 것은 안 될 일이다. 물론 지금의 번역자들이나 신학자들이 개역성경의 ‘귀신’을 다 사람의 냇으로 이해한다는 뜻은 아니다. 그러나 모르는 것도 문제지만 알면서 방치하는 것도 문제다. 수많은 이단들이 성경을 이용한 귀신론으로 장난을 치는데도 알면서 방치했다면 커다란 직무유기다.

아담이 산 영?

개역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령’이 됐다고 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창 2:7, 개역)

개역한글에는 ‘산 영’도 나온다.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고전 15:45, 개역한글)

두 구절이 신구약 매칭이 안 되니 개역개정에는 ‘산 영’을 ‘생령’으로 바꿨다.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 주는 영이 되었나니 (고전 15:45, 개역)

생령, 즉 영은 죽지 않는 것인데 뭘 살려 준다는 것인가? 흠정역은 혼과 영을 제대로 구분했다.

그러므로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살아 있는 혼이 되었다라,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 주는 영이 되셨느니라. (고전 15:45, 흠정역)

이게 뭐 그리 중요하냐고 물을 수도 있겠지만, 영은 죽을 수가 없어서 예수님이 살려줄 수가 없게 된다. 천사들은 죽지 않는 영이므로 타락하면 용서받을 수 없다. 다시 살려서 데려가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육신에 죽음이 임했기에, 그리고 혼의 지옥 멸망이 예약되었기에 구원의 여지가 남아 있다. 그래서 구원의 계획자인 하나님은 인간이 죄지은 몸으로 생명 나무 열매를 먹고 영원히 살까 봐 에덴동산에서 내쫓고 막으신 것이다.

아무튼 생령이란 살아있는 영이 됐다는 것인데, 사람은 천사나 그룹이나 스랍 같은 영이 아니라 몸과 혼을 함께 지닌 영적 존재다. 생령을 굳이 영역하면 living spirit이 되는데 이런 번역은 어디에도 없다. 심지어 왜곡의 절정판인 현대역본 중 신국제역 NIV도 오역을 했지만 그런 이상한 번역은 하지 않았다.

NIV는 ‘살아있는 존재(living being)’라고 막연하게 번역했다. 이것은 ‘혼’을 없애 사람이 무엇인지 가리는 부실한 번역이지만 개역성경은 ‘혼’을 ‘영’으로 격상시킨 과도한 번역인 셈이다.

귀신은 다 마귀의 졸개들

개역성경의 악귀나 귀신은 다 마귀들(devils)이다. 큰 마귀(Devil) 루시퍼의 졸개들인 악하고 부정한 영들로 마지막에 불 호수로 가 영원히 형벌받을 존재들이다. 이들은 온갖 현상과 갖가지 방법으로 인간을 타락시키기 위해 애를 쓰는데, 사람의 혼령인 척하는 것도 그 여러 방법 중 한 가지일 뿐이다.

한편 드라마 <악귀> 등 퇴마를 주제로 한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착각을 일으킨다. 악령이 있고 선한 영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가 쉽고, 악귀를 내쫓고 퇴치하는 자들은 선한 능력자처럼 여겨지기도 한다. 하지만 사람은 다 악하고, 악한 영을 쫓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과 성령님뿐이다. 함부로 귀신을 쫓는다며 선불리 축사하는 등 우습게 볼 존재들이 아니다.

귀신이라는 단어가 그야말로 물귀신처럼 질기게 한국인 성도들의 사고를 마비시킨다. 다 알면서도 성경에 귀신이 등장하면 총각 귀신, 처녀 귀신, 몽달 귀신, 달걀 귀신같은 것들이 떠오르고, 온갖 악귀가 이 땅에 되돌아온 것처럼 생각이 되니 말이다.

수많은 오해, 성경이 아니었다면

개역성경에는 '악귀'가 7회 등장한다.

그들이 그들의 자녀를 악귀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쳤도다 (시 106:37)

마침 그 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눅 7:21)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눅 8:2)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행 19:12)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행 19:13)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행 19:15)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놀러 이기나… (행 19:16)

위의 시편 106편 37절은 킹제임스 성경이 devil, NIV가 demon을 썼지만 나머지 구절은 두 성경 모두 evil spirit으로 번역했다. evil spirit을 한자어인 '악귀'로 번역하면 한국인은 오해하기 쉽다. 실제로 예전 은사 집회에서는 영험한(?) 부흥 강사가 귀신 쫓는 기도를 하며 신자의 머리를 때리면 괴성을 내기

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자신이 무슨 귀신인지 실토하기도 했다. 이러니 한국인의 귀신과 개역성경의 귀신이 전혀 다른 것인데도 같은 것으로 오해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evil spirit은 악한 영인데, 성경에는 부정한 영도 나온다. 이것을 킹제임스 성경은 unclean spirit으로 번역했고 NIV는 악한 영과 똑같이 evil spirit으로 옮겼다. 그리고 개역성경은 ‘더러운 귀신’이라고 했다.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막 3:30, 개역)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그가 부정한 영에 사로잡혔다, 하였기 때문이더라. (막 3:30, 흠정역)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 크리스천은 죽은 자의 넋이 돌아온다는 귀신의 개념을 안 믿어야 맞는데, 성경에는 버젓이 귀신이 있으니 제대로 아는 사람도 바보로 만들고 있다. 게다가 개역성경에는 ‘사신(邪神)’이라는 단어도 있



영화 <데스노트>의 사신(死神) 류크(왼쪽)

다. ‘재앙을 내리는 요사스러운 귀신’이라는 뜻인데 일본 만화와 영화 <데스노트> 같은 데 나오는 사신(死神)과는 다른 뜻이다.

[시편 106:37]

저희가 그 자녀로 사신에게 제사하였도다 (개역한글)

그들이 그들의 자녀를 악귀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쳤도다 (개역)

참으로 그들이 자기 아들딸들을 마귀들에게 희생물로 바쳤으며 (흠정역)

킹제임스 성경이 devil, NIV 성경이 demon을 쓰는 이 단어를 개역성경은 ‘사신’에서 ‘악귀’로 개정했다. ‘사신’도 너무 한국적인 단어지만 ‘악귀’로 바꾸면 또 다른 오해가 생긴다. 자녀를 인신 제사로 바치는 악한 일은 사신이나 악귀 같은 특별히 더 사악한 존재만 요구하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마귀 루시퍼의 줄개인 ‘마귀들’이 사신이나 악귀의 보편적 이름이다. 현재 개역개정 성경의 ‘사신’은 사무엘상 15장 23절에 ‘사신 우상’이라는 우리에게 익숙한 구절로 한 곳에만 남아 있다.

성경이 아니었다면 그 많은 이단들이 귀신을 이용해 세력을 키울 수 있었을까? 성경이 아니었다면 이 많은 교리적 오해와 잘못된 이해가 생겨날 수 있었을까?

성경은 권위의 책이다.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번역하고 전하며 가르쳐야 하는데, 잘못 이해한 사람들이 그릇된 열심으로 얼마나 많은 이상한 것들을 만들어 냈는지 한국어 성경 관계자들은 돌아보아야 한다.

오늘도 악귀, 악령, 퇴마, 접신, 빙의 같은 것들이 각종 미디어 콘텐츠에 난무하면서 성도의 마음을 유린하는데도 한국어 성경은 19세기에 머물러 있다. 신 내림이 떠오르는 ‘주의 신을 떠나(시 139:7)’, ‘나의 신을 부어주며(잠 1:23)’ 같은 표현이 21세기에 겨우 ‘주의 영, 나의 영’으로 고쳐지는 수준이다. 좀 더 책임감 있는 자세로 용기 있게,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잘못된 것은 고치면 좋겠다. 📖

모기에는 긴장하고 vs.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마 23:24)

말씀보존학회(말보회)는 킹제임스 이슈를 국내에 처음 들여온 공이 있는 곳이다. 흠정역 진영은 그들을 원색적으로 비난한 적이 없고, 오히려 이단 시비가 있어도 변호하고 있으며, 그들이 칙 출판사 등의 좋은 자료도 많이 소개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그분들 중 일부는 늘 흠정역에 대해 공격적이다. 말보회가 일부 교단에서 이단 판정을 받은 이유도 교리 문제보다는 태도의 문제였다.

말보회의 한글 킹제임스(한킹)는 킹제임스 영어 성경만을 번역한 것이 아니고 다른 성경과 원어를 참조했기 때문에 흠정역과 다른 성경이다. 물론 유사한 점이 많고 흠정역이 참고한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많은데, 그것은 말보회에 있다가 문제점을 느끼고 탈퇴한 분들이 상당수 흠정역 번역에 조언하고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또한 한킹도 흠정역도 이질감 때문에 개역성경의 어투를 기본으로 할 수밖에 없었는데, 개역성경 또한 독창적인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문장이 대개 그랬었다. 그러므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은 것뿐 무엇이 무엇을 표절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개역성경은 훨씬 많은 부분이 다르고 틀린데, 굳이 일부만 다르고 비슷한 계

열인 흠정역을 공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흠정역이 한킹의 시장을 일부 잠식하고 킹제임스 성경 시장에서 주류를 이루었으니 아쉬움은 이해하지만 흠정역이 무슨 잘못을 한 것은 아니다. 저작권에 문제가 있으면 법적으로 해결하면 된다. 말보회를 설립한 이송오 목사도 고인이 된 마당에 계속 비방을 이어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그들이 비판하는 번역 중 하나가 **마태복음 23장 24절**이다. 흠정역은 400주년 기념판이나 새로 나온 마제스티판이 동일하다.

너희 눈먼 안내자들아, 너희가 모기에는 긴장하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마 23:24, 흠정역)

[Ye] blind guides, which strain at a gnat, and swallow a camel. (KJB)

맹인 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 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마 23:24, 개역)

You blind guides, who strain out a gnat and swallow a camel! (NIV)

너희 눈먼 안내자들아, 너희가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구나. (마 23:24, 한킹)

흠정역은 ‘모기에는 긴장하고’로 번역했고, 개역성경과 대부분의 성경은 ‘하루살이는 걸러 내고’로 번역했다.

그리고 말씀보존학회의 한글 킹제임스도 ‘하루살이는 걸러내고’가 맞는다



고 강력히 주장한다.

이런 논란이 있을 때 무작정 비판하거나 믿어버리지 말고, 먼저 흠정역 번역자의 킵바이블(www.KeepBible.com) 사이트를 찾아 반박 논리를 보고 따지는 것이 좋다. 이 문제도 킵바이블에 다음과 같이 언급돼 있다.

문 : 마태복음 23장 24절은 ‘모기를 걸러 낸다’고 해야 맞지 않습니까?

답 : ...영어 본문이 ‘strain at’으로 되어 있지 ‘strain out’으로 되어 있지 않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원문에는 ‘strain’만 있고 ‘at’이나 ‘out’은 없으며 킹제임스 성경 역자들이 말이 되게 하기 위해 ‘at’을 넣었습니다.

...영어로 “저것을 보라.” 하면 “Look at it.”입니다. ‘at’은 무엇을 본다고 할 때 쓰이는 단어이며 여기서 킹제임스 성경 역자들은 바리새인들이 모기(율법의 작은 것)를 보면서도 긴장하고, 낙타(율법의 중대한 것)는 꿀떡 삼키고도 모르는 체하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매튜 헨리의 주석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는 다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본문 비평 등에 영향을 받은 반즈 등이 지은 주석에 ‘strain out’이 맞다고 하면서 모든 현대 신학자들이 킹제임스 성경이 틀렸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그래서 모든 현대 역본들은 한결같이 ‘strain out’ 즉 “걸러 내고”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선 strain at은 영어 킹제임스 성경(1611)이 strain out을 잘못 인쇄한 것이라는 주장이 1800년대 이후로 여러 차례 등장했지만 사실이 아니다. 킹제임스 번역자들은 1638년 두 번째 케임브리지 폴리오 에디션을 인쇄할 때도 이 부분을 교정하지 않았다. 또한 킹제임스 성경 출간 전후의 설교나 문서들에 strain at을 쓴 목회자와 번역자들이 다수 존재했다. 오류로 인식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말씀보존학회는 킹제임스 성경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strain at을 ‘걸러내고’로 번역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strain은 가장 먼저 나오는 뜻이 ‘긴장하다’이다. 무언가 ‘팽팽하게 하다’, ‘힘 주다’, ‘근육이 긴장하다’라는 의미인데, ‘걸러 내다’라는 뜻도 있으므로 문맥에 맞게 번역하면 된다. at은 ‘~에’이므로 어떤 장소 앞에 나오는 말이다. 골뱅이 표시(@)가 ‘at 사인’이다. 이메일 아이디가 다음의 ‘계정에’ 있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킹제임스 성경의 strain at이 실수가 아니라면 ‘무언가에’ 긴장하는 것이고, strain out은 ‘무언가를’ 걸러내는 것이다. 다음은 영어 사전 사이트에 나오는 out과 at의 예문이다.

Strain out the fat from the top of the soup and then return the mixture to a boil.

수프의 윗부분에서 기름을 걸러 낸 다음 재료들을 다시 끓입니다.

strain out은 filter out과 같은 것으로 ‘무언가를’ (체에) 걸러 낸다는 뜻이다. 그러나 strain at은 ‘무언가에’ 긴장한다는 뜻이다.

The angry crowd strained at the barriers.

성난 군중은 장벽에(장벽을 보고) 긴장했다.

‘긴장하다’인지 ‘걸러 내다’인지에 따라 gnat(넷)이 ‘모기’인지 ‘하루살이’인지도 달라질 수 있는데, 무엇이 맞을까?

gnat은 각다귀과 곤충을 일컫는다고 하는데, 피를 빠는 흡혈 곤충을 이르는 말이다. 하지만 이런 말은 2천 년 전의 원어로는 당시에 어떤 곤충을 가리킨 것인지 사실상 알기가 어렵다. 그래서 중세 때 영어로 번역한 것을 살펴보는 수밖에 없다. 의학사전에 gnat은 ‘쌍시류흡혈소곤충’이라고 되어 있다. 하루살이는 피를 빨지 않고, 사람이 긴장할 정도로 피해를 주지 않는다.

각다귀는 갈따구라는 곤충과 비슷한 것으로 모기처럼 생겼지만 훨씬 크고

힘없이 날아다니며, 흡혈 곤충은 아니라고 한다.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이 곤충은 사람을 긴장시키는 벌레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gnat은 하루살이보다 모기가 타당하다. 모기는 하찮지만 귀찮고 성가신 존재니까 말이다. 하루살이는 하찮은 존재의 대명사지만 낙타와 반대편 이미지는 아니다. 굳이 따지자면 하루밖에 못 사는 존재라서 하찮은 것이니까 반대의 이미지는 크기보다는 장수하는 동물이 어울린다.

마태복음 23장 24절은 바리새인들이 소탐대실하며 침소봉대하는 위선을 뜻하는 구절이므로 어떤 벌레인지는 중요치 않지만 at이나, out이냐에 따라 바뀔 수 있다는 뜻이다. 하루살이가 빠진 음료는 체에 걸러서 먹고, 낙타는 삼킨다는 뜻이니 더 자연스럽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꿈보다 해몽이며, 어차피 낙타는 바늘귀 비유처럼 큰 것을 뜻하는 것이지, 통째 시식하는 용도는 아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현상이 있다. 말보회는 피터 렉크만을 추종한다. 그는 탁월한 성경 학자가 분명하지만 몇몇 주장은 과도하고, 재창조론 등을 따르기 때문에 흡정역 사용자들은 참고만 하는 수준인데, 그 역시 이 부분은 말보회의 한킹을 지지하지 않는다. 이어지는 킵바이블의 설명이다.

...말씀보존학회의 후원자인 렉크만 박사는 매우 신랄하게 현대 학자들을 비난하며 ‘모기에는 긴장하고’ 즉 ‘strain at’이 맞음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렉크만 박사를 최고 스승으로 모시는 말씀보존학회에서 어떻게 이런 일(번역)을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말보회는 이 부분에서 렉크만과도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지, 한킹의 마태복음 23장 24절은 왜 현대 역본과 같은지 이해하기 어렵다.


‘하루살이’나 ‘걸러내고’가 크게 잘못된 번역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것이 틀렸다고 이 글을 쓰는 게 아니라, 조롱하며 비방하는 이들이 있고 질문하는 분

들이 있어서 쓰는 것뿐이다. 이것은 서로 간에 이역(異譯)으로 이해해도 좋을 일이다. 그런데 굳이 틀렸다고 조롱하며 한국어 흠정역에 흠집을 내려는 태도는 이해할 수 없다.

물론 한킹에 더 선호하는 번역이 있을 수 있다. 몇몇 부분에서 자신들의 교리와 안 맞아 한킹으로 옮겨가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말보회의 번역은 흠정역과 상대가 되지 않는다. 그쪽에서 지금의 비방자들보다 훨씬 중요한 위치에서 번역의 개념들을 제안하던 목회자들이 문제점을 인식하고 흠정역으로 옮겼기 때문에 그들의 논리는 얼마든지 반박이 가능하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 밝히고 있듯이 한킹은 전체를 킹제임스에서 번역한 성경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이 문제는 ‘모기’인가 ‘하루살이’인가, ‘긴장하다’인가 ‘걸러내다’인가보다도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자세를 지적하신 것이 핵심이므로 번역 논쟁은 큰 의미가 없다. 우리가 글자 하나, 단어 하나가 중요하다고 강조할 때도 굳이 이런 부분을 제시하지 않는다. 진리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논란이라는 것이다.

이런 것으로 싸우는 것이야말로 모기에는 긴장하고 낙타는 삼키는 일 아닐까? 이것 말고 다른 이슈가 없다면 몰라도 기존 성경에 훨씬 심각한 것들도 많은데 마땅히 그런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 싸워야 하지 않겠는가. 제발 다툼 자체에 함몰된 눈먼 안내자가 되지는 말자. 이는 흠정역 사용자들 사이에서도 자조적으로 나오는 탄식이다. 오류를 지적하고 많이 알려는 사람은 많지만 그 바른 말씀대로 살려는 사람은 점점 적어지기 때문이다.

이 글의 주장을 받아들이든 그렇지 않든, 부디 공격을 위한 비방이나 이권을 위한 다툼을 멈추고, 자기주장을 하되 그 타깃은 진짜 적인 마귀를 향했으면 한다. 

“그게 그 나라였어?”

성경 속 나라 이름, 개역과 흠정역 비교

한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개역성경은 오래전 한자식 발음으로 된 고유 명사들이 많다. 이미 익숙해진 단어들이라 지금 바꾸면 혼란이 오기 쉽지만, 바뀌어서 큰 혼란을 주지 않고, 유익이 더 큰 경우라면 나쁘지 않을 것이다.

예를 들어 ‘바울’(Paul)을 ‘폴’이라고 하면 혼란스럽고, 유익도 별로 없다. 하지만 ‘요단’을 ‘요르단’으로 바꾸는 것은 혼란을 줄 정도는 아니고, 오히려 명쾌하다. 어떤 이들은 ‘요단강’을 죽어서 건너는 현실에 없는 강으로 아는 경우도 있는데, ‘요르단 강’이라고 하면 지금도 지구 저편에 있는 그 나라 요르단을 떠올릴 수 있으니 성경의 기록들이 더욱 가까이 손에 잡히게 된다.

흠정역은 몇몇 국가 이름들을 현존하는 곳에 한해 표기를 바꿨는데, 성경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면에서 큰 효과가 있다. 다음은 나라와 도시 이름이 바뀐 사례들과 등장 구절이다.

헬라 → 그리스(Greece)

이것은 거의 다 아는 사실이지만 ‘헬라’라는 말보다는 ‘그리스’가 빠르다. 헬라는 그리스의 옛 이름인데, ‘희랍’이라고도 한다.



그리스 산토리니



아테네 파르테논 신전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고전 1:24, 개역)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나 그리스인들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능이시요 하나님의 지혜이시니라. (고전 1:24, 흠정역)

아덴 → 아테네(Athens)

아테네는 나라가 아니고 유명한 도시인데, 아덴이라고 하니 한국인에게는 다른 도시 같다. 사도 바울이 우상 숭배를 질책한 이 도시는 지금도 그리스의 수도로 아테네 학당 등이 유명한데, 이곳이 등장하는 사도행전 17장에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이 등장하므로 아테네로 번역하는 것이 여러모로 이해가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행 17:16, 개역)

그런데 바울이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릴 때에 그 도시가 온통 우상 숭배에 빠진 것을 보매 그의 영이 그의 속에서 격동하므로 (행 17:16, 흠정역)



이집트 카이로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

애굽 → 이집트(Egypt)

이 역시 교회를 다니면 모를 수가 없는 단어지만 불신자들은 알기가 어려운 이름이다. 모세와 다투던 ‘바로’ 왕과 피라미드의 주인공들인 ‘파라오’가 이집트의 왕을 뜻하는 같은 것인 줄 모르는 경우도 허다하다.

온 애굽 땅에 일곱 해 큰 풍년이 있겠고 (창 41:29, 개역)

보소서, 이집트 온 땅 전역에 일곱 해 동안 큰 풍년이 들겠고 (창 41:29, 흠정역)

구스 → 에티오피아(Ethiopia)

구스는 ‘검다’는 뜻으로 노아의 아들 함의 장자이자 니므롯의 아버지 이름이다. 고대에는 땅 이름과 사람 이름이 일치하는 곳이 많았다. 구스 역시 구스와 그의 자손이 거주하는 나라라는 의미이다. 오늘날의 에티오피아를 뜻하는데, 구스보다는 검다는 의미가 빨리 와닿을 수밖에 없다. 모세의 아내도 에티오피아 여인이었고, 그 때문에 미리암과 아론의 비방을 받은 것이다.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대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렘 13:23, 개역)

에티오피아 사람이 자기 피부를, 표범이 자기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있다면 악을 행하는 데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렘 13:23, 흠정역)

한편 사도행전 8장에 에티오피아 내시가 나오는데, 개역성경도 이 부분은 에티오피아로 번역했다. 하지만 통일을 시켜 놓지 않으니 위 구절의 ‘구스인’이 에티오피아 사람인지 알기는 어렵게 되어 있다.

아람 → 시리아(Syria)

개역성경에는 ‘아람’이 나오고 ‘수리아’도 나오는데, 그렇게 번역한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만 둘 다 같은 곳으로 ‘시리아’를 이르는 말이다.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가 당시 유대인들이 흔히 쓰던 아람어로 연기를 해서 화제가 된 적이 있는데, 바로 시리아의 언어이다.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창 31:20, 개역)

야곱은 자기가 도망하는 것을 시리아 사람 라반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몰래 슬그머니 떠났더라. (창 31:20, 흠정역)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



이란의 페르시아 고대 유적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난 ‘다메섹’도 흠정역은 ‘다마스쿠스(Damascus)’로 번역했는데, 이곳이 오늘날까지 시리아의 수도이다.

바사 → 페르시아(Persia)

다니엘 시대에 주로 등장하는 국가인 ‘바사’의 이름을 듣고 ‘페르시아’를 떠올릴 사람은 거의 없다. 페르시아는 오늘날 이란을 뜻하지만, 그 사실을 몰라도 ‘페르시아 왕자’라는 게임도 있고 영화도 있어서 친숙하다. 성경을 먼 옛날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는 곳에서 벌어진 일처럼 만들 필요는 없을 테니 가능하면 익숙한 말로 번역하는 것이 유익이다.

바사 왕 고레스 삼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이상을 깨달으니라 (단 10:1, 개역)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제삼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다니엘에게 계시되었는데 그 일은 참되나 정해진 때는 길더라. 그가 그 일을 깨닫고 그 환상 계시에 대해서도 깨달음을 얻으니라. (단 10:1, 흠정역)

구브로 → 키프로스(Cyprus, 사이프러스)

키프로스 공화국은 사이프러스라고도 하는 나라로 지중해의 섬나라다. 지금도 존재하는 나라이니 이 역시 성경을 이해하는 데는 구브로보다 키프로스가 낫다고 할 것이다. 바나바의 출신지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행 4:36, 개역)



오늘날의 키프로스 항구



지중해 연안 도시 텔아비브

사도들이 키프로스 지방 출신의 요세라 하는 레위 사람에게 바나바라는 이름을 주었는데 (그것을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니라.) (행 4:36, 흠정역)

개역성경은 현대 역본을 따라 바나바의 이름이 요셉(Joseph)이었다고 번역 하는데, 흠정역은 킹제임스 성경을 따라 요세(Joses)라고 번역했다. ‘요셉’의 아람어식 표현을 그리스어 음가로 옮긴 것이 ‘요세’이다.

텔아빱 → 텔아비브(Tel Aviv)

이 역시 나라는 아니고 도시 이름인데, 뉴스에 자주 오르내리는 이스라엘의 실질적 수도이자 경제 수도이다. 2019년 서울과 우호 도시 체결이 이루어진 이스라엘 서부의 지중해 연안 도시인 텔아비브에는 대한민국 대사관도 있다. 미국 대사관은 2018년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겼다.


이에 내가 텔아빱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 강 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칠 일을 지내니라 (겔 3:15, 개정)

그때에 내가 텔아비브에 있는 그 포로 된 자들 곧 그발 강가에 거하는 자들에게 가서 그들이 앉아 있는 곳에 앉고 거기서 그들 가운데서 놀란 상태로 이레를 지냈는데 (겔 3:15, 흠정역)

텔아비브는 성경 전체에서 딱 한 번 등장한다. 이 구절로 텔아비브가 바빌론 포로기에 점령당한 지역이자 그발 강가임을 알 수 있다. 대언자 에스겔은 이곳에서 이레를 지낸 후 주의 말씀을 받는다. 현재 Tel Aviv로 표기하는 텔아비브로 킹제임스 영어 성경에 Telabib로, NIV는 Tel Abib로 되어 있다.

성경에 등장하는 지명이나 고유 명사를 모두 바로 이해하기는 어렵다. 모든 나라와 지역을 오늘날의 지명으로 연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그래서도 안 된다. 다만 명백하면서도 모두가 아는 곳이라면 성경의 품위를 손상시키지 않는 선에서 현재의 지명을 쓰는 것이 좋다고 본다. 킹제임스 성경을 보면 많은 부분이 해결된다.

성경은 우리의 삶이면서 이 땅의 현실에 관련돼 있다. 또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다가오는 미래의 역사와 맞닿아 있다. 그런 차원에서 성경에 고대로부터 현재까지 동일하게 등장하는 지명들은 중요한 곳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이스라엘, 예루살렘, 이집트, 아라비아, 에티오피아, 시리아, 그리스, 요르단, 레바논 등등이 그렇고, 페르시아(이란), 바빌론(이라크) 등 이름은 바뀌었지만 잘 알려진 유명한 지역들이 그렇다.

그래서 이런 지명들이 지금도 우리가 갈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바로 그 땅임을 인지하는 것이 좋겠다. 성경의 시간이 곧 우리의 시간이며, 성경 속 이야기가 바로 이 땅에 이루어질 주님의 왕국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오 리, 십 리, 큐빗, 갈대, 스타디온...

성경 속 '길이'를 재는 단위를 미터로 환산하면?

성경에는 여러 단위들이 등장하는데, 그중에서 거리와 길이를 재는 단위를 현대의 수치로 어떻게 환산하는지 살펴본다. 물론 남자의 신체와 식물 등을 활용한 것이라 자료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으므로 최대한 크로스체크해 산출했지만, 오차 범위 3~4% 이내에서의 유동성은 있을 것이다. 현대 이스라엘에는 유대인만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성인 남성의 키가 약 176~178cm라고 한다(2016 통계). 고대 유대인은 아무래도 이보다는 조금 크지 않았을까 싶은데, 아무튼 도구 없이 언제든지 측정이 가능했던 큐빗이나 길은 재는 단위는 180cm 남짓의 성인 남자를 기준하면 여러모로 정확하고 합리적인 것 같다.

큐빗(규빗, cubit) = 44.7~52.5cm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위인 큐빗은 성인 남성의 팔꿈치부터 짝 편 손가락 중지 끝까지의 길이로 작은 것은 44.7cm, 큰 큐빗은 52.5cm이다. 앞으로 나아가면서 팔로 세면서 재는 것이다.

네가 만들 방주의 모양은 이러하니 방주의 길이는 삼백 큐빗이요, 너비는 오십 큐

빗이며 높이는 삼십 큐빗이니라. (창 6:15)

내가 또한 그 집의 높이를 돌아가며 보니 그 옆방들의 기초들은 완전한 한 갈대 곧 큰 큐빗으로 육 큐빗이고 (겔 41:8)

한국인이 주로 쓰는 개역성경에 나오는 ‘척’과 ‘자’와 큐빗(규빗)은 같은 것이다. 그래서 혼동하기가 쉽다. 일반에서 삼척동자, 구척장신 할 때의 ‘1척(尺)’은 33.3cm, 내 코가 석자라고 할 때의 ‘1자’는 30.3cm지만 같은 것으로 통용되는데, 50cm 안팎인 큐빗과는 크게 차이가 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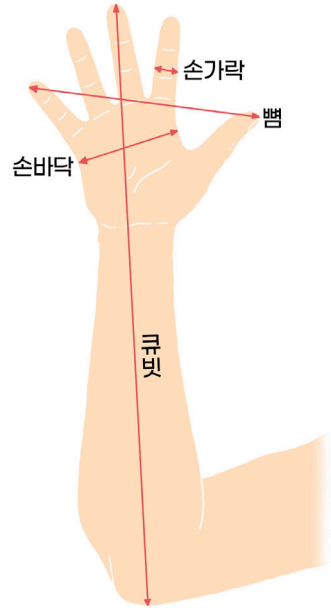
다음은 큐빗을 ‘자’와 ‘척’으로 번역한 부분이다. 흠정역과 비교해 보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자기 키에 일 큐빗을 더할 수 있느냐? (눅 12:25, 흠정역)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눅 12:25, 개역)

한편 입구 문 정면에서 안쪽 문의 주랑 정면까지는 오십 큐빗이더라. (겔 40:15, 흠정역)

바깥 문 통로에서부터 안 문 현관 앞까지 쉰 척이며 (겔 40:15, 개역)



이렇게 번역한 곳이 여러 군데이며, 다른 단위도 척으로 번역해서 문제다. ‘갈대’라는 단위에서 다시 살펴본다. 아무튼 영어 성경들도 일부 단위를 다르게 번역하고 있어서 복잡한데 개역성경은 한국식 단위로까지 치환하니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뿔(span) = 약 22cm

뿔은 손가락을 짝 꿰을 때 엄지와 새끼손가락 끝까지 길이로 약 22cm이다.

그것을 두 겹으로 네모반듯하게 만들되 그것의 길이가 한 뿔, 너비가 한 뿔이 되게 할지니라. (출 28:16)

손가락(finger) 두께 = 약 2cm

손가락의 두께는 손가락의 지름으로 약 2cm 정도로 계산한다. 여기 나오는 '네 손가락 두께'는 약 8cm가 된다.

그 기둥들에 대해 말하자면 한 기둥의 높이는 십팔 큐빗이요, 십이 큐빗 띠가 기둥을 둘렀으며 그것의 두께는 손가락 네 개의 두께요, 그것은 속이 비었더라. (렘 52:21)

손바닥(hand) = 약 8cm

손바닥 너비는 말 그대로 손바닥의 가로 지름이며 네 손가락을 붙인 것과 마찬가지로 약 8cm가 된다.

그것에 돌아가며 손바닥 너비(hand breadth)만 한 턱을 만들고 그것의 턱에 돌아가며 금테를 두르고 (출 25:25)

갈대(reed) = 약 3.19m

에스겔서 42장에 나오는 갈대는 식물 갈대로 약 3.19m이다.

그분께서 나를 거기로 데려가셨는데, 보라, 모습이 낯의 모습과 같은 사람 하나가

손에 아마 줄과 측량 갈대를 가진 채 문에서 있더라. (겔 40:3)

그가 네 측면에서 그것을 측량하였는데 그것에는 성소와 속된 곳 사이에 구분을 두기 위해 돌아가며 벽이 있었고 그것의 길이는 오백 갈대, 너비는 오백 갈대더라. (겔 42:20)



유대인 성전 이미지 컷

여기 에스겔의 환상에 나오는 장차 올 성전은 한 면이 거의 1.6km나 되는 거대한 크기다. 다음 말씀에는 ‘갈대’와 ‘큐빗’이 동시에 등장한다.*

이것 중에서 성소를 세울 땅은 길이가 오백 갈대, 너비가 오백 갈대로 돌아가며 네모반듯하게 하고 그곳의 주변 지역은 돌아가며 오십 큐빗이 되게 할지니라. (겔 45:2, 흥정역)

그런데 개역성경은 갈대와 큐빗을 모두 ‘척’으로 번역하기도 했다.

그중에서 성소에 속할 땅은 길이가 오백 척이요 너비가 오백 척이니 네모가 반듯하며 그 외에 사방 쉰 척으로 전원이 되게 하되 (겔 45:2, 개역)

‘500갈대’를 ‘500척’으로 번역하면, 개역성경의 ‘척’과 ‘자’는 큐빗(규빗)과 같

* 참고로 천년 왕국에서 이루어질 에스겔 성전은 이토록 넓기 때문에 지금 논의되는 제3성전은 턱도 없는 크기다. 제3성전은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참칭할 무대지만 신약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는 없는 개념이다. 그들은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에 이은 에스겔 성전을 꿈꾸는 것이니 여러모로 규모에 맞지 않는다. 에스겔 성전은 천년 왕국에서나 제대로 건설될 것이다.

은 것이라 6~7배 계산 차이가 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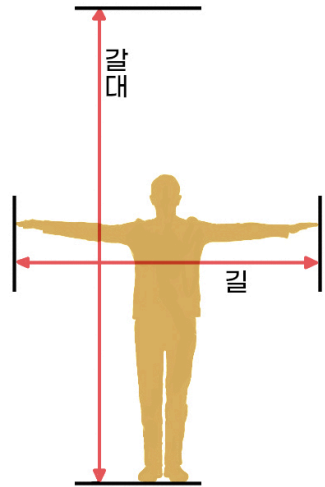
개역성경은 갈대를 장대(rod)로도 번역했는데, 장대도 측량 도구로 3m 정도이므로 비슷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NASB와 NIV 등을 따른 것 같다. 그런데 NASB는 500갈대를 500장대로 번역했으니 측량 결과는 비슷하다. 하지만 장대와 척, 갈대를 혼용했다.

한편 사람의 치수를 통해 천사의 치수도 알 수 있다. 천사는 모두 남자이며 사람과 구분하지 못할 정도의 모습이다(히 13:2).

또 그가 그 도시의 성벽을 측량하였는데 사람의 치수 곧 그 천사의 치수에 따라 백사십사 큐빗이더라. (계 21:17)

길(fathom) = 약 1.8m

‘길’은 성인 남성이 양팔을 벌렸을 때 한쪽 손가락끝에서 다른 쪽 손가락끝까지로 약 1.8m이며, 4큐빗과 맞먹는다. 우리나라의 옛 단위로는 양팔을 벌린 크기인 ‘발’에 해당하는데, 대개 본인의 키와 비슷하다.



물 깊이를 재서 스무 길인 줄 알았고 조금 더 가다가 다시 재서 열다섯 길인 줄 알았더라. (행 27:28)
And sounded, and found it twenty fathoms: and when they had gone a little further, they sounded again, and found it fifteen fathoms. (KJB)

They took soundings and found that the water was a hundred and twenty feet deep. A short time later they took soundings again and

found it was ninety feet deep. (행 27:28, NIV)

‘길’은 킹제임스 영어성경에서 파딤(fathom)인데 신 국제역 NIV는 피트(feet)로 번역했다. 피트는 30cm이므로 6배 짧다. 20파딤(36m)을 120피트(36m)로, 15파딤(27m)을 90피트(27m)로 환산해 번역한 것이다. 1길(fathom)은 6피트(feet)에 해당하며, fathom의 원어인 그리스어(헬라이어) ‘오르귀아’는 양 팔을 편다는 뜻의 ‘오레고’에서 비롯되었다.

스타디온(스타디온, furlong) = 약 185m

‘스타디온’은 그리스어 스타디온을 그대로 번역한 말로 경기장을 뜻하는 스타디움이 이 말에서 비롯됐는데, 약 180~185m에 해당한다.

보라, 바로 그날 그들 중의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육십 스타디온쯤 떨어진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눅 24:13, 흠정역)

And, behold, two of them went that same day to a village called Emmaus, which was from Jerusalem about threescore furlongs. (KJB)

그 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이십오 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눅 24:13, 개역)

60스타디온은 약 11.1km이다. ‘리’로 바꾸면 27리쯤이 된다. 영어 킹제임스의 쓰리스코어(threescore)는 60이다. 스타디온에 해당하는 영어는 펄롱(furlong)인데 NIV는 60스타디온을 현대 단위인 7마일(mile)로 번역해 약 11.26km에 근접하게 했다. 계시록 말미에 등장하는 영원한 천국 새 예루살렘은 네모반듯하고 높이도 같은 형태인데, 정육면체 또는 피라미드 형태 중 하나로 본다. 12,000스타디온은 약 2,200~2,300km이다.

그 도시는 네모반듯하게 놓여 있고 길이가 너비만큼 크니라. 그가 그 갈대로 도시를 측량하였더니 만 이천 스타디온이었으며 그것의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으니라. (계 21:16)

개역성경은 에스겔서의 갈대는 장대로, 계시록에서는 갈대로 번역했다.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 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만 이천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계 21:16, 개역)

또 다른 스타디온은 포도즙 틀의 심판에 등장한다.

그 천사가 자기 낮을 땅에 휘둘러 땅의 그 포도나무를 모아다가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즙 틀 속으로 던지니 도시 밖에서 그 포도즙 틀이 밟혔고 포도즙 틀에서 피가 나와 말굴레에까지 달았으며 천육백 스타디온이나 퍼졌더라. (계 14:19~20)

7년 환난이 끝날 때의 포도즙 틀 심판은 하나님이 원수들을 밟아 피가 약 1m 높이로 예루살렘에서 홍해까지 292~296km(1,600스타디온) 퍼져 나갈 정도의 무시무시한 심판이다.

리, 마일 = 약 392.7m

우리나라에서 쓰는 '리(里)'라는 단위가 한국어 성경에 등장한다. 392.7m, 0.244마일 정도에 해당한다.

또 누구든지 너에게 억지로 일 마일을 가게 하거든 그와 함께 이 마일을 가며 (마 5:41, 흠정역)


And whosoever shall compel thee to go a mile, go with him twain. (KJB)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 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 리를 동행하고 (마 5:41, 개역)

5리는 약 1.2마일이라 1마일(a mile)을 5리로 번역한 것은 얼추 비슷하다. 또한 10리로 번역한 부분은 twain, 즉 두 배를 동행하라는 것인데, 이 구절은 단위 자체보다도 이웃을 대하는 태도를 말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의미다.

성경의 단위는 매우 중요한 부분도 있고 단위 자체보다는 의미가 중요한 부분도 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다 이유가 있으므로 그대로 옮기는 게 좋을 것이다. 이런 것을 제대로 해놓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오류가 없다고 전하겠는가.

성경에 나오는 단위는 결코 주먹구구가 아니다. 예컨대 노아의 방주는 구원의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과학적 의미도 크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단위를 그대로 적용해 방주를 만들어 실험해 보면 그 어떤 선박보다도 안전하게 파도에 견디는 역학을 발견할 수 있다. 노아의 방주는 뒤집히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도록 설계됐다.

단위를 잘 이해하는 것은 성경에 대한 믿음을 더하고, 공신력을 인정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4천 년 전부터 2천 년 전까지 기록된 것이 성경이다. 대체 그 시대의 어느 고서와 경전에 이토록 정확하고 검증 가능한 단위들이 등장하는가?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수와 의미를 제대로 아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말씀의 신적인 권위 앞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찬양하는 일일 것이다. 

생육하다 vs. 다산하다

2021년부터 CBS 기독교 방송국에서 인구 절벽에 대비한 출산 장려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출생률이 세계 최저 수준인 0.7% 안팎까지 떨어져 초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우리나라는 머지않아 노인 인구에 비해 젊은이가 턱없이 부족해 생산성 저하나 연금 고갈 등의 문제는 물론 장기적으로 수백 년 내 소멸을 걱정할 정도로 발등의 불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기독교인이 진짜 성경대로 한다면 피임도 죄악시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남녀 모두에게

시행하는 장단기 불임 시술과 피임법을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 명령들이 주로 구약의 내용이긴 하지만, 시대가 바뀌었다고 하나님이 생명을 사람 마음대로 하라고 하셨을 리는 없다. 하지만 아무리 성경대로 한다는 사람들도 피임을 금하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지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오난의 행위는 근본주의자들 사이에서



CBS 출산돌봄 캠페인

종종 논란의 주제가 된다. 이런 말씀을 지키며 아직도 출산에 관한 명령을 다 지키는 일부 사람들은 생기는 대로 낳아 서구권에는 자녀 수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은 크리스천이 종종 있다.

이렇게까지 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생명은 하나님이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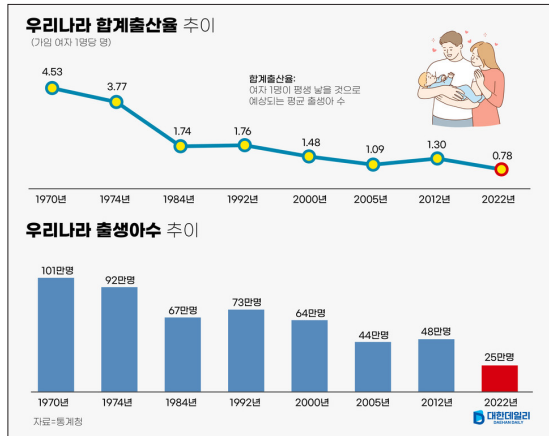
시는 것이니 가능하면 결혼도 하고, 아이도 하나 이상 낳는 것이 좋다는 생각은 성도라면 누구나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라 우리는 각자의 마음대로 이런 일들을 결정하고 있다.

아무튼 하나님은 만물을 만드시면서 번성하라고 명령하셨다. 그리고 하나님 스스로 그것을 실천하셨다. 땅은 많은 열매를 내고, 그 씨앗들도 가장 좁은 공간에 가장 많이 맺힐 수 있도록 수학적으로 설계하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것을 인간이 제한하고 끊고 자르는 것은 잘못이다. 만일 하나님도 아무 때나 열매를 줄이고 멈추신다면 사람이 어떻게 삶을 영위하겠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은 출산 장려 캠페인에도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 1:27~28, 개역)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말씀을 모르는 크리스천은 없다. 많이 생산해 다양해지고 수를 늘리라는 것이다.



그런데 아주 오래전부터 의아했던 것은 ‘생육(生育)’이라는 단어였다. 뜻은 알겠지만 일생 동안 단 한 번도 실생활에서 사용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쓰지 않을 말이기 때문이었다.

“자식은 많을수록 좋으니까 열심히 생육하시길.”

“애가 넷이면 생육을 잘했네!”

이런 식으로는 도저히 일상에서 쓸 수가 없다. 사전에도 이 말은 ‘낳 생(生)’에 ‘기를 육(育)’이라 ‘낳아서 기름’을 뜻하거나 ‘작물 따위를) 크게 성숙시키는 것’이라고 나온다. ‘여러 개’ 또는 ‘많이’라는 의미는 한자어로나 뜻풀이로나 찾아보기 어렵다. 농업을 하는 경우에만 가끔 사용할 수 있는 말이다.

이 단어는 영어로 fruitful(fruitful)이니까 열매가 가득하다는 뜻이다. 사람에게서는 물론 자녀를 많이 낳는다는 의미다. 성경에 반드시 이해가 가는 말만 써야 하는 것은 아니니 경전의 용어를 굳이 꼬투리 잡으려는 것은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생육하다’라는 말에서 자녀를 되도록 많이 낳거나 많은 아이들이 태어나 세상을 채우는 것이 떠오르는 않아 출산 장려 효과 면에서나 이해하는 측면에서 아쉬움이 있다.

킹제임스 흠정역은 ‘생육’이 아닌 ‘다산’으로 번역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또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하시니라. (창 1:28, 흠정역)

‘다산(多産)’은 물론 많이 낳고 많이 열매 맺는 것이다. 훨씬 쉽고 명료하다. 물론 이것도 실생활에서 사용되는 말은 아니지만, ‘생육하다’라는 말보다 현

실적이다. 이 말이 와닿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보이지 않게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생육하는 것은 남 얘기 같은 부분이 있다는 말이다.

이 단어는 성경에 15회 정도 나오는데, 노아의 홍수로 인류 대다수가 멸절한 뒤에도 하나님은 같은 말씀을 하셨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창 9:1, 개역)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우라. (창 9:1, 흠정역)

여기서는 사람에게 대해서 따로 말씀하신 것이라 ‘생육하다’는 더더욱 안 어울린다.

개역성경은 어떤 곳에서는 fruitful을 ‘생육하다’가 아닌 ‘번성하다’로 번역했다. 아이를 많이 낳는 정황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 같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 부터 나오리라 (창 17:6, 개역)

내가 너를 심히 다산하게 하며 내가 너로부터 민족들을 만들고 너에게서 왕들이 나오게 하리라. (창 17:6, 흠정역)

다음 구절은 창세기 2장, 9장과 구조가 같은데도 다르게 옮겼다.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 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레 26:9, 개역)

내가 너희에게 관심을 두고 너희를 다산하게 하며 번성하게 하고 너희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레 26:9, 흠정역)

똑같이 다산하고 번성하게 한다는 말씀을 번성하고 창대하게 한다고 번역했다. 참고로 흠정역의 ‘다산하고 번성하다’는 킹제임스 성경에서 fruitful and multiply이며, 현대 역본에서는 fruitful and increase를 쓴다.

복음이 온 세상으로 퍼진 것은 놀라운 은혜지만 대다수가 성경 원어를 볼 수 없는 상황은 장애물이었다. 그러면 어차피 모두에게 번역이라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 일에 필요한 많은 덕목 중 언어적으로는 균형감이 필요한 것 같다.

어떤 이들은 왜 한국인이 제일 많이 보는 성경을 굳이 문제 삼느냐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뿐 아니라 성경 번역 문제에 아쉬움을 느끼는 많은 이들에게도 한국어 개역성경은 ‘어머님이 읽으시던 나의 사랑하는 책’이었고, 틀림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배운 귀한 책이다. 애정이 있기 때문에 안타까움이 더 큰 것이다.

대한성서공회의 한국어 개역성경은 어떤 면에서 참으로 탁월하다. 길고 복잡한 개념들을 함축적인 단어로 간결하게 축약한 것은 우리나라가 한자어 문화권이라 가능했다. 한자는 너무 자수가 많아 배우기와 읽기에 부적합하지만 거기에는 창세기의 여러 비밀들이 담겨 있다. 이 한자조차 우리 민족(중국 입장에서 동이족)이 만들었으니 그 지혜가 참으로 놀랍다.

또한 개역성경이 새로 창조한 문체는 아니지만 우리나라 개화기의 고어도 현대어도 아닌 문체로 옮겨져 고풍스러움과 장중함과 진지함이 담겼다. 기미 독립 선언문이 현대어로 만들어졌다면 그 비장함이 전달되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처럼 그 시대의 문체가 주는 맛이 기독교에 품위를 더했다. 사도 바울이 모든 연령대의 성도에게 “너희 모두에게 편지하노라”라고 말했을 리 없지만 “여러분 모두에게 편지를 드립니다”라고 하는 것과는 무게감과 진지함이 다

르다. 킹제임스 영어 성경이나 셰익스피어 희곡도 바로 이와 같은 투의 중세의 영어로 되어 있어서 현대 역본들과는 다른 맛이 있다.

아무튼 첫 한국어 성경 이후로는 현대어 성경을 제외한 거의 모든 성경이 개역성경의 문체를 따라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은 독점적 점유율 때문에 많은 이들에게 그 문체와 단어들 이미 독자에게 익숙해진 것을 무시할 수 없었던 이유도 있지만 다른 어떤 문체로도 그것을 대치할 수 없을 만큼 한국인의 신앙에 스며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역과 오역 상태의 방치는 아쉽고, 지나치게 어렵거나 일상에서 동떨어진 단어와 표현들은 이해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바로잡거나 토론할 필요가 있다. 대한성서공회도 간혹 수정을 하지만, 절대 고칠 생각이 없어 보이는 단어들 있는데, 바로 입에 붙어서 익숙한 단어와 구절들이다. 사실상 잘 알려진 구절 대부분이다. ‘생육’이라는 단어 역시 수정의 고려 대상은 전혀 아닐 것이다.

성경 번역을 바라보는 관점은 저마다 다르므로 정교한 균형감이 필요하다. ‘생육하다’가 이상하니 “아이를 많이 낳아라”라든지 “출산을 장려하노라”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없다는 얘기다. 또한 이 말이 식물과 동물과 인간 모두에게 쓰였기 때문에 단어를 선택하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다. 다만 실생활에서 인간에게 전혀 적용하지 않는 말은 적절하지 않다. ‘다산’도 실생활에서 많이 사용하지는 않지만 ‘생육’에 비해 의미는 한결 분명하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도록 전달돼야 한다. 그러면서도 품위가 유지돼야 하고, 이해가 쉽고 읽기 쉬우면서도 무게감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균형감이 매우 중요하다.

번역은 선택의 예술이라 했다. 단어를 어떻게 옮길 것인가 고민할 때 번역자는 가장 적절한 것을 선택하는 능력을 지녀야 하는데, 성경이라면 언어와 교리에 모두 능숙하면서도 자기 생각을 배제하고 그대로 옮기려는 의지가 있어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진지한 자세와 바른 관점과 신앙이 있어야 한다. 그 모두가 균형이다.

세상의 번역가들도 원작을 제대로 번역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좋은 번역 작품에는 상도 수여한다.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적당히 옮기고 통일성도 유지하지 않는다면 안 될 일이다. 말은 내뱉는 순간 힘을 지니므로 어떤 열매이든 맺게 되어 있다. 잘못 입력된 단어도 언젠가는 반드시 교계와 성도에게 크고 작은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 이미 많은 혼란을 초래한 것처럼.

세상에서의 다툼은 프레임 전쟁이며 그 프레임은 말과 단어에서 나온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낱말로 자꾸만 말을 바꿔 나간다. 성경 번역은 말씀하신 분의 의도를 잘 전달하는 것과 독자의 이해를 최대한 돕는 것이 가장 큰 목표이자 가장 합당한 프레임일 것이다.

단어 하나라도 제대로 사용해야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 출생률을 높이는 데도 더 정확한 말이 좋다. 그나저나 정말 기독교인들이라도 결혼을 냉소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을 거두고, 다산하고 번성하는 것이 큰 축복임을 깨달아 실천하는(?) 이들이 많아지기를 기대해 본다. 

이미지로 보는 개역성경 vs. 흠정역 단어 비교

어릴 때부터 익숙하게 접해 온 개역성경에는 한국적인 단어들도 꽤 있다. 사람들이 얼른 떠올릴 수 있는 것으로 번역했기 때문일 텐데, 이해가 빠르다는 장점도 있지만 성경을 실제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소가 될 수도 있다. 이 글에서는 개역성경과 흠정역의 차이점을 보여 주는 단어들을 이미지와 함께 비교해 보았다. 치명적인 오류들은 아니고, 그저 알아 두면 될 만한 단어들이다.

여기 제시한 킹제임스 흠정역 구절의 영어는 모두 킹제임스 영어 성경의 단어이며 개역성경의 영어는 현대 역본의 대표격인 NIV 영어 성경의 단어이다.

떡 vs. 빵

떡은 떡이고 빵은 빵이다. 성경이 번역되던 19세기 조선인에게는 빵이 익숙하지 않았겠지만 지금은 다르다. 그 옛날 이스라엘에는 떡이 없었고, 무엇인지도 몰랐다.

이스라엘의 빵은 피타, 할라 등이 있고, 유월절과 주의 만찬에 먹는 누룩 없는 빵 마짜가 있다. 오병이어(五餅二魚)에 나오는 ‘병’은 떡 병(餅) 자라서 개역



왼쪽부터 시루떡, 이스라엘의 빵 피타와 누룩 없는 빵 마짜

성경의 무교병, 진설병 등은 다 떡인 셈이다. 흠정역은 떡을 빵으로, 무교병과 진설병은 각각 ‘누룩 없는 빵’, ‘보여 주는 빵’으로 번역했다. 뜻이 바로 전달된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눅 4:4, 흠정역)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눅 4:4, 개역)

개역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가 빠졌다(마태복음에는 있음). 한편 개역성경은 친구약 전체에서 빵(bread)을 떡으로 번역했다.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창 40:22, 개역)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창 27:17, 개역)

또한 ‘보여 주는 빵’도 성경 위치에 따라 ‘진설병’과 ‘진설하는 떡’으로 다르게 번역해 한 단어를 검색했을 때 다 나오지 않도록 했다. 단어를 바꾼 현대 역본을 그대로 따랐기 때문이다.

너는 그 상 위에 보여 주는 빵(shewbread)을 두되 항상 내 앞에 돌지니라. (출 25:30, 흠정역)

상 위에 진설병(bread of the Presence)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출 25:30, 개역)

또 그들의 형제들 중에서 곧 고탕 족속의 아들들 중에서 다른 이들은 보여 주는 빵(shewbread)을 맡아 안식일마다 그것을 예비하였더라. (대상 9:32, 흠정역)

또 그의 형제 고탕 자손 중에 어떤 자는 진설하는 떡(bread set out on the table)을 맡아 안식일마다 준비하였더라 (대상 9:32, 개역)

면류관 vs. 왕관

면류관(冕旒冠)도 무척 익숙한 단어다. 이 단어만으로도 감격이 느껴질 정도로 한국 성도들에게는 중요한 단어인데, 이 역시 이스라엘에는 없는 물건이다. 면류관은 한국과 중국 등에서 쓰던 것으로 사각형 모자에 구슬을 매단 통치자의 의관이다. 이 면류관은 성경의 크라운(crown)인데, 크라운은 머리에 씌우는 왕관이다. 치과의 크라운 치료도 금속의 관을 씌우는 방식이다. 재질에 따라 월계수관, 금관 등으로 부를 수 있는데, 계시록에는 금관이 나온다. 왕이 쓰면 왕관(王冠)이다.

성도는 왕가의 제사장이 되어 왕과 동등한 존재가 되며, 천년 왕국과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왕이 되므로 관을 얻는다.



면류관과 왕관

또 내가 보니, 보라, 흰 구름이 있고 그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 같은 분께서 앉으셨는데 그분의 머리 위에는 금왕관(crowns of gold)이 있고 그분의 손에는 예리한 낫이 있더라. (계 14:14, 흠정역)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crowns of gold)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계 14:14, 개역)

〈면류관 벗어서〉(구, 면류관 가지고)라는 찬송은 휴거 후 하늘에서 24장로가 받은 왕관을 주님 발 앞에 던지며 우리의 공로가 아님을 찬양하는 장면이다. 이제 ‘면류관’은 관용적으로 널리 사용하는 표현이니 대한성서공회가 고치지 않는 한 하나의 크리스천 문화로 인정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2012년 이후로 나온 개역개정본은 계시록 4장의 ‘면류관’을 ‘관’으로 바꿨다.

스물네 장로가 왕좌에 앉으신 분 앞에 엎드려 영원무궁토록 살아 계시는 분께 경배하고 자기들의 왕관을 왕좌 앞에 던지며 이르되, 오 주여, 주께서 영광과 존귀

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니 이는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기 때문이니이다, 하더라. (계 4:10~11, 흠정역)

이십사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 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冠)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며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계 4:10~11, 개역)

하지만 바꾸려면 위의 14장 14절도 바뀌어야지, 예수님이 쓰신 것은 ‘면류관’이고 성도가 쓴 것은 ‘관’이란 말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고린도전서에도 ‘면류관’이 나왔었는데, 이 부분도 개역개정은 ‘관’으로 번역했다.

이기려고 애쓰는 자마다 모든 일에서 절제하나니 이제 그들은 썩을 왕관(crown)을 얻기 위해 그 일을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아니할 왕관을 얻기 위해 하느니라. (고전 9:25, 흠정역)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crown)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고전 9:25, 개역한글)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crown)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고전 9:25, 개역개정)

‘썩을 면류관’이라는 말에 어폐가 있어서 바꿨는지 모르겠는데, ‘썩을 승리자의 관’은 또 뭘자... 아무튼 ‘관’으로 바꾼 것은 잘한 것이지만 다른 곳의 면류관을 다 그대로 두면, 영어로 crown을 검색했을 때의 단어 수와 면류관을 검색했을 때의 단어 수가 달라진다.

대접 vs. 병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대접의 ‘대접’도 물론 우리나라 물건이다. 원래는 목이 있는 ‘병’이다. ‘병목 구간’이라는 말도 병의 목처럼 좁아지는 도로라는 뜻이다.

여기 나오는 병은 바이알(vial)이다. 약병 같은 것으로 코로나19 백신 때문에 바이알이라는 명칭이 마스크에도 가끔 등장했는데, 바로 그런 병이다.

옛날에도 술병이나 물병 등 도자기도 있었는데 왜 대접이 됐을까. 재앙을 병으로 붓는 것은 좀 시시해 보여서였을까? 이것은 vial 대신 볼(bowl)을 쓴 현대 영어 역본들을 참고했기 때문일 것이다. 볼은 샐러드볼처럼 넓은 그릇이다.



왼쪽은 볼과 대접, 오른쪽은 병 모양의 바이알

일곱째 천사가 자기 병(vial)을 공중에 쏟아부으매 큰 음성이 하늘의 성전에서 왕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다 이루어졌도다, 하더라. (계 16:17, 흥정역)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bowl)을 공중에 쏟으매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계 16:17, 개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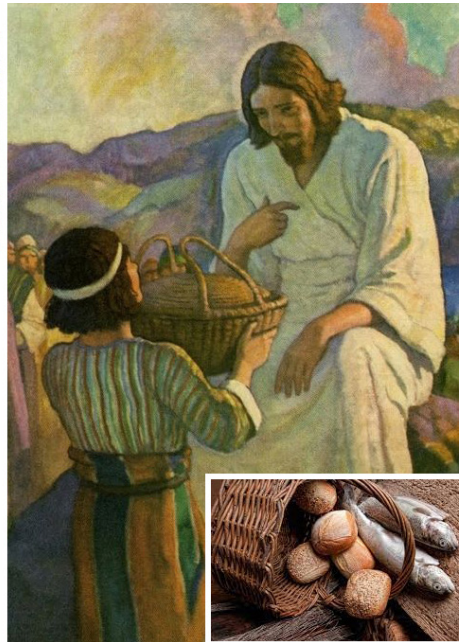
바이알은 세밀하게 약을 제조할 때 쓰는 병이다. 하나님의 재앙도 정확한 위치에 쏟아부을 수 있는 정교한 것이다. 무엇으로 붓는가 하는 것보다는 어떤 재앙인지가 중요하겠지만, 한국에 있는 ‘대접’보다는 ‘병’이 이해가 빠르고 정확한 번역이다.

광주리 vs. 바구니

복음서에서는 적은 먹을거리로 (남자의 수만) 5천 명 또는 4천 명을 먹이신 사건 뒤에 열둘 혹은 일곱 광주리가 남았다고 했다. 여기 개역성경에 나오는 광주리 역시 우리나라 물건이다. 이것은 그냥 ‘바구니’가 맞는다. 자기 먹을 것을 내놓은 소년이 가지고 다녔음직한 도시락을 담은 용도다.

광주리 하면 대개는 아래 사진에 있는 것처럼 고추를 넣어 놓을 만큼 큰 것을 떠올리기가 쉽다. 물론 광주리도 작은 사이즈가 있고, 바구니도 큰 사이즈가 있다. 바울도 바구니에 담겨 성벽을 탈출했다(행 9:25). 이 부분도 개역성경은 광주리로 번역했다.

한편 어떤 이들은 열두 바구니가 남은 것에 대해, 배식하느라 수고한 제자들에게 돌아가 가족들과 먹도록 주셨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한국식 광주리로 열둘이나 남았다면 너무 많다. 예수님은 배식에 실패하신 것인가??



왼쪽은 한국의 흔한 광주리와 베트남의 광주리 투어 모습, 오른쪽은 소년이 물고기와 빵을 예수님께 드리는 삽화와 바구니 이미지

그래서 그런지 개역성경은 광주리와 바구니를 섞어서 번역하고 있다. 현대 역본에도 이것은 다 바스켓(basket)으로 되어 있는데 왜 통일하지 않은 것인지 궁금하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일곱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마 15:37, 개역)

내가 떡 다섯 개를 오천 명에게 떼어 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니 이르되 열둘이니이다 (막 8:19, 개역)

배낭 vs. 짐 보따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나오는 짐이 있는데, 킹제임스 영어 성경에 있는 스크립(scrip)이라는 단어를 현대 역본은 백(bag)으로 번역했고, 개역개정판은 배낭으로 번역했다.

여행을 위해 짐 보따리(scrip)나 덧옷 두 벌이나 신이나 또 지팡이들을 준비하지 말라.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마 10:10, 흠정역)



왼쪽은 배낭, 오른쪽은 스크립이라 부르는 순례자의 어깨 가방. 요즘의 에코백과 비슷하다.

여행을 위하여 배낭(bag)이나 두 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마 10:10, 개역)

2012년 이전의 개역한글은 ‘주머니’라고 했었다.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 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마 10:10, 개역한글)

그런데 여기 여행은 유람하러 다니는 것이 아니라 목숨 걸고 복음을 선포하는 길인데, 배낭이라고 굳이 개정할 필요가 있었을까? 배낭은 말 그대로 백팩, 한자로는 등에 지는 주머니, 등짐이라는 뜻이다.


이런 단어는 굳이 현대의 어떤 물건이 떠오르는 번역이 아니라 ‘짐 보따리’ 정도로, 그것도 아니면 그냥 ‘가방’으로 번역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사소한 차이겠지만.

이상 몇 가지를 살펴보았는데, 치명적인 실수는 아니지만 이해에 방해가 되는 번역이 개역성경에 꽤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대접이나 떡, 면류관, 배낭 등 단어 자체의 문제보다는 일관성 없는 번역과 새로운 판이 나올 때 땀질식으로 수정을 해서 단어의 통일성이 성경 전반에 반영되지 않는 점이 더 문제인 것 같다.

아마도 어떤 단어에 대한 지적이 지속적으로 나오면 바꾸는 것 같은데, 사실은 조금 고치는 시늉만 하는 느낌이고, 때론 더 개악되기도 한다. 늘 겨우 면피만 하는 수준이다.

그리고 해설과 개정 과정에 대한 공개도 매우 부족하다. 한마디로 수정하는 단어에 대한 고민이나 독자에 대한 배려, 하나님 앞에서의 성실함은 찾아보기가 어렵다. 저작권 기한이 끝나면 누구나 성경을 인쇄할 수 있으니 새로운 판

으로 다시 독점하려는 의지가 아니었겠나 싶어 씩씩하기만 하다.

개역성경은 대한민국의 대표 성경이면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유지하는 성경이다. 그런 위상에 걸맞게, 부디 말씀을 두려워하고 조금이라도 더 나은 번역을 하기 위해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 주면 어떨까 한다. 



Reading the Bible with Literacy

제3장

성경과 번역

성도는 그 나라에서 왕인가, 백성인가?... 성경 번역의 X맨들
New, Standard, Revised... 성경 번역본 명칭에 담긴 의미
'아' 다르고 '어' 다른 성경 번역 고지식한 번역 vs. 유연한 번역
감람나무, 감람 열매, 감람산... '올리브'는 왜 '감람'이 되었나?
초막절과 장막절... 성경 번역 단어의 빈도 수 문제에 관하여
같은 성경인데 정판대의 번역이 나오는 이유 (고후 7:12)
영화 자막과 성경 번역문의 늑장스
세상을 바꾼 왕의 번역자들
성경의 '워딩(wording)'과 언어 전쟁
NIV 성경, 사탄경, 게이 섹스 안내서를 한 회사에서 출간하는 이유

성도는 그 나라에서 왕인가, 백성인가?

성경 번역의 X맨들

1. 그들은 누구 편인가?

성경 역본 문제를 접하다 보면 크리스천으로서 참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 성경을 번역하고 전달하려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며, 기독교를 적극 옹호하고 변호하는 사람들일 텐데, 어떤 역본을 보면 이견 마치 'X맨'이 옮긴 것처럼 기독교에 적대적이고, 하나님을 과소평가하고, 예수님의 신성을 축소시키며, 구원의 능력을 폄훼하는 쪽으로 교묘하게 편집돼 있기 때문이다.

도대체 왜 그럴까... 왜 원문을 바꿔가면서까지 기독교의 신비를 감추고, 가리고, 별것 아닌 쪽으로 바꾸려는 것일까... 그것은 누가 원하는 길일까?

원인은 두어 가지뿐이다. 불신자가 편집했거나 마귀가 개입했거나... 이렇게 말하면 또 오해하는 이들이 많겠지만, 실제로 신약 성경은 불신자가 편집한 본문을 대다수의 성경들이 채택하고 있고, 구약도 아주 불순한 신학자가 편집한 본문이 현대 역본들의 텍스트로 사용되었다. NIV 같은 성경은 아예 노골적으로 불신을 드러내는 편집자들이 만들었다. 그중 NASB를 만든 프랭클린 로그스던(Franklin Logsdon, 1909-1998) 박사 같은 분은 자신이 한 일을 회개하며 고백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이제 나는 신미국표준역(NASB)과 관련된 모든 것으로부터 손을 떼려 한다. 사실 나는 하나님께 큰 죄를 지었다. 우리는 NASB라는 잘못된 성경의 기초를 놓았다. 사실 나는 이 역본의 형식을 결정했고, 번역자들 중 몇몇과 이야기도 나누었으며, 그들과 함께 앉아 일했고 서문을 썼다. 참으로 나는 하나님께 큰 죄를 지었다. 지금 나는 이 모든 것을 되돌릴 수 없다. 하지만 NASB는 잘못된 것이며, 잘못되어도 매우 많이 잘못된 것이다.

아,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이 역본이 발간된 뒤에 여러 가지 질문들이 쏟아져 들어오자 나는 참으로 기분이 나빴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처럼 그런 질문들을 하는 이들을 비웃곤 했다. 그런데 언젠가 그런 질문들에 대해 답을 하려고 노력하던 중에 나는 NASB가 매우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이 같은 질문과 비평들을 무시할 수 없으며 반박할 수도 없다. NASB 안에서 삭제된 내용은 참으로 나를 두렵게 했다.…… 그런데 그런 곳은 한두 군데가 아니라 너무나 많았다. 과연 우리는 성경을 이같이 변경한 일에 사탄의 속임수와 개입이 있었음을 의심해 봐야만 하지 않겠는가?



1951~1952년 무디교회 담임 목사
시절의 프랭클린 로그스던 박사

이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뒤에 나는 곧바로 NASB를 출간한 록크맨 재단의 설립자이자 내 절친한 친구인 록크맨에게 편지를 써서 내가 지금 NASB와 관련된 모든 것과의 관계를 끊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빠져 있다고 말했다. 내 손으로 직접 만든 NASB는 참으로 내게 큰 슬픔을 가져다주었고, 큰 혼란에 빠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더욱더 복잡하게 만들어 버렸다. 이제 나는 NASB와 관련된 그 어느 것도 원하지 않는다.

처음에 내가 웨스트코트와 호르트의 부패한 그리스어 본문에 속아 넘어가는 듯했
으나 지금은 다시 원상 복귀해서 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듯이, 지금 이 시간
에도 많은 훌륭한 지도자들이 이 같은 마귀의 속임수에 걸려 넘어지지 않은 채 굳
게 말씀을 지키고 있다. 사실 심히 변경된 그 본문에 눈을 돌리는 것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속임수에 걸려 결국에는 넘어지고 만다. 이제 나는 무디 성경 학
교의 학장인 조지 스위팅 박사에게도 진실을 이야기하려 한다.

이제 독자께서는 권위 역본 킹제임스 성경이야말로 절대적으로 옳은 성경이라고
말해도 된다. 과연 얼마나 옳을까? 100% 옳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영께서 킹제임
스 성경의 역자들을 인도하셨음을 확신한다. 세상의 다른 모든 이가 당신과 의견
을 달리한다 해도 이제 당신은 스스로 서야만 한다.

NKJV(뉴킹제임스)를 포함한 모든 현대 역본들은 영지주의 이단인 오리겐이 편집
한 '부패한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본문'에 근거하고 있다.

그는 계시록 22장 18~19절의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수천 개의 단어를 변경하
였다. 계시록은 말세 교회의 예표인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여 주는데 이 교회는 자
유주의 교회이고 음탕한 교회이다(계 3:14-22). 궁극적으로 이 배도한 교회는 유
혹을 받아 속아 넘어가서 계시록 17장에 나오는 저 음녀, 즉 자주색 옷을 입고 성도
들의 피에 취한 채 짐승 위에 타고 있는 로마 가톨릭 체제와 하나로 엮이게 된다.

이런 혼합 체제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순수한 말씀을 천주교회의 부패한 말
씀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일은 지금 우리 눈앞에서 현저하게 일어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런 진실을 보여 주면 오히려 화를 내는 수많은 이들을 수렁으
로 몰아넣고 있다.

역사를 살펴보면 천주교회의 일원인 히틀러가 천주교회를 심히 사랑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제국과 천주교회를 연합시키려 하였고 이 일을 쉽게
이루려고 뮐러 주교(Bishop Ludwig Muller)를 시켜 죄나 은혜 같은 단어들을 제

거한 독일어 성경을 만들게 하였다. 이 성경의 그리스도는 사람의 영혼과 영원한 생명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이 땅에서 히틀러와 함께 최상의 삶을 누리는 것만 가르쳐 주었다. 성경 변경의 목적은 바로 이것이다.

처음부터 마귀는 “그래, 하나님이 정말로 그렇게 말씀하시더냐?”라고 이브에게 물으면서(창 3:1) 의심의 씨앗을 사람의 마음에 뿌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살짝 의심을 불어넣은 뒤 그는 새로운 계시를 담아, 먹기에 좋게 보이는 말들을 도입하여 사람을 멸망으로 집어넣었다. 그 이후로 이런 유형의 마귀의 계략은 변하지 않았고 지금도 마귀는 새로 발견된 사본들을 근거로 번역했다는 새로운 역본들을 수백 개나 만들어 여전히 사람들을 멸망 속으로 집어넣고 있다.

단언하건대 새로운 계시는 없다. 하나님은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 지난 400년간 자신의 모든 말씀들(words)을 보존하셨다.

- NASB 편집 위원 로그스던 박사(Dr. Frank Logsdon)

그리스도인이라면 성경을 다룰 때, 그리고 그 내용을 타 종교인이나 불신자에게 전할 때 가능하면 좋은 쪽으로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을까?

놀랍게도 현대 역본에서 수정된 부분은 수만 군데다. 한국의 크리스천이 ‘성경’이라고 알고 있는 ‘개역성경’은 스펀전과 무디의 시대의 신자들이 보던 성경이 아니라 천주교 계열의 사본을 뿌리로 둔 성경이다. 천주교 계열 사본은 그 때만 해도 1%만이 채택하던 소수의 사본이며, 대다수는 99%의 성경들이 번역의 대상으로 채택한 온전한 공인 본문이었다. 현재 남은 공인 본문 번역 성경은 영어 킹제임스 성경(KJB)뿐이다.

한 예를 통해 현대 역본의 불순한 의도를 살펴본다. 아직 성경 이슈를 잘 모르는 분들도 부디 어떤 성경이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어떤 성경의 번역자들이 우리 편이며 하나님 편인지 판단하시기 바란다.

2. 성도는 미래의 왕과 제사장이다

구원받은 성도는 천년 왕국에서, 또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함께 다스릴 자들이다. 성경을 속속들이 몰라도 성도라면 이 사실을 대부분 알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처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또 우리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이다, 하더라. (계 5:10)

천년 동안 다스린다는 내용도 분명히 나온다.

첫째 부활에 참여할 몫을 가진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다. 둘째 사망이 그런 자들을 다스릴 권능을 갖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 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라. (계 20:6)

무궁한 천국인 새 예루살렘에서도 우리는 통치하는 자들이다.

거기에는 밤이 없어서 등잔불이나 햇빛이 그들에게 필요 없으리니 이는 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빛을 주시기 때문이라. 그들이 영원무궁토록 통치하리라. (계 22:5)

모두가 다스리는 자라면 다스림받는 것은 누구냐 하겠지만, 천년 왕국에는 육신을 지니고 들어가는 자들이 다시 아기를 낳고 엄청난 민족을 이룬다. 또한 공중으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 성도들의 최종 거처지만 그때도 땅에 사람이 사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우리가 알 수 없는 세계가 존재할 수 있으며 천사들과 또 다른 영적 존재들이 무수히 존재한다. 이는 다른 주제이므로 이쯤에서 넘어간다.

왕과 제사장은 예수님이다. 영원한 제사장이시며 왕이신 주님을 따라 우리도 통치하는 왕이자 제사장이 된다.

이는 그분께서,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라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고 증언하시기 때문이라. (히 7:17)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계통(반차)에 따른 제사장이신데, 멜기세덱 자체가 또한 왕이기도 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는데… (히 7:1)

살렘 왕 멜기세덱은 빵과 포도즙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창 14:18)

우선 ‘왕과 제사장’을 삼으셨다는 말씀을 보면, 성도가 예수님의 지위를 나눠 받는다는 의미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만형인 예수님 아래로 모두 입양하시고 엄청난 유산을 상속받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 곧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께 즉 그분께 영광과 통치가 영원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계 1:6)

분명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말씀한다. 그런데 현대 역본들은 여기서 ‘왕’이라는 단어를 바꿨다. 이 구절들을 개역성경과 비교해 보자. 사실 개역성경은 죄가 없다. 단지 번역의 대상이 되는 본문이 천주교 계열 사본이 뿌리라서 그런 것이다. 그러나 영어 현대 역본들의 잘못된 번역을 가장 여실히 보여 주기에, 그런데도 가장 많이 사용되기에 개역성경을 제시할 수밖에 없다.

[계시록 1장 6절]

하나님 곧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께 즉 그분께 영광과 통치가 영원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계 1:6, 흠정역)

And hath made us kings and priests unto God and his Father: to him [be] glory and dominion for ever and ever. Amen. (KJB)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계 1:6, 개역)

and has made us to be a kingdom and priests to serve his God and Father--to him be glory and power for ever and ever! Amen. (NIV)

‘왕’이 아니라 ‘나라’를 삼으셨다고 바꿨다. 영어 성경은 킹(king)이 아니라 킹덤(kingdom)으로 바꿨다. 킹에 덤을 붙여(?) 왕이 아니고 왕국, 즉 나라가 된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나라를 이루는 백성이 된다는 말이다. 왕에서 갑자기 평민이라니 이렇게 억울할 데가….

어차피 다 같은 계열이지만 쉬운말 성경들은 한발 더 나간다. ‘왕과 제사장을 삼으셨다’는 말씀을 현대인의성경은 ‘우리를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소서’로, 천주교와 함께 번역한 공동번역은 ‘한 왕국을 이루게 하시고 또 당신의 하느님 아버지를 섬기는 사제가 되게 하신’이라고 번역했다. 놀라운 의역이다. 다른 것들은 더 심하다.

아예 ‘왕’과 ‘왕국’ 자체를 빼 버린 것도 있다. 어려운 단어나 애매한 단어를 빼는 성경은 성도에게 해만 끼친다.

[계시록 5장 10절]

또 우리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 하리이다, 하더라. (계 5:10, 흠정역)

And hast made us unto our God kings and priests: and we shall reign on the earth. (KJB)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

룻 하리로다 하더라 (계 5:10, 개역)

You have made them to be a kingdom and priests to serve our God, and they will reign on the earth. (NIV)

마찬가지로 ‘왕(king)’이 아니라 ‘나라(kingdom)’로 똑같이 바꿨다. 그러니까 다 의도적으로 바꾼 것이다.

3. 다스리는가, 그냥 사는가?

영어 성경의 레인(reign)이라는 단어는 ‘통치하다’, ‘다스리다’라는 뜻이다. 이 단어는 바꾸지 않았다. 그러면 성도들이 왕(king)이 되는 게 아니라 왕국(kingdom)을 이룬다고 해 놓고, 갑자기 통치한다는 건 무엇을 다스린다는 것일까? 이장이나 통장이 된다는 건가???

성경은 2천여 년 동안 40여 명이 기록했지만 모든 부분의 아귀가 딱딱 맞음으로써 신적인 권위를 드러내는 신비의 책이며, 바로 그런 지점에서 하나님을 느끼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다. 그런데 마음대로 바꾸니 이처럼 한 문장 안에서 조차 자기모순을 드러내게 되지 않는가. 나라가 되고 제사장이 되는데 누구를 통치한다는 것이냐는 말이다.

그런데 영어 현대 역본에도 남아 있는 이 reign이라는 단어를 개역성경은 ‘왕노릇’이라고 번역했다. 왕이 아니고 왕국, 즉 나라를 이루는 자들이 된다고 했으니 갑자기 통치하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 탓일까? 진짜 왕은 아니고 ‘노릇’만 하는 왕이라는 걸까?

그런데 이런 현대 역본의 생각은 점점 기독교 전반에 미치고 있다. 흠정역을 쓰지 않거나 흠정역이 나오기 전에도 우리가 그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다스린다는 것을 알게 된 이유는 목회자들의 설교 내용이나 성경 공부 등에서 얻어 들은 것들이 많을 것이다. 성경에서 ‘갈보리’라는 말을 없앴지만 많이들 알고

있는 것처럼 말이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라는 찬송가에 나오는 가사 ‘주와 함께 다스리리’라는 내용의 영향이 크다. 자주 불리는 이 찬송가는 찰스 허친슨 가브리엘이 지은 <Where the gates swing outward never>인데, 다른 영미권의 수많은 찬송가들처럼 킹제임스 성경의 단어들로 돼 있다. 또한 reign이라는 단어가 분명히 들어 있다.

Just a few more days to be filled with praise,
And to tell the old, old story; Then, when twilight falls, and my Savior calls,
I shall go to Him in glory. I'll exchange my cross for a starry crown,
Where the gates swing outward never; At His feet I'll lay ev'ry burden down,
And with Jesus reign forever.

후렴구 마지막에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다스릴 것”이라는 내용이 나온다. 통일 찬송가 544장이었던 이 찬송의 가사는 우리에게도 익숙하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집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그런데 2006년 새찬송가(21세기 찬송가)가 나오면서 492장이 됐는데 맨 끝 가사가 바뀌었다.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주와 함께 다스리리’가 ‘주와 함께 길이 살리’로 바뀌었다. 원곡의 가사까

지도 현대 역본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오래전부터 있던 현대 역본이 영 힘을 못 쓰다가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것이 존더반 출판사의 NIV이다. 이 성경은 1973년에 신약이, 1978년에 구약이 발행됐다. 점차 보급되고 점유율을 늘리면서 발생하는 현상들 중 하나가 이런 유의 변화일 것이다.

멸절한 가사를 굳이 바꾸는 근거와 자신감이 어디서 오겠는가? 바로 자신들의 성경에서 오는 것이다. “요즘 성경에 왕이라는 말이 없는데 이 가사는 틀린 거다. 비록 원곡이 그래도 이렇게 바꾸는 것이 편찬자들이 할 일이다.” 이런 생각이었을까? 중학교 때부터 소망과 은혜로 신나게 불렀던 찬송가인데, 이거라도 그냥 두지, 꼭 ‘길이 살리’로 바꿔야만 속이 시원했을까.

4. 조직적인 가위질에 무너지는 진리


아버지의 상속언약(testament)은 유언장이다. ‘옛 유언’과 ‘새 유언’인 구약과 신약이 있다. 이것을 함부로 고치면 되겠는가. 왕들의 왕인 아버지가 다음 왕을 정했는데, 누군가 슬쩍 내용을 바꿔서 왕자에게 전달한다면 그는 유언장 내용의 부당함을 고소하는 적대적 관계에 놓인 자일 것이다.

장관 임명을 받았는데 중간에 누군가가 임명장을 고쳐 차관으로 바꾸거나 평직원으로 바꾼다면 가만히 있을 사람이 있을까? 대통령 임명을 받았는데, 사실은 그 뜻이 아니라면서 일반인으로 바꾼다면 분노하지 않을 것인가. 그런 일을 획책하고 가담하는 자는 법과 주권자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성경을 바꾼다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왕이 되어 다스린다는 사실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왜 왕들의 왕이신 주님의 말씀을 달리 전해 듣고 그것을 또 잘못 전달하며, 잘못 알고 살면서 자신이 왕이 될 상(?)인지도 모르고 살아야 하나.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성경 비평학에서 성경 단어에 이루어지는 ‘비평’은 개인의 자유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적 없다. 비평은 필연적으로 비판적 시각을 포함한다. “이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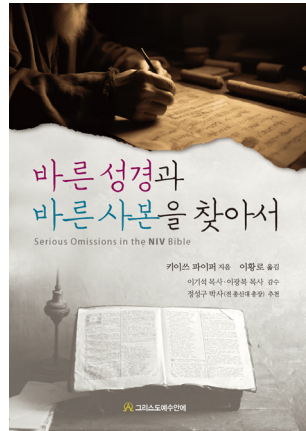
게 기록돼 있지만 시대 배경이나 풍습이나 신학 등의 이유로 사실은 이런 뜻이어야 한다.” 이런 식의 학문이다. 성경 교사는 필요하지만 비평가가 필요할까? 지키고 옹호해도 모자랄 판에 알아서 뜻을 정해주는 사람들이 왜 필요한가.

성경 번역자는 적절한 문학적 어휘와 신학적 개념을 찾아 충실하게 전달할 뿐이며 그 과정에서의 실수나 미흡함의 문제라면 몰라도 단어와 개념 자체를 넣고 빼고 바꾸고 이런 일은 해선 안 된다. 그것도 더 좋은 말과 기독교를 변호하는 쪽도 아니고 사사건건 시비 걸고 폄하하고 축소한다면 그런 자는 역모를 꾀하는 자이며 고소하는 자의 사주를 받은 자가 아니겠는가. 이쯤 되면 ‘번역’이 아니라 ‘반역’이라 할 것이다. 반역자의 성경을 버리지 않으면 무엇도 바로 세울 수 없을 것이다. 

New, Standard, Revised… 성경 번역본 명칭에 담긴 의미

『바른 성경과 바른 사본을 찾아서』… 키이쓰 파이퍼가 쓰고 이황로 목사가 번역한 이 책은 영어 현대 역본의 놀랍고도 충격적인 번역 실태를 다룬 책이다. 흠정역 사용자들에게는 잘 알려진 책인데, 어느 교단에 있든지 이 책은 꼭 한번 읽어볼 만한 내용들로 가득하다. 이 책이 특정한 부류의 성도들에게만 필요한 책은 아니다. 총신대와 대신대학교 총장으로 사본학의 권위자인 정성구 박사 같은 분도 이 책에 추천사를 썼다. 일명 성경 덕후(?)들만을 위한 책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 책에서는 죄와 구원, 예수님의 신성, 갖가지 주요 교리들이 개정된 영어 성경들에서 얼마나 많이 왜곡되었는지 폭로하고 있다. 그 번역본들에는 신학자들이 참가했지만, 그들의 다른 정체성은 종교 다원주의자, 무속적 심령학회 회원, 진화론자, 공산주의자, 그리고 동성애자까지 매우 다양하다. 물론 불신자도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성경이 하나님의 직접 주신 말씀이라고 믿지 않는 자들이었다는 사실이다.



단행본 『바른 성경과 바른 사본을 찾아서』(그리스도예수안예)

이 책은 책의 특성상 많은 양을 배포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초판이 다 팔리고도 필요로 하는 이들이 있어서 후속 개정판이 나오게 되었다. ‘그리스도예수 안에’가 출판을 맡아 마제스티판 흠정역을 기본으로 재편집을 했는데, 어찌다 편집(레이아웃)을 맡아 하다 보니 거의 아는 내용인데도 새삼 놀라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싶다. 성경의 역본 이름에는 힌트가 있다.

- ① 개정판 Revised Version
- ② 표준판 Standard Version
- ③ 새번역 New OOO Version
- ④ 그리고 현대적인 명칭들

이런 이름이 붙은 것들은 전통적인 성경이 아니며, (최초의 완역된 성경전서인 영어 킹제임스 성경으로부터) 변경된 성경이다.

1. 개정판이라는 것은 킹제임스 성경에서 고쳤다는 뜻이다. 한글판 흠정역이 한국에 늦게 소개돼서 신중 성경 버전으로 오해하는 분들도 있지만, 흠정역은 변경되기 이전의 성경이며, 장로교든 감리교든 침례교든 종교 개혁 이후에 생긴 모든 개신교단은 바로 이 킹제임스 흠정역(KJB, KJV)으로 모든 교리를 이루었다. 개정은 1800년대에 이루어진 것이다. 영국 개역성경(ERV), 한국의 개역한글(KRV) 등도 같은 의미다.

2. 표준판은 보통 사람들이 인정하는 수준의 번역이라는 뜻이다. 표준은 기준과 달라서 시대나 환경에 따라 달라진다. 표준 시간, 표준국어사전 등등은 합의로 결정된, 인정받을 만한 수준을 뜻하는 것으로, ‘표준’, ‘스탠더드’라 하면 왠지 좋아 보일 수 있지만 최상급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표준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그대로 보는 것이다. 매우 개약된

성경인 미국 표준역(ASB)처럼 이름에 스탠더드가 들어간 성경이 많다.

3. 새번역·새성경 등도 새롭게 또 개정하고, 새로 해석한 개념들이 들어갔다는 뜻이다. 옛길, 옛 신앙, 그 옛날에 처음 주어진 말씀이 귀한 법인데,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사람, 새로운 신학에 의해 다시 정리한 성경이 과연 좋은 것일까? 문학 작품이라면 시대에 맞게 재해석할 수도 있지만 말씀은 하나를 건드리면 많은 개념이 뒤바뀐다. NIV 같은 성경이 대표적인데, 우리나라에도 새번역 성경이 있다. 최악의 성경인 NASB에는 New와 Standard가 다 들어 있다. 심지어 New가 붙은 뉴 킹제임스 버전(NKJV)조차도 많은 부분이 변경되었다.

4. 그 밖에도 메시지 성경(MSG), 굿뉴스 바이블(GNB, GNT), 리빙 바이블(TLB), 그리고 각종 현대어 성경 등등 새로운 이름을 입은 성경들이 있는데, 이 모든 성경들의 특징은 말을 그대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뜻(메시지)만 통하면 된다는 식의 번역 방식이며 원어에 손을 댄 로마 가톨릭 본문을 기준으로 한다는 특징을 지닌다. 킹제임스 성경 이외의 모든 성경은 이 계열이다.

이제 『바른 성경과 바른 사본을 찾아서』의 내용 중 일부를 소개한다. NIV 편집자 캘빈 린톤(Calvin Linton)에 관한 것이다.

린톤은 성경이 ‘하나님의 메시지’이지 그분의 말씀들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는 성경이란 “아름답게 수를 놓은 작품의 잘못된 다른 쪽이다. 수의 그림은 여전히 거기(뒤쪽) 있지만 그것은 여기저기 봉합이 되어 있고 흐려져 있으며... 아름답거나 완전하지 않다”라고 믿는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유쾌하게 지내지만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면서 그들은 성령이 원래 성경 기록자들의 본문의 말들을 받아서 적게 하였다는 가정을 믿고 있다고 말한다.

「The NIV: Making of a Contemporary Translation」 pp. 17-19, 34, 111, 1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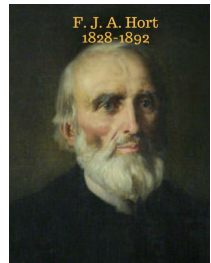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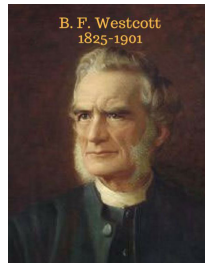
여기 자수 작품이 있다. 두 개가 비슷해 보이지만 오른쪽의 선명한 것이 앞면이고, 왼쪽은 뒷면이다. 린톤은 성경이 왼쪽처럼 흐려진 것이라고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앞면 같지만 성경은 뒷면처럼 오류가 난 것인데,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적은 선명한 것 그대로라는 (말도 안 되는) ‘가정’을 믿고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성경은 그러저러한 말씀의 ‘내용’이 전달된 메시지이며 글자 그대로 믿을 것이 못 된다는 뜻인데, 그러면 신앙이 필요 없다. 성육신도 재림도 천지 창조도 말이 그렇다는 거지, 실재한 것은 아니라는 **영지주의적 이단 교리**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설교의 황태자로 불린 침례교 목사 스펠전이 그리스어 번개로 신약 성경을 크게 훼손한 두 학자, 성경의 원흉이 저지른 만행을 비판한 내용이다.

찰스 H. 스펠전(1834-1892) 은 웨스트코트와 호르트의 번개된 (영어) 개역성경을 ‘속임수 놀이’, ‘축자 영감과 성경 무오를 약화시키는 것’, 그리고 ‘무흠(無欠, Infallibility)을 상실한 것’으로 간주하여 거부하였다. 스펠전은 ‘최후 선언’으로 1891년 4월에 자신의 침례 신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웨스트코트와 호르트

“목회자들이 본문에 말씀을 추가하든지 그것에서 삭제하는 것, 또는 거룩한 말씀의 언어를 격하시키는 것이 보편화되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위대한 저자이신 분을 경외한다면 그분의 말씀을 훼손시키는 것을 금지해야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성경을 개선하기 위해 변개하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손안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스스로 강력한 권능이 있습니다.”

“만일 이 책이 무오하지 않다면, 우리는 어디서 무오한 것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교황을 포기한 것은 그 스스로가 가끔씩 비참하게 실수하기 때문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그 교황 대신 신학교를 갖 줄업한 작은 교황과 같은 자들의 무리를 선택해야 할까요? 성경을 변개하는 사람들, 그들이 정말로 무오합니까? 성경은 옳지 않고 반면에 그 비평자들은 옳다는 것이 확실합니까? 그렇다면 어디서 무오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성경이 확실하다는 믿음이 영적인 사람으로부터 이전되어 전혀 영적이지도 않으면서 학자인 체하는 사람들의 집단으로 넘겨졌습니다. 우리는 점차로 의심받거나 비평을 받을 것이며 그 결과, 소위 소수의 신중하다고 하는 사람들만 무엇이 성경이고 무엇이 성경이 아닌지를 알게 될 것이고, 결국 그 학자들은 자기들의 생각을 우리에게 강요할 것입니다. (중략) 그들은 우리가 귀하게 생각하는 모든 것을 강탈할 것이고 그 잔인한 행동을 자랑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폭력의 지배’를 참을 수 없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현명하고 신중한 사람들이 아니라 아기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신다는 것을 우리가 여전히 믿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축자 영감에 대한 당신의 견해를 격하시키기 시작하면 그는 밝은 빛 아래에서는 쉽게 쓸 수 없는 속임수를 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축자 영감과 성경 무오성을 과소평가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절대로 한 시간도 굴복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영국 개역성경이 1881년에 출판된 지 10년이 지난 후에 선포된 말씀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스펀전 사망 1년 전의 절규와 같은 호소였다. 찰스 스펀전의 위대함은 설교가 아니라 설교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에서 온 것이 아니었을까 싶다.



찰스 스펀전 목사

말씀을 그저 전달된 메시지 수준으로 본다면 설교를 할 때나 글을 쓸 때 자기가 원하는 성경 역본을 택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더 잘 뒷받침하는 뉘앙스의 성경을 제시할 수 있다. 이것은 내게 하나님을 맞추는 것이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자세가 아니다. 릭 워렌 같은 사람의 책처럼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주로 쓰는 성경과 자기 말을 더 그럴듯하게 보이게 만드는 성경들을 함께 인용하면서 글을 쓰고 말을 한다.

성도에게 성경은 중요한 기준이다. 성경 번역과 개정의 이슈를 알면 더 좋은 성도가 되거나 획기적인 변화가 찾아온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더 힘들어질 수도 있고, 말씀을 지키기보다는 많이 아는 것에 치중해 오히려 나태하고 공허해질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런 것은 각 사람이 중심을 잡고 감당할 일에 불과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대하는 자세다.

과연 말씀을 자수의 뒷면처럼 그저 두루뭉술하고 실체가 아닌 그 무언가가 전달된 결과라고 믿는가, 아니면 정확하며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라고 믿는가의 차이다.

정확하지 않은 것이 나를 구원한다고?

확실하지 않은 약속이 나를 천국으로 이끈다고?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고 보존할 수도 없는 신이 나를 지옥에서 건진다고?

내가 그 모든 것을 어떻게 믿고, 느낌만으로 확신할 수 있다는 것인가... 열심히 목숨 바쳐 맹신하는 이들은 어느 종교에나 있는데 말이다.

“만일 이 책이 무오하지 않다면, 우리는 어디서 무오한 것을 얻을 수 있습니까?”

스펠전의 이 말에서 오늘 다시 한 번 성도란 누구인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기독교는 세상의 우상을 섬기는 종교들과 과연 어떤 점에서 다른지, 성경을 놓고 꼼꼼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 📖

‘아’ 다르고 ‘어’ 다른 성경 번역

성경을 읽다 보면 익숙한 구절들을 그냥 읽어 넘길 때가 있다. 그러나 제대로 된 번역으로 보면 미묘한 듯 큰 차이가 나는 구절들이 있다.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므로 우리도 그분의 말씀을 정확히 안다면 더 큰 은혜와 감동이 있을 것이다.

1. 덮느니라 vs. 덮으리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 부분은 성도라면 누구나 잘 아는 말씀이다. 그런데 흠정역으로 보면 아주 미세한 차이가 있다. ‘덮느니라’가 아니라 ‘덮으리라’로 되어 있다. 이것은 어떤 차이일까?

무엇보다 먼저 너희끼리 뜨거운 사랑을 품으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으리라. (벧전 4:8, 흠정역)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벧전 4:8, 개역)

개역성경의 ‘덮느니라’는 사랑의 속성 자체를 말하는 것으로 들린다. 하지만

‘덮으리라’ 하면, 너희가 뜨거운 사랑을 품으면 허다한 죄가 덮일 것이라는 뜻으로 들린다. 어떤 쪽이 더 마음에 와닿는지는 각자 다르겠지만, 하나님이 두 가지 말씀을 하진 않으셨을 것이다.

이 부분은 한국어 번역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킹제임스 성경과 현대 역본의 차이에서 온다.

And above all things have fervent charity among yourselves:
for charity shall cover the multitude of sins. (빈전 4:8, KJB)

Above all, love each other deeply, because love covers over a
multitude of sins. (빈전 4:8, NIV)

이처럼 킹제임스 성경은 ‘~일 것이다’라는 뜻의 shall이 있어서 앞으로 있을 결과에 대해 말씀하고 있지만, 대표적인 현대 역본인 NIV는 이 단어를 빼서 사랑 자체의 속성에 대한 내용처럼 바꿔 놓았다. 현대 역본 계열인 개역성경도 자연스럽게 번역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문맥상으로도 뜨거운 사랑을 품으면 그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교훈도 실제적이다.

2. 받은 줄로 vs. 받는 줄로

기도할 때 무엇을 원하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는 말씀도 매우 유명하다. 그런데 이것도 ‘받은 줄로’ 믿는 게 아니라 ‘받는 줄로’ 믿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어떤 것들을 원하든지 너희가 기도할 때에 그것들을 받는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그것들을 받으리라. (막 11:24, 흠정역)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막 11:24, 개역)

‘받은 줄로’ 믿으라는 것은 이미 받았다 치거나 받을 것으로 친다는 뜻이니 믿음의 투철함을 드러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맹목성이 엿보이는 부분이다.

기도는 현재로부터 장차 다가올 일에 대한 소망이므로 받았다고 믿는다는 것은 어법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 ‘받는 줄로’ 믿는다는 것은 지금으로부터 미래에 어떤 응답이든 받게 되는 것으로 생각하며 기도의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 역시 영어 성경에서 현대 역본이 바꾼 것이다. 받는다는 뜻의 ‘receive’가 과거형으로 되어 있다.

Therefore I say unto you, What things soever ye desire, when ye pray, believe that ye receive them, and ye shall have them. (막 11:24, KJB)

Therefore I tell you, whatever you ask for in prayer, believe that you have received it, and it will be yours. (막 11:24, NIV)

기도할 때마다 받은 것으로 믿는 것은 믿음이 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나 기도라는 행위 자체를 실제적인 행동으로 이해하기보다는 무작정 믿으라고 하는 듯한 느낌이다.

3. 있으리라 vs. 있느니라

마태복음의 마지막 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셨다. 역시 익숙한 말씀이다. 그런데 이것도 흠정역은 ‘있으리라’가 아닌 ‘있느니라’로 되어 있다.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마 28:20, 흠정역)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 28:20, 개역)

이 부분은 영어 성경에서 동일하게 “I am with you”인데, 이 말은 “나는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있으리라)”가 아닌 “나는 너와 함께 있다(있느니라)” 또는 “나는 너에게 동의한다”, “나는 네 편이다” 등의 뜻이며, 앞으로도 함께 있겠다라는 뜻이다. 반면에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미래만을 담고 있다.

‘있으리라’는 아마도 예수님이 승천하시면 지금은 떠나가지만 장차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 지켜 주신다는 식으로 이해한 번역이 아닐까 싶다. 이 부분을 보면서 지금부터 계속 함께 계신다는 느낌은 받을 수 없었으니 말이다.

말이란 ‘아’ 다르고 ‘어’ 다른 법이다. 미묘한 차이 같지만 보기에 따라 결코 작지 않은 다름일 수 있다.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 말씀의 세미한 음성을 이해하려면 바른 번역이 필수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떤 이들은, 뭘 그런 거 가지고 따지느냐며 자신은 기존 성경의 어투와 번역이 익숙하고 은혜로워서 더 마음에 든다고도 말한다. 하지만 말씀은 내 마음에 드는 것을 고르고 아끼는 것이 아니라, 때론 듣기에 불편해도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담은 성경을 선택하고 읽어야 하지 않을까. 그것이 단단한 음식도 소화할 수 있도록 장성해가는 크리스천의 자세가 아닐까 한다.

‘아’ 다르고 ‘어’ 다른 성경 번역 문제는 여러 성경들을 대조해 보면 금방 알 수 있다. 아마도 이상하다 싶은 부분을 보고 ‘어’ 하다가 좋은 성경을 찾아보고 ‘아’ 하는 때가 많을 것이다. 그 좋은 성경이란 1611년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며, 한국어로는 가장 충실하고 온전하게 옮겨진 킹제임스 흠정역이다. 

고지식한 번역 vs. 유연한 번역

번역의 두 가지 방식

어느 인문학 서적의 머리말을 보니 이런 안내가 있다.

“고전은 시대에 따라 당대의 언어와 감각으로 새롭게 번역되어야 한다.”

말하자면 독자들의 감성과 언어, 새로운 맞춤법에 따라 재정비될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 충분히 수궁이 가는 타당한 이야기다. 왜냐하면 수십 년 전에 보던 번역서로는 읽고 이해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거칠고, 어휘나 단어나 맞춤법 등 모든 면에서 감각이 다르기 때문이다. 물론 내용까지 바꾸지 않는 선에서 분명 필요한 일이다.

그러면 성경 번역 문제는 어떨까. 이에 대해서 간혹 비슷하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 먼저 번역 방식은 쉽게 말해서 다음 두 가지로 나뉜다.

1. 고지식한 번역(형식적 일치 기법)

단어 대 단어로 빠뜨리는 부분 없이 번역한다. 번역자는 단어의 여러 뜻 가운데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지만, 언어의 특성상 문맥이 맞지 않을 때 부득이하게 조사 등을 더하는 것 이외에 문장에 영향을 미칠 새로운 단어를 넣거나 다른 생각을 추가하지 않는다.

2. 유연한 번역(동적 일치 기법)

뜻이 통하면 되는 방식이다. 문장의 형식이 바뀌거나 단어가 가감이 된다 해도 문장의 전체적인 뜻이 통하면 되는 것이다. 자연스럽게 번역자의 의도나 생각이 추가되기 쉽고, 단어가 더해지거나 빠지기 쉬운 방식이다.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누가 생각해도 당연히 고지식한 방식인 형식적 일치 기법을 써야 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대부분의 성경은 유연한 번역, 즉 동적 일치 기법으로 번역된 현대 역본이 장악하고 있고, 유일하게 킹제임스 성경만이 형식적 일치 기법을 사용한 성경이다.

그러면 앞서 언급한 인문학 책은 어떨까? 다른 여러 번역물은 어떨까? 성경을 풀어 설명하는 경건 서적은 어떨까?

사실 이런 다양한 번역물을 형식적 일치 기법으로 번역하면 많은 문제가 생기고, 도저히 읽을 수 없는 글이 된다. 그래서 뜻이 통하게 번역해야 하고, 번역문을 볼 독자를 고려해야 한다. 단어가 추가되거나 빠질 수도 있고, 중간중간 마침표가 나올 때마다 끊을 필요도 없이 말 그대로 '알아서 유연하게' 번역해야 한다.

자칫 기독교와 관련된 신앙적인 내용은 모두 고지식하게 번역해야 한다고 여길 수도 있다. 성경을 단어 대 단어로, 고지식한 기법으로 번역해야 한다고 했을 때, 모든 제대로 된 번역은 이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오해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신앙적 에세이나 설교문, 심지어 교리해설이라도 일반적 성격의 문서를 고지식하게 번역하면 읽기 어려운 글이 된다. 이 분류는 사실 신앙적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보다는 다음과 같은 문서의 용도에 따른 구분이 필요한 일이다.

1. 고지식한 번역 : 성경, 법조문, 판결문, 상속 유언장, 계약서
2. 유연한 번역 : 에세이, 소설, 시, 칼럼, 설교문, 묵상집

유연한 번역에는 신앙적 콘텐츠도 물론 포함된다. 다만 성경 특유의 단어를 바꾸지 않는 선에서 유연하게 번역해야 한다는 뜻이다.

하나님은 그 '책'으로 심판하신다

자, 그럼 성경이 말씀하는 성경은 어떤 책인가?

[계약서]

언약의 책을 가져다가 백성이 듣는 데서 읽으매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이르신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순종하리이다, 하니 모세가 그 피를 취해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주께서 이 모든 말씀들에 관하여 너희와 맺은 언약의 피를 보라, 하였더라. (출 24:7~8)

그러므로 이 언약의 말씀들을 지키고 그것들을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에 너희가 성공하리라. (신 29:9)

그분께서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첫 언약을 낡은 것으로 만드셨으니 이제 쇠하고 낡아지는 것은 곧 사라지기 마련이니라. (히 8:13)

[법조문]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들을 그 돌들 위에 매우 분명하게 기록할지니라. (신 27:8)

또한 시내 산에 내려오시고 하늘로부터 그들과 더불어 말씀하사 올바른 판단의 규범들과 참된 법들과 선한 법규들과 명령들을 그들에게 주시며 (느 9:13)

온 율법은 이것 즉, 너는 네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한 말씀 안에서 성취되었느니라. (갈 5:14)

[상속 유언장]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가려졌으니 이는 이날까지 옛 상속 언약의 말씀을 읽을 때에 바로 그 베일이 벗겨지지 않은 채 남아 있기 때문이라. 그 베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졌으나 (고후 3:14)

형제들아, 이제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맡기노니 이 말씀은 너희를 든든히 세우고 거룩히 구별된 모든 자들 가운데서 너희에게 상속 유업을 줄 수 있느니라. (행 20:32)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을 것이며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계 21:7)

성경은 인생에 도움이 되는 명언집이나 어느 종교의 경전과는 다른 책이며, 실질적으로 효력을 발생하는 문서다.

언젠가 독일에서 온 선교사 형제가 보여준 아연실색할 성경은 현대적 감각으로 아예 다시 쓴 성경이었는데, 그분이 현대적 감각의 한 예를 들려주었다.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재산을 탕진하고 돼지 치는 일을 하다가 아버지의 집을 그리워한 상황을, 맥도날드에서 알바를 하는 것으로 바꿔 놓았다고 한다. 예수님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신 것도 “졸지 마라” 하는 식으로 바꾼 성경이라는 것이다. 성경 이야기나 일화를 풀어놓을 수는 있지만 신구약 전서를 이런 방식으로 모두 번역한다면 참으로 그들에게 성경이 왜 필요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유연한 번역으로는 진리를 알 수 없다. 성경은 인문학이나 에세이처럼 오늘날의 감성으로 이해하고 끝내는 책이 아니며, 놓치면 치명적일 수 있는 깊은 진리와 경고와 계약이 담긴, 어떤 면에서 위험한 책이다. 각종 계약서를 읽기 편한 어휘로 단어를 건너뛰며 번역할 사람은 없다.

0과 1로 이루어진 컴퓨터의 데이터도 하나만 어그러지면 다른 결과값을 내

는데, 온 세상과 모든 혼을 담보로 동일하게 주신 전능자 하나님의 언어에 일점일획의 오류라도 있다면 하나님의 직무 유기이며, 신으로서 심판의 명분이 서지 않는 일이다. 인간의 법에서도 법 조항이 없으면 해당 죄를 물을 수 없는 것이니 말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그 ‘책’으로 심판하신다.

불같은 시내가 그분 앞에서 분출하여 나오는데 천천이 그분을 섬기고 만만이 그분 앞에서 서 있으며 심판이 준비되었고 책들이 펼쳐 있더라. (단 7:10)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서 있는데 책들이 펼쳐져 있고 또 다른 책 즉 생명책이 펼쳐져 있더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그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았더라. (계 20:12)

그러므로 성경의 가치와 명확성에 주목하지 않는 것은 결국 신앙이 얼마나 자의적이고 개인적인 판단에 불과한지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성경은 하나뿐이지만 번역본은 이렇게 두 종류임을 잊어선 안 된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고지식한 성경은 킹제임스 성경뿐이고, 사용자가 많지 않다. 다행스러운 것은 그 성경이 가장 곁출하고 독보적이라는 사실이다.

당신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 성경을 고지식하게 보든지 유연하게 보든지, 하나님은 문자 그대로, 책에 주신 그대로 모든 것을 바라보시며 끝까지 이루실 것이다. 어느 것이 유리할지는 각자가 선택할 일이다. 📖

감람나무, 감람 열매, 감람산… ‘올리브’는 왜 ‘감람’이 되었나?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성경에는 아주 익숙한 단어인데 뜻을 모르면서 계속 쓰는 말이 있다. 마치 그냥 감으로 알거나 맥락으로 이해해 자주 쓰면서도 정확한 뜻은 알지 못하는 모국어처럼 말이다. ‘감람’이라는 단어도 익숙하지만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성경이 번역되던 시기에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물건을 굳이 한자로 쓰거나 음역한 고유 명사들이 있다. 번역자들이나 신학자들은 경전 속 단어가 현실과 너무 가까우면 왠지 맛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기도 하는 것 같다.



나 역시 감람, 감람 열매, 감람기름, 감람산 등 많이 나오는 이 이름은 무언가 이스라엘과 중동 지방 특유의 열매나 과실이겠거니 했고, 흠정역을 알기 전 까지 모르던 단어였다.

나 역시 감람, 감람 열매, 감람기름, 감람산 등 많이 나오는 이 이름은 무언가 이스라엘과 중동 지방 특유의 열매나 과실이겠거니 했고, 흠정역을 알기 전 까지 모르던 단어였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에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도 감람나무 열매는 이스라엘 특산품(?) 정도 되는
줄 알았다.

감람은 개역성경이 ‘올리브’를 번역한 말이다. 20~30년 전만 해도 우리 일
상에서 올리브가 요즘처럼 많이 이용되지 않았다. 90년대쯤 올리브기름이 좋
다고 알려지면서 대중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고, 지금은 피자 등에 올라간 절
단된 까만 링 모양의 올리브부터 다양한 맛의 절인 올리브를 식재료로 활용
한다.

옛날에는 올리브가 눈에 안 띄니까 감람이라고 해도 막연하게 이해했지만
이제 익숙한 열매니까 제대로 알면 성경이 한결 자연스럽게 읽힌다. “요단강 건
너가 만나리” 하는 노래를 부르면서도 그 요단강이 중동의 요르단강과 같은
것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굳어진 성경 속 고유 명사라도 가능한 한
실제적인 번역을 해주는 것이 좋을 것이다.

위의 복음성가 가사는 하박국 3장에 나오는 내용이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
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게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
로다 (합 3:17~18, 개역)

비록 무화과나무가 꽃을 피우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올리브나무에
수고의 산물이 없고 밭이 먹을 것을 내지 아니하며 우리에서 양 떼가 끊어지고 외

양간에 소 떼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를 기뻐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리라.
(합 3:17~18, 흠정역)

필수품

하나님을 향한 조건 없는 기쁨을 말한 대언자 하박국은 아마도 생활에 필수적인 것들을 언급했을 텐데, 그만큼 올리브는 매우 중요한 식물이었다.



우선 올리브기름은 말 그대로 기름 부음(어노인팅)에 필요했다. 제사장과 왕 등에게 하나님의 대언자가 머리에 기름을 부어 하나님의 징표로 삼을 때 올리브기름을 부었다(삼상 16:12 등). 식재료로 사용하는 올리브기름은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엑스트라 버진’ 등급이 최상품이다. 이는 유리 지방산 또는 산도가 0.8% 미만으로 최초 수확한 올리브 열매를 24시간 이내에 화학적 수단 없이 28도 미만에서 추출한 것이라고 한다.

그 밖에도 야곱은 베엘을 세울 때 기름을 붓기도 했다(창 35:14~15).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막을 지을 때는 올리브를 등불 기름으로 쓰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셨다(출 27:20). 올리브나무는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도 여러 번 사용됐다(왕상 6장).

위 노래에서처럼 올리브는 풍요의 상징이다.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면서도 올리브가 나는 땅이었다.

주 네 하나님께서 좋은 땅으로 너를 데려가시는데 그곳은 물이 흐르는 시내가 있고 골짜기와 산에서 흘러나오는 샘과 깊은 곳이 있는 땅이요, 밀과 보리와 포도와 무화과나무와 석류가 나는 땅이며 기름 올리브와 꿀이 나는 땅이니라. (신 8:7~8)

올리브는 노아의 방주 사건에도 등장한다, 온 세상이 물로 멸망한 뒤에 노아 가족이 물에 내릴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비둘기를 날려 보내자 새가 잡아 뜯은 올리브 잎사귀를 물고 온다.

저녁때에 비둘기가 그에게 왔는데, 보라, 그것의 입에 물어뜯은 올리브 잎사귀가 있으므로 이에 노아가 물들이 땅에서 떠나 줄어든 것을 알았더라. (창 8:11)

그러니까 방주에 싣고 간 식량이 다 떨어져 가는 시점에, 물이 서서히 빠져가는 땅에서 가장 먼저 새로이 싹을 틔운 것 중 하나가 올리브였던 것이다. 그들에게는 올리브나무가 새로운 세상에 대한 희망의 상징이었을 것이고, 생필품이자 영양 공급원이었을 것이다. 잘 알려져 있듯이 올리브기름은 콩, 토마토, 베리류, 견과류 따위와 함께 세계 10대니 7대니 하는 슈퍼 푸드로 꼽힌다.

치료약

지금도 올리브 화장품과 연고가 있지만, 어떤 나라에서는 올리브 열매를 천연 약으로 먹기도 할 정도로 올리브의 효능은 다양하다. 치유를 위해 먹는 것 외에 직접 피부에 바르기도 했다. 성경에는 병든 자가 있으면 교회의 장로들을 청해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고 했다.* 여기 기름도 올리브기름으로 볼 수 있다.



중동의 올리브나무

* 물론 베드로와 같은 사도들도 장로였듯이 신약 성경의 장로는 교회의 치리자로 목사와 같은 존재이며, 구약의 장로나 중세에 시작된 장로교의 시니어 개념이 아님

너희 가운데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부를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고(anointing him with oil) 그를 위해 기도할지니라. (약 5:14)

여기서도 기름을 바르는 것은 어노인팅인데, 기름 부음이라는 단어도 병자에 대해서는 치유의 방편으로 이해할 수 있다. 말하자면 시술을 하라는 것인데, 막연한 신유의 은사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기도로 무엇이든 고칠 수 있을 것처럼 말하지만 바울의 신비 능력도 나중에는 사라져 그는 제자 디모테의 위장 병에 포도즙을 권하기도 했고(딤후 5:23), 사도 야고보도 이처럼 시술과 함께 하는 기도를 말했다.

성경은 특수한 시기에 나타났던 기적과 치유의 능력을 일반화하거나 구원과 연결 지어 말씀하지 않는다. 예수님은 직접 병을 고쳐 주시면서도 “온전한 자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으나 병든 자들에게는 필요하니라”라고 말씀하셨다(마 9:12). 오래전 개역한글로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로 기억하는 이들이 많을 것이다. 아무튼 기도 외에도 사람에게는 의사와 갖가지 약과 요법이 필요하다는 말씀인데, 올리브는 그런 역할도 했다는 이야기다.

상징성

올리브는 그 자체만으로도 생활에 중요한 것이었지만, 비유와 상징으로도 중요한 요소였다.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마지막 때의 ‘두 증인’은 새로운 환난 시대의 복음을 전하고 죽었다가 부활하는데, 두 올리브나무로 소개된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능을 주리니 그들이 붉은베 옷을 입고 천이백육십 일 동안 대언하리라. 이들은 땅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두 올리브나무요 두 등잔대니라. (계 11:3~4)

개역성경에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로 나온다. 스가랴서에 이미 예언된 이들은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마지막 때를 위해 기다렸던 모세와 엘리야라는 해석이 타당하다. 올리브나무 가지와 금기름 등이 나오는데, 정확한 의미를 알기는 어렵다.

그때에 내가 응답하여 그에게 이르되, 그 등잔대의 오른쪽과 왼쪽에 있는 이 두 올리브나무는 무엇이니이까? 하고 또 내가 다시 응답하여 그에게 이르되, 두 금관을 통해 자기들 밖으로 금기름을 비우는 이 두 올리브나무 가지는 무엇이니이까? 하나… 이에 그가 이르되, 이들은 두 명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며 온 땅의 주 곁에 서는 자들이니라, 하더라. (속 4:11~12, 14)

또 유명한 것은 ‘**감람산**’인데, 이것도 올리브 산이다.

그들이 찬송 하나를 부른 뒤 올리브 산(mount of Olives)으로 나가니라. (마 26:30)

그리고 예수님은 이 올리브 산으로 다시 오신다. 바로 아 마겟돈 심판 이후에 주의 백성을 치러 온 모든 민족을 집결시켜 처절한 피의 복수인 포도즙들의 심판을 위해 이 올리브 산에 다시금 서실 것이다.



3개의 언덕으로 이루어진 예루살렘의 올리브 산

그때에 **주**께서 나가사 그 민족들과 싸우시되 전쟁의 날에 싸우신 것같이 하시리라. 그 날에 그분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에 있는 올리브 산 위에 서실 것이요, 올리브 산이 그것의 한가운데서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지므로 심히 큰 골짜기가

생길 것이며 그 산의 반은 북쪽으로, 그 산의 반은 남쪽으로 이동하리라. 너희가 그 산들의 골짜기로 도망하리니 이는 그 산들의 골짜기가 아살까지 뻗어 나갈 것이기 때문이다. 참으로 너희가 도망하되 유다 왕 웃시아 시대에 지진 앞에서 그것을 피해 도망한 것같이 하리라. 또 주 내 하나님께서 오실 것이요, 모든 성도들이 나와 함께하리라. (슌 14:3~5)

이때 생길 골짜기로 피가 허리춤까지 이를 만큼 원수들을 밟으실 텐데, 그 피가 1,600스타디온(약 292km)까지 퍼져 홍해에 이를 것이며, 처음부터 이름이 홍해(red sea)였던 그 바다는 처음으로 그 이름에 걸맞게 붉어질 것이다.

그러면 ‘감람’은 무엇인가?

감람. 자료를 찾기가 쉽지 않은데, 설명을 보면 열매 크기가 3~4cm로 올리브보다 꽤 큰 것 같다.

검색을 해보면 ‘감람’은 다른 것으로 나온다. 주로 중국이 원산지인 감람나무 열매가 올리브 열매와 외양이 비슷하고 쓰임새가 비슷할 뿐 종이 비슷한 것도 아니고, 껍질이 전혀 다른 나무라고 한다. 한 식물 전문가는 “성서의 감람은 올리브가 정확한 표현이라는 것이 성서 속의 식물을 연구하는 학자들 사이의 견해다.”라고 했는데, 견해가 아니라 그냥 올리브다.



아마도 올리브를 구경도 할 수 없는 시대의 성경 번역자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 ‘감람’으로 옮긴 것 같은데, 이제는 감람이 뭔지도 모르고 구경도 못하는 데 반해 올리브는 지천에서 볼 수 있게 됐으니 이를 어찌나... 뿔 어찌나, 지금

이라도 바꾸면 되지. 개역성경 번역자들의 고심은 알 것 같지만, 독자들을 이해시키려 했던 당시의 노력과 정신을 이어받아 이제라도 개정할 수도 있는 것 아닐까?

우연히 『번역이란 무엇인가?』(살림출판사)라는 책을 도서관에서 발견해 읽은 적이 있는데, 성경 번역에 대한 언급이 잠깐 등장했다. 성경 번역을 토대로 번역 이론을 구축한 유진 나이다(Eugene Nida, 1914-2011)의 역동적 등가(dynamic equivalence, 동적 일치) 개념을 소개하고 있다. 원문의 형식을 존중할 것이 아니라 원문의 독자가 느낀 것과 동일한 것을 번역문을 읽는 독자가 느낄 수 있도록 번역해야 한다는 개념이다.

이것은 물론 동의할 만한 이야기다. 원작에서 쓰는 용어를 모두 그대로 옮기는 것은 사실상 번역이 아니기 때문에 뜻이 통하는 선에서 단어를 제시하는 융통성이 필요하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기법에서 예외로 다뤄야 할 경우가 많다.

20세기에 이르러, 번역 및 번역 이론에 대한 현대적 성찰의 주축이 된 것은 성경의 번역이었다... (중략) 성경의 번역이 '선교'라는 구체적 목적을 띠게 되면서 번역의 가독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예를 들어, 성경의 구절 중 '눈처럼 하얀'이라는 표현이 있다고 하자. 눈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아프리카인들을 대상으로 번역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아프리카인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다른 표현, 예를 들면 '목화처럼 하얀'으로 바꾸는 것이 좋지 않을까?


-본문 중에서

이런 생각까지는 이해할 수 있다 치는데, 아프리카의 킬리만자로에는 만년설이 있고, 타국에서 눈을 본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시대가 바뀌어 손바닥에서 전 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게 되면 어찌 되는가?

올리브를 감람으로 바꿔서 이해를 도운 면이 있지만 성경은 그리 단순한 책이 아니라서 이 간단한 식물이 살펴본 것처럼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기름 부음이라는 특별한 의미나 마지막 때의 예언까지도 포괄하는 것이라 함부로 바꿔서는 안 된다.

어떤 단어를 굳이 다 이해시킬 필요는 없다. 문맥을 통해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으므로 그대로 음역하거나 원래의 뜻으로 해도 된다. 어차피 사전을 찾고 목회자와 신학자를 통해 이해할 것들이 많기 때문에 공부를 병행하면 된다. 그룹, 스랍, 에봇, 우림과 둠밈, 에바, 세겔, 큐밋, 달란트 같은 명사나 단위 등도 어차피 그대로 쓸 수밖에 없는 것처럼 말이다.

‘감람 - 올리브’ 사례와 비슷한 것 중에 ‘살구 - 아몬드’도 있다. 아몬드는 사실 견과류가 아니며 아몬드 열매의 씨 부분인데, 아론의 짝 난 지팡이의 짝은 개역성경이 살구라고 했지만 아몬드가 맞는 것이다. 성경의 시내산이 이집트 시나이반도가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 북부 미디안 땅의 라오즈 산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데, ‘라오즈’가 바로 아몬드라는 뜻이다. 말하자면 ‘아몬드 산’이라는 뜻으로 아론의 지팡이와 맞닿아 있는 이름이다.

아무튼 성경의 단어는 매우 중요한 것과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것이 있지만 모든 단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긴다면 동적 일치 기법이 아니라 **형식적 일치(Formal equivalence)** 기법에 따라 번역해야 한다. 그래야 실수가 적고, 시대와 환경이 바뀌어도 탈이 없다. 이제 올리브와 올리브기름을 볼 때마다 성경의 장면들을 더 생생하게 떠올리며,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진리가 우리와 멀리 있거나 막연한 것이 아님을 느껴보면 좋을 것 같다. 

초막절과 장막절로 알아보는 성경 번역 단어의 빈도 수 문제에 관하여

1. 성경에 등장하는 단어의 빈도

17세기에 번역된 공인 본문 계열의 킹제임스 성경과 20세기 이후에 번역된 천주교 계열 현대 역본들과의 차이는 엄청나지만 방법론에 있어서는 단순하다.

킹제임스 역본: 원어의 단어와 영단어를 일치시켜 그대로 옮김. 어학적 문제로 추가되는 동사 등은 극소수이며 이탤릭체로 되어 있어 원어에 없는 단어를 알 수 있다. 원어의 각 단어는 킹제임스역에서도 등장 빈도 수가 일치한다. ‘형식적 일치 기법’이라고 한다.

현대 역본: 원어와 의미가 통하는 선에서 영단어들을 선택했으며, 단어들을 빼거나 추가도 함. 원어에서 같은 단어라도 그때그때 다르게 번역되므로 원어의 각 단어 등장 빈도 수는 현대 역본에서 다르게 나타난다. 이것은 ‘동적 일치 기법’이라고 한다.

물론 형식적 일치 기법도 단어를 일치시킬 때 어떤 단어를 고를지 신학적, 교리적, 어학적 고려가 필요하다. 하지만 어느 쪽이 적절한 번역이냐는 문제 이전에 두 성경은 단어 ‘빈도’ 수에서 극명한 대조를 보이게 된다. 원어와 빈도 수가

다르다면 아무리 잘 번역해도 정확한 의미 전달에 성공하기 어렵다. 성경이 아니라 문학이나 시험에 나오는 독해용 문장도 단어 수가 다르면 결과는 뻔한 것이다. 한국의 개역성경은 현대 역본을 그대로 따른 번역이다. 그



장막절(숙곳)에 관한 삽화

래서 원어와 다르게 번역된 부분도 많고, 단어의 빈도 수도 확연히 다르다. 의미를 제대로 알고 싶다면, 특히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에게 현대 역본과 개역성경은 굉장히 불안한 책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글의 주제인 성막, 장막, 초막, 천막 등의 단어 수를 보면 왜 동적 일치 기법이 의미 부실로 이어지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일단 다음 구절을 보자.

[출애굽기 30장 26절]

너는 그것으로 회중의 성막(tabernacle)과 증거궤에 바르고 (흠정역)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궤에 바르고 (개역성경)

킹제임스 흠정역에는 ‘성막’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영어 킹제임스에도 tabernacle이 등장한다. 검색하면 나오는 단어다. 그런데 개역성경이 ‘회중의 성막’을 ‘회막’으로 번역하자 의미는 통하지만 ‘성막’이라는 단어를 검색할 때 이 구절은 누락된다. 물론 ‘회중’을 찾을 때도 나오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검색에 걸리지 않는 단어들이 신구약 전체에 셀 수 없이 등장한다. 단어의 빈도 수 차이만으로도 이런 동적 일치 기법의 성경은 원어에 비해 뒤죽박죽이 되는 셈이다.

2. 장막의 여러 가지 의미

먼저 개역성경이 ‘초막절’로 번역한 ‘장막절’에 대해 잠시 짚어 보자.

장막절은 이스라엘 자손이 옥상처럼 생긴 집의 지붕이나 뜰이나 거리에 나뭇가지 등으로 초막을 만든 데서 유래한 명절이다. 이스라엘은 창세기 족장 시대부터 가나안에 정착하기 전까지 주로 이런 장막에 거했다.

장막절은 티쉬리 월 15일(10월 15일경)부터 8일간인데, 특히 첫째 날과 마지막 날은 거룩히 구분해서 지켰다. 이 명절은 광야에서 40년 지낸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 수확물을 거두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때였다. 천년 왕국에서는 장막절이 다시 지켜질 것이다. 모든 민족들이 해마다 예루살렘에 올라와 의무적으로 장막절을 지켜야 한다.

장막은 말 그대로 사람이 피할 수 있도록 만든 처소이다. ‘장막’이라는 말에는 ‘펼치다’라는 의미가 들어 있는데, 하나님은 창조하신 세계를 장막이라고도 하셨다.

…그분께서 해를 위해 그것들 안에 장막을 세우셨으므로 (시 19:4 하반)

또한 인간의 혼이 땅에 있는 동안 머무는 육신도 장막이다.

이 장막 안에서 우리가 신음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기를 간절히 원하노니 (고후 5:2)

그런데 ‘장막(tabernacle)’이라는 단어를 개역성경은 천막으로 번역했다.

…그분께서는 하늘들을 휘장같이 펼치시고 그것들을 거주할 장막같이 펴시며 (사 40:22 하반, 흠정역)

…그가 하늘을 차일 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 같이 치셨고 (사 40:22 하반, 개역)

다음 구절에서 흠정역과 개역성경이 ‘초막’으로 번역한 단어는 킹제임스가 booth, 즉 공중전화 부스처럼 작은 막사로 번역했고, 현대 역본인 NIV는 임시 막사를 뜻하는 hut으로 번역했다.



이스라엘의 ‘장막’. 장막, 초막, 부스, 파빌리언, 천막 등의 구분은 사실상 모호하므로 위치, 목적, 재료, 용도에 따라 번역하고 이해해야 한다.

그가 **좁같이 자기 집을 짓는데 그것은 파수꾼이 만드는 초막 (booth) 같으니라.** (욘 27:18, 흠정역)

그가 지은 집은 **좁의 집** 같고 파수꾼의 **초막(hut)** 같을 것이며 (욘 27:18, 개역)

다음은 둘 다 ‘초막’인데, 이번에는 NIV도 킹제임스 성경과 같이 booth로 번역했다.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booth)**에 거하되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난 모든 자들은 초막(booth)에 거할지니 (레 23:42, 흠정역)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booth)**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booth)에 거주할지니 (레 23:42, 개역)

3. 일관성을 무시한 번역의 문제

개역성경의 문제는 장막(tabernacle)과 장막절(feast of tabernacles)을 통일하지 않은 것이다.

한편 유대인들의 장막절(feast of tabernacles)이 가까이 왔으므로 (요 7:2, 흠정역)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Feast of Tabernacles)이 가까운지라 (요 7:2, 개역)

여기서는 NIV도 킹제임스 성경과 같은 번역을 했는데, 개역성경은 ‘초막절’이라고 했다. 위에 ‘부스’를 ‘초막’이라 했으니 ‘초막절’이면 어떤 부스를 위한 절기인가?

고난의 때에 그분께서 자신의 천막(pavilion) 속에 나를 숨기시고 자신의 장막(tabernacle)의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반석 위에 세우시리로다. (시 27:5, 흠정역)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dwelling)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tabernacle)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시 27:5, 개역)

여기는 pavilion(간이 건물)과 tabernacle이 킹제임스 성경에 등장하는데, NIV는 dwelling(거주지)과 tabernacle을 썼다. 흠정역은 천막과 장막을 썼고, 개역성경은 초막과 장막을 썼다.

개역성경은 feast of tabernacles를 초막절로 번역했는데 이 구절에 나오는 tabernacle은 또 장막이고, 앞에 나오는 pavilion이나 dwelling은 초막이라고 했다. 이처럼 개역성경은 어떤 법칙이나 일관성이 없이 장막과 초막 등을 뒤섞어 놓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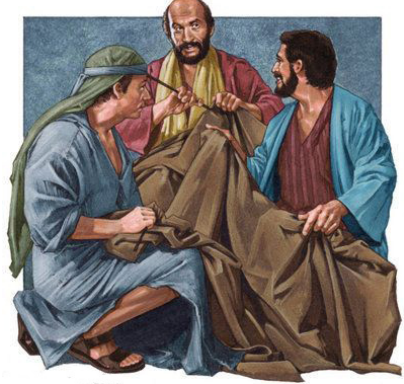
...그들의 직업으로 보자면 천막을 만드는 자들(tentmakers)이더라. (행 18:3 하반, 흠정역)

그 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행 18:3 하반, 개역한글)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개역개정)

and because he was a tentmaker as they were (NIV)

‘텐트 메이커’는 말 그대로 ‘천막을 짓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개역성경은 2012년까지 ‘장막’으로 번역해 많은 이들에게 바울이 천막보다는 ‘장막 짓는 자’로 각인돼 있다. 장막은 tent라기보다는 tabernacle이기 때문에 정정한 것일 텐데, feast of tabernacles인 ‘초막절’은 굳어진 절기 이름이라 개정도 못하는 것이다.



텐트 메이커 바울에 관한 삽화

4. 성막/장막으로 통일해야 하는 이유

너는 산에서 네게 보여 준 성막의 양식에 따라 성막을 세울지니라. (출 26:30, 흠정역)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출 26:30, 개역)

여기 나오는 성막은 모두 tabernacle이다. 그런데 이 태버나클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신 광야의 ‘성막’으로 구분하거나 나머지는 다양한 종류의 ‘장막’으로 번역해야 한다. 갑자기 초막이 되면 안 되는 것이다.

참으로 내가 이 장막(tabernacle)에 있는 동안에 너희가 기억하게 하여 너희를 일깨우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보

여 주신 것같이 내가 머잖아 반드시 나의 이 장막을 벗어야 할 줄 알기 때문이라.
(벧후 1:13~14, 흠정역)

내가 이 장막(tent)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
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앎이라 (벧후 1:13~14, 개역)

NIV가 tent of this body라고 했지만 tabernacle이며, 이것은 땅의 집과
새 하늘과 새 땅인 새 예루살렘으로 이어진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이 장막(tabernacle) 집이 해체되면 하나님의 건물 곧 손
으로 지은 집이 아니요,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우리가 아
느니라. 이 장막 안에서 우리가 신음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기
를 간절히 원하노니 (고후 5:1~2, 흠정역)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tent)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
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
하노라 (고후 5:1~2, 개역성경)

여기 나오는 땅의 장막 집은 하늘로부터 오는 집을 설명하기 위해 연속적으로
사용됐다. 그러나 NIV는 tabernacle 대신 tent를 썼다.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성막(tabernacle)
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라.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계 21:3,
흠정역)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
(dwelling)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
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
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서 (계
21:3, 개역)



성막의 모형

계시록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신부가 단장한 것처럼 내려오는
장면에도 tabernacle이지만 NIV는 이것을 dwelling, 즉 ‘거주지’ 정도의 단
어로 바꿨다. 계시록 13장 6절에서도 마찬가지다.

5. 장막의 연속성

성경이 다루는 장막(tabernacle)은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다.

- ① 하늘과 창조 세계
- ② 땅(광야)에 세운 집
- ③ 하나님의 성막
- ④ 인간의 육신
- ⑤ 새 예루살렘

이처럼 한줄기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세계이며,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
들이 지속적으로 거하는 공간이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은 ①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보호하고, ② 거처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③ 광야의 성전인 성막
을 잘 이해하며, ④ 육신의 장막도 거룩히 구분하려 애쓰고, 구원 이후에는 성
령님의 전으로 잘 간수하다가 ⑤ 하늘로부터 오는 영원한 장막으로 옮겨가

는 것이다.

이처럼 장막절은 이스라엘이 조상들의 광야 장막만 기린 것 이상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천년 왕국에서 모든 민족을 대상으로 다시 시행되는 것이다(속 14:16~18). 이 tabernacle을 우리말의 한계와 기존 기독교인들이 알고 있는 ‘성막’의 개념에 따라 장막 또는 성막으로 번역한 것이 흠정역이다. 그러나 개역성경은 feast of tabernacle을 ‘초막절’로 번역함으로써 이 같은 연속성을 깨뜨렸다.

‘장막’이라는 단어는 흠정역 215개, 개역개정 216개이므로 비슷하게 월등히 많이 등장하는 개념인데, ‘초막’은 흠정역 8개, 개역개정 13개뿐이다. 그런데 모든 성경에 고작 10회만 등장하는 feast of tabernacle은 개역개정에서 ‘초막절’이니… 압도적으로 많은 ‘장막’의 개념과 단절된다. 차라리 ‘장막’도 ‘초막’으로 했다면 일관성 면에서 이해가 갔을 것이다.


tabernacle이라는 단어는 NIV에서 109개인 반면에 킹제임스 성경에는 327개다. 정확히 3분의 2가 부족하다. 많은 부분이 이렇다. 이런 성경으로 정확한 해석과 풀이는 거의 불가능하며, 깊이 팔수록 더 미궁으로 빠지거나 엉뚱한 교리가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으로 가면 명확한 교리보다 영적 해석이 많아지고 상상의 나래를 펴는 이른바 ‘말밭 해석’이 늘어나는 것이다. 기승전결과 정확한 결론이 있는 성경을 열린 결말이 있는 스토리처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는 모호한 책으로 만들기가 일쑤다.

이 문제를 정확히 하지 않으면 진리의 종착역에는 영영 도착하지 못할 것이다. 진리의 막다른 길은 열심이나 많은 시간 투자가 아니라 정확한 방향으로 가야 만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단어는 단어일 뿐인데, 의미가 중요하지 꼭 원어와 같은 빈도 수를 유지해야 좋은 성경인가?”

이렇게 묻는다면 대답은 “그렇다!”이다. 단어가 흐트러지면 개념도 흐트러지기 때문이다. 물론 언어가 달라지면 융통성이 필요하다. 장막이 때론 성막이 되는 식의 적용이 없으면 그것은 오히려 기계적 번역이자 ‘졸역’이 된다. 이것은 안타깝지만 각기 특성이 다른 언어로 갈라지면서 유실되는 원 뜻이므로 안타까운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최대한 그대로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 늘 하는 비유지만 연애편지도 번역하는 사람이 알아서 적당히 번역해 주면 좋아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또한 중대한 유언장을 단어 그대로 옮기지 않고 뭉뚱그려 뜻만 전달한다면 큰 혼란이 올 것이다. 신약과 구약은 testament, 상속 유언이다. 토씨 하나라도 틀리면 상속받는 자의 손해다.

더 나은 성경을 본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물론 아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거나 오류를 전달할 확률을 최대한 줄일 수 있다. 그것만으로도 바른 성경을 찾을 이유는 충분하지 않은가? 

같은 성경인데

정반대의 번역이 나오는 이유 (고후 7:12)

사람들은 성경의 역본이 다르고 번역자가 다르다 해도 대단한 차이가 있겠느냐고 생각한다. 같은 톨스토이의 소설인데 A 출판사가 낸 것이나 B 출판사가 낸 것이나 큰 차이가 없다는 식이다. 아주 허접한 출판사만 아니라면 문제없다는 생각인 것 같다. 그런데 두 출판사의 책을 읽다가 번역이 판이하다면 어느 것이 바른 번역인지,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궁금할 것이다.

소설은 그렇다 치지만 자서전이면 어떨까. 유언장이나 법조문이라면 더욱 단어 하나 표현 하나가 중요해진다.

당신은 다음 중 치명적 오역이나 오탈자가 있으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는 순서를 어떻게 매기고 있는가?

셰익스피어의 희곡/ 지상파 뉴스의 자막/ 수능 문제지
재벌인 아버지의 유언장/ 은행 계좌의 통장 숫자
생명 보험의 약관/ 전월세나 주택의 매매 계약서
판결문/ 대통령 연설문/ 한미 FTA 협정문/ 성경

어떤 것이 더 막대한 영향을 미칠까? 아마도 크리스천이라면 의무감으로 ‘성

경'이라고 답을 하겠지만, 그들 중 많은 사람의 눈은 다른 항목으로 갈 것이다. 참고로 성경은 '상속 언약(testament)'으로서 주요 자구들의 표현이 달라지면 유업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인터넷이 없던 시절, 독서 클럽을 하면서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을 읽기로 했는데, 어디서 허접한 책을 구한 친구가, 번역이 전체적으로 엉망인데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이 특히 황당하다고 말했다.

“새는 앞에서 깨어나려고 버둥거렸다.”

‘알’이 ‘앞’으로 둔갑한 것이다. 설마 오역은 아닐 테고 식자 입력 과정에서의 실수였겠지만, 이래서는 책을 이해할 수가 없다.

성경도 이와 비슷한 일이 적지 않은데, 위 경우와 다른 것은 대부분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이거나, 드러난 오역도 수정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역본마다 다른 말을 한다. 누가 맞을까?

우선 정반대의 오역으로 가장 대표적이고 황당한 것은 욥기의 한 대목이다.

내 살갓이 없어진 뒤 벌레들이 이 몸을 멸할지라도 내가 여전히 내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 콩팥이 내 속에서 소멸될지라도 내가 몸소 그분을 보리니 다른 것이 아니요, 내 눈이 바라보리라. (욥 19:26~27, 흠정역)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낮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욥 19:26~27, 개역)

욕신의 부활을 말하는 욥의 이야기가 너무 황당해서인지 개역성경은 알아서 ‘육체 안에서’를 ‘육체 밖에서’로 바꾸어, 그가 구천을 떠돌다 살아난 귀신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처럼 만들었다. 이 부분은 영어 현대 역본조차도 in my flesh이다. 아마도 ‘육체 밖에서’라고 된 성경은 전 세계에서 개역성경뿐일 것이다. 아주 유니크한 성경이다.

그런데 크리스천들은 가볍게 넘긴다. 그렇게 성경에 대한 검증이나 확증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굳건한 약속을 말하고, 부활(육체 밖에서?)과 내세를 말하며 구원을 말한다. 심지어 성경의 무오성을 말하기도 한다.

고린도후서에 사도 바울은 진심이 담긴 편지를 쓴다. 그런데 7장 12절 중 한 부분의 번역이 정반대로 나타나 있다. 바울의 의도를 알기 위해 11절부터 소개한다.

너희가 하나님께 속한 방법대로 근심한 것, 바로 이것을 보라. 그것이 너희를 얼마나 조심하게 하며 참으로 얼마나 너희 자신을 해명하게 하며 참으로 얼마나 분개하게 하며 참으로 얼마나 두려워하게 하며 참으로 얼마나 열렬히 갈망하게 하며 참으로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참으로 얼마나 징계하게 하였는가! 너희 자신이 이 일에 결백함을 너희가 모든 것들로 입증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비록 내가 너희에게 썼을지라도 그것은 부당한 일 행한 자로 인한 것도 아니요, 또한 부당한 일 당한 자로 인한 것도 아니며 다만 너희를 위한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의 눈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고후 7:11~12, 흠정역)

‘너희를 위한 우리의 관심’이라는 표현이 나온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으로는 이렇다.

Wherefore, though I wrote unto you, I did it not for his cause that had done the wrong, nor for his cause that suffered wrong, but that our care for you in the sight of God might appear unto you. (고후 7:12, KJB)

그런데 개역성경에는 정반대의 번역이 등장한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고후 7:12, 개역)

여기서는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나타나게 하려 한다고 했다. NIV의 번역도 이와 똑같다.

So even though I wrote to you, it was not on account of the one who did the wrong or of the injured party, but rather that before God you could see for yourselves how devoted to us you are. (고후 7:12, NIV)

- 너희를 위한 우리의 관심(our care for you)
-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devoted to us)

왜 이런 판이한 번역이 됐을까... 정확한 과정은 모르겠지만 이 구절의 앞뒤 문맥을 보면 킹제임스 성경이 더 타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확인해 보지 않아도 원문은 킹제임스 성경과 같다.

앞에 소개한 11절을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가 쓴 것의 진짜 의도를 설명하는 중이다. 대개 자기 행동이 의도하는 바는 남이 아니라 자기 일의 어떤 결과를 기대하거나 말하기 마련이다. 내가 편지를 썼는데 왜 남들의 간절함이 나타난다는 것인가. 만일 그런 의도를 나타내려 했다면 이렇게 어색한 문장이 아니라, ‘내 편지를 통해 변화된 너희의 간절함’이라고 해야 맞지 않을까. 상대방의 간절함은 일차적으로 기대할 일이 아니라 이 편지를 받고 난 뒤에 나타날 만한 일이라는 것이다. 바울 일행의 편지는 일단 다른 이들을 위한 그들 자신의 관심을 보이기 위한 것이라는 표현이 훨씬 자연스럽다.

그러면 이 구절이 바뀐 배경은 무엇일까... 현대 역본은 지금 많은 버전이 있지만, 번역의 대본은 과거 종교 개혁자들과 이후로 일어난 복음주의자들의 시대에는 1%도 채택이 되지 않던 천주교 사본이다. 여기에 이 오역의 마인드가 담겨 있다고 생각한다.

어떻게 사도 바울이 회중에게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에 대한 간절함을 요

구할 수 있을까... 바울은 자기가 가르치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헌신되기를 늘 강조했을 뿐, 자기가 높임을 받고자 하지 않았다. 천주교는 사제와 신도를 철저히 구분한다. 개신교에 잔재로 남은 천주교 신학에 영향을 받은 것이 성직자와 평신도 개념이다. 이런 마인드를 지니면 충분히 이 부분을 재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개신교의 많은 목회자들도 이 개념이 잘못된 줄을 알고 있다. 목사는 역할이 다른 것이고 신분이나 지위가 다른 것이 아님을 잘 안다. 하지만 구조적으로 흘러가는 직분상의 권위는 잘 고쳐지지 않아서, 여전히 목사들이 구약의 대제사장처럼 여겨지거나 특별한 존재로 추앙받기도 한다.

이것은 하나만 고쳐서 되는 일이 아니라, 세트로 움직인다. 예배당을 성전으로 알고, 예배를 희생 제사처럼 성스러운 제례로 이해하는 등의 천주교식 마인드를 통째로 버리지 않고는 성직자와 평신도 개념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목사가 가르치는 자로서 권위를 지니는 것과는 다른 문제이다.

천주교 신학을 완전히 버리지 못해서 그런 것도 있고, 그들의 잔재가 남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성경도 한몫을 한다.

하나님의 상속 백성 위에 주인처럼 군림하지 말고 오히려 양 떼에게 본이 되라.
(벧전 5:3, 흠정역)

말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벧전 5:3, 개역)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군림하는 것, 그것이 바로 니콜라당의 행위다. 천주교 계열 사본은 니콜라당의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말씀하신 계시록의 예수님 말씀조차 삭제했다. 자신들에게 불편하기 때문이다.

(버가모 교회에게) 이와 같이 네게도 니콜라당의 교리를 붙잡는 자들이 있는데 내가 그것을 미워하노라. (계 2:15)

그런데 현대 역본과 여기서 번역된 개역성경은 ‘내가 그것을 미워하노라’ 부분을 뺐다.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계 2:15, 개역)

현대 역본의 번역을 문제 삼는 이유는, 단순한 오역이나 논쟁적 주제에 대한 이역(異譯), 표현상의 이견 때문이 아니다. 그들의 성경은 여러 대목에서 거의 불신자의 마인드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예수님의 신성, 지옥의 실존 등 핵심 교리를 희석시켰다. 단순히 다르게 번역된 것처럼 보이는 부분들도 깨알 같은 섬세함으로 다른 생각들을 주입해 놓았다. 개역성경은 그런 성경들을 번역의 표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솔한 오역의 지뢰밭이 돼 버린 것이다.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을 보면, 반드시 사람이 악해서라거나 나쁜 의도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 경우가 많다. 잘못 갈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 잘못된 전통에 의한 토양의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것도 많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들은 당장 개선하자고 외치고 굳게 마음을 먹는다 해도 쉽게 바뀌지 않는다. 물길을 동쪽으로 내고는 물이 서쪽으로 흐르길 바랄 수는 없는 일 아닌가.

이와 같이 성경은 성도의 신앙을 결정하고 교회의 나아갈 바를 결정하는 중요한 지침서이기 때문에 오역이 가져오는 폐해는 심각하다. 이것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된다. 작은 표현의 차이처럼 보이지만 결과는 판이해지는 단초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명백한 문제인데 왜 한국 교계는 번역이 부실한 성경을 끝까지 고수하는 것인지 묻는 분들이 있다. 글썸... 왜 그럴까?

이미 바로잡기에는 늦었다고 생각하지만 깨어 있는 성도들이라도 이 문제를 깊이 인식해서 목소리를 내야 한다. 그래야 성경을 다루는 사람들이 좀 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신중하게 대처하는 분위기가 마련되는 것이다. 깨어 있는 성도들 수십만이 청원을 하고 목소리를 내면, 판매량 때문이라도 성경을 다루

는 사람들이 긴장하며 바른 것에 눈을 뜨고 답변을 내놓을 것이다. 하지만 요구하지 않으면 그 답변은 묻지 않은 성도들의 몫으로 돌아온다.

그래서 좋지 않은 성경을 계속 고수하면서 잘못된 것을 이어 가는 악순환도 남의 탓이 아니라 바로 각자의 탓이다. 성경을 다룬 자들은 물론 방관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답변해야 할 날이 있을 것이다. 📖

영화 자막과 성경 번역문의 뉘앙스

생각보다 중요한 ‘영화 자막’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한국 최초로 칸 영화제의 최고 상인 황금 종려상을 받았을 때, 연일 화제에 올랐다. 칸 영화제 홈페이지는 종려나무의 의미를 5세기경 로마 제국의 오노라 대주교가 칸 앞바다 레앵 섬의 종려나무에 올라 기도한 것에서 유래를 찾고 있는데, 사실 종려는 성경에 많이 나온다. 모세와 백성들이 다다른 엘림은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던 지역이고, 예루살렘 도시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해 백성들이 호산나를 외치면서 흔들었던 것이 종려나무 가지다.

아무튼 이 글의 주제는 종려나무나 영화 자체가 아니고 말... ‘언어’에 관한 이야기다. 외국어지만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뉘앙스(nuance)라는 것이 있다. 말의 속뜻, 어감 등으로 이해할 수 있는 말인데, 정식 순화어가 있다. 그것은 바로 ‘말맛’, 말의 맛이라는 표현이다.



오래전에 미국인 친구와 시내 극장에서 <스피드 2>라는 영화를 봤는데, 몇 부분에서 한국 관객들이 다 웃는데 그 친구는 조용하고, 한국 사람은 아무도 안 웃는데 그 친구 혼자 웃는 대목이 있었다. 자신들만의 행동 방식이나 코드 때문이기도 했겠지만 가장 큰 요인은 아무래도 언어 때문일 것이었다.

아무리 번역을 잘해도 영어의 맛을 우리가 어떻게 다 공감할 수 있을까... 반대로 우리나라 영화의 사투리나 조폭의 말투 같은 걸 어떻게 다 전달할 수가 있을까. 영어 자막이 붙은 한국 영화를 보면 사실상 핵심적인 재미를 주는 단어들이 거의 생략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들이 과연 얼마나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보고 있는 것인지 궁금할 때가 많다.

유머가 많은 영화 <기생충>은 칸 영화제 시사회 초장부터 관객들이 빵빵 터져서 끝까지 웃음이 끊이질 않았다고 하는데, 영어 자막을 맡은 달시 파켓과 봉준호 감독이 면밀히 검토하면서 번역한 결과라고 한다.

황금 종려상 수상의 일등 공신으로 조명받은 자막 번역자 달시 파켓은 인터뷰를 통해, 영화가 너무 재미있어서 일곱 번이나 보면서 한국어의 말맛을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단어를 엄선하여 갈고닦았단다. 그렇게 자막으로 영화에 대한 외국인들의 이해도를 크게 끌어올렸다.



<기생충> 자막 번역자 달시 파켓

그전에 <어벤저스 인피니티 워>에 꽤 치명적인 번역 실수가 있어서 미국에까지 소문이 났다고 들었다. 핵심적인 단어를 제작자의 의도와 맞지 않게 오역하는 바람에 번역자가 어벤저스 신도(?)들에게 못매를 맞고 있던 차에 전해진 <기생충> 자막 장인의 전문성과 재치에 박수가 쏟아졌다.

원어의 한계, 수신자의 언어로 주시는 성경

성경은 아주 오래전의 기록이다. 우리는 조선 시대 고려 시대만 해도 무척 오

래전으로 느낀다. <신과 함께> 같은 영화에 나오는 저승의 차사들은 고려 시대의 꼬인 인연으로 천 년 동안 환생을 못한다는 설정인데, 그보다 두 배나 오래된 예수님 시대나 또 거기서 4천 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성경의 말맛을 우리 시대에 알고자 하는 자체가 무리수일 것이다.

게다가 예수님 시대에 통용되던 아람어(시리아어)는 거의 사멸돼 가고 있다고 한다. 최근에는 이 언어를 구사하는 이들이 현저히 줄어 나이 든 교사들이 은퇴를 못하고 있을 정도라는 뉴스도 보도되었다.

그래서 성경은 구전이 아닌 문자로 주신 것이다. 문자를 통해 그 말맛을 모르는 민족들까지도 알 수 있는 보편성을 지니는 것이 성경이라, 복음서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말은 아람어를 썼다 해도 기록은 그리스어(헬라어)로 주신 것이다.

마찬가지로 구약은 오직 히브리인들을 위한 것이라 히브리어로 기록되었고, 신약은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 제국의 언어인 그리스어로 기록되었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고 모든 나라에 복음이 들어가야 하는 시대에는 세계 공용어로 주신다. 그것이 바로 영어라고 믿는다. 영국이 전 세계를 지배하던 시대, 모두 흠어져 있던 신구약 성경이 최초로 영어 완역된 것이 킹제임스 성경인데, 이 성경의 정확성은 400년이 넘도록 독보적으로 우월하다. 그리고 영어는 오늘날까지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

어떤 이들은 원어를 공부하면 신구약 시대의 말맛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 역시 정답은 아니다. 조선 후기만 돼도 당시에 지어진 문장이나 책을 (한글인데도) 바로 읽기는 무척 어렵다. 하물며 세상에서 가장 어렵다는 히브리어와 전혀 생소한 그리스어의 수천 년 전 뉘앙스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꽤 많이 안다고 해도 그것은 극히 일부분일 것이며, 웬만큼이나마 깨달을 수 있는 사람조차 극히 드물 것이다. 그러면 대중은 깨달은 소수의 사람들에게 그 언어를 또 배워야 할까? 작은 나라들, 원어학자가 아예 없는 소수의 민족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몇 마디도 전달하기 어려운데 성경 전체를 원어라는 두 종류의 언어를 어렵게 배워서 전하려면 일생이 모자란다. 그나마 전달되고 난 다음에는 각 민족들에게 전혀 다른 의미가 되어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야 어떻게 통일된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 수 있을까. 원어 사전이 있어도 당시의 용례는 알기 어려우므로 고대 성경 사본을 발굴한다 해도 그림의 떡일 뿐이다. 거의 모든 크리스천은 원어를 통해 성경을 깨닫고, 주야로 묵상하거나 날마다 읽으면서 꿀보기도 달게 느끼기는 불가능하다는 것.

한국 영화 한 편을 보기 위해 모든 나라의 팬이나 영화제의 심사 위원들이 한국어를 공부할 필요가 없다. 각국의 내빈들을 위해 <기생충>을 각 나라의 언어로 여러 번 번역할 필요가 없다. 칸은 프랑스의 도시이고,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와 있지만 잘 번역된 영어 자막 하나면 충분하다.

그래도 원어를 볼 줄 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는 이들이 있다. 나름 간절하고 귀한 마음이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라고 믿는다. 우리도 잘 못 읽는 고조선 때의 기록이 성경이라고 치자. 세계 각 대륙 200여 나라에서 모두 그 언어를 배워야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다면 그게 무슨 낭비인가. 그런 방식은 엘리트주의이며 차별이 없는 복음의 정신에 위배되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의해 모든 자들에게 미치고 믿는 모든 자들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의니 이는 그 의에 차별이 없기 때문이라. (롬 3:22)

그러나 구약 시대에는 다른 민족들을 위해 성경을 주시지 않았고, 다른 민족들을 위해 메시아를 보내지 않으셨다.

마귀 들린 딸을 고치기 위해 예수님을 부른 가나안 여자가 있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이 말할 때까지 한마디 대꾸도 없으셨다. 그런데 제자들이 간청하며 그녀를 보내라고 하자 비로소 하신 말씀이 놀랍다.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들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어지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라. (마 15:24)

메시아 주님이 오직 유대인을 위해 보내어졌다는 것이다. 게다가 계속 도움을 요청하는 여인에게 더욱 뼈를 때리는(?) 말씀을 하신다.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개들에게 던지는 것은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므로 (마 15:26)

이처럼 이방인은 유대인들에게 개와 같은 존재였다. 물론 예수님은 좌절하지 않고 계속 간청하는 그녀에게 긍휼을 베푸셨다. 구약 시대에도 이방인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자유이고, 얼마든지 구원도 받을 수 있었다. 수가의 사마리아 여인이나 백부장, 욥과 롯과 라합과 갈렙까지 모두 의로운 이방인이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은 유대인에게 있었고 성경도 그들의 언어로 기록되어야 했다.

십자가 사건 이후 신약 시대가 열리자 성경은 복음을 들어야 할 자들의 언어인 이방 그리스어로 기록된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한다는 의미는 온 세상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당시에 통용되던 땅끝은 다시스, 즉 스페인이었다고 한다. 이 복음은 4세기 초에 콘스탄티누스 1세의 종교 대통합을 거치면서 오히려 빛을 잃고 중세 암흑시대를 지나다가 17세기 초 영어 성경의 완역을 통해 큰 힘을 얻었다. 오직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오랜 진통 끝에 결실로 나타난 것이다. 바벨탑의 재앙으로 언어가 무수히 갈려 나간 인류에 주신 놀라운 축복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영어를 배우는 것이 아니다. 자국어로 번역된 성경을 통해 온 세상이 돌아오는 것이다.

성경의 말맛을 이해한 신실한 사람들

이것이 성경 번역과 전달의 의미다. 그렇다면 원어의 ‘말맛’을 가장 잘 아는 번역자는 누구일까. 여기에는 이견이 없다. 전 시대를 통틀어 제임스 왕이 1611년판 영어 성경을 위해 기용한 번역가들만큼 원어와 신학에 조예가 깊은 사람들은 없다. 그들은 이미 주교였으며 신학자였고 히브리어와 그리스어에 능통한 전문가들이었다. 신구약 성경 기록자들의 숫자와 비슷하게 40여 명으로 구성된 이들은 거의 신적인 일에 쓰임을 받은 것이다.

실력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며, 말씀의 엄중함을 마음에 새긴 당대 최고의 전문가 집단이었다. 불신자가 번역한 성경, 심령학회 멤버이자 진화론의 신봉자가 번개한 성경, 현대의 말투로 마음대로 바꾼 성경 같은 것에 견줄 바가 아니다. 말 그대로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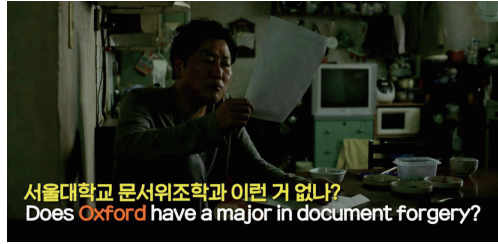
말씀을 한국인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언어의 말맛을 살리는 부분은 대한 성서공회의 개역성경을 높이 살 수 있다. 장중한 문체와 간결하고 권위 있는 어투로 고상함을 더하면서 고풍스러운 느낌까지 담아냈다. 단어의 오역을 빼면 그렇다는 것이다. 물론 그 어투와 문장을 개역성경 번역자들이 창작한 것은 아니고, 조선 후기인 그 시대의 문장이 한자와 섞이면서 만들어지는 독특함과 진지함에 성경의 신뢰와 신비로움이 더해진 것이었다.

문체에 저작권이 있는 것은 아니니 좋은 것은 받아들이면 된다. 그리고 잘못된 것은 고치면 된다. 그렇게 킹제임스 성경에서 번역한 것이 흠정역 성경인데, 문체보다 중요한 단어의 정확성과, 단어를 누락시키지 않는 기본을 먼저 지키면서 읽힘성과 문체를 고려했다.

영화 자막 번역과 성경의 번역은 다르다. 성경은 의역을 해선 안 된다. 예컨대 <기생충>에서 “서울대 문서위조학과 이런 거 없나?”라는 대사는 ‘서울대학교’가 중요한 게 아니므로 ‘옥스퍼드’로 바꿨다고 한다. 빠른 의미 전달을 위해서

다. 그러나 성경은 단어 대 단어로 그대로 옮겨야 한다.

아무튼 <어벤저스> 번역 사태를 보니, 영화 감상에 방해가 됐다면 서 두고두고 번역가가 욕을 먹는



모습이다. 반대로 <기생충>의 번역은 영화제 수상에 기여하고 칭송을 받는다.

영화 자막 하나가 이토록 중요한데 번역자, 신학자, 목회자를 포함한 크리스천들은 성경 번역에는 얼마나 민감한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말씀의 주체인 하나님을 우선시하기보다는 자기가 편한 대로, 선호하는 성경 역본을 선택하지는 않는가.

자막 번역가가 자기 선호가 아닌 감독의 의도와 언어의 국적을 이해하고 충실하게 따라야 좋은 번역가이듯이, 성경도 원저자이신 하나님의 의도와 그분의 말맛을 잘 이해하고 신실하게 번역하는 것이 잘하는 일이며, 제대로 된 성경이 무엇인지 판단하는 것은 성도의 책무라 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의 맛, 원뜻의 뉘앙스, 거기 담긴 의미를 알기 위해 우리는 평생을 애쓰고 고민한다. 하지만 그 첫 단추가 성경의 선택임을 아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

영화에 디렉터스 컷이 있듯이 성경에도 저자인 하나님이 허용한 감독판 버전이 있다. 그것이 어떤 역본인지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쳐도, 결코 여러 개일 수 없음은 분명하다. 이런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가 성경이라고 부르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아무도 확신할 수 없게 되고 말 것이다.

누구라도 꼭 보고 싶은 걸작 외국 영화가 있다면, 검증된 사람이 심혈을 기울여 감독과 함께 번역한 자막으로 보려고 할 것이 분명하다. 영화와 성경이란 그 중요도가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이건만, 그것을 대하는 우리의 열정은 오히려 주객이 전도된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할 때가 아닌가 한다. 📖

세상을 바꾼 왕의 번역자들

최고의 통역사에게 쏟아진 찬사

이번에는 영화 <기생충> 제작진의 한국어 통역사 이야기다. 양극화로 치닫는 세상에서 보편적으로 느끼는 공감의 스토리로 세계 관객과 평단을 모두 열광시키며 신드롬을 일으켜 아카데미 영화제에서까지 주요 부문 4관왕을 차지한 영화지만 자막의 번역이 뛰어나지 않았다면 이 정도의 결과가 나왔을지 의문이다. 자막 번역가에 관해서는 앞의 글에서 언급했는데, 또 한 명의 번역자인 통역사가 언론과 유튜브에서 크게 화제를 모았다.

제작진의 시상식과 인터뷰, 토크쇼에서 놀라운 능력을 보여준다는 여성 사론 최(최성재)는 의외로 한국에서 고등학교까지 마치고 미국으로 건너간 유학생이라고 하는데, 봉 감독이나 주연 배우들의 기사마다 댓글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어김없이 그녀에 대한 칭찬이 이어진다.

도대체 얼마나 통역을 잘 하기에 그러는지, 엄청나게 쏟아지는 관련 동영상들을 보니 실제로 한국인들이 느끼는 웃음과 공감 포인트에 외국인들도 똑같이 반응하는 것이 놀라웠



통역사 사론 최(왼쪽)와 봉준호 감독

다. 영어 전문가들과 네티즌들이 평가하는 그녀의 장점들은 대략 다음과 같다.

- 말하는 사람의 한국어 표현은 물론 의중까지 정확히 파악한다.
- 동시대 영어권 현지인들이 일상에서 쓰는 말을 잘 알고 있다.
- 인터뷰일 경우, 질문자의 의도와 현지 정서까지 고려해 답변자의 의사를 풍부하게 전달한다.
- 철학적이거나 정치적으로 민감하고 난해한 주제까지 모든 번역이 가능하다.
- 수많은 표현 중에 가장 쉽고 간단하며 적절한 어휘를 뽑아낸다.
- 발음이 정확하고 한국어와 영어의 서로 다른 발성법을 완벽하게 각각 원어 민처럼 구사한다.
- 정확한 타이밍에 끼어 들고 빠지는 등 매너와 센스도 겸비했다.
- 긴 문장도 메모하면서 하나도 놓치지 않는다.

이런 것은 AI 번역으로 불가능한 것이다. 더욱이 영화감독이 장래 희망이라 그런지 영화에 대한 이해도 깊은 최 씨는 그야말로 화자의 마음에 합한(?) 통역사라고 할 수 있다.

원어 성경에 대한 환상

통역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물론 성경에서 번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하기 위해서다.

사람들은 원어 성경에 환상을 가지고 있다. 히브리어와 그리스어(헬라어)로 된 원본을 자유자재로 읽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래서 신학교에서도 기본적으로 가르치고, 취미 겸으로 배우는 사람들도 있다. 모두 성경을 사

모하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하지만 두 가지 원어를 잘 아는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에 만나보기는 매우 어렵다. 특히 히브리어는 가장 어려운 언어에 속하고, 지금 환경에서 당시의 느낌을 다 알 수가 없다. 원어들은 사실상 그림의 떡이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모든 사람이 히브리어와 그리스어를 배워서 성경을 읽는 것일까? 아마도 그런 것은 아닐 것이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길 수 없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원어에서 그대로 번역된 것을 보고 싶을 것이다. 행여 잘못 옮기거나 가르치다가 죄를 짓지 않을까 두렵기 때문에.

그런데 원어를 모른다. 현대어 사전으로도 안 되고 가르쳐 줄 사람도 없다. 그러면 중세 암흑시대 때처럼 일부가 성경을 독점해서 그들을 통해서만 알아야 할까? 그것도 아니면 하나님이 성경을 막아 놓으셨는가? 물론 아니다.

원어를 모를 바에는 원어에 가장 능통한 이들을 통해 번역된 것을 보고 싶은 것이 당연하다. 또한 여러 전문 번역자들이 크로스체크한 것이 좋을 것이다. 물론 그들의 신학이 건전해야 하고, 외부의 압력도 없었어야 한다. 그렇다고 특정 교파의 교리나 신학이 주를 이루어서도 안 되며 균형감이 있어야 한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제임스 왕의 칙령에 따라 원어에서 영어로 성경을 옮긴 47명 정도의 번역자들이었다. 그들의 신분은 대개 당시 국교회의 감독(주교)과 청교도 집단이었으며 서로 팽팽한 긴장과 대립을 하면서도 모두가 수공할 결과물을 도출해 냈다. 거기에 위클리프와 틴데일의 업적, 그리고 커버데일 성경과 제네바 성경 등 기존의 번역본들을 부지런히 참고했다.

원어를 전달받는 데 이보다 더 좋은 라인업이 어디에 있다는 말인가. 그런데도 성경이나 하나님도, 예수님의 신성도 믿지 않는 불신자, 진화론자, 공산주의 옹호자, 심령술사 등이 토대를 만들고 번역한 현대 역본 계열의 성경들이 더 낫다고 주장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누구를 믿을 것인가? 이 킹제임스 성경은 유일하게 공인 본문 계열의 영어 성

경이며, 다른 것들은 모두 가톨릭 수정 본문 계열이다. 그런데도 킹제임스 성경은 여러 성경 중 하나가 아니라, 모든 면에서 가장 필요한 성경이며 가장 많이 읽힌 성경이다.

흠어진 신약 사본들이 397년 정경으로 확립될 때 중요한 기준 중 하나는 가장 널리 읽히고 필사된 것, 성도의 내면을 변화시키는 역동성 등이다. 그런 면에서 킹제임스 성경은 압도적이다. 종교 개혁 이후 영어권의 거의 모든 신앙 고백은 킹제임스 성경에서 비롯됐고, 거의 모든 성경은 이 성경을 근간으로 만들어졌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도 이 성경의 언어지, 원어가 아니다.

다른 역본들을 쓴다 해도 성경을 본격적으로 연구하려면 이 성경은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 한국 교회의 환경상 메인으로 쓰지 못해도 참고용으로 반드시 흠정역을 대조해 보는 것이 좋다.

중세 암흑시대, 새 번역본에 대한 회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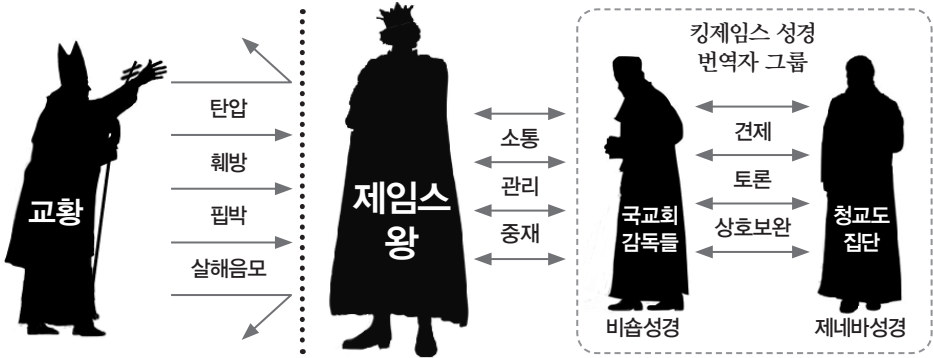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때는 착한 사람만 쓰시지 않는다. 각기 특별한 기질을 적절한 상황과 절묘한 타이밍에 이용하시기도 한다. 킹제임스 성경은 가장 뛰어난 전문가들을 한 데 모으는 정치 종교적 상황과 교황권의 외압을 이기는 왕의 의지, 그리고 이전 번역자들의 피와 눈물이 한곳에 모인 역작이었다.

백성들은 거의 아무도 라틴어를 모르는 채 미사에 참석하던 시대에 영어로 성경을 번역하다가 순교한 윌리엄 틴데일의 거룩한 꿈처럼, 쟁기질하는 소년이 교황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알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원어 성경이 오히려 걸림돌이 된다.

킹제임스 성경을 하나님 말씀의 최종 권위로 보는 사람들을 멸시하거나 과도한 믿음으로 보는 이들이 있지만, 어쩔 수 없는 이유가 있다.

물론 성경에 왕 이름이 들어가서 오해하는 이들도 있다. 왜냐하면 제임스 왕

킹제임스 성경 번역 당시 역학관계의 균형



을 떠받드는 느낌이 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역시 어쩔 수 없다. 제임스 왕에는 관심이 없다. 그에 대한 여러 가지 공격도 있고, 솔로몬처럼 그의 말년은 좋지만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제임스 왕은 하나님의 도구였다. 만일 트럼프가 성경 번역의 칙령을 내려서 완성했다면 ‘트럼프 버전’이 되고 느부갓네살이 하면 ‘느부갓네살 버전’이 되겠지만 그들을 하나님이 종으로 쓰셨다면 문제 될 것이 없다. 말하자면 그렇다는 것이다.

하지만 종교 개혁과 함께 400년 넘게 세상을 바꾼 책을 타이틀에까지 이름을 등장시키면서 말기실 정도면 최소한 제임스 왕이 그런 수준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완성을 앞두고 로마 가톨릭 쪽의 가이 포크스를 통한 화약 음모 사건으로 암살될 뻔한 사실만으로도 그의 일은 가치 있는 일이었다. 무엇보다도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이 그를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고 있다. 1611년판 킹제임스 성경 초판에 <서문을 대신하여 제임스 왕께 드리는 글>이라는 헌사를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온다.

“폐하께서 이처럼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경건한 열정을 가지고 계심을 보여 주는 증거가 수없이 많지만 무엇보다도 이 성경 곧 우리 번역자들이 겸손하게 폐

하게 바치는 성경을 완성하고 출판하기 위해 지금까지 보여 주신 뜨겁고도 지속적인 열망을 다른 이들에게 알려 주는 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지금은 영어 성경이 흔하지만 그때는 백성들이 라틴어로 미사를 드리는 가톨릭의 성경을 읽을 수도 없었다. 지금 우리나라의 성경이 다 한자라면 어떨겠는가. 바로 그런 상황이었다. 세종대왕이 <훈민정음> 서문에서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문자(한자)가 서로 통하지 아니하여 어리석은 백성이 제 뜻을 능히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새로 스물여덟 자를 만든다.”라고 했듯이, 제임스 왕도 자신들의 문자로 된 성경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는 백성들을 안타깝게 여긴 것이다.

왕의 칙령이 필요했던 이유들

교황 세력은 성경이 번역되는 일을 집요하게 막고 탄압했다. 성경을 전하려는 사람을 이단시해서 죽인다니, 도무지 악마가 아니고는 생각할 수 없는 일 아닌가? 천주교를 믿는 사람들은 이런 일을 어떻게 생각할까... 백성들의 언어로 된 성경을 보는 자체가 죄악이라니 말이다. 그들이 그렇게 했던 이유는 자신들이 속인 거짓 교리가 들통나는 것이 두려워서였다. 그들은 지금도 라틴어로 루시퍼를 찬양하고 있는 것이 그런 발악의 이유다. 천주교는 결코 기독교가 아니다.

제임스 왕 당시의 이런 육적 영적 싸움도 제임스 왕께 드리는 헌사에 잘 담겨 있다.

“...서구 세계의 빛나는 별이시던 엘리자베스 여왕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행복한 추억을 남기고 서거하신 후 우리 나라의 안녕을 바라지 않는 많은 무리들이 이제야말로 두렵고 짙은 어둠의 구름이 이 땅을 뒤덮어 사람들이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도 모르고 이 불안한 국가를 누가 다스리게 될지도 모르고 방황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던 바로 그 시점에 꺾히면서 힘찬 태양처럼 나타나서 그러한 모든 억측의 안개를 말끔히 일소하시고 그로 인하여 불안해하던 모든 사람들에게 넘치는 안위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편으로 국내외에서 교황의 추종자들에 의해 모함을 받을 것이며 그들은 우리에게 해악을 끼칠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를 무지와 암흑 속에 가두어 두기 원하지만 우리가 부족하나마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를 사람들에게 더욱더 널리 알리는 일을 수행하였기 때문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자만에 차서 자기들의 길만을 고집하는 형제들에게 중상모략을 당할 것입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직접 틀을 세우거나 만든 것이 아니면 그 어떤 것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교황을 비롯한 외부의 적과 내부의 분열, 마귀의 온갖 방해를 다 버티려면 왕의 확고한 의지밖에는 방법이 없는 시대였다. 비판자들은 왜 성경에 왕이 칭송을 받느냐고 하지만, 당시의 왕은 선출직이 아닌 신적 권위를 지닌 군주였음을 감안해야 한다. 그 뒤로 제임스 왕이라는 ‘사람’은 제대로 아는 이가 없어도, 이 성경만큼은 동시대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비롯한 다른 모든 작품들을 뛰어넘어 인류의 양식이 되고 모든 역본의 교과서가 되었으니 이것을 인간의 사적인 일로 치부할 수 있겠는가.

킹제임스 성경은 이와 같은 역학 관계 아래, 다음과 같은 필요성과 어우러져 절묘한 긴장 속에서 탄생했다.

- 업적을 통한 왕권 강화
- 교황 세력에 대한 견제
- 시민 계몽
- 예배 성경의 통일

이런 일들에 성경 번역은 탁월한 선택이었다. 민심도 얻으면서 명분도 챙기고, 안정적인 통치를 가능케 하면서 왕의 권위를 높일 수 있는, 길이 남을 업적이었다.

최고의 번역자들을 통한 위대한 유산

영화 한 편을 봐도 감독을 따지고, 세상 일을 전달하는 데도 통역자를 고산하는데, 성경은 더욱 날카롭고 꼼꼼하게 선택해야 하지 않을까. 맨 처음 언급한 통역사는 영화를 이해하고, 두 언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며,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이 있는 사람, 공격적 질문에 자기 일처럼 나서며 전적으로 의뢰인의 편에서 일하는 성실함을 보여줬다.

이와 같이 킹제임스 성경 번역 위원회는 하나님의 뜻을 잘 파악하고, 원어와 영어, 신학과 교리에 현대의 누구보다도 능통했던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했던 사람들, 견제와 외압과 물리적 공격도 이겨 내며, 내부 세력간의 견이 달라도 공동의 대의를 위해 결국 거룩한



1611년, 성경 번역자들이 제임스 왕에게 성경을 헌정하는 장면을 그린 그림. 1604년에 칙령을 내린 뒤 7년 동안 47명의 당대 최고 전문가들이 번역했다.

성경 기록을 민초들에게 선물한 왕과 왕의 번역자들이었다.

이 위대한 유산을 과연 누가 인류에 베풀었는가. 수고한 번역자들의 이름이 남아 있지만 이들을 기억하는 이들은 오늘날 거의 없다. 그들의 소원 또한 자신들이 아니라 성경이 널리 퍼져 모두가 어려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는 것이었으리라.

킹제임스 성경은 한 시대에 세계를 호령하던 한 국가가 비영리적 목적 아래 최상의 인프라로 탄생시킨 최고의 번역본이다. 특정 성경을 신봉하거나 그것을 만든 인간을 기리는 것이 아니다. 최대한 한 글자라도 제대로 전달받고, 잘못 알고 하나님을 외람되게 하거나 스스로 불이익과 심판을 자초하지 않기 위해서다. 그 고민의 결과, 최선의 선택이자 최고의 선택이 바로 이 성경이었을 뿐이다.

내가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이것들에도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이 대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빼면 하나님께서 생명책과 거룩한 도시와 이 책에 기록된 것들로부터 그의 부분을 빼시리라. (계 22:18~19)

이것은 비단 계시록에만 해당하는 경고가 아닐 것이며, 다른 모든 성경도 계시록에 준하는 권위를 지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신구약 전체에 유효한 경고로 봐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으로 최소한 성경의 선택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것이 성도의 본분 아니겠는가. 📖

성경의 ‘워딩(wording)’과 언어 전쟁

1

요즘 언론과 정가에서 ‘워딩(wording)’이라는 말이 자주 쓰인다. 우리말로
는 특정한 단어가 없어서 표현이 애매한 것을 ‘워딩’이라는 단어가 충족시킨
다. 그 뜻은 이렇다.

(글이나 연설에서, 특별히 신중하게 골라 쓴) 자구(字句)의 표현, 단어 선택

말하자면 단순한 말이나 단어가 아니라, 어느 시간 어느 장소에서 어떤 단어
를 사용해 분명히 공적으로 내뱉어진 말이나 글귀를 이룰 때 ‘워딩’이라고 한
다. 사용 예는 다음과 같다.

“그런 취지의 말을 들은 것은 맞는데, 정확한 ‘워딩’은 없습니다.”

“참으로 속이 후련한, 기가 막힌 ‘워딩’입니다.”

증거가 필요한 재판 상황이나 중대한 일을 다룰 때일수록 ‘아’ 다르고 ‘어’ 다
른 자구의 선택은 매우 중요하다. 국정 조사와 청문회 등에서도 토씨 하나가
엄청난 결과를 불러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그렇습니다.”라고 바로

인정하는 것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라고 답하는 것은 크게 다르다고 한다. “답할 때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 아니었네요?”라고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긴다는 말이다.

2

누가 뭐래도 ‘위당’이 가장 중요한 문서는 성경이다. 사람의 영혼과 목숨의 갈림길에서 그릇된 선택을 하게 만들거나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등 큰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성경을 실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닌 사람의 기록으로 여기고, 시대에 따라 새롭게 해석하면서 문자 자체보다는 그 취지에 따라 정직하고 바르게 살면 된다고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지만 말이다.

이런 사람들은 성경이 어떤 자구를 선택하든 민감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자구 하나로 이단이 생겨나기도 한다. 잘못 번역한 하나님의 이름이 종교의 명칭이 되기도 하고, 잘못 표현한 애매한 문장이 어떤 이단의 모든 교리를 정당화하는 열쇠 구절이 되기도 한다. 이와 같이 성경이 버전마다 다르고 오역이 넘쳐나 갖은 폐해를 양산하고 있다.

만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진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것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록한 것이라면 어떨까? 사실 모든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믿지는 않는다. 정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선 성경은 **한 종류밖에 없어야 한다**. 위당이 여러 개일 수 없다는 거다. 또한 그것은 세상에 어떤 형태로든 남아 있어야 한다.

그런데 성경이 사람을 구원하고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 하나님이 친히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들은 성경을 사람과 철학에 맞게 다른 세계관을 반영해 번역하고 바꾸려는 노력을 해 왔다. 그들은 비슷해 보이지만 구절마다 다른 위당을 사용했다. 하나님의 ‘아들’을 ‘종’으로, ‘벌거벗음’을 ‘하체

를 드러냄'으로 바꾼다든지, 과거 완료형을 현재 진행형으로, 있는 구절을 없
는 것으로 바꾸기도 했으며, 없는 단어를 추가하기도 했다.

사소해 보이지만 이런 과정은 큰 오류로 이어진다. 한 예로 '예수의 어머니와
요셉'을 '예수의 부모'라고 쓰면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은 죄인 인간의 피
를 받은 아들이 된다. 대속의 구원 교리 자체가 모두 무너진다. 이런 예는 무
수히 많은데, 이래도 괜찮은가?

3

어떤 개념과 정의를 바꾸려는 사람은 말과 단어부터 바꾼다. 새어머니와 극
한의 대립을 하며 '그 여자', '아주머니'라고 부르던 사람이 마음을 열고 상대
를 이해하면서 용기를 내 '어머니'라고 부르면, 새어머니는 감동의 눈물을 흘
린다.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담긴다.

단어와 자구의 선택은 매우 중요해서 국제 무역 협상 등의 합의문을 채택할
때 매우 신중하게 단어를 고르고, 한 단어로 신경전을 벌인다. 단어 하나로 그
합의문의 구속력이 달라지고, 미래가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인이 매일 쓰
는 트위터 한 구절에서도 사람들은 그의 세계관과 정치관, 향후 행보 등을 읽
고 판단한다.

그리고 보면 사실상 거의 모든 문제가 말의 선택에 관한 문제로 귀결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안이 중대할수록 더욱 그렇다. 그런데도 성경이 대충 번역
되고 전달되어도 아무 이상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경중에 대한 판단
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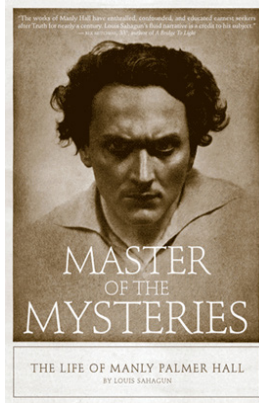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리려는 사람들이나 구원받고 다시 태어나지 못한 신학
자들은 성경의 많은 말들을 바꾼다. 그들은 단지 단어만을 바꾸려는 것이 아
니다. 성경을 공격함으로써 다른 개념을 창출하고 기독교의 근본 교리에 흠집
을 내서 신자들을 분열시키고 신앙생활을 방해하려는 것이다. 그들은 기독교

라는 아집(?)에 빠진 사람들의 편견을 바로잡고 싶어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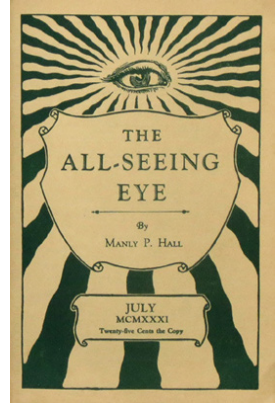
프리메이슨이자 신비주의자인 맨리 홀(Manly P. Hall)은 말했다.

“우리는 지난 100년간 오류가 없어 보이는 성경들을 만들어 냈지만 아무도 우리가 만든 성경을 보려고 하지 않는다.”

킹제임스 성경의 아성에 대한 무기력을 드러낸 것이다. 그러나 이 말은 NIV 같은 성경이 빅 히트하기 직전의 상황이다. 맨리 홀과 같은 생각을 지닌 자들의 성경, 즉 전혀 다른 워딩을 사용하는 성경들은 20세기 중반을 넘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그들이 개념을 바꾸는 방식은 어떤 과정일까?



맨리 홀과 그의 책들



4

말이란 사용자가 늘어날수록 새로운 의미가 부여된다. 새로운 단어는 그 뜻을 몰라도 몇 번 듣다 보면 그 의미가 이해되고, 어느새 자신도 쓰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이들이 언어를 배우는 과정이 그렇듯이 자기가 쓰는 단어들의 사전적 정의를 다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단어들은 시대가 바뀌면서 다른 의미로 바뀌기도 한다. 약간의 오해나 오용이 압도적으로 많이 쓰이면 의미 자체가 바뀐다. 그래서 말은 사용자가 만드는 것이지 사전이 만드는 것이 아니다.

‘개발새발’ 같은 말은 원래 없는 말이었다. 개의 발과 새의 발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바른 표현은 ‘괴발개발’이다. 고양이의 발과 개의 발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바른 표현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고, ‘괴발개발’이라고 쓰면 오히려 틀렸다고 할 정도가 되니 몇 년 전 둘 다 표준어로 복수 인정되었다. 자장면과 짜장면이 모두 표준어가 될 때의 조치였다. 그렇게 인정하면 그때부터는 틀리던 말도 맞는 말이 된다. 사용자가 말의 의미를 바꿔 버린다는 뜻이다.

새로운 개념을 위해 기존의 단어를 버리고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일도 많다. ‘문둥병(나병)’을 한센병으로, ‘소경’을 ‘시각 장애인’으로 바꿀 때는 사회적 편견이나 인격적 비하를 막기 위해서다. 이런 사례에는 좋은 의도를 지닌 것도 있지만 교묘한 의도를 담는 것도 있다.

젠더(gender)라는 단어는 페미니스트들이 1970년대부터 사용하다가 1995년 베이징 여성 대회에서 공식 결의한 사회학적 용어로 성(sex)이라는 단어가 오직 남자와 여자만을 지칭한다는 편견(?)을 깨기 위해 만든 것이다. 말하자면 gender에는 성이 단 두 종류만이 아니라는 뜻이 함축돼 있다. 게다가 성적 행위는 오직 남녀 간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더 나아가 기존의 성 구분법은 ‘성적 차별’이라는 비판까지 담겨 있다.

5

현대 사회는 단어를 선점하고 키워드를 독점하기 위해 소리 없는 전쟁을 벌인다. 단어 하나로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한다. 중대한 것을 잃을 수도 있고 얻을 수도 있다. 우리는 네이버와 구글의 막강한 위력을 이용하기도 하지만, 그 대가로 이미 이용을 당하며 생각과 삶의 패턴을 잃히고 있는 것은 물론, 그들에게 귀속된 노예가 되어가고 있다. 이것은 원치 않아도 그 안에서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되었다는 뜻이다.

미래를 위협하는 인공 지능 AI의 포인트는 ‘학습’과 ‘활용’의 능력이다. 학습

은 인간의 두뇌를 대체할 능력이고, 활용은 개념을 바꾸는 능력이다. 비성경적 생각을 가진 자들이 알고리즘을 선점하고 그들의 개념을 학습한 AI가 성경과 신앙 서적을 번역하는 등 각종 미디어에 손을 댄다면 ‘개념’이 바뀌고 의미조차 새롭게 형성될 수 있다. 그래서 악한 자들에게 이 기술이 들어가면 안 되지만, 이미 인류는 거대 기업들의 손아귀로 들어가고 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선점하는 자가 사람들의 머릿속을 지배한다. 이미 전쟁은 시작됐다. 악한 자들의 네거티브 공세를 우리는 다 막아 낼 수 없다. 그들은 표면적으로 대승을 거둘 것이다. 하지만 이런 일들은 인류 역사 속에서 끝없이 벌어진 일이다.

뱀이 에덴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르게 해석한 이후로 오늘날까지 말씀을 부정하고 바꾸는 일은 지속적으로 도전받고 공격받았다. 인공 지능의 번역 문제는 새로운 종류의 도전일 뿐 어느 시대에나 그에 맞는 방식의 위협이 존재했다. 전쟁은 한순간도 멈춘 적이 없었던 것이다. 다만 갈수록 그 위협은 심각해질 것이 분명하다. 마지막 때에 지식이 현저히 증가하리라는 예언은 인공 지능으로 인해 더욱 가깝게 실현될 것이다.

성경과 신앙 지식이 위협당하고 있다. 중대한 단어들을 불신자들이 자신들의 세계관과 종교적 관점으로 바꾼 성경들이 세상을 뒤덮고 있다. 이제 악한 자들의 신경망을 답습한 번역기들이 ‘하나님’을 ‘하느님’, 혹은 ‘신’으로, ‘God’을 ‘god’으로 바꾸면서 오래된 전쟁의 역사를 이어 갈 것이다.

7

실로 언어 전쟁의 시대이다. 단어 하나를 두고 목숨을 걸지 않는다면 우리 자녀들의 영혼은 갈 곳을 잃게 된다. 하나님의 창조 이후로 시작되어 주님이 다시 오셔서 승리하실 때까지 끝나지 않을 이 싸움은 결국 모든 개념을 점령하기 위한 말씀에 대한 공격, 언어의 전쟁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언어’는 종종 성경에서 생물이나 인격체처럼 다루어진다.

그때 즉 모든 백성들이 코넷과 피리와 하프와 트럼본과 비파와 온갖 종류의 음악 소리를 들을 때에 모든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 이 었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형상에게 경배하니라. (단 3:7)

또 그가 성도들과 전쟁하여 그들을 이기는 것을 허락받고 모든 족속들과 언어들 과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능을 받았으므로 (계 13:7)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고 있는데 그가 땅에 거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족속과 언어와 백성에게 선포할 영존하는 복음을 가지고 있더라. (계 1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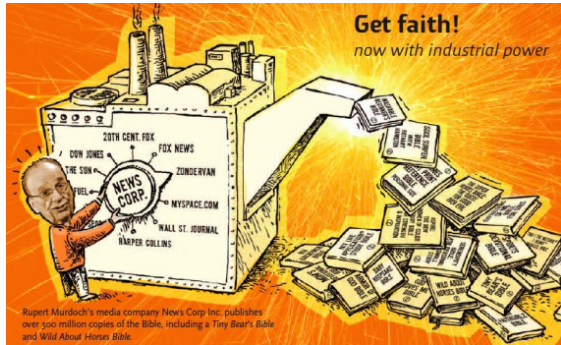
또 그가 내게 이르되, 네가 본 물들 곧 음녀가 앉아 있는 물들은 백성들과 무리들과 민족들과 언어들 이니라. (계 17:15)

언어가 우상에게 경배하고, 짐승이 언어를 다스리고, 천사가 언어에게 영존하는 복음을 선포하며, 음녀는 언어 위에 앉아 있다.

민족들과 족속들과 백성들이 싸우듯이 언어들도 스스로 전쟁을 치른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언어는 다른 언어들 과 소리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 하나님의 군사라면 마땅히 성경의 참된 위당을 지키는 이 싸움에 나서야 한다. 그것이 무너져 가는 시대에 사랑하는 이들의 영혼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 일 것이다. 📖

NIV 성경, 사탄경, 게이 섹스 안내서를 한 회사에서 출간하는 이유

NIV의 편집장이 무신론자인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수석 편집 위원과 편집자 중 한 사람도 동성애자다. NIV 성경은 루퍼트 머독*이 소유한 존더반(Zondervan) 출판사에서 나오는데, 이 회사의 모회사인 하퍼콜린스(HarperCollins)는 주인이 같은 출판사다. 한 소유주가 책의 장르와 시장을 고려해 두세 개의 출판 등록을 하는 일은 어디서나 흔한 일이지만 독자들은 다른 회사로 인식하기가 쉽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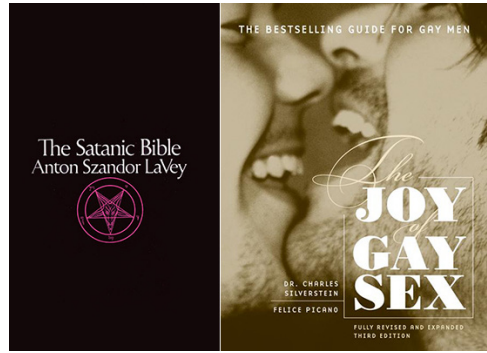


성경으로 큰돈을 버는 머독을 풍자한 삽화

NIV를 만드는 존더반의 모회사 하퍼콜린스는 『사탄경(The Satanic Bible)』과 『게이 섹스의 즐거움(The Joy of Gay Sex)』이라는 남성 동성애자의 가이드북을 함께 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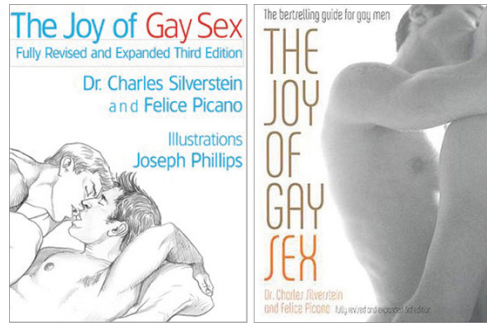
* Rupert Murdoch(1931-). 과거 뉴스 코퍼레이션, 21세기 폭스의 설립자이자 회장이었고, 현재는 뉴스 코프와 폭스 코퍼레이션의 설립자이자 회장이며, 대표적인 글로벌 미디어 거물로 150여 개의 언론사에 5만 명의 직원을 거느리기도 했다.

어 팔고 있다. 『사탄경』은 캘리포니아의 사탄제일교회(1st Satan church)의 사탄교 창시자 앤턴 라비가 쓴 것으로, 그들은 교회에서 앵크 십자가를 막에 투영하면서 루시퍼 사탄을 향해 예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러 팝 가수들이 속해 있기도 한 곳이다.



〈사탄경〉과 〈게이 섹스의 즐거움〉

아무리 영리 목적의 출판사라도 사탄 바이블을 내는 것은 그들의 정체성이 무신론 아니면 악마 숭배임을 자인하는 것이며, NIV 성경조차 하나의 책으로 돈벌이를 위해 낸 것 이상 다른 의미가 없음을 드러내는 일일 것이다. 『게이 섹스의 즐거움』은 남성 동성애자들의 베스트셀러로 동성애를 즐기는 법, (게이로서의) 자존감을 높이는 법, 커밍아웃 등에 대해 안내하는 책이다.



동성애 입문서 〈게이 섹스의 즐거움〉 다른 버전들

『게이 섹스의 즐거움』은 남성 동성애자들의 베스트셀러로 동성애를 즐기는 법, (게이로서의) 자존감을 높이는 법, 커밍아웃 등에 대해 안내하는 책이다.

같은 재단, 같은 곳에서 이런 책들을 내는데 동성애에 대해 매우 단호한 성경을 온전히 번역할 리가 있겠는가? 그래서 NIV에는 신명기의 남색하는 자(sodomite, 소도마이트=소돔인들)라는 말을 빼고 완전히 다르게 번역했다.

[신명기 23:17]

이스라엘의 딸들 가운데 창녀가 있을 수 없고 이스라엘의 아들들 가운데 남색하는 자도 있을 수 없나니 (흠정역)

There shall be no whore of the daughters of Israel, nor a sodomite of the sons of Israel. (KJB)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미동이 있지 못 할찌니 (개역한글)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개역개정)

No Israelite man or woman is to become a shrine prostitute. (NIV)

킹제임스 성경은 각각 ‘소도마이트’와 ‘남색하는 자’라고, 소돔과 고모라에 벌어지던 일임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개역한글의 ‘미동’은 그저 예쁜 사내 아이라는 뜻도 있고, 남성 동성애에서 여자 역할을 하는 남자라는 뜻이다. 개역개정에서 ‘남창’으로 바뀌었지만 이 역시 돈을 받고 매춘 행위를 하는 직업인이라는 뜻이다. 정리하자면 이렇다.

- 흠정역 : 창녀와 남색자
- 개역한글 : 창기와 미동
- 개역개정 : 창기와 남창
- NIV : 남녀 매춘자

이 구절은 여자와 남자를 명확히 구분한 말씀인데, 킹제임스 성경은 남자의 경우에 명백히 동성애를 지칭하지만, 개역 성경의 미동과 남창은 이성애를 포함하는 말이며, NIV는

존더반과 모회사 하퍼콜린스가 만드는 책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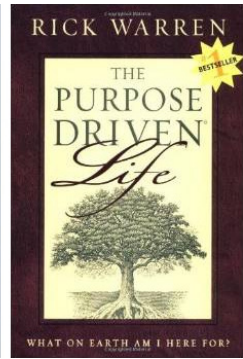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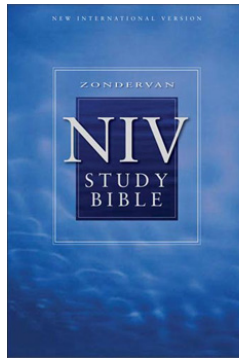


아예 그 경계를 무너뜨렸다. 남녀 매춘자라는 것은 각각 이성에게 몸을 파는 행위를 뜻하기 때문이다.

NIV의 shrine prostitute는 신전에서 매춘하는 것이니 아마도 이교도들의 행위를 지칭한 듯하다. 열왕기상 14장 24절에서도 NIV는 소도마이트를 male shrine prostitute(남창)로 번역했다. 개역성경은 ‘남색하는 자’로 번역했는데, 제대로 된 것이지만 도무지 일관성이 없다. 신명기 23장 18절에서도 같은 번역을 보여 주고 있다.

이처럼 소도마이트라는 말을 없애면 ‘소돔’이라는 특정 지역에서 벌어졌던 죄악임을 전혀 알 수 없다. 뭔가 바꾸는 데는 다 목적과 이유가 있는 것이다. 하지만 ‘소돔’이라는 메시지가 옛 도시 이름이라서 오늘날 우리에게 들을 가치가 없겠는가?

이것이 NIV의 정체성이다. 이런 현대 역본을 따라가면 좋은 성경이 나올 수 없는 것이다.



존더반의 NIV 성경과 <목적이 이끄는 삶>

NIV를 만드는 존더반 출판사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은 릭 워렌의 『목적이 이끄는 삶(Purpose driven life)』이다.

릭 워렌은 동성애에 우호적이다. 예전에는 자신이 우간다의 반동성애법에 반대한 적이 있는 것처럼



미국 대형 교회 새들백처치를 담임하는 릭 워렌

비친 것은 오해였고, 자기의 진짜 입장은 우간다에서 동성애를 금지하는 법이 불합리하다는 것이라며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동성애는

하나님이 주신 권리대로 자유롭게 선택할 일이라는 입장이다.

이와 같은 배경들을 살펴보면 그들이 왜 성경 번역본의 단어를 바꾸는지 알 수 있다. NIV 성경의 심각한 문제점을 다 외면하고 약간의 장점 때문에 말씀을 경히 여기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리 없다. 우리나라의 기업이 사탄경도 내고, 성경도 번역하고, 동성애 가이드북을 만들어도 가만히 있을 것인가? 제발 분노할 데서 분노하는 크리스천이 되었으면 한다. 📖



Reading the Bible with Literacy

제 4 장

킹제임스 흠정역 변호

성경의 이해를 돕는 킹제임스 흠정역의 친절한 표현들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 신자는 원어 성경을 무시할까?
각종 시위에 사용되는 가이 포크스의 가면에 관한 미화된 오해
시편을 킹제임스 흠정역으로 읽으면 좋은 점
'개혁신경' 아니고 '개혁성경'입니다만.

성경의 이해를 돕는 킹제임스 흠정역의 친절한 표현들

요즘 글을 읽는 자체를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눈은 나빠지고, 세상은 바쁘게 돌아가고,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집중도 안 되고... 이런저런 이유로 글을 읽기 힘들어 동영상만 보거나 오디오북 같은 콘텐츠를 선호하는 사람들도 늘어난다.

이런 형편이니 성경을 읽을 때는 오죽하겠는가. 같은 줄을 몇 번 읽기도 한다. 한 행을 건너뛰었어도 건너뛴 줄 모를 정도로 난해한 부분도 많다. 레위기의 위기(?)를 못 넘기고 성경 통독을 포기하는 일도 속출한다. 옛날에는 성경도 신문도 다 종조(縱組)로 세로쓰기를 했는데, 옛날 분들이 대단한 거다. 그래서 늘 지식은 늘지만 지혜는 퇴보하는 느낌이다.

한국 교회가 거의 통일해 사용하고 있는 개역성경은 한국인들에게 그냥 '성경'으로 통한다. 어려워서 쉬운성경이나 공동번역 등을 보려고 해도, 그걸로 보면 본 것 같지도 않고, 말은 쉬운데 이해는 더 어렵다. 교회에서 통용되는 용어나 오랫동안 익숙해진 개념들이 얼른 들어오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어투와 표현 자체에서 주는 느낌이 살지 않아 영 은혜가 안 된다.

그러면 이 개역성경이 막대한 책임 의식을 지니고 큰 틀을 유지하는 선에서 오역을 바로잡고 문맥이라도 다듬어야 하는데, 대수술을 하기 전에는 전부

땀질식 미봉채박에 안 되니 많은 항의와 반론에도 모르쇠로 일관한다. 바꾸면 또 바꿨다고 기존 사용자들이 불만을 터뜨린다. 그간 해왔던 설교와 다르고 압기해 온 것과 다르며, 이전 자료들도 다 개정해야 하니 말이다.

이 문제는 평생 한국 기독교인들의 발목을 잡을 것이다. 미안한 말이지만 이 성경을 가지고는 궁금함과 모호함의 미로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 말씀에 대한 온전한 이해는 요원하다. 번역에 오류가 많은 성경의 가장 큰 폐해는 개념의 뒤틀림이며, 판을 제대로 읽지 못하게 한다는 점이다.

역사를 읽는 사관에 따라 각 나라별로 다른 역사관을 갖게 되듯이, 불과 몇 문장의 오해만으로도 성경의 시대와 하나님의 속성과 경륜과 오늘날 성도를 위한 적용점 등이 다 뒤틀린다. 이는 물론 모호한 신학과 결합하면서 더욱 고착화된다.

또한 어떤 사실에 대한 몰이해는 그 반대편에 있는 개념을 저절로 사실로 만든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억지로 교회와 성도로 일괄 대치해 이해하게 된다든지, 하나님이 영원한 구원을 말씀하신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저절로 구원 취소론이 진리가 되는 식의 일이 생긴다.

번역이 나은 성경을 보면 무조건 성경 이해를 잘한다는 소리가 아니다. 바른 신학과 개념이 함께 따라가야 하는 것은 물론이며, 그동안 오해한 개념들을 공부해야 비로소 풀린다. 다만, 안 그래도 안 읽히는데 성경까지 모호하면 어찌겠느냐는 말이다. 오죽 안 읽히면 ‘어, 성경이 읽어지네?’라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될까... 당연한 일이 왜 놀랄 일인가.

개역성경은 훌륭한 점이 많고, 한국 기독교에 많은 기여를 한 것이 사실이지만, 다른 도구 없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어렵다. 독자 혼자서는 뜻을 정확히 알 수 없고 주석과 사전과 목회자, 신학자의 도움이 필수적이다. 물론 아무리 잘 번역된 성경도 그런 도움은 필요하지만 그 정도의 차이는 엄청나다.

새번역이나 공동번역의 이질감을 해결하면서도 성경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은 **킹제임스 흠정역**으로 바꾸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까지는 어렵다면 참고용 성경으로 구비하거나 앱으로 비교해 읽는 것도 도움이 된다. 낯선 번역체와 달리 개역성경의 고유 명사 등 많은 부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 문체도 한국 고유의 문체를 그대로 쓰기 때문에 이질감이 없다.

하지만 두 성경은 다른 부분도 꽤 많다. 우선 개역성경이 빠뜨린 단어나 표현이 다 들어가 있어서 간결함은 좀 덜하지만 현대의 일반 문장과는 더 가깝다.

가끔 흠정역을 읽다 보면 기존 성경 문체와 약간 다른 친절한 표현들이 돋보인다. 친절하다는 것은 뜻을 구체적으로, 또 명확하게 알려 준다는 의미다. 어떤 표현인지 몇 가지만 알아보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날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서두르라. 그날에 하늘들이 불이 붙어 해체되고 원소들도 뜨거운 열에 녹을 것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Nevertheless)** 우리는 그분의 약속에 따라 의가 거하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을 기다리느니라. (벧후 3:12~13, 흠정역)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벧후 3:12~13, 개역)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인데, ‘그렇긴 하지만’이라는 뜻이다. ‘그러나’와는 또 다른 뉘앙스의 말로 영문의 Nevertheless를 번역한 것이다. 개역성경은 이것을 아예 빼 버리고 ‘우리는...’이라는 새 문장으로 13절이 시작된다(NIV는 But으로 시작).

하지만 앞 문장에 엄청난 심판의 재앙이 언급되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는 필요하면서도 중요한 표현이다. 그런 두려운 날을 앞두고도 성도들은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그 점에서/ 어떤 점에서

네게는 다섯 남편이 있었고 지금 네게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그 점에서(in that) 네 말이 참되도다, 하시니라. (요 4:18, 흠정역)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요 4:18, 개역)

‘그 점에서’, ‘어떤 점에서’는 in that을 번역한 것이다. 이 부분도 없으면 이해 못할 부분은 아니겠지만 뜻을 명확히 해 준다. 여러 남편이 있었으나 이별했고, 지금도 남들이 남편으로 여길 만한 남자가 있지만 혼인한 상태는 아니니 수가의 사마리아 여인이 한 말은 ‘바로 그런 점에서는’ 맞는 말이라고 하신 것이다. 대충 말했다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여인은 깜짝 놀랐을 것이다.

너희가 내 제단 위에 더러운 빵을 드리고는 말하기를, 우리가 어떤 점에서(in that)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나니 너희가 말하기를, 주의 상은 업신여겨도 된다, 하는 점에서 그리하였느니라. (말 1:7, 흠정역)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말 1:7, 개역)

말라기서에 나오는 제사장들은 주를 더럽게 하고도 뻔뻔하게, 우리가 언제

어떻게 그랬느냐고 감히 하나님께 따진다. 애들이 싸울 때 유치하게, “내가 언제 그랬는데? 몇 월 며칠 몇 시에 그랬는데?” 하며 따지는 것과 비슷하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했던 말을 정확히 상기시키신다. 이런 정황이 ‘어떤 점에 서’라는 표현이 생생히 전달하고 있다.

논쟁의 여지가 없이

논쟁의 여지가 없이(And without controversy)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위대하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성령 안에서 의롭다 인정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이방인들에게 선포되시고 세상에서 사람들이 믿는 분이 되시고 들려서 영광으로 들어가셨느니라. (딤후 3:16, 흠정역)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딤후 3:16, 개역)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확실한 가르침을 주기 위해 ‘논쟁의 여지가 없이’를 썼다. 물론 개역성경은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로 번역했으므로 빠뜨린 것은 아니라 할 수 있지만 어폐가 있는 표현이다. ‘그렇지 않다 하는 이들’, 즉 주님의 성육신과 공생애와 부활, 승천, 재림을 부정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이다.

너희는 이것에 의해 하나님의 영을 알라.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은 다 하나님께 속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은 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나니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그 영이니라. 그것에 관하여는 그것이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는데 그것이 지금도 이미 세상에 있느니라. (요일 4:2~3)

이런 자들이 ‘이미 있다고’ 사도 요한이 말했다. 바울은 이렇게 논란이 많고 적그리스도와 이단들도 존재하지만, 논쟁할 여지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그만큼 이 부분은 중요한 교리였다. 그렇지 않다 하는 이가 없었던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개역성경은 “그렇지 않다 하는 이는 있을 수 없다”의 의미를 잘못 전달한 것이다.

!?. (문장 부호)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위해 시기하느냐? 주의 온 백성이 대언자가 되어 주께서 그들 위에 자신의 영을 두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민 11:29, 흠정역)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민 11:29, 개역)


개역성경에는 어떤 문장 부호도 없다. 읽다 보면 의문문인지도 알 수 있고, 문장이 끝났는지 알 수 있다지만, 있으면 훨씬 편하다. 위의 흠정역 구절에는 쉼표, 마침표, 물음표, 느낌표가 다 들어 있는데, 뜻이 훨씬 명확하고, 강조하고 싶은 감정까지 전달된다.

영어 킹제임스를 옮긴 흠정역은 문장 부호도 그대로 가져왔는데, 쉼표는 기존의 역할 외에 따옴표의 역할도 한다. 문장 중 나오는 대사의 앞뒤에 붙어 있다. 오역의 문제는 아니고,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 해도 읽는 사람에게 훨씬 도움되는 것이 사실이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가능하면 더 많이 그 말씀들을 읽고, 이해하기를 원하시는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려면 번역이 세심해야 하고 번역의 대본이 되는 본문이 건강해야 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성경은 천주교 계열의 사본에서 시작되고, 수많은 이들이 후대에 손을 댄 현대 역본을

기본으로 하는 데다, 추가로 많은 부분이 삭제되거나 오역되었다.

개역성경의 간결함은 큰 장점이지만, 무언가 떨어내면서 간결해지는 것은 성도라면 아무도 원치 않는 일이다. 누구든지 어떤 문학가의 열렬한 지지자라면 작품의 완역본을 원할 것이기 때문이다.

흠정역을 처음 보게 되면 개역성경과 다른 부분 때문에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큰 이질감은 없을 것이다. 개역성경에 비해 다소 길어지는 문장에도, 한 단어도 놓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안도할 것이다. 또한 많은 이들이 환영하는 것처럼 ‘예수’를 ‘예수님’으로 표기한다는 것부터 많은 장점을 발견하게 된다. 그래서 굳이 다른 참고서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어? 성경이 읽어지네!’ 하는 생각이 들 것이다.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 신자는 원어 성경을 무시할까?

원어 성경을 우리가 얼마만큼 이해할 수 있을까?

원어인 히브리어와 그리스어(헬라어) 성경을 배우고 연구하는 분들이 있다. 그렇게 하는 분들의 생각은 물론 원뜻을 더 깊이 알고자 함일 것이다. 말씀을 사모하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세밀하게 알고 싶어서다. 외국인들이 자막과 번역에 만족하지 않고 한국 드라마와 K-팝 노래 가사를 이해하기 위해 한글 공부를 하는 것처럼 원어로 성경을 연구하려는 이들의 마음은 무척 귀하다고 생각한다.

원어를 알면 웬지 모를 뿌듯함이 느껴지기도 하고, 고대와 연결되는 듯한 신비감을 느낄 수도 있다. 그런데 쓰는 방향도 반대인 히브리어는 워낙 어렵기도 하고, 그리스어도 간단치 않다. 이 언어들엔 접근성이 낮아서 전문 편집용 폰트를 구하기가 어려울 정도다. 전혀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이 신구약 두 개의 언어를 배우면 얼마나 배울 수 있을까. 정통한 학자들이라면 몰라도 일반 성도들은 약간의 성경 상식을 더하는 수준일 수밖에 없다. 그도 그럴 것이, 외국인들이 한글을 초보 수준에서 조금 공부하면 읽을 수 있고 뜻도 사전을 찾아가며 이해할 수 있겠지만 얼마나 그 단어들의 배경지식과 말맛을 이해해 찰떡같이 알아들을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드니 말이다.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 신자들은 원어를 무시한다고 잘못 알려진 경우가 많다.** 그러면서 “원어가 없이 어떻게 바른 이해가 가능하냐”고 묻는다. 하지만 성경 논쟁 중 원어를 들어 지적받고 원어를 언급하면, “왜 킹제임스 영어 성경을 믿는다면 원어를 이야기하느냐”고 한다. 어찌라는 것일까… 이 글에서는 흠정역 사용자들이 원어를 절대 무시하지 않는다는 사실과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높이 평가하고 그것을 하나님 말씀의 최종 권위로 여기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본다.

물론 “성경을 제대로 보려면 원어를 봐야지 왜 자꾸 영어를 이야기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반문할 수 있다. “어떻게요?”

도대체 무슨 수로 우리가 원어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인가? 한국어 성경을 보는 이유도 원어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설교자들이 완성도 높은 설교를 하기 위해 원어를 풀어 주는 일이 종종 있지만 그것은 한두 단어의 원 뜻을 가져 오는 수준이다. 그것도 자신이 가르치려는 내용과 다르면 채택하지 않기가 쉽상이다.

현재 전국에서, 아니 전 세계에서 신구약 전체를 원어로 완전하게 이해하는 사람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유대인이 있고 그리스인이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이나 할 수 있지만 두 언어를 동시에 모국어처럼 할 수 있어야 통일된 의미를 알 수 있고, 동시에 바른 교리에도 정통해야만 한다.

그래도 불가능하다. 지금의 두 언어를 완벽하게 구사한다 해도 언어가 변천하고, 용례가 시대에 따라 달라지며, 발음이나 읽는 법도 바뀌기 때문이다. 성경은 4천 년 전부터 2천 년 전까지 기록되었는데, 마지막 성경이 기록된 시점도 우리로는 고조선 시대이며, 흔히 ‘고릿적’이라고 하는 고려 때보다도 천 년이나 앞선 시기다. 이때의 언어를 우리가 들여다본다면 과연 원래 기록한 의미로 읽을 수 있을까?

원어를 과도하게 신봉하는 사람은 우리가 『삼국사기』나 『조선왕조실록』도 원어로, 즉 한자로 읽고 그 뜻을 파악하면 더 잘 알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과

비슷하다. 하지만 그 역사서들을 잘 아는 이들의 번역 없이 바로 그것을 보려 한다면, 전문가들이 원어 성경을 공부할 때처럼 몇몇 표현들만 알려 준다면 어떨까. 아마도 처음부터 잘 된 번역본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잘못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전체를 그런 식으로 볼 수는 없다. 훈민정음 원본의 소중함을 기억하지만 지금은 사라진 표현과 표기법도 많아 읽으려야 읽을 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게다가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고자 하는 이유는 학문이 최종 목표가 아니고, 그것을 통해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함이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함이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의미가 크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 모두가 원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모국어로 보는 것이며, 그 번역의 대상이 되는 것, 즉 하나님이 보존해 주신 성경은 세상 어딘가에 존재해야 하고, 또한 그것은 오직 하나뿐이어야만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가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원어 성경이 물론 있어야 하지만 세계 공통어에 가까운 언어로 된 최고의 번역본이 그와 함께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이유로 흠정역 성경 신자들은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세계인의 언어로 주신 성경이 킹제임스 영어 성경이라고 믿고 있다. 그들 중에는 원어 성경보다 킹제임스 성경이 더 낫다는 과도한 주장을 하는 이들도 존재하는데,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주장이다. 단지 현시대에 원어 밖의 언어권에 있는 이들에게는 벽돌에 가까운 원어 성경보다 가치가 크다는 의미일 뿐이다.

400여 년 전 원이 엄마의 편지가 말해 주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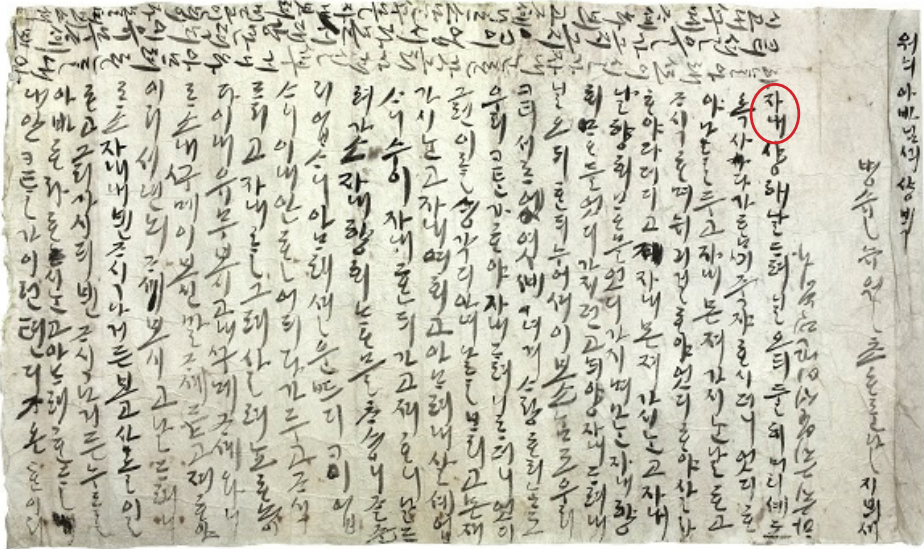
경북 안동에서 1586년 31세에 요절한 이응태라는 인물의 아내 ‘원이 엄마’가 쓴 한글 편지가 있다. 1998년 택지 개발 공사 중 한 무덤에서 여러 유물과 함께 발견되었다.

이것을 옮긴 내용을 보면, 불과 수백 년 전의 것인데도 표기법도 다르고 단

어도 생소하며 이해가 어렵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하단 사진).
이 글귀를 현대어로 해석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된다.

당신 언제나 나에게, 둘이 머리 희어지도록 살다가 함께 죽자고 하셨지요.
그런데 어찌 나를 두고 당신 먼저 가십니까?
나와 어린아이는 누구의 말을 듣고 어떻게 살라고 다 버리고 당신 먼저 가십니까?
당신 나에게 어떻게 마음을 가져왔고,
나는 당신에게 어떻게 마음을 가져왔었나요?
함께 누우면 언제나 나는 당신에게 말하곤 했지요.
“여보, 다른 사람들도 우리처럼 서로 어여빠 여기고 사랑할까요?
남들도 정말 우리 같을까요?”
어찌 그런 일들은 생각하지도 않고, 나를 버리고 먼저 가시는가요.

아래 이 편지의 원본을 보면 남편에게 ‘자내(자네)’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때는 부부가 서로를 동등하게 불렀다고 한다. 그런 배경을 잘 모르는 사람이 이



자네 상해 날드려 날오디 들히 머리 세도록 사다가
 흙찌 죽자 하시더니 엇디 해야 나를 두고
 자네 묻져 가시는 날 하고 즈식 하며 뉘 괴걸 해야
 엇디 해야 살라 해야 다 더디고 자네 묻져 가시논고
 자네 날 향히 므으물 엇디 가지며 나는 자네 향히
 므으물 엇디 가지던고 밋양 자네드려 내날오디 혼 디
 누어서 이보소 늬도 우리 그티 서르 에엿세 너져
 스랑허리 늬도 우리 그튼가 해야 자네드려 니르더니
 엇디 그런 이를 칭각디 아녀 나를 브리고 묻져 가시논고



옛글로 정리한 편지. 여전히 이해하기가 어렵다.

원이 엄마 테마 공원의 동상

편지에서 ‘자네’라는 표현을 본다면, 친구에게 쓴 것으로 오해하거나 편지를 쓴 여성이 좀 이상한 호칭을 썼다는 식으로 잘못 해석할 수 있다. 말하자면 기록 당시의 언어와 그 주변 지식에 대한 이해는 글자의 이해만큼 중요하다는 말이다.

그나마 이것은 변천했어도 같은 언어라 따로 공부를 안 해도 몇몇 단어들은 알 수 있는데, 알지 못하는 두 원어에서 번역한 것을 또 번역해야 하는 비영어권 성도들에게 믿을 만한 성경 번역본을 찾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저 편지의 사례처럼 편지를 쓴 사람이라면 자신의 애뜻함이 편지를 받는 대상이나 후대 사람들에게 왜곡되지 않고 그대로 전해지길 바랄 것이다. 하나님의 상속 언약(testament)인 성경도 제대로 전달되길 바라는 것이 우리 주님의 뜻일 것이다.

모든 성도를 위한 성경의 필요성

이런 이유로 하나님은 세상 끝까지 존재할 성도들에게 새로운 언어, 모두가 접근할 수 있는 언어로 성경을 주실 필요가 있었다. 중세 암흑시대처럼 알지 못하는 언어로 성경을 대하고 예배할 수는 없으니까 말이다. 그래서 영어가 완성된 이후에는 각 대륙의 많은 지역을 지배한 영국의 언어이자 세계 공용어에

가까운 영어로 성경을 주셨다고 믿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늘 수신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말씀하시기 때문이다.

구약은 유대인에게 주신 것이니 히브리어로, 신약 복음서 시대에는 당시 이스라엘과 여러 나라를 지배했던 로마의 언어, 주변 지역으로 복음이 퍼질 수 있는 그리스어로, 그리고 세상이 바뀐 뒤로는 영어로 주셨다고 볼 수 있다. 수신 대상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언어, 즉 온 세상에 복음이 퍼져야 하는 시점에서 세상을 지배하는 영어로 주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민족은 모국어로 성경을 읽을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것이다. 그러려면 원어 원본부터 중간 번역본인 영어 역본 등이 모두 변질되거나 짜깁기되는 등 편집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 전 과정을 중시하는 것이 킹제임스 성경이다. 많은 이들이 킹제임스 성경은 번역이 잘 된 고전적 성경이라고만 이해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이 번역의 대본이 되는 원어의 단어 선택에 신중했다는 사실이다.

성경 읽기와 번역을 금했던 천주교 세력이 진화론과 심령술과 공산주의에 매료된 자들, 성경을 오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원어를 변개한 편집본을 만들었다. 그것이 오늘날 거의 모든 현대 역본 성경이 된 것이고, 영어 성경 중 유일하게 킹제임스 성경만 변질되지 않은 순수한 본문, 공인된 본문을 사용한 성경으로 남았다. 과거에는 99%가 변개되지 않은 본문을 사용했지만 오늘날은 99%가 변개된 천주교 본문을 사용하고 있다.

‘누군가 알아서’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전달했을 거라는 생각은 너무 안일한 것이다. 아무리 좋은 의도로 해도 사람은 실수가 있고 부족한 법이다. 사탄 마귀는 늘 효율적인 공격을 하며, 가장 중요한 것에 손을 댈다. 그는 기독교인들에게 자신을 본격 숭배하라고 손짓하지 않는다. 진리에 약간의 불순물을 타서 변질시키고 그것에 중독되게 할 뿐이다.

그런데도 무방비하다면 마귀의 타깃이 되기 쉽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명령을 준행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아실 것이다. 그래서 믿음을 보시는 것이다. 믿음은 그분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 대상은 곧 하나님 자체인 ‘말씀’이다(요 1:1~3).

그렇다고 성경을 숭배하려는 것이 아니다. 당연히 거기에 있는 진리와 하나님의 명령이 중요하다. 성경 지식의 분석과 지적에만 몰두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하지만 말씀의 진위를 분별하지 않으면서 무엇을 지키겠다는 것은 더 어리석은 일일 수 있다.

구약과 신약이 여러 번역본으로 변한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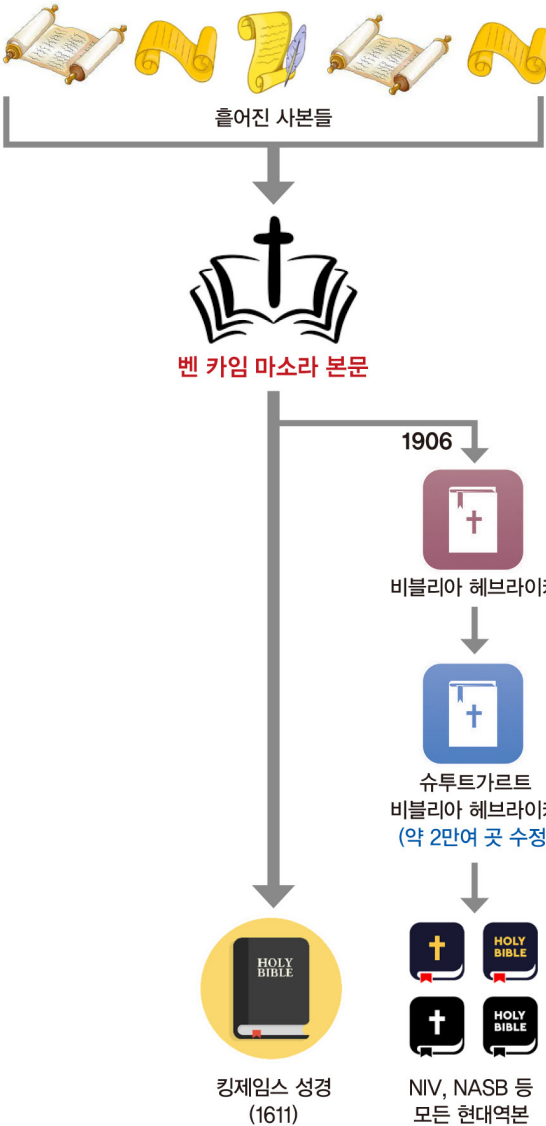
자필 원본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고, 조각조각 흩어진 필사본들이 있을 뿐이다. 이 사본들을 정리해 번역을 위한 **대본(臺本)**을 만드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렇게 정리된 대본을 **본문(本文)**이라고 한다. 그런데 대본이 크게 두 종류라는 것이 문제다. 성경 역본은 본문이 무엇인가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신구약 성경은 어떻게 두 개의 대본으로 각각 변천했을까?

● 구약 성경의 전달 과정

모세 오경은 BC 400년, 예언서는 BC 300~200년, 성문서는 BC 160~105년쯤에 표준 정경으로 33권이 채택됐고, AD 90년 유대인 랍비 모임인 얀니아 공회에서 총 39권을 확정했다. 구약은 유대인들이 순수하게 보존한 **전통 벤 카임 마소라 본문(Ben Chayyim Masoretic Text)**이 번역의 대본으로 사용됐다. 20세기 초까지 이 히브리어 마소라 본문에 대한 비판은 거의 없었다.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의 구약은 바로 이 본문에서 번역한 것이다.

그런데 루돌프 키텔(Rudolf Kittel, 1853-1929)이라는 학자는 이 벤 카임 마소라 본문을 사용해 1906년에 **비블리아 헤브라이카(Biblia Hebraica)** 1판

구약성경의 전달 과정



을 냈다. 이 과정에서 그는 ‘비평 장치’를 각주 형태로 모든 페이지의 하단에 도입, 마소라 성경 본문과 배치되는 이문(異文)들을 삽입함으로써 신학자들이 전통 구약 성경 자체를 의심하고 고칠 수 있게 만들었다.

1929년 키텔 사후에 독일의 뷔르템베르크 성서공회는 키텔의 비블리아 헤브라이카 1, 2판의 저작권을 샀고, 폴 칼레(P. E. Kahle)를 통해 마소라 본문을 페이지마다 평균 15~20군데씩 수정한 뒤에 마치 키텔이 편찬한 것처럼 1937년판 비블리아 헤브라이카(일명 키텔의 히브리어 성경 3판)을 출간했다.

이 본문은 후에 1967/1977년판 슈투트가르트 비블리아 헤브라이카(BHS)로 개정 출간되었는데, 구약 전체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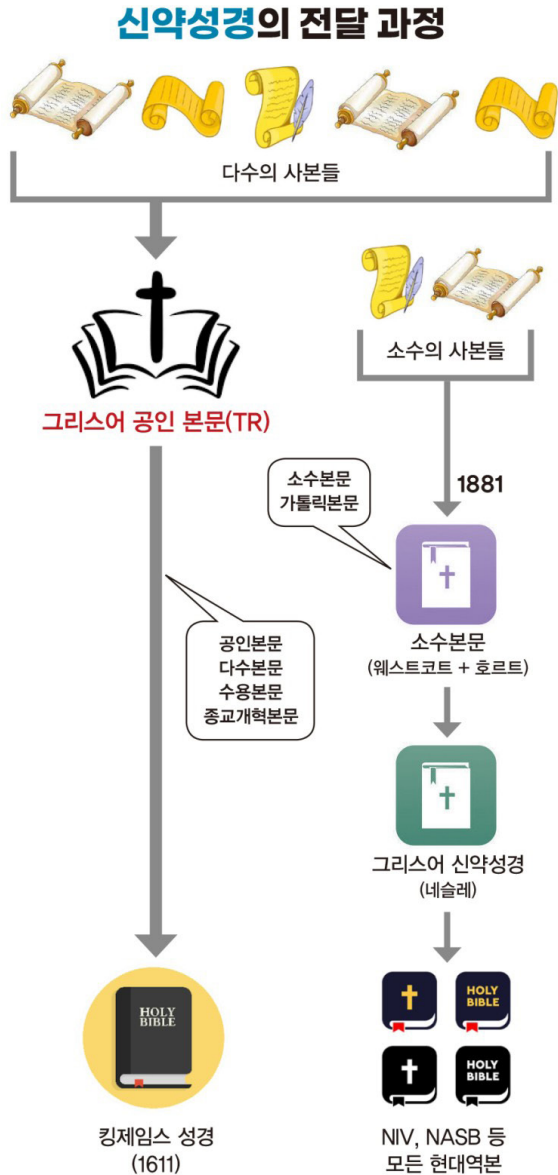
서 약 20,000군데가 수정된 상태였다. NIV 등 대부분의 현대 역본 구약이 이 BHS를 근거로 번역되었다. 그러므로 마소라 본문이라고 해도 다 같은 것은 아닌 것이다.

● 신약 성경의 전달 과정

신약 성경은 AD 363년 라오디게아 회의를 거쳐 397년 카르타고 공회에서 27권을 정경으로 최종 인정했다. 신약 모두 정경 채택이 완료된 것.

킹제임스 성경의 근간이 된 본문은 그리스어 공인 본문 (TR, Textus Receptus)인데 이 본문은 신약교회가 거의 1,900년간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해 온 것이다. 이 본문은 가장 많은 사본에 근거했기에 '다수 본문', 가장 널리 사용되었기에 '보편적 본문', 로마 가톨릭교회의 '서방 본문'과 대비되어 비잔틴 본문(혹은 동방 본문), 루터와 칼빈 등 종교 개혁자들이 한결같이 이 본문만을 사용했기 때문에 '종교 개혁 본문'이라고 각각 부른다.

프로테스탄트들과 침례교도들이 한결같이 '공인 본문'만을 사용해 온 것과는 달리 로마 가톨릭교회는 처음부터 '소수 본문'만을 고집했다. '소수 본문'이라는 말이 의미하듯이 이 본문을 지지하는 사본은 몇 개 되지 않으며 그 안




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처녀 탄생, 신성, 대속, 삼위일체, 천국/지옥 등 여러 중요한 성경 교리에 대한 잘못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사본들 중 가장 유명한 것으로 ‘바티칸 사본’과 ‘시내 사본’이 있는데, 이 두 사본에 근거해 1881년에 영국의 웨스트코트와 호르트 박사는 소수 본문을 만든다. 그들이 공인 본문에서 삭제, 추가, 변경한 단어는 무려 9,970개나 되며 이것은 신약 성경 전체의 7%나 되는 양이다. 이후 1898년에는 네슬레가 티센도르프의 제8판과 위마우스의 제3판과 함께 신약 성경 본문을 편집하여 네슬레의 ‘그리스어 신약 성경’을 출간하는데, 바로 이 그리스어 성경이 현재 출간되고 있는 모든 현대 역본의 신약 대본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처럼 구약도 신약도 단 두 종류의 성경만이 존재한다. 킹제임스 성경과 다른 모든 현대 역본의 내용은 그 본문이 다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다. 이처럼 원어 자체가 흔들려 있기 때문에 구분해서 볼 줄 알아야 하고, 원어를 가르치는 교사나 사전 등이 어떤 본문을 지지하는 누구의 말인지 일일이 구분할 수 없기에 원어를 공부한다고 해도 너무 복잡해서 제대로 된 교리와 지식을 얻거나 체계적으로 정리하기가 어렵다.

이것을 가장 탁월한 번역자들이 변경되기 전의 본문에서 바르게 번역한 것이 킹제임스 성경이다. 고어의 등장 때문에 사용이 불편한 부분이 없지는 않지만, 이 성경이 가장 건전하고 우수한 것은 아무도 부인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원어를 무시하는 성도란 있을 수 없다. 하지만 기록자들의 친필이 남아 있지 않고 흩어진 사본들뿐이라면 그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권위 있는 과정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맡기신 자들을 통해 보존하시는 과정이어야 한다. 아무리 살펴봐도 킹제임스 성경이 그 모든 면에서 가장 탁월하기 때문에 이 성경을 믿는 것이며, 한글 흠정역은 현존하는 성경 중 누락이 없이 가장 낫다고 여기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이다. 원어 성경이 아무리 가치 있어도 의미를 알 수가 없다는 것일 뿐 무시하거나 경시하는 것이 전혀 아님을 이 글에서 설명했다. 

각종 시위에 사용되는 가이 포크스의 가면에 관한 미화된 오해

대기업 갑질 사주 퇴진 시위

대한항공 사주 가족들의 갑질 때문에 세상이 시끄러웠던 때가 있다.* 견디다 못한 이 회사 직원들은 사주 퇴진을 위해 촛불 집회를 개최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회사의 노조가 엄선된 사측 사람들이라 노조는 오히려 감시를 하고 직원들은 보복이 두려워 신분 노출이 되지 않는 방법의 시위를 고민했다. 촬영해서 색출할 수도 있으니까 말이다.



가면을 쓰고 시위 중인 대한항공 임직원들

직원들은 시위 퍼포먼스로 사주 가족의 갑질을 조롱하듯 땅콩 빨리 까기, 조모 전무보다 크게 고함지르기 등도 계획했는데, 얼굴이 알려지는 것을 염려해 선글라스와 마스크, 그리고 진짜 마스크인 가면을 활용했다. 이럴 때 쓰는 ‘가면’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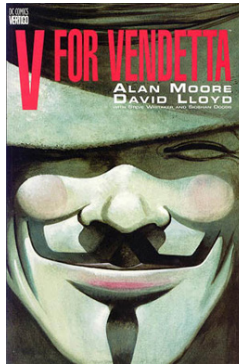
* 2018년 가족 기업인 한진그룹 대한항공 전무 조모 씨의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시작한 오너 리스크에 관한 이야기. 이 글은 물론 당시 임직원들이 시위를 했던 사실이 아니라 그때 이용된 가면에 담긴 의미와 에피소드를 다룬 것이다.

것이 가이 포크스(Guy Fawkes)의 가면이다. 아는 사람은 알지만, 이 가면의 의미를 대중들이 오해하고 있다.

저항의 상징 가이 포크스의 가면

이처럼 시위와 저항의 상징인 가이 포크스의 가면은 영국의 제임스 왕과 의회를 일거에 몰살시키려던 자의 화약 음모 사건(1605)에서 비롯되었다. 이 사건으로 주모자로 몰린 가이 포크스는 처형되고, ‘기이한 옷을 입은 남자’라는 뜻으로 통하던 그의 이름 가이(Guy)는 ‘터프가이’ 등 불특정한 ‘남자’라는 일반 명사로 사용되다가 점차 확장되어 복수가 되면 남녀를 불문한 ‘여러분(guys)’이라는 뜻으로도 자주 쓰인다.

이 가면이 유명해진 것은 만화 『브이 포 벤데타』 덕분이다. 그리고 동명의 영화에서 실사판으로 등장해 다양한 시위에 사용되었고, 각국의 고급 정보를 세상에 공개하면서 유명해진 위키리크스의 줄리언 어산지를 통해서도 알려졌다. 이것이 ‘벤데타 가면’으로도 불리는데, 실상은



만화 원작(왼쪽)과 영화 <브이 포 벤데타>. 가이 포크스의 정신으로 저항하는 V가 이 가면을 쓰고 등장한다.

영화에 등장하는 V가 썼던 가이 포크스의 가면이다. 벤데타(Vendetta)는 이탈리아어와 스페인어 등 여러 언어에서 ‘피의 복수’라는 뜻으로 통하는 말이지만 대한항공 측은, 지금은 희생자(Victim)지만 우리의 목소리(Voice)로 승리(Victory)를 이끌어 내겠다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브이 포 벤데타>는 미드 <센스 8>, 영화 <매트릭스> 등으로 유명한 워쇼스키 형제가 만들었다. 이들의 영화는 자극적이고 파격적이며 유해 요소가 많다.

이들은 한 사람의 성전환으로 남매가 됐다. 가수 비(정지훈)가 주연을 맡은 <닌자 어쌔신>을 제작하면서 국내 예능에 출연하기도 했는데, 그때까지도 남

매였으나 이제는 둘 다 성전환을 해서 자매로 불린다.

이들은 <브이 포 벤테타>에서 억압 받던 무정부주의



자매로 변신(?) 한 트랜스젠더 워쇼스키 형제

자 가이 포크스의 좌절을 억압받은 시민의 실패로 규정하고, 주인공 V를 통해 그의 부활을 꿈꾸는 판타지를 그려냈다.

이 영화는 가이 포크스가 1605년에 이른바 **화약 음모 사건(gun powder plot)**을 꾸미다 11월 5일에 적발되어 꿈이 좌절되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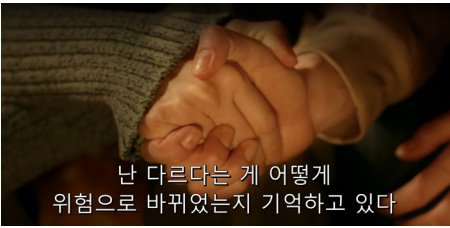
영국 의회를 통째로 날려 버리려 던 음모를 발각당한 가이 포크스는 사형을 당한다. 그런데 영화는 그가 자신의 신념을 위해 피를 흘렸다고 표현한다. 정말일까?

기억하라! 기억하라! 11월 5일의...
 화약 음모가 어떻게 잊혀질 수 있는지 이유를 모르겠다
 그의 이름은 가이 포크스라는 걸 난 알고 있다
 그리고 1605년, 그는 자신의 신념을 위해 피를 흘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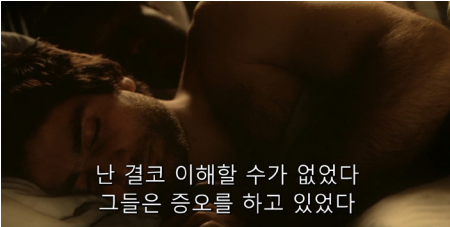
영화는 가이 포크스의 실패로 인해 사람들을 재판된 틀에 넣고 억압하는 정부가 더욱 강화되어 종교와 결탁해 시민들을 제도권하에 귀속시켜 자유를 제한하고 단죄했다고 말한다.



종교 조항들이 강력한 힘을 갖게 되었다



난 다르다는 게 어떻게
위험으로 바뀌었는지 기억하고 있다



난 결코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들은 증오를 하고 있었다

중 교적 억압은 국가 권력을 등에 업고 동성애자들과 같이 (단지 조금 다를 뿐인) 사람들의 자유도 허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함께 자고 있던 남자들을 급습해 정부가 체포하는 장면이 내레이션과 함께 흐른다. 이런 일은 국가를 위한 정당한 통치 행위가 아니라 증오에 의한 것이라는 뜻이다.



그는 우리 모두였어요

현 실의 여자 주인공은 실패한 가이 포크스, 그리고 그의 부활로 등장했다가 다시 죽음을 맞이하는 V를 회상하며, 그는 '우리 모두'였다고 말한다. 정부를 전복시키려던

생각이 국가의 지배를 받는 모든 시대의 시민들, 정부를 거부하고 자유를 갈망하는 모든 이들의 거세된 열망이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다.



하지만 400년이 흐른 후
아직도 신념은 세상을 바꿀 수 있다

그 리고 400년이나 지났지만 아직도 신념은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말한다. 그래서 다시 일어난 자가 V이다. 영화는 이렇게 실패한 혁명에 대한 미화로 마무리된다.

왜 그의 꿈은 400년 전에 좌절됐는가?

그런데 이 사건은 시민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 화약 음모 사건의 실마리는 저

자막에 나오는 것처럼 ‘400년’이라는 데 있다. 400년 전에 가이 포크스가 죽은 이유를 알아야 한다.

음모 1년 전인 1604년, 영국의 제임스 왕은 최초의 친구약 영어 완역본 성경을 번역하라는 칙령



영화에서 줄곧 가면을 쓰고 등장하는 주인공 V

을 내린다. 이 일은 교황과 로마 가톨릭이 지독히도 싫어한 일이었다. 영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자는 모두 화형시키던 교황이었다. 심지어 이미 사망한 존 위클리프 같은 사람은 유골을 캐내 화형을 시킬 정도였으니 그들의 성경에 대한 중요와 경계를 짐작할 수 있다.

이런 교황을 이길 세력은 왕뿐이었기 때문에 성경 번역이 진행됐지만 교황이 가만히 있었을 리 없다. 음모는 실무선에서 진행되었다.

가톨릭 신자였던 전쟁 전문가 가이 포크스를 눈여겨본 토마스 윈투어라는 또 다른 가담자가 실세 로버트 케이츠비에게 소개했다. 케이츠비는 제임스 1세를 암살하고 왕위를 제임스 1세의 딸에게 넘기려는 반역의 계획을 꾸미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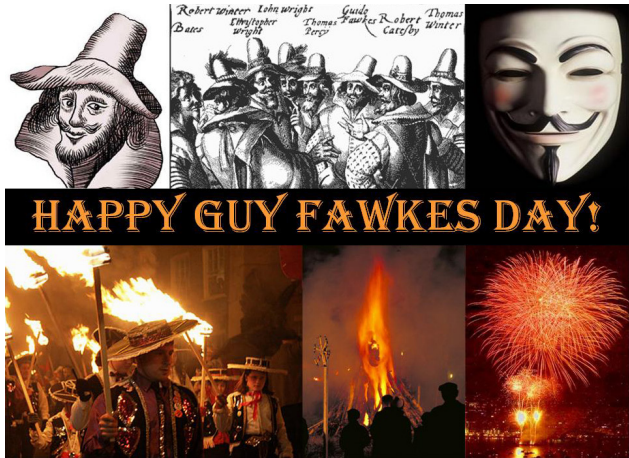
의회 개원일에 왕과 의회를 모두 날릴 만큼의 화약을 의사당 지하에 준비한 포크스 일당의 계획은 가톨릭 신자인 몬트이글 경까지 죽일 수는 없어서 의회 참석을 하지 말라고 누군가가 보낸 편지 때문에 발각되고 만다. 의회 개원일이 다가올 때 고민하던 몬트이글은 그 편지를 왕에게 보여 주었고, 제임스 왕은 의사당 주변을 샅샅이 뒤지도록 하여 **의회 개원 몇 시간 전인 11월 4일 자정 무렵 의사당 지하에서 포크스를 체포한다.**

로마 가톨릭은 가이 포크스 일당을 이용해 왕을 살해한 후 그의 자녀들을 감금시키고, 반항했던 자들을 다 죽이고, 영국을 교황에게 충성하는 나라로 재설립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 물론 그들은 왕과 함께 성경 번역 프로젝트도

무산시킬 계획이었을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몇 년 후인 1611년에는 킹제임스 성경이 완성되어 5월 2일 반포된다. 그가 체포된 날은 '가이 포크스 데이'로 남았고, 이날 영국에서는 불꽃놀이를 하며 남자 인형을 불태우는 축제를 갖는다. 무정부를 꿈꾸다 죽은 의로운 피해자가 아니라 국가의 안위를 위협한 폭도의 색출을 기념하는 축제인 것이다.

다른 말로 이 축제는 본파이어 나이트(Bonfire Night)라고도 부른다는데, 가이 포크스의 가면이 일반적 저항의 상징이 되듯이 원뜻을 희석시키려는 의도도 있는 것 같다.



가이 포크스, 일개 테러리스트에 불과**

화약 음모 사건은 전혀 미화될 만한 일이 아니다. 설령 정부나 국가가 백성을 억압한다고 해도 폭탄으로 일거에 날리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 왕실 하나를 없앤다고 나라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며, 온 세상이 무정부 상태로 되는 것도 아니다. 더욱이 이 사건은 왕실을 접수해 자신들이 통치하려던 더욱 극악한 세력의 권력 찬탈 시도였던 것이다.


한마디로 억압받던 소시민들이 권력에 저항한 사건이 아니라 정치 세력이 다

** 이 화약 음모 사건은 그리스도예수안에게 발간한 『세상을 바꾼 책 킹제임스 성경』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으며, www.KeepBible.com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 링크 클릭](#)

른 정치 세력에 대해 사람을 사서 테러를 시도한 사건이다. 더 정확히 말하면 악의 세력이 의의 세력을 무너뜨리려 한 사건일 뿐이다. 제임스 왕은 엘리자베스 여왕의 신임을 얻어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에서 동시에 왕이 된 존경받는 통치자였다. 그러므로 이런 가면을 쓰고 어떤 세력에게든지 저항하는 것은 테러리스트에게 경의를 표하는 실수를 하는 것이다.

폭주하는 갑질도 문제지만 증오와 혐오로 시작된 전복 시도는 여러 사람에게 좋지 않다. 조금 느리더라도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혐오를 혐오로, 테러를 테러로 갚지 않는 성숙한 일이 될 것이다. 또한 그들 안에는 크리스천도 있을 텐데, 시위를 하더라도 세상을 바꾼 역사상 가장 위대한 책, 종교 개혁을 가능하게 하고 서구 영문학과 영어 문화를 찬란하게 꽃피운 유일한 성경 킹제임스 버전을 제거하려던 세력의 정신을 재현해서는 안 될 것이다.

기업 오너의 잘못된 관행을 바꾸라는 시위를 할 수 있다. 그러나 불순한 테러리스트의 마인드로 맞선다는 것은 폭력을 폭력으로 저지하려는 모순된 자세일 수 있다. 처형 당시, 공모자들의 사지가 찢겨 죽어 나가는 것을 보고 교수대에서 뛰어내리려다 목이 부러져 죽었다는 **가이 포크스는 시민의 영웅도, 자유의 개척자도 아니다.**

성경을 민초들의 언어로 번역해서, 쟁기를 잡은 소년이 교황보다도 더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고 말 것이라던 순교자 틴데일의 소원을 이어받은 왕을 죽이고, 후대에 전해질 귀중한 말씀들을 차단하려던 테러리스트이자 가톨릭의 하수인에 불과한 **가이 포크스**. 그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마귀에게 귀의한 400여 년째 지옥백성일 뿐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시편을 킹제임스 흠정역으로 읽으면 좋은 점

시편 기록자가 누구냐고 물으면 대개 다윗이라고 답할 것이다. 하지만 총 150편 중 73편을 다윗이 기록했을 뿐 전체를 쓴 건 아니다. 절반도 되지 않는다. 이런 사실을 대충은 알지만 어느 장을 다윗이 쓰고 어느 장을 다른 기록자가 썼는지, 그들은 누구인지 참고 자료나 주석을 찾아보기 전에는 잘 알 수 없다.



시편의 기타 저자는 모세(1편), 아삽(12편), 솔로몬(2편), 고라의 자손(10편), 에스라 사람 헤만(1편)과 에단(1편) 등이다. 미상의 저자도 있다(50편). 그런데 킹제임스 흠정역을 사용하면 그 저자들을 본문에서 바로 간단히 알 수 있다. 킹제임스 영어 성경에 저자와 각 시편의 기록 배경과 용도 등이 간략하게 등장하기 때문이다.

(다윗의 시)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1)

이런 식으로 본문에 포함이 돼 있다. 물론 다른 역본도 주석성경 등에는 본문이 시작되기 전에 중간제목처럼 이런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지만, 주석이 없는 성경이나 일부 검색 사이트와 앱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킹제임스 흠정역

은 본문 자체에 괄호로 등장한다.

다음과 같이 흠정역은 성경만으로도 저자를 알 수 있다. 기록자는 물론 기록 동기와 형식 등도 알 수 있다.

(깃뒹에 맞추어 악장에게 준 다윗의 시) **오 주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뛰어나신지요! 주께서 주의 영광을 하늘들 위에 두셨나이다. (시편 8:1)**

(아삽의 시) **강력하신 하나님 곧 주께서 말씀하시고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땅을 부르셨도다. (시편 50:1)**

(고라의 아들들을 위한 노래 또는 시, 마할랄 르안눗에 맞추어 악장에게 준 것, 에스라 사람 헤만의 마스길) **오 주 내 구원의 하나님이며, 내가 밤낮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시편 88:1)**

(에스라 사람 에단의 마스길) **내가 주의 긍휼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신실하심을 내 입으로 모든 세대에게 알리리이다. (시편 89:1)**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주여, 주께서는 모든 세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시편 90:1)**

시편의 첫 제목들에 나오는 깃뒹, 마스길, 식가욘, 믹담, 느기눗, 스미닛, 못라벤, 소산넌, 알라똣, 아엘렛 사할, 마할랄 르안눗 등의 단어들은 악기나 음



Good TV가 제공하는 흠정역(400주년판)과 개역개정 검색 서비스. ‘다윗의 시’라는 부분이 개역개정에는 없다.

악의 형식 등을 일컫는 약 13개의 음악 용어들인데, 정확한 의미가 알려지지 않은 것들이 많고, 크게 중요한 사항은 아니다.

한편 이 괄호 부분은 그 시를 짓게 된 배경도 더러 등장한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행동을 바꿀 때에 아비멜렉이 그를 쫓아내므로 그가 떠나면서 지은 시) **내가 언제나 주를 찬송하리니 그분을 찬양함이 계속해서 내 입에 있으리이다.** (시편 3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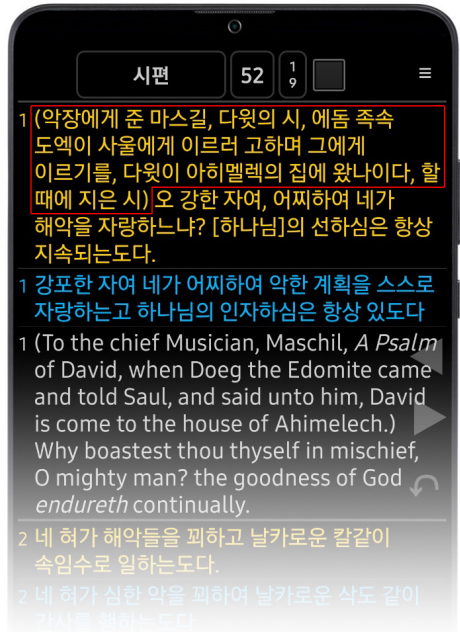
(악장에게 준 다윗의 시, 그가 밧세바에게로 들어간 뒤 대언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에 지은 시) **오 하나님여, 주의 인자하심에 따라 내게 긍휼을 베푸시고 주의 친절한 긍휼의 풍성하심에 따라 내 범법들을 지워 주소서.** (시편 51:1)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을 피해 도망

할 때에 지은 시) **주여, 나를 괴롭히는 자들이 어찌 그리 많게 되었나이까! 나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들이 많으니이다.** (시 3:1)

이런 정황을 통해 성경 속 사건들의 실재성과 시점을 더 생생하게 이해하게 되고, 기록자의 마음과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 성경의 각 책들은 기록자의 서문 같은 기록 배경과 시점, 기록자 소개, 동기 등이 간략하게라도 나온다.

한편 제삼십년 사월 곧 그달 오일에 내가 그발 강가에서 포로들 가운데 있을 때



LiFove 바이블 앱으로 본 시편 52편. 흥정역에는 기록 배경이 있고, 개역한글에는 없다.

하늘들이 열리며 하나님의 환상들이 내게 보이니라. (겔 1:1)


브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주의 말씀이라. (욘 1:1)

그러나 시편은 바로 본문이 시작된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의 계획대로 견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시 1:1)

그러므로 괄호 안의 내용은 각 장의 시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물론 이 가이드 부분은 성경 본문이 아니고, 필수적이거나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겠지만 기록 배경을 알면 성경이 훨씬 머릿속에 일목요연하게 인식될 수 있는 것은 틀림없다.

성경 번역에는 성경을 사랑하고 아끼는 것을 넘어 전달력을 높이고자 하는 열정과 의지가 있어야 한다. 킹제임스 성경은 어려운 라틴어로만 미사를 진행하고, 성경을 읽지도 번역하지도 못하게 하던 교황권의 폭정을 유일하게 대적할 수 있었던 왕의 명령으로 만든 것이다. 마치 한자를 몰라 큰 손해를 보던 백성을 위해 왕이 만든 훈민정음처럼 민초들을 위해 만든 성경이다. 그래서 시편 앞부분에 설명을 포함한 것도 작은 일이지만 성경을 사랑하고 전파하기 원했던 신실한 번역자들이 사명감을 갖고 독자를 위한 배려를 담아 옮긴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직도 악의적 유일주의 프레임 때문에 킹제임스 성경을 오해하는 이들이 있지만, 극단적 주장을 떠나 현존하는 어떤 성경보다 나은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조금이라도 더 나은 것을 선택한다면 손해보다는 유익이 훨씬 많을 것이며, 참고와 비교 사용만으로도 도움이 될 것이다. 

‘개혁성경’ 아니고 ‘개역성경’입니다만.

가끔 대한성서공회가 발간하는 한국어 성경을 ‘개혁성경’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있다. 처음 들어본 말이라서 아마 ‘개혁성경’이겠지 하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 심지어 목회자 중에도 더러 생소한 이들이 있는 것인지, 어떤 목사의 설교 PPT 자료에 ‘개혁성경’이라는 부분이 나오던데, 아마도 담당자가 자료를 만들면서 실수하지 않았을까 싶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일이다. 나 역시 수십 년 교회를 다녔어도 성경 이슈에 관심을 가진 뒤에야 ‘개역성경’이라는 말을 알았는데, 우리나라에서 ‘성경’ 하면 그냥 한 가지뿐이기 때문에 달리 구분할 명칭이 필요치 않았던 것이다. 기타 성경들, 새번역이니 공동번역, 현대인의성경 등등도 알고 있지만 그런 건 보통 쓰는 성경과 구분이 필요해서 언급하게 되는 것이고, 한국 교회의 공식(?) 성경은 개역성경이니 그저 ‘성경’ 이상의 이름이 필요 없었다.

그러다 보니 ‘개역’이라는 말은 생소한데 ‘종교 개혁’ 생각도 나고 해서 으레 개혁성경일 거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개역(改譯)’이란 개선한 번역이라는 뜻이며 대한성서공회의 역사에 따라 시대별 성경의 명칭들이 있지만 그 기관에서 나온 한국인의 보편적 성경을 통틀어 대개 ‘개역성경’이라고 부른다.

대한성서공회는 이전까지 한글 표기법이나 용어가 다른 성경들을 개역해 1938년에 내놓았다. 이때 이후로 모든 성경은 개역성경이라고 보면 된다.

1938년에 신약까지 개역을 완료하여 「성경 개역」으로 출판하였다. 구약은 1911년부터 1937년까지 26년 동안 개역 작업을 하였고, 신약은 1926년에 시작하여 1937년에 끝나쳐 12년 만에 마무리되었다. ‘개역’이 출판되면서 그 이전의 1911년 번역을 ‘구역’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대한성서공회

이 성경은 필요에 따라 조금씩 개정되어 명칭과 발간 시점들이 무척 복잡한데, 우리가 과거에 써 온 성경은 1961/1962년판으로 2011/2012년에 저작권이 만료되면 누구나 인쇄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때 지금의 ‘개역개정판’이 보급되었고, 이전 판은 저작권 프리가 됐지만 아무도 그걸로 인쇄해 판매하거나 활용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 이미 전 교단이 새로운 판으로 바뀌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성서공회가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는 한글 성경 (출처 : 대한성서공회)

| 구분 | 처음 발행일 | 지적재산권 보호 기간 |
|------------------|---------------|--|
| 성경전서 개역판글판 | 1961년 7월 10일 | 2011년 12월 31일 소멸 |
| 관주성경전서 개역판글판 | 1962년 5월 10일 | 2012년 12월 31일 소멸 |
| 관주성경전서 간이국한문 | 1964년 11월 30일 | 2014년 12월 31일 소멸 |
| 공동번역성서 | 1977년 4월 10일 | 과거 저작권은 50년이었지만 현재 저작권의 보호 기간은 공표된 때부터 70년임. |
| 성경전서 표준새번역 | 1993년 1월 30일 | |
| 성경전서 개역개정판 | 1998년 8월 31일 | |
| 공동번역성서 개정판 | 1999년 12월 20일 | |
| 성경전서 새번역 | 2001년 11월 10일 | |
| 개정 관주성경전서 개역개정판 | 2002년 9월 10일 | |
| 관주성경전서 국한문 개역개정판 | 2009년 1월 10일 | |

오직 이단 신천지 같은 곳에서만 개정된 성경이 자신들이 그간 가르쳐 온 갖가지 교리를 지지하지 않으니 굳이 새 판을 거부하고 2012년 이전의 개역한글

판만 고집한다.

1998년부터 개역성경을 교정한 개역개정판 성경들이 출간됐지만 흔히 개역 한글판과 개역개정을 다르게 부르는 것은 2012년을 경계로 한다고 보면 된다. 그때 개정된 단어들이 생소하고 교리적으로 어색해서 일부 개신교단에서도 이전 판을 다시 사용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여러 이유로 통일할 수밖에 없어서 흐지부지된 것으로 안다. 더욱이 이전 판은 신천지 같은 데서 쓰는 성경이라는 낙인 효과까지 생겨 버렸지만 그거나 그거나 오역이 워낙 많고 누락도 많아서 도긴개긴이긴 하다. 사실 개역개정판에서 현저히 고쳐진 것도 없다.

안타깝게도 대다수의 기독교 이단들은 개역성경에 기생하고 있다. 귀신론 같은 것은 대표적인 사례다. 개역성경에서 '귀신'으로 번역한 단어 devil은 다마귀의 줄개들인 부정한 영인데, 한국인은 당연히 '죽은 사람의 넋'이라는 의미로 이해하다 보니 무수한 이단 교리를 낳았다. 이단이 아닌 기성 교단에서도 매우 많은 잘못된 교리가 통용되고 있다, 이 엄청난 책임을 하나님 앞에서 감당할 수 있는가?

한편 하나의 성경으로 전국을 통일하는 문제도 생각해 봐야 한다. 그 성경이 전통적으로 검증되어 이견이 없는 것이면 몰라도 이토록 오역 논란이 있는 것이라면 문제가 있다. 무엇이든 경쟁도 하고 토론도 이루어져야 어느 것이 나은지 알 수 있고 더 연구도 하기 마련인데, 하나만 봐야 한다니... 무엇이 틀렸는지도 모르고, 그 한 가지 안에서 억지로 교리를 만들고 이해하며 설득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 구절은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이런 단순한 오역도 고치지 않는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힘들다.

내 살갓이 없어진 뒤 벌레들이 이 몸을 멸할지라도 내가 여전히 내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욥기 19:26, 흠정역)

And though after my skin worms destroy this body, yet in my flesh
shall I see God: (KJB)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욥기 19:26, 개역한글/ 개역개정)

And after my skin has been destroyed, yet in my flesh I will see God; (NIV)

and after my skin has been thus destroyed, then in my flesh I shall see God, (NRSV)

‘육체 안에서’를 왜 개역성경만 ‘육체 밖에서’로 번역했는지, 왜 그간의 개정 작업에도 고치지 않았는지 모르겠다. 여러분은 명문대 같 실력이 되는 자녀의 수능에 이런 문제가 지문으로 나와서 한 문제를 틀린다면 가만히 있겠는가? 이 구절은 주님의 재림과 우리 육신의 부활에 관한 중대한 구절이다. 도대체 육체 밖에서 무엇을 한다는 것인가.

이 밖에도 무속적 표현들이 이단 사이비의 양분이 되기도 하고, 문해력이 떨어지는 단어 선택으로 교리적 오해를 양산하고 있다. 삭제와 과도한 축약은 더 큰 문제를 낳기도 한다. 개역성경은 많은 장점이 있는 한국 교회의 유산이라는 점에 반대하고 싶지 않지만, 그런 위상에 걸맞은 정확성과 권위가 반드시 필요한데, 참으로 아쉽다는 이야기다.

그러면 이렇게 반문할 수 있다.

“애초에 이 성경밖에 없어서 사용한 것인데... 그리고 여러 성경이 나온 지금도 모든 교단의 모든 교회가 개역성경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정통성이나 정확성이 확보된 것 아닌가?”

성경이 하나밖에 없어서 사용한 것도 맞는 말이고, 그래서 익숙한 것도 당연하다. 하지만 다른 성경이 사용될 여지를 막은 것도 대한성서공회다.

흠정역 400주년 기념판이 나왔을 때, 모 기독교 언론에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자 대한성서공회 측에서 흠정역을 삭제하면 개역성경의 저작권료를 면제해주겠다는 제안을 한 적도 있었다. 왜 그랬을까? 왜 굳이 꽤 큰 손해를 감수하면서 시장 점유율 면에서 상대가 안 되는 흠정역의 서비스를 막으려 했을까?


흠정역 사용자가 많아지는 것이 싫었을까, 두 성경을 비교하게 되는 것이 불편했을까.

성경은 공짜로 누구나 사용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개역성경의 저작권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이며, 가만히 있어도 돈이 들어오는 수익 구조다. 찬송가도 비슷하다. 짚끔 몇몇 단어들을 고쳐 놓고 새로운 판으로 내놓아 다시 저작권료를 챙긴다 그렇게 이권이 걸려 있다 보니 탈세 등의 문제가 터지는 것이다.

현재까지 대한성서공회가 발행한 성경은 개역성경 외에도 공동번역, 표준새번역 등등이 있다. 공동번역이란 천주교와의 공동 작업을 뜻한다.

흔히 프리셋트, 아가페, 라이프 등등 성경 브랜드들이 있는데 이들도 상당한 저작권료를 대한성서공회에 지불하고 성경을 출판하는 것이다. 또 어떤 업체가 성경 검색 기능을 제공하거나 성경 앱을 통해 본문을 제공하고 있다면 그 역시 적지 않은 돈을 내고 있는 것이다. 번역하고 관리하는 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받는 것까지는 당연하다고 할 수 있지만 저작권 만료 전에 굳이 급조한 새 성경을 내고 성도들이 어떤 연구나 합의에 도달하기도 전에 전 교단이 사용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것은 좀 씁쓸하다.

개역성경은 영문 이니셜이 KRV(한글개역판, Korean Revised Version)인데, RSV, NRSV 등의 영어 성경과 같은 맥락이다. 고칠 필요가 있는데도 요지부동으로 시장을 독점한 채, 외쳐도 듣지 않고 경쟁과 도전을 외면하면서 기득권을 지키는 데만 골몰하는 것은 더 나은 말씀을 공급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는 일이다. 대한성서공회가 성경 보급에 많은 힘을 쓰는 것도 알지만 더 우선시해야 할 것은 사람을 향한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바르게 다루는 일이다.

아무튼 개혁성경 아닌 '개역성경'이 개신교에서 거의 공식 성경으로 사용하고 있는 역본의 이름이다. 하지만 정말이지 개혁이 필요한 성경이다. 제발 고칠 것을 고치고, 삭제한 부분을 되돌린 '개·혁·성·경'이라도 나오면 좋겠다. 



Reading the Bible with Literacy

부록

표준역 이슈

새로운 한국어판 킹제임스 성경의 딜레마
하나님께 2인칭 '당신'을 사용할 수 있는가?

새로운 한국어판 킹제임스 성경의 딜레마

성경 전쟁과 번역 논쟁

내 신앙과 지식은 킹제임스 성경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 아마도 바이블 빌리버들은 나와 똑같은 생각일 것이다. 바이블 빌리버(Bible believer) 혹은 비블리시스트(Biblicist)란 성경이 오류 없이 완성된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이며, 그것을 하나님이 보존해 주셨고 끝까지 지키심을 문자적으로 믿는 사람이다. 현존하는 보존된 성경이란 대개 킹제임스 영어 성경(KJB 1611)을 말한다.

나는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을 통해 많은 것을 얻었고 또 배웠다. 기성 교단에서도 많이 배웠겠지만 지금 내가 말하고 쓰는 거의 모든 것은 흠정역 이후에 안 것들이다. 그 이전의 것들은 어디서나 배울 수 있는 지식이라 굳이 애써 전할 필요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덕분에 디자이너이자 일러스트레이터이면서 수필과 웨딩 칼럼 등을 쓰던 문화 사역자 출신인 내가 갖가지 분야의 성경 지식을 다루는, 속된 말로 ‘팔자에 없는’ 기독교 작가를 겸하게 됐다.

물론 나는 장로교와 감리교를 거쳐 지금은 사정상 30년째 성결교단의 교회에 출석하고 있지만, 나처럼 자기 자리에서 킹제임스 성경을 알고 공부하는 사람들은 많다. 아예 이쪽 진영의 독립교회로 옮기고자 하는 사람도 많아서 전국에 많은 독립교회가 세워졌다. 그래도 아주 소수이며 수천 명 수준일 것이

다. 교회는 옮기지 않고 킹제임스 성경을 믿거나 자주 참고하며 연구하는 사람들까지 다 해도 수만 명에 불과할 것 같다.

사실 기성 교계의 많은 지식들도 다 뿌리는 비슷하다. 킹제임스 성경은 최초의 유일한 영어 신구약 전서이며, 종교 개혁자들부터 모든 목회자와 신앙인이 사용한, 지금까지도 가장 우수한 성경이기 때문에 교리의 뿌리가 같을 수밖에 없다. 그러다가 20세기 들어서 본격적으로 현대 영어 역본들이 나왔다. 그러나 그것은 옛 신앙인들이 쓰던 내용이 아니며, 소수만이 채택하던 로마 가톨릭 사본에서 번역한 것으로 많은 부분이 성경 비평학자들에 의해 삭제되고 변경됐다. 안타깝지만 한국어 개역성경은 이쪽 계열이다.

킹제임스 영어 성경이 가장 좋은 역본이라는 것은 대다수의 목회자와 크리스천이 인정하는 사실이다. 그런데 이 성경을 믿는 사람과 그저 인정하고 참고하는 사람의 차이는 이 성경을 하나님이 보존하신 최종적 권위를 지닌 성경으로 보느냐에 달려 있다. 하나님은 말씀이 주어지는 시대의 백성이 읽을 수 있도록 각각 히브리어와 그리스어(헬라어)로 성경을 주셨고, 거의 아무도 이 두 언어를 알 수 없게 된 중세 암흑시대에 일반인들의 언어로, 세계 공통어로 자리매김하던 영어로 신구약 모두를 보존해 주셨다고 믿는 것이다.

물론 하나님의 영감은 원본에 있지만 누락 없이 제대로 전달했다는 뜻이다. 그 증거로, 활판 작업상의 사소한 오타자 수정 외에는 1611년부터 400년 넘게 어떤 개정도 없었던 것을 꼽는다. 아무튼 히브리어와 그리스어를 읽어 나갈 수 없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준으로서의 성경이 킹제임스 버전이라고 믿는 것이다.

한국에서의 킹제임스 운동

국내에서는 킹제임스 성경의 번역이 약 30년 전부터 이루어져 지금은 네댓 개의 번역본들이 나와 있다. 출간순으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 ① 한글킹제임스 성경(1994, 말씀보존학회)
- ② 킹제임스 흠정역(2000, 그리스도예수안에)
- ③ 킹제임스 표준역(2022, * 윤경원)
- ④ 킹제임스 근본역(2023, 한국성경선교회)

이밖에도 더 있지만 현재 구할 수 있고 사용자가 있는 것은 이 정도다. 번역본은 있으나 출간되지 않은 것, 그리고 성경으로 출간했다가 스스로 절판한 사례도 있다. 이중 시장 점유율 면이나 활용도 면에서, 또 독자들의 평가 면에서 흠정역은 압도적이고, 가장 완성도가 높다.

제일 먼저 나온 **한글킹제임스**는 이 이슈를 처음 들여온 공로가 있고, 나름 좋은 성경이지만 킹제임스 성경만을 번역했다기보다 원어와 다른 역본들을 참고한 성경이므로 킹제임스 한국어 성경의 취지에서 벗어난다고 할 수 있다. 이곳에서 나온 사람들이 흠정역 번역에 기여했기 때문에 단어들도 비슷한 경우가 있지만 현저히 다른 성경이다. 또 다른 좋은 성경이 나오면 기뻐해야 하건만 한글킹제임스 쪽의 일부 사람들은 흠정역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며 방해하기도 해서 안타깝다.

한킹(한글킹제임스)은 다소 과도한 행보로 기존 교단에서 억울한 이단 시비가 있었고, 흠정역도 마찬가지로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성경을 번역한다는 데 도대체 무슨 이단이라는 것인가. 이 성경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등 모든 신앙의 족적에 함께한 성경인데 말이다. 교리도 마찬가지다. 어떤 것도 이단성이 없는 옛 신앙의 길이다. 로마 가톨릭과 가까운 교단들이 보면 조금 낯설 뿐이다.

킹제임스 흠정역은 이런 시비 때문에 더 많이 알릴 수 있는데도 소극적으로 홍보할 수밖에 없었고, 생명의말씀사에만 총판을 맡겨 판매하고 있다. 이제는 대표적 성경 출판사 10곳 안에 꼽힐 정도로 스테디셀러가 됐다.

* 그러나 실제로 표준역이 본격 이슈가 된 것은 3판으로 근본역 이후의 일이다.

흠정역이 여기까지 오는 데 주 번역자(정동수 목사)의 놀라운 집중력과 추진력과 헌신은 말할 것도 없고, 많은 이들의 조력과 수고가 더해졌다. 2008년 즈음 이 성경을 알게 되어 합류한 나는 흠정역 5판에 해당하는 400주년 기념판(2011)을 교정해 새로 만드는 과정에서 생긴 위원회에 옵서버로 참여해 수정한 부분의 우리말 바꾸기를 맡아 전체적으로 살펴보았었다. 대단한 것은 아니고 개정된 구절들에서 어색한 표현은 없는지, 빠진 단어는 없는지 다른 전문가 한 분과 반씩 나눠서 보고, 또 서로 바꿔서 전체를 본 것이다.

덕분에 400주년판이 태동한 첫 모임부터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그 모임 때 이견을 보이면서 합류하지 않기로 한 목회자들이 근본역을 만들었다. 흠정역은 그 이전에 신약만 완역된 권위역 번역 작업이 중단되면서 이후로 나온 것인데, 여기 참여했던 정동수 목사가 주 번역자로서 사실상 대부분의 방대한 작업을 진행했고, 특히 400주년판 이후의 마제스티 에디션은 거의 독자적인 교회 사역으로 완성했다.

흠정역 마제스티 에디션(2021)의 평가는 이전 판보다 낫다는 의견이 중론이다. 다만 입에 익은 표현들이 개정된 부분이나, 쉬운 표현으로 바뀌면서 생긴 운율에 익숙하지 않은 점 등은 아쉽다는 이들도 있다.

그런데 다른 곳에서 성경이 하나 나올 때마다 킹제임스 성경 사용자들은 크게 요동한다. 흠정역도 한킹과 말씀보존학회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사실상 그쪽은 엄청나게 분열되고 흩어질 정도로 많은 세력도 아니었고, 움직이는 사람들을 오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더욱이 처음부터 흠정역에서는 말보회의 한글킹제임스를 비방하지 않았다. 대한성서공회의 개역성경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단어들을 바로잡는 설명을 한 것뿐이고, 그조차 앞서 번역을 잘못해 놓은 로마 가톨릭 계열의 소수 본문과 그것을 채택한 현대 영어 역본들의 문제를 미국에서 하는 식으로 바로잡는 과정이었다.

한국인에게는 현대 역본 계열의 개역성경만이 성경인 줄 알고 있고, 흠정역

사용자를 비롯한 모든 신앙인이 그 성경을 써 왔으니 한국어 단어를 바로잡으려면 개역성경 비판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흠정역은 한국에서 개역성경의 기여와 공헌을 우선 인정했고, 성경 자체를 폄훼하려는 것이 아님을 가장 먼저 천명했다. 특히 어떤 성경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식의 극단적 주장은 잘못된 것이며, 우리 모두 이 성경을 알기 전에 구원받았음을 잊어서 안 된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그렇게 꽤 많은 이들이 모였지만 여러 문제로 흩어지기도 하면서 전국에 흠정역 독립교회들이 생겨났다. 그 교회들은 성경 문제가 아닌 다른 이유들로 흩어진 경우가 대부분인데, 개중에는 사람이나 시스템에 실망해 성경까지도 버리거나 예전에 쓰던 것으로 돌아가는 이들도 있었다.

흠정역 성경 역시 일부분에 불만을 지닌 사람들이 늘 있었다. 영어 성경에는 다 동의를 한 사람들이지만 그밖의 언어로 재번역할 때는 반드시 이견이 생긴다. 어법, 어순, 시제, 단복수, 인칭, 조사, 단어가 지닌 뉘앙스까지 다 다른 언어인데 어떻게 하나로 일치가 되겠는가. 이것을 어떻게든 최대한 맞추려고 애를 쓰지만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는 법이다. 킹제임스 영어 성경도 주교들과 청교도 사이에서 치열한 토론 끝에 탄생한 것으로, 엘리자베스 여왕이 물려준 제임스 왕의 왕권이 아니었다면 배가 산으로 갈 상황이었다.

언어의 보편성이라는 중대한 잣대

그런데 흠정역을 즐기치게 사용하면서도 이 부분은 원래 이게 아니다, 이 부분은 잘못 번역했다 하는 주장을 해 온 사람들이 있다. 그들의 말을 들으면 진짜 그런 것 같다. 일부 설득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그런 문제들은 여러 번 주 번역자에게 건의가 되고 토론이 된 부분인데 검토해서 반영이 안 된 것뿐이다. 번역자의 설명을 들으면 왜 그렇게 번역했는지 수궁이 가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해당 단어나 구절의 교리나 문법적 견해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성이 차지

않을 수밖에 없다.

꼭 틀려서가 아니라 둘 다 가능한 번역이지만 견해 차이로 채택하지 않은 것들도 있다. 이른바 ‘오역(誤譯)’이 아니라 ‘이역(移譯)’이라고 할 수 있는 문제들이다. 이런 것을 자꾸 틀렸다고 자기 주장을 하며 뒷담화하면 자신이 쓰는 성경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일인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물론 자기 양심에 받아들일 수 없어서 그런 것은 이해하며, 성경이 번역돼서 나오면 그때부터는 일종의 공공재이므로 소비자들이 활용하고 논쟁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다만 성경은 문학 작품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의 권위 자체를 훼손할 수 있으니 좀 더 신중한 접근과 표현이 아쉽다는 것이다.

또한 영어 킹제임스는 번역본일 뿐 이것까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모든 번역본에도 하나님의 영감이 전달되고 전이되는 것이지만 최초 영감은 원본과 원어에 있다고 해야 한다. 킹제임스 성경도 원어와 구조가 비슷하지만 어법 차이로 일부 조사와 동사를 추가하고 그 부분을 이탤릭체로 표기한 것처럼 A부터 Z까지 그대로 옮길 수 있는 언어는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킹제임스 성경을 숭배하다시피 해서 영어를 만능으로 여기는 이들은 이 성경에도 하나님의 영감이 임했으며, 심지어는 원어보다 낫다는 과도한 주장까지 한다. 우리가 이해하기에 더 나은 것이지, 말씀의 순수성이 더 나올 수는 없는 것인데 말이다.

이 같은 영감론에 동의하는 **표준역**이라는 새로운 한글판 킹제임스 성경에 대한 논란이 최근에 있었다. 이미 가장 뜨거운 논쟁은 지나갔지만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일단은 성경을 번역하는 일이 쉬운 것은 아니므로 그 노고를 응원하는 마음이다. 다만 기존 킹제임스 성경을 비판 또는 비방하면서 홍보하는 것은 좀 아쉬웠다. 번역의 질에 대해서는 독자들이 판단하게 좀 기다려야 한다. 다시 말하지만 과거 그리스도예수안에는 흠정역을 홍보할 때 어떤 다른 킹제임

스 번역본에 대해 비방하거나 비교하면서 마케팅을 하지 않았다. 영어 현대 역본의 문제를 말하고, 그것과 같은 계열이라서 ‘없음’이라는 부분이 등장하는 개역성경과 간접적으로 비교하게 되었을 뿐이다. 개역성경은 시장에서 싸움이 안 되는 독보적인 성경이라 위협적으로 보일 거라는 생각 자체를 못한 면도 있었을 것이다.

표준역 측은, 흠정역이 같은 다수 본문 계열인 것은 물론, 영어 번역의 이견에 불과한데 그것을 여러 부분에서 잘못 번역했다고 지적했다. 그냥 자기들의 성경이 이런 점에서 우수하다고 광고했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비교하지 않고는 차이를 보여줄 수 없었을 테니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이해하지만, 말보회의 ‘한킹’과 그리스도예수안예의 ‘흠정역’을 특정해서 보여 주면서 마케팅을 한 것은 생각이 짧은 행동이었다.

그래서 표준역을 선호하는 분들이 그쪽으로 옮겨 가는 일이 발생했는데, 문제는 그들 중 적지 않은 수가 흠정역 쪽에서 겪은 갈등이나 주 번역자에 대한 불만 등을 이유로 그렇게 한 것 같이 보인다는 것이다.

교리 문제나 번역 방식이 좋아서 간 분들이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검증하기에는 시간이 턱없이 짧았는데도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것은 매우 의아한 일이다. 조금만 살펴보면 번역의 품질이 현저히 격차가 나는데 왜 그토록 빠른 결정을 했는지 모르겠다. 설령 부분적인 장점을 발견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비교해야 할 텐데 말이다.

표준역은 직역하는 과정에서 생긴 어색한 부분이 많아 보인다. 성경에 있어서 ‘보편성’이란 매우 중요한 잣대다. 반대 개념인 상대주의는 ‘자기 눈에 옳은 것’이며 각자 생각대로 행하는 것이다. 일부만 수긍하는 말이나 사변, 궤변이 아닌, 누구나 수용할 수 있는 것이 보편성이므로 성경도 그리스도인들에게 보편적으로 수용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이 채택한 원어 ‘공인 본문’인 TR(*Textus Receptus*)의 또 다른 이름이 ‘다수 본문(수용 본문)’이

다. 1%만이 채택한 로마 가톨릭의 ‘소수 본문’과는 달리 대다수의 그리스도인에게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진 원어 버전이라는 뜻이다.

처음 한국어로 번역된 개역성경은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단어들이 많아도) 처음 나올 당시에는 그것이 보편적 문체였고, 그 문체가 한국 교회 신앙의 전통이 되어 보편성을 띄게 되었다. 그래서 이후에 나온 현대어 성경, 쉬운 성경 등등은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

한글판 킹제임스 성경들도 그 한국 신앙의 보편성과 보편적 언어를 무시할 수 없어서 구한말의 문체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 경전으로서의 장중함과 간결함, 그리고 권위가 느껴지는 것이 한국인에게는 개역성경이었기 때문이다. 흠정역도 구스를 에티오피아로, 바로(왕)를 파라오로 바꾸는 등의 변경 외에는 고유 명사를 거의 그대로 적용했다.

새로운 번역본이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

그런데 표준역과 같은 성경을 좋은 의도로 만든 좋은 성경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해도 심각한 딜레마가 있음을 말하고 싶다. 이것은 새로운 번역을 시도하려는 모든 이들이 명심해야 할 사항이다.

1. 흠정역 이후에 킹제임스 성경을 새로 번역하고자 하는 이들은 흠정역 번역에 문제가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흠정역과는 다른 번역본을 선보여야 하는데, 문제는 거의 베끼고 조금만 다르게 하면 무단 복제가 되고 저작권에 걸리게 된다. 그래서 **상당 부분 다르게 번역을 해야만 한다.**

2. 하지만 일부 못마땅하다 해도 **흠정역은 완성도가 상당히 높은 좋은 성경이다.** 오랜 세월 검증하고 다져진 것으로서 많은 논란과 공격을 버티며 꾸준히 시장을 확장하고 독자를 확보했다. 단지 번역뿐 아니라 바른 우리말을 위

해서도 국립국어원의 확인을 천 회 이상 거친 탄탄한 역본이다.

3. 그런데 흠정역에 만족이 안 돼서 새 번역을 내놓는 것이라지만, 이처럼 완성도 높은 성경을 많이 바꾸려면 새로운 단어를 도입하는 등 역지스러운 시도들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는 과정에서 보편성이라는 중대한 기준에서 점점 멀어진다.

4. 그렇게 ‘좋은 성경’을 다 뒤집어 놓으니 결국에는 ‘안 좋은 성경’이 탄생한다. 만일 대부분 그대로 두고 아쉬운 부분만 조금 바꿔서 낸다면 가장 좋았겠지만 1번의 이유 때문에 그럴 수가 없다.

5. 자신들이 만든 새로운 성경이 좋은 번역이라는 것을 입증하려면 비슷하게 참고한 부분은 감추고, 새로 번역한 부분을 내세워야 하므로 그 과정에서 또 다른 이견과 논쟁이 생긴다.

흠정역이 좋은 성경이면 안 좋은 성경이 탄생하는 아이러니... 바로 이런 딜레마 때문에 번역과 우리말, 보편성 등이 전체적으로 확보된 좋은 성경이 나오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설령 흠정역보다 더 나은 부분이 일부 있어도 훨씬 더 많은 부분이 개악될 수밖에 없다. 성경은 물론 이전 번역자들의 노고를 후대 사람들이 누리며 발전시키는 것이지만 현대에는 텍스트가 확정되면 지적 재산권이 생기고, 그것을 통해 저작물을 보호하고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남의 것을 상당수 카피해 엉터리 번역본을 내놓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생기는 일이다.

근본역은 1번 사항을 적극적으로 이행하지 않은 결과, 표준역보다는 나은 성경으로 평가받는다. 하지만 그럴 것이면 ‘굳이 새로운 성경이 필요했는가’

하는 딜레마에 봉착하며, 논란이 된 몇몇 황당한 번역과 책의 외형적 허술함은 너무 실망스럽다는 의견이 많다.

성경은 좋는데 번역자가 싫다?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은 번역자가 싫어서 성경도 싫다는 생각으로 떠나는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으로는 바른 판단에 도달할 수 없다. 배우자가 싫어서 이혼하면 함께 나온 자식도 문제아인가? 선생님이 싫으면 시험 때 정답도 선생님이 가르쳐 준 내용과 반대로 써야 할까? 착하게 살라는 말을 착하지 않은 사람이 하면 틀린 이야기가 되는가?

성경 번역에 있어서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다. 번역자도 나중에 상을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일 뿐, 사람의 부족함이나 호불호는 성경의 질과 무관하다. 흥정역을 통해 누린 엄청난 복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셨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성경을 지키는 일에는 성경 사역에 동참한 서로를 지키는 것도 포함된다. 아무리 세상 이념에 대한 시각이 다르고 가치관과 세계관이 일부 달라도 성경의 가치는 그 모든 것을 초월한다. 사람이 잘못을 했다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일이다. 물론 단순히 다른 성경이 좋아서 움직인 사람들도 있고, 그것은 어디까지나 양심의 자유이므로 탓할 일이 아니지만, 성경을 빌미로 주 번역자를 비방하는 일은 너무 의리가 없는 행동이라는 것이다.

성경을 기록한 무수한 사람들도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었다. 사도들을 포함해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해서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다. 제임스 왕도 모두가 좋아하고 칭송한 왕이 아니었다. 그는 교황이 가로막는 성경 번역을 가능케 한, 당시 하나님의 유일한 도구였다. 그는 교황 견제, 왕권 강화, 주교와 청교도들의 대립 해결 등 다른 목적으로도 성경을 편찬했다. 그리고 그의 말년은 쓸쓸하고 초라했지만 그 사실이 성경의 위상에 영향을 주지 못했다.

흡정역을 쓰면서도 못마땅해하던 이들 사이에서 늘 나오는 불만은 이것이 정동수 목사의 사역(私譯), 주로 혼자 해 온 사적인 번역이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흡정역도 400주년판 때 킹제임스 영어 성경처럼 공적인 위원회를 만들었던 것이다. 그런데 그런 불만을 품던 사람들 상당수가 윤경원 목사가 혼자 번역한, 그야말로 사역인 표준역으로 옮겨 간다는 것은 모순 아닌가? 그렇다고 표준역의 번역에 모두 동의하지도 않는 것으로 아는데, 상대적으로 온화해 보이는 그에게 가는 것은 평소 지닌 흡정역 번역자에 대한 불만 아니었는지 모르겠다. 아직은 불완전하지만 더 낮게 고쳐 나갈 수 있다고도 하는데, 자신들의 문법이나 교리적 주장이 반영될 것을 기대해서일까.

하지만 이과 출신에 토종이면서 유학파인 정 목사의 냉랭한 듯 굽힘 없는 기질이 흡정역의 탄생에 큰 역할을 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 말씀은 온정으로 주변 이야기를 다 반영해 주면서 하는 게 아니다. 또한 모든 번역은 **사적 번역**에서 시작했다. 마르틴 루터는 도피 중이던 바르트부르크 성의 골방에서 혼자 독일어 신약 성경을 번역했다. 존 위클리프의 번역이 윌리엄 틴데일에게 이어지고, 틴데일의 번역은 킹제임스 성경에 대다수 반영됐다. 왕적 권한이 없는데 공적 모임만 만든다고 일이 되는 게 아니다. 강력한 추진력과 리더십은 오히려 독재라는 불만을 낳아 모임을 와해시킬 것이 분명하다.

나는 더 잘할 수 있고, 교리도 영어도 더 잘 안다는 사람들에게 성경 번역은 꿈의 사역이다. 하지만 정말 바른 성경이 나오길 바라는 마음이라면 가장 완성된 성경을 도와 더 낮게 만들고 널리 알리는 일에 동참하면 된다. 자기 이름을 내서 최고의 번역본이라는 소리를 듣고 싶은 사람은 반드시 패배할 것이다.

그러나 표준역과 그곳으로 달려간 분들을 과도하게 비난할 생각은 없다. 이는 누워서 침뱉기요, 제살 깎아먹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최근에는 같은 킹제임스 번역본 간의 지나친 논쟁과 비판은 자제하자는 움직임이 있는데

전적으로 찬성이다.

이런 논쟁이 시작되면 다들 조금씩 흥분하고, 하루 종일 이 논쟁만 하려 드는 이들도 있다. 이번 사태도 몇몇 목회자들이 성급하게 처신하는 바람에 일어난 측면이 있다.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자신들이 사용하고 설교해 온 귀한 성경인데, 선불리 돌아서기 전에 그대로 사용하면서 아쉬운 점을 성도들에게 설명하는 등 보완해 나갔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다.

그렇다 해도, 기성 교단 중에 우리를 이단으로 걸어 넘어뜨리려 했던 자들도 있고, 끈질기게 음해하며 훼방한 자들도 있는데 같은 성경을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를 그보다 더 악마화하는 것은 생각해 볼 문제다. 이 문제를 두고 고소 이야기를 하는 강경파도 있지만 이런 일에 송사를 하는 것은 성경 사역에 도움이 되지 않을 일이라고 본다.

어차피 참된 것은 성도들을 통해 가려진다. 정경의 채택에 300여 년의 긴 시간이 걸린 이유는 교통수단과 느린 교류에 있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성도들이 내주하는 성령의 감동으로 참된 것을 더 많이 사용하고 필사하며 전파하면서 검증되는 과정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공회는 그것을 확정했을 뿐 회의를 거쳐 단순히 정경을 합의한 것이 아니다. 수준에 못 미치는 성경은 다 찻잔 속의 태풍으로 지나가고 말 것이다.

개인적 결론은 이렇다.

1. 영어 성경은 킹제임스 성경과 다른 모든 성경으로 나뉜다.
2. 한국어 킹제임스 성경은 흠정역과 다른 모든 성경으로 나뉜다.
3. 탄탄한 성경을 뒤엎어 새로운 역본을 만들면 부실한 성경이 탄생하는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다.
4. 번역한 사람이 싫어서 다른 성경을 택하는 일은 정당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

5. 성경은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성도(독자)가 판단한다. 시간이 지나면 일의 옳고 그름이 가려질 것이니 의연하게 지켜보자.

앞으로 이 일은 시간이 말해 줄 것이며 각각의 성경이 드러낼 것이다. 별다른 일이야 있겠는가. 늘 있는 이합집산이 성경을 매개로 (혹은 핑계로) 또 한 번 정치판의 정계 개편처럼 지형을 바꿨을 뿐이다.

사용하는 성경이 달라도 한 하나님을 추구하며 영원히 보존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자구 하나에 목매지 말고, 그것이 치명적인 오역이 아니라면 대승적인 차원에서 길게, 또 멀리 바라보며 대인배답게 행하며, 피차 작은 일에 목숨 거느라 큰일과 하나님의 뜻을 놓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나는 일종의 야인이며 미약한 사람이지만 소신대로 걸으며 바른 성경을 지키는 일에 작은 힘을 보탬 것이다. 📖

하나님께 2인칭 ‘당신’을 사용할 수 있는가?

한국어에서 ‘당신’은 동등한 대상에게 쓰는 말

영어에는 존중의 표현은 있어도 존댓말은 없다. 그래서 상대방을 가리킬 때는 부모에게도 you, 선생님이나 대통령에게도 you라고 하면 된다. 어린 꼬마가 왕에게도 you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어로 you를 번역할 때는 다양한 2인칭 대명사를 써야 한다.

너/ 자네/ 그대/ 당신/ 귀하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 각기 다른 단어를 써야 하는데, 이런 말들조차 쓸 수 없을 때가 있다. 바로 자기보다 윗사람이거나 격식을 차리는 사이일 때다. 그럴 땐 그냥 호칭을 쓴다. “네가 그랬잖아.” 이런 말도 “형이 그랬잖아.”, “대리님이 그랬잖아요.”, “선생님이 그러셨잖아요.” 등으로 쓴다. 한국 사람이면 누구나 아는 화법이다.

‘당신(當身)’이라는 호칭은 대등한 관계에서 존중하는 상대에게 쓰는 말이다. 부부는 동등한 인격이기 때문에 ‘여보, 당신’ 하게 되어 있다. 이른바 ‘하오’체의 존대 낮춤 화법으로 “나는 그렇소만, 당신은 어떠하오?” 이렇게 쓸 수 있

는 인칭 대명사다.

그런데 모르는 사람이나 서로 높여야 하는 대상에게 ‘당신’이라고 하면 예외에 벗어난다. 동등하게 맞먹자는 뜻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당신’은 모르는 사람과 싸울 때 자주 나오는 호칭이다. “당신 몇 살이야?”, “당신이 뭘데 끼어들어?”, “뭘, 당신???” 등등의 용례(?)가 있다.

물론 ‘당신’은 3인칭으로 쓰일 때도 있다. 극존칭으로 사용할 때다. 어릴 때 어른들이 나누는 대화에서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말이 이것이었다. 시어머니 이야기를 하다가 “당신이 잘 알아서 하시겠지.” 이런 식의 이야기를 들으면 ‘왜 여기 없는 분을 당신이라고 하지?’ 또는 ‘아니, 어르신한테 당신이라니...’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렇게 쓰일 때는 물론 ‘그분’을 높이는 말이다.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는 복음성가가 있었는데,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이런 가사다. 이를 두고 어떤 이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당신이라 부를 수 있느냐고 했고, 이걸 3인칭 극존칭이라 괜찮다고 했다. 하지만 원곡 영어 제목은 〈You are the King of Glory〉이므로 2인칭이다. 그래서 ‘주님은 영광의 왕’으로 바꿔 부르는 경우도 있었다.

하나님께도 ‘당신’을 쓴 표준역

그런데 문제는 ‘2인칭 당신’을 윗사람이나 신적인 존재에게 쓸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물론 사전적 의미로는 사용이 가능하지만 한국어 문화에서는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과거에 6선 국회의원이었던 민주당 이해찬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한 행사장에서 ‘당신’이라는 표현을 했다가 막말 시비가 붙었다. “이제 국정원과 단절하고 공정한 나라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야 당신의 정통성이 유지됩니다.” 이런 말이었는데, 격노한 여당 의원들에 의해 징계에 회부되기도 했다.

상대방이 없는 자리에서 쓴 말이라 3인칭 극존칭이었다는 공방이 있었고, 대

통령이 왕도 아닌데 국정 파트너인 야당의 중진 의원이고, 대통령과 나이도 동갑인데 2인칭이라 해도 그게 징계까지 받을 사안이나면서 온 나라가 시끄러웠다. 물론 이것은 본인이 없었지만 2인칭으로 한 말이라 할 수 있으며, 굳이 쓸 필요가 없는 감정 섞인 말이 분명하다. 요즘 같은 본격 막말의 시대에 들으면 별것도 아니지만 말이다.

‘당신’을 2인칭 존칭으로 쓸 수도 있다. 실제 대화에서는 아니고, 서간문이나 기념사, 수필 같은 문어체에서 “어머니, 당신의 사랑에 옵니다”, “스승님, 당신은 우리의 기둥이었습니다.” 하는 식의 표현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상대방이 있는 앞에서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

“목사님, 당신 말이 맞아요.”

“나는 학생이고, 당신은 선생님입니다.”

“중대장님, 일병 아무개 당신의 명령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은 없다. 특히 반대의 뜻을 말하거나 부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때는 더욱 그렇다.

그런데 킹제임스 표준역 성경을 보니 눈에 띄는 구절들이 있었다. 하나님께 2인칭 대명사 ‘당신’을 쓰고 있다. 유(you)에 해당하는 고어 다우(thou)를 ‘당신’으로 옮긴 것이다. 논란을 예상한 듯 표준역 서문에는 다른 성경들이 하나님을 당신이라 부르는 게 어색하다는 이유로 3인칭으로 바꿔 놓았다면서, 하나님을 상대로 당신이라는 표현을 원문 그대로 써도 아무 문제가 없고, 고려 한국어대사전의 용례에도 하나님을 당신이라고 부르는 대화가 제시되어 있다고 소개한다.

하지만 이 사전이 예로 든 문장 “주여, 당신을 온갖 피조물의 창조주라 부르 옵니다”라는 문장은 대화체라기보다는 문어체 표현이라 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종교를 언급하는 문학적 관점이다. 하나님과 마주 대하면서 당신이라 부

르는 것은 우리의 통념상 문법을 넘어서 어색하다.

이와 비슷한 예가 있다. 개역성경은 고유 명사에 ‘님’을 붙이지 않는다는 문법대로 “예수가 나시니라”등으로 번역했다. 흠정역은 “예수님이 태어나시니라”로 번역했는데, 문법을 몰라서가 아니다. 예수님께 님을 붙여서 틀렸다고 할 수 있을까? 표준역을 제외한 거의 모든 성경들은 하나님과 대화할 때 ‘당신’을 ‘주님’으로 번역했다. 표준역 번역자는 2인칭을 3인칭으로 바꿨다 주장하지만 “이거 당신 거예요?”를 “이거 아버지 거예요?”라고 말한다 해서 ‘아버지’라는 단어가 꼭 3인칭 역할을 하는 건 아니다.

표준역 이사야서 37장 20절에서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기도한다.

…땅의 모든 왕국들이 당신(thou), 곧 당신(thou)만이 주(LORD)이신 것을 알게 하소서. (표준역)

…땅의 모든 왕국들이 주(thou) 곧 주(thou)께서만 홀로 주(LORD)이신 줄 알리이다. (흠정역)

흠정역은 이렇게 번역하면서 당신을 ‘주’로 번역한 부분은 호칭을 나타내는 고딕이 아닌 명조체로 두었다. 어느 것이 더 나은지는 독자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두 곳도 아니고 많은 부분에 하나님과 예수님을 당신이라고 부르는 것은 읽기에 불편하고 송구한 마음이다. 참고로 천주교와 개신교에서 교회 일치(에큐메니컬) 운동의 일환으로 공동 구성한 한국 성서공동번역 위원회가 편찬한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했다.

…땅 위의 모든 왕국들이, 야훼(LORD)여, 당신(you)만이 홀로 하느님(God)이심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공동번역, NIV)

이렇게 하나님을 당신으로 번역할 만큼의 담력으로 웬만하면 그대로 옮긴

다는 표준역 이사야서 42장 17절을 보자. 이방인들이 우상에게 하는 말이 나온다.

“너희(ye)는 우리의 신들이라”

같은 2인칭(복수) 대명사인데 우상이니까 여기서는 ‘당신들’이 아니라 ‘너희’라고 되어 있다. 그들도 자기네 신에게 ‘너’라고 하지는 않을 텐데 말이다. 하나님까지 당신으로 번역할 정도의 고집스러움이 왜 지켜지지 않았는지 모르겠다. 덕분에 같은 영단어가 두 단어로 옮겨졌다. 어차피 한국어에서는 같은 말도 다르게 번역해야 함을 인정한 셈이다. 같은 2인칭 대명사를 썼지만 단어 자체는 두 개로 영어와 달라질 수밖에 없게 된다.

흥정역은 “**당신들은 우리의 신들이니이다**”로 번역했다. 어느 것이 자연스러운가. 하나님께는 2인칭 ‘당신’이지만 ‘주님’으로, 이방인이 그들의 신에게 하는 말은 ‘당신’으로 표현했다.

동일성, 일관성을 영어대로 다 지킬 수 있을까

물론 표준역은 킹제임스 성경의 영어를 그대로 번역하고, 무조건 빠짐없이 다 옮겼다는 성경이므로 you를 하나님이나 주님으로 하면 단어가 바뀌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표준역이 ‘당신’을 쓴다고 해서 단어 검색수에서 영어와 동일해지는 것은 아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은 같은 thou(you)를 써도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시는 말씀이니 표준역도 흥정역처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이다. 또한 표준역도 예외를 인정해서 “그가 그를 보았더라” 같은 문장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 “**율**이 그를 보았더라”로 표기하고 이탤릭체로 구분했다고 밝히고 있다. 하나님을 당신이라 부르는 부분도 이렇게 할 수는 없었을까?

아무튼 한국어의 특성을 고려해 ‘당신’을 ‘주님’으로 번역했다고 해서 그건 틀렸고, 한국어 어법을 무시해서라도 기계적인 번역을 한 표준역은 제대로라는 논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어차피 다 지킬 수도 없을 바에는 말이다.

이 문제는 번역자라면 누구나 고심했을 부분이다. 자신들의 서문에 적을 정도로 부담을 느낀 뒤의 결정이니 굳이 오류라고 할 생각도 없다. 문법을 택하느냐, 한국어의 특성을 택하느냐의 문제이기도 하다.

그러면 영단어를 대부분 그대로 살려야 한다는 표준역은 과연 정관사, 부정관사, 전치사 등을 모두 살렸을까? 그래서 검색을 하면 해당 단어들 각각 영어와 한국어에서 동일한 개수로 나올까? 다른 언어들끼리는 일단코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없다. 구글도 이렇게는 번역을 안 한다.

‘번역’이란 그 대본이 되는 원문도 이해하는 사람이 자국어로 보는 용도가 아니라, 원어를 전혀 모르는 사람도 충분히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여 구원받고 성경을 공부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는 작업이다. 영어 성경이 필요했던 이유도 히브리어와 그리스어, 그리고 로마 가톨릭의 라틴어 성경을 아는 이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우리말이 영어가 아닌데 그대로 번역하니 표준역은 짐승에게도 ‘그’와 ‘그녀’를 구분하고, 그냥 말해도 되는데 and를 없애면 안 되니까 ‘그리고’, ‘그리고’하느라 내용 이해가 안 된다. 그렇다고 모든 부분을 살려 놓은 것도 아니다. 그것은 문장이 아니기 때문이다.

성경에서 더하거나 빼면 안 된다는 말씀은 멀쩡히 기록해야 하는데 내용을 빼는 것을 뜻하는 것이지, 번역문을 읽을 사람들의 언어를 무시한 채 원래 언어를 그대로 옮기라는 의미는 아니다. 킹제임스 영어 성경에는 큰따옴표가 없는데 표준역은 현대 역본들처럼 대화체에 큰따옴표를 넣었다. 이런 것은 추가한 것이 아닌가?

킹제임스 성경의 완전함을 한국어에서 구현하려는 의지는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먼저 한국어 어법에 맞아야 한다. 원어 성경이 완벽한 것이라면 킹제임스 영어 성경은 완전한 성경이며, 한국어 킹제임스 성경은 온전한 성경이어야 한다. 물론 표준역 사용자들은 영어 성경도 영감을 받았다고 믿기 때문에 그대로 옮겨야 한다는 강박과 신념을 가지고 있겠지만 번역본에는 하나님의 영감이 전달되고 전이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17세기에 나온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았다는 믿음은 위험 소지가 있다. 아무리 좋아도 특정 번역본을 신봉하거나 그 언어를 숭배해선 안 되며 번역문이 될 언어의 문화와 통념을 무시해서는 좋은 번역을 할 수 없다.

당장 부모님이나 목사님이나 대통령에게 당신이라고 말할 수 없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 당신이라고 말하겠는가. 단어의 보존은 중요하지만 자구에 너무 집중하면 바리새인적인 모순에 빠질 수 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이야 같겠지만 그것이 우리말에서도 잘 드러나야 좋은 한국어 성경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흠정역 성경의 균형감을 높이 평가하고, 또 추천하고 싶다. 📖


여기까지 읽어 주신 독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책의 글들은 완벽하지 않고, 제가 놓친 부분이나 미흡한 점도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반박이나 보완의 논리를 지닌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책의 취지는 지식의 나열이나 생각의 표현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완전함에 대한 확신이며, 그에 관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옹호이자 주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존해 주신 진리의 말씀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 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신자들에게는 말씀을 전달하고 선포하는 것과 함께 또 다른 책임이 있습니다. 바른 성경을 지녔고, 또 믿고 있기 때문에 **행함과 실천에 대한 더 큰 문제의식**이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좋은 성경을 가졌다는 사실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저를 포함해 안타깝게도 지식에 대한 관심만큼 바르게 행하고 모범적으로 행하는 일에는 그 정도의 관심이 없고, 또한 소질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 대언의 말씀들을 읽는 자와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그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때가 가깝기 때문이라.” (계 1:3)

성경은 알고 마는 책이 아니며, 애지중지한다고 내가 변화되는 책이 아닙니다. 이제 읽고 듣고 믿는 것을 넘어 행하는 사람이 됩시다. 이것이 이 책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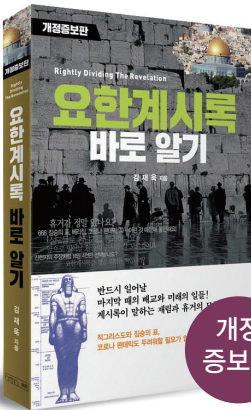
내가 왜 믿어야 하죠?

이 질문에 대한 가장 쉽고 명쾌한 대답 10가지
가족과 친구,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지만
마음처럼 되지 않았던 간절한 마음을 대신 전하는 책

개정판



● 김재욱 지음/ 15,000원/ 생명의말씀사



개정
증보판

요한계시록 바로 알기

반드시 일어날 마지막 때의 배교와 미래의 일들!
계시록이 말하는 재림과 휴거의 모든 것!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역사와 유대인의 성경적 정체,
제3성전, 휴거 시기와 7년 환난, 짐승의 표에 대한 분별,
신천지의 14만 4천 등 이단 4천 가지까지...

성도가 알아야 할 종말론을 업그레이드한 개정증보판!

● 김재욱 지음/ 440쪽/ 20,000원/ 하온



예수님의 천국 초대장

실버 세대에 전하는 친절한 구원 안내서

천하보다 귀한 당신의 행복한 노년을 위하여

● 김재욱 지음/ 12,000원/ 하온



교회사를 관통한 결정적 장면

기독교의 역사를 이끈 주요 뉴스 74

신약교회 사관으로 교회의 큰 흐름을 이해하다

● 김재욱 지음/ 정수영 목사 추천/ 13,000원/ 하온

추천 참고도서

●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

1.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한영대역, 스테디, 큰글자, 박사, 신약성경 등) 그리스도예수안에(www.KeepBible.com)
2. 킹제임스 성경의 역사 S. 김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3. 킹제임스 성경 답변서(구 '킹제임스 성경에 관한 100가지 질문과 대답') S. 김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4. 킹제임스 성경 입문서(구 '킹제임스 성경 길라잡이') B. 버튼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5. 킹제임스 성경 변호 E. 힐즈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6. 킹제임스 성경의 4중 우수성 D. 웨이트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7. 킹제임스 성경의 영광 T. 홀랜드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8. 개역성경분석 정동수 저, 그리스도예수안에(사랑침례교회 무료 요청)
9. 바른 성경과 바른 사본을 찾아서 K. 파이퍼 저, 이황로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10. 신약분석성경(한/헬/영 대역판) 송종섭 저, 신약원어연구소
11. 뉴바이블 송종섭 저, 신약원어연구소
12. 우리말 성경 연구 나채운 저, 기독교문사
13. New Age Bible Versions, Gail Riplinger(www.Chick.com 혹은 www.amazon.com)
14. Final Authority, William P. Grady(www.Chick.com 혹은 www.amazon.com)
15. Did the Catholic Church Give Us the Bible?
David W. Daniels(www.Chick.com 혹은 www.amazon.com)

● 천주교

1. 천주교는 기독교와 완전히 다릅니다 R. 존스 저, 정동수 박노찬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2. 천주교의 유래 R. 우드로우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3. 마틴 로이드 존스의 천주교 사상 평가 M. 로이드 존스 외,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4. 무엇이 다른가? F. 리테나워 저, 생명의말씀사
5. 교황 대신 예수를 선택한 49인의 신부들 R. 베넷 & M. 버킹엄 저, 이길상 역, 아가페
6. 종교에 매이지 않은 그리스도인 F. 리테나워 저, 정창영 역, 생명의말씀사
7. 무모한 신앙과 영적 분별력 맥아더 저, 안보현 역, 생명의말씀사
8. 로마 카톨릭 사상평가 로레인 비트너 저, 이송훈 역, 기독교문서선교회
9. 천주교도 기독교인가? 유선호 저, 하늘기획
10. A Woman Rides the Beast Dave Hunt(www.Chick.com 혹은 www.amazon.com)
11. Babylon Religion David W. Daniels(www.Chick.com 혹은 www.amazon.com)
12. Queen of All Jim Tetlow(www.Chick.com 혹은 www.amazon.com)

● 뉴에이지 운동

1. 천사와 UFO 바로 알기(구 '천사는 있다', 'UFO는 있다') 정동수 편역, 그리스도예수안에
2. 뉴에이지 신비주의 - 이교주의와 뉴에이지 운동의 현재 김태한 저, 라이트하우스

4. 뉴에이지 운동(IVP소책자57) D. 그릇하이즈 저, 김기영 역,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IVP)
5. 뉴에이지 운동(비교종교시리즈7) 론 로우즈 저, 은성
6. 뉴에이지에 대한 연구와 대책(울타리 문화교재시리즈6) 낮은울타리

● 오순절 은사 운동

1. 오순절 은사 운동 바로 알기 W. 유인 외,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2. 무질서한 은사주의 존 맥아더 저, 이용중 역, 부흥과개혁사
3. 사단은 성도를 어떻게 속이는가? 제시 펜 루이스 저, 전의우 역, 기독교문서선교회
4. 방언 정말 하늘의 언어인가? 옥성호 저, 부흥과개혁사

● 창조와 진화

1. 1318 창조과학 A to Z 김재욱 저, 생명의말씀사
2. 창세기연구(상,하) 헨리 M. 모리스 저, 전도출판사
3. 기원 과학 한국창조과학회, 두란노
4. 놀라운 창조 이야기 듀안 기쉬 저, 국민일보
5. 밝혀진 만물 기원과 창조 신비(창조과학시리즈1) 데니스 피터슨, 나침반
6. 숨겨진 공룡의 비밀 듀안 기쉬, 서용연 역, 꿈을이루는사람들
7. 자연과학과 기원 이용상 외 저, 한국창조과학회
8. 한 손에 잡히는 창조과학 이은일 저, 두란노
9. 가재 신비한 공룡의 세계로 폴 테일러 저, 송지윤 역, 꿈을이루는사람들
10. 고대 한자 속에 감추어진 창세기 이야기 벨슨 외 저, 전광호, 우제태 역, 기독교출판공동체
11. 심판대의 다윈 제2판 : 지적설계논쟁 필립 E. 존슨 저, 이승엽 이수현 역, 까치
12. 젊은 지구 J. 모리스 저, 홍기범 조정일 역, 한국창조과학회
13. 창세기에 답이 있다(구 '신앙 대 신념') 켄 함 & 폴 테일러 저, 한국창조과학회
14. 재창조는 없다 정동수 외, 그리스도예수안에(근간)

● 기타

1. 설교와 설교자 마틴 로이드 존스 저, 정근두 역, 복있는사람
2. 설교자는 불꽃처럼 타올라야 한다 김남준 저, 생명의말씀사
3. 청중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설교자 김남준 저, 생명의말씀사
4. 영혼을 인도하는 이들에게 주는 글 호라티우스 보나 저, 생명의말씀사
5. 월빙턴 종합성경연구 1,2,3 H. L. 월빙턴 저, 박광철 역, 생명의 말씀사
6. 하나님이 주신 보장된 삶 빌 길행 저, 유상훈 역, 도서출판NCD엔시티
7. 성경은 해답을 가지고 있다 헨리 모리스 저, 전도출판사
8. 마케팅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 옥성호 저, 부흥과개혁사
9. 심리학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 옥성호 저, 부흥과개혁사
10. 엔터테인먼트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 옥성호 저, 부흥과개혁사

개역성경에서 삭제된 구절들

| | 성경 구절 | 개역성경 |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 |
|----|----------|--|---|
| 1 | 마17:21 | (없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에 의하지 않고서는 나가지 아니 하느니라, 하시니라. |
| 2 | 마18:11 | (없음) |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구원하려고 왔느니라. |
| 3 | 마23:14 | (없음) |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이여,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과부 들의 집을 삼키고 위장하려고 길게 기도하니 그러므로 너희가 더 큰 정죄를 받으리라. |
| 4 | 막9:44 | (없음) |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
| 5 | 막9:46 | (없음) |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
| 6 | 막11:26 | (없음) | 그러나 너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범법 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시니라. |
| 7 | 막15:28 | (없음) | 이로써, 그는 범법자들과 함께 계수되었다. 하고 말하는 성경기록이 성취되 었더라. |
| 8 | 눅17:36 | (없음) | 두 남자가 들에 있을 터인데 하나는 붙잡혀 가고 다른 하나는 남겨지리라, 하시니라. |
| 9 | 눅23:17 | (없음) | (이는 그 명절이 되면 필히 빌라도가 반드시 한 사람을 그들에게 놓아주어야 하기 때문이었다.) |
| 10 | 행8:37 | (없음) | 빌립이 이르되,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하매 내 시가 응답하여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하고는 |
| 11 | 행15:34 | (없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라는 거기에 그대로 머무는 것을 기뻐하였으며 |
| 12 | 행28:29 | (없음) | 그가 이 말들을 하매 유대인들이 떠나 자기들끼리 큰 논쟁을 벌이더라. |
| 13 | 롬16:24 | (없음) |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
| 14 | 요일 5:6~7 | 6 ... 물과 피로 임 하였고 7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 6 이분은 물과 피로 오신 분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증언하시는 분 은 성령이시니 이는 성령께서 진리이시기 때문이라, 7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 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개역성경은 7절을 빼고 원래 6절의 전반부는 6절에, 후반부는 7절에 넣음.) |

표준새번역, 공동번역, NV, NASB 등도 위의 구절들을 빼거나 또는 원래 없는 것처럼 괄호나 각주 처리함.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마24:35)



KEEP BIBLE
무료 PDF 책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 소개



성경바로보기



요한계시록



9 788995 158784



03230

총판 : 생명의말씀사 www.lifebook.co.kr

www.KeepBible.com NAVER 성경자킴이

ISBN 978-89-951587-8-4

동서출판 그리스도 예수안에

값 8,000원

개역성경 분석

〈표준새번역·공동번역·NV·NASB 등 포함〉

성경은 단 두 종류뿐이다!!

당신의 성경은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인가?

육체 밖에서 **욥기 19:26** 육체 안에서

(없음) **사도행전 8:37** (있음)

집승의 혼 **전도서 3:21** 집승의 영

삼위일체 삭제 **요한일서 5:7-8** 삼위일체 하나님 있음

계명성 **이사야 14:12** 루시퍼

해골 **누가복음 23:33** 갈보리

당신의 성경, 어느 쪽인가?

왜 킹제임스 성경인가?



킹제임스 흠정역



마제스티 에디션

한영대역 관주성경 **스터디 바이블**
큰글자 성경 **작은 성경** **비교 신약 성경**



1611년 킹제임스 바이블
인류 역사 최고의 성경!

(없음)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

거대 로마 카톨릭 교회의 권력 하에서 중세 암흑시대를 살았던 민초들은 성경을 읽을 수 없었지만, 성경을 번역한 죄로 화형당한 선조들의 기도가 응답되어, 왕의 명령에 의해 탄생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난 400년 동안 세상을 비추는 **진리의 빛 1611년 킹제임스 영어 성경**. 이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이 있습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 원어의 단어들을 그대로 일대일 대응시켜 번역한 성경입니다.
- 지난 400년 동안 한 번의 개정도 없이 순수하게 보존된 성경입니다.
- 영어권에서 모든 성경과 모든 신학 서적의 표준이 된 성경입니다.
- 전세계 모든 성경 중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고 읽히고 번역된 성경입니다.

우리말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은

- 1611년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충실하게 번역한 성경입니다.
-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우며 운율이 유지되어 영감을 불러 일으킵니다.
- 용어 색인이 가능하도록 모든 중요 단어를 통일하였습니다.
- 역사성과 현실성을 인정하여 번역하였습니다.
- 원어와 영어의 감동 그대로를 전달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 **마제스티 에디션**은 30년 동안 번역/교정하여 완성한 성경입니다.



총판 : 생명의말씀사 www.lifebook.co.kr

본 출판사는 생명의말씀사 온라인서점에서 8대 성경 출판사로 곁이며, 흠정역 성경은 첫 출간 때부터 베스트 성경으로 자리잡았습니다.

바른 신앙을 위한 크리스천의 필독서!

성경 바로 보기 라킨 외/ 정동수 역

그림과 도표 등 알기 쉬운 자료들이 컬러로 수록된 책. 라킨의 책과 부록들로 성경 신자의 필수 지식을 담아 성경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는 책. 세대주의(경문)에 관한 책 합본.

구원 바로 알기 정동수

누구나 꼭 알아야 할 영혼 구원의 이유와 방법과 바른 구원에 관한 진리를 쉽게 설명한 책으로 불신자는 물론 구원의 개념이 명확치 않은 모든 크리스천을 위한 내용. 강의 MP3포함.

천주교 시리즈 3권 우드로우, 릭 존스, 로이드 존스 외

천주교의 유래/ 천주교는 기독교와 완전히 다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의 천주교 사상 평가

로마 가톨릭 교회에 대해 철저히 파헤치는 책으로 기원과 교리는 물론 장차 일어날 마지막 때의 일까지 알게 해주는 책. 3권 중 한 권만으로도 그 심각성과 문제점을 잘 알 수 있다.

킹제임스 시리즈 3권 사무엘 킵, 버트 외

킹제임스 성경의 역사/ 답변서/ 입문서

역사 : 성경의 기록과 보존 과정, 번역 과정, 번역상의 문제와 오류 등을 짚어 준다./ 답변서 : 100가지 질문과 답을 통해 킹제임스 성경의 오해를 풀고 왜 오류가 없는지 밝힌다./ 입문서 : 길잡이 역할, 흥정적 사용자들의 생생한 체험담 수록.

예수님의 피 바로 알기 레이시 외

레이시 목사, 디한 박사 등의 책이 합본으로 담긴 책. 피의 성분과 성경적 원리를 통한 구원의 놀라운 설리를 담은 책. 예수님 피의 복음이 왜 필요인지 알려주는 책.

천국과 지옥 바로 알기 레이시

레이시 목사의 천국 지옥에 관한 저서 2권 합본. 철저히 성경으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잘못된 개념 설명, 놀라움과 두려움을 넘어 희망과 소망을 주며 전도에 대한 위급함을 일깨우는 책.

천사와 UFO 바로 알기 정동수

천사와 네티림, 마귀의 천사들의 땅속 음모와 미확인 비행물체에 대해 속 시원히 풀어주는 흥미로운 책.

오순절 은사운동 바로 알기 유인 외

유인 목사의 저서와 부록들로 구성된 사도행전을 오해해서 생기는 은사운동의 양상과 폐해를 파헤치고, 체험 주의 은사운동의 신비함을 추구하는 이들에게 참된 믿음을 알려 주는 책.

행위 종교와 은혜 복음 짚은 외/ 고정인 역

모든 것을 끝낸 복음과 행위로 이루어가는 불완전한 종교를 대비하여 구원의 영원성과 완결성을 일러스트와 함께 설명한 책.

성경의 역사: 아담 속의 등불 핀토/ 정동수 역

성경의 언어, 성경의 영감, 그리고 성경의 보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우리의 손에 오기까지의 설리 등 성경의 모든 역사와 바른 성경의 뿌리, 기타 역본들의 실체를 한눈에 보여 주는 책.

이슬람교 바로 알기 클라우드 외/ 박용찬 외 역

테러와 우상숭배의 종교 이슬람의 정체 및 마지막 때의 역할을 분석한 책. 한국 이란교회회 이만석 목사의 글 등 부록에 수록.

죽음의 공포 극복하기 잭 맥엘로이

불신자들과 확신 없는 교인들에게 다른 종교들을 모두 비교해 기독교와의 차이점을 알리면서, 영혼을 온전히 살릴 수 있는 바른 주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변증한 책.

세상을 바꾼 책 킹제임스 성경(1611)

그리스도예수안에 편저/ 김용목 외 역

영어성경의 역사와 함께 킹제임스 성경의 탄생 과정을 소개한 다큐멘터리 영화를 지면으로 볼 수 있도록 소개한 책.

왜 안 하는가? 정동수

사도신경, 주기도문, 축도, 새벽기도, 통성기도, 구약의 십일조, 일천 번째, 열린 예배와 록 음악, 방언/신유, 축사 등을 신약교회에서 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한 책.

요한계시록 바로 알기 김재욱/ 정동수 책임감수

유대인의 역사, 세계 정세, 다니엘서 해석, 배교 현황 등을 통해 말세의 징조를 돌아보고 시각 자료를 통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도록 한 책. 바른 성경 해석과 비침 등 중말론 총정리!

재림과 휴거 시리즈 2권 모리스, 정동수 외

역사와 영원의 파노라마/ 바로 알기

창조과학의 아버지 헨리 모리스 박사가 성경을 추적한 종말 분석서와 재림과 휴거에 관한 기본 지식을 모은 두 권의 시리즈.

에스라성경사전/지도 2권 정동수 외

성경을 바르게 공부하는 데 필요한 용어 색인 사전, 낱말 풀이 사전, 다양한 지도 및 선도 등을 제공한다.

킹제임스 흥정역

한영대역/ 스티디 바이블/ 큰글자 성경

다른 한국어 성경들은 물론, 기타 킹제임스 한글 번역본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정확한 번역본 흥정역! 이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증인이 되고 있다. 한영대역은 영문 원본과 대조할 수 있고, 스티디 바이블은 에스라 성경사전과 지도 및 선도 등을 포함하고 있다. 큰글자 성경과 작은 성경도 있다.

박사 성경

현대 역본 성경들이 안고 있는 문제의 핵심은 번역의 대본인 본문이 킹제임스 성경, 루터 성경 등과 다르다는 데 있다. 박사 성경은 NIV같이 소수 사본에 근거한 신약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잘못되었는지 킹제임스 흥정역 성경에 표시하여 누구라도 문제를 쉽게 볼 수 있게 하였다.

비교 성경

이것은 한글 킹제임스 흥정역 성경, 개역성경, 영어 킹제임스 성경(KJV), NIV 신약 성경을 4개의 열에 병행해서 배열하여 누구라도 쉽게 4개의 성경을 비교/분석할 수 있게 한 성경이다.

개역성경분석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해 온 개역성경이 신학적으로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 주고 왜 킹제임스 성경이 하나님의 바른 말씀인가를 보여 준다.

Reading the Bible with Literacy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지속되나니

복음에 의해 너희에게 선포된 말씀이 곧 이 말씀이니라. (벤전 1:25)

KJV를 공격하고 폄하하는 분들의 대다수는 이런 자료들을 살펴보지도 않고 자신의 무지와 태만, 교만만 자랑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어떤 사람의 주장을 논박하려면 그 사람의 주장을 면밀히 조사하고 확인해야 하는데, 저명한 신학자들도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종종 보곤 합니다. 또한 이의를 제기할 때도 교양과 품격을 유지해야 하는데, 험기와 감정, 육신적인 언어, 폭언 등을 일삼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김재욱 형제님은 이 책에서 자세히 은혜롭게, 정확하게 밝히고 있어서 기꺼이 이 책을 추천합니다. - 이항로 목사(미국 West Coast Baptist College 신학 교수)

김재욱 형제님의 글은 통쾌할 정도로 성경 문해력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목차만 봐도 성경 문해력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주제들이 가득합니다. 이 책은 문해력 유지될 수준을 넘어 성도들이 단어나 문장의 깊은 뜻을 이해하여 단단한 음식을 소화시킬 수 있는 단계까지 가는 길을 보여 줄 것입니다. - 최육열 목사(강동성서침례교회)

이시대의 중요한 화두인 문해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확하게 기록된 글을 읽어야 한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더욱더 하나님께서 일점일획도 틀림없이 완전하게 보존해 주신 말씀을 통해 문해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이 책이 이 땅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훌륭한 길잡이가 되길 진심으로 기원한다. - 차한 박사(소아청소년과 및 응급의학과 전문의)

문해력이란 글을 이해하는 능력을 말하는데 기존 성경들은 기본 문법도 맞지 않고 오역된 곳들이 많아 이것들로 성경 문해력을 키우는 것은 심히 어렵습니다. 이 책에 기록된 김재욱 형제님의 글들은 성경기록에 대한 우리의 이해력을 넓혀 줄 것입니다. 이로써 에티오피아 내지처럼, “누가 나를 지도해 주지 않으면 어찌 내가 이해할 수 있느냐?” 하는 분들이 이 책을 읽은 뒤 성경을 잘 이해하고 바르게 성화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 정동수 목사(사랑침례교회, 인하대 학교 기계공학과 교수)



KEEP BIBLE
무료 PDF 책



킹제임스 흥정역
성경 소개



목회자·신대원생
무료 성경 증정



무료 설교
강해 노트

성경론

비매품